

碩士學位論文

朝鮮時代 陵墓碑에 관한 研究

- 京畿道 地方을 中心으로 -

1996 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李 敏 植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尹 慶 老

朝鮮時代 陵墓碑에 관한 研究

- 京畿道 地方을 中心으로 -

The study about the Reung-myo-bi(Royal Mausoleum
and civil grave stone)in Cho-sun Dynasty

- Mainly Kyoung-Ki province -

1 9 9 7 年 8 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李 敏 植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尹 慶 老

朝鮮時代 陵墓碑에 관한 研究

- 京畿道 地方을 中心으로 -

The study about the Reung-myo-bi(Royal Mausoleum
and civil grave stone)in Cho-sun Dynasty
- Mainly Kyoung-Ki province -

위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7 年 8 月

漢城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韓 國 史 專 攻

李 敏 植

李敏植의 文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8月 日

審査 委員長

尹錫曉



審査 委員

尹慶老



審査 委員

朴慶植



국문 요약

朝鮮時代는 朱子性理學을 國是로 闡明하여 국가 운영의 理念으로 삼고, 支配層 계급인 士大夫들이 被支配層인 農·工·商을 다스리던 兩班官僚制 社會였다. 사대부들은 治葬禮에 있어 儒敎倫理의 根幹이 되는 孝廉을 바탕으로, 禮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祖上들의 陵墓를 禮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한 형식에 맞춰 治葬하였다. 그 치장의 주요한 방법은 陵墓앞에 被葬者의 身分에 맞게 石物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그중에서도 陵墓碑의 立石이 가장 祖上의 德을 밝히고 顯揚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初期에는 주자성리학이 일부 先進的인 지식계층에 의해서만 理解되던 수준이어서 墓碑의 立碑도 이들에 의해 主導的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成宗代에 士林이 中央政界에 등장하면서 주자성리학의 理念을 實現하려는 勞力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退溪 李滉(1501-1570)과 栗谷 李珥(1536-1584)에 의해 주자성리학이 朝鮮性理學으로 深化發展되면서 고유 이념으로 토착화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조선성리학은 사회의 모든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력을 미치고 孝·顯宗代의 禮訟 論爭을 거치면서 深奧한 학문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선사회의 지도적 이념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일부 선진적인 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묘비의 입석도, 지배층 전반에 걸쳐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墓碑는 朝鮮初부터 墓表, 墓碣, 神道碑로 나뉘어 身分과 地位에 맞게 건립하였으나 한가지 통일된 名稱이 있지 아니하고 여러 異稱이 사용되어 자주 混同되어 왔다. 그래서 墓碑文의 撰者가 남긴 文集에서 選別한 墓碑文類의 名稱과 실제로 건립된 碑題을 비교 검토한 결과 墓表陰記, 墓碣銘并序, 神道碑銘并序가 각각의 가장 올바른 名稱임을 알 수 있었다.

墓表와 墓碣은 일반 士大夫는 물론이거나와 中·庶人層까지도 立石할 수 있었다. 그러나 顯宗代에 이르면 墓表나 墓碣에 官職을 허위로 기재하고 규모를 크게 하는 등 그 정도가 지나치자 朝廷에서 이를 조사하여 處罰하고 있다. 신도비

는 實職과 관계없이 贈職이 從二品 이상이어야 세울수 있었다. 이것은 각종 禮書에 나오는 司馬光의 品數別 廣記에 의거한 도덕적 의무였기 때문에, 어겨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 왕릉에도 健元陵이후 신도비를 건립하였으나 文宗代부터 王의 행적은 國史에 실려있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陵表로 대신하게 되었다.

조선 초·중기에는 여러 樣式이 사용되었으나 가장 널리 愛用된 樣式은 碑座 螭首였다. 18世紀 후반부터는 거의 碑座蓋石만이 사용되었는데 이 양식은 조선의 石碑를 대표하는 典型的인 것이었다. 螭首는 雲龍紋이 가장 대표적이나 雲紋과 荷葉도 자주 사용되었고 간혹 朱雀이나 麒麟도 보였다. 龜趺는 王陵이나 大臣들의 神道碑에서 주로 利用되었는데 初期에는 사실적이다가 점점 장식화 되어갔다. 碑座는 四面에 眼象, 花紋 등을 새겼고 上面에는 대부분 覆蓮을 돌렸다.

蓋石은 초기에 단순한 지붕형태를 띠다가 점차, 장식을 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肅宗과 英祖代에 이르러서는 明 十三陵의 영향을 받아 조각이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하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正祖代 이후에는 이같은 현상이 退步되고 기능성이 강조된 碑座와 단순명료한 蓋石이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묘표, 묘갈, 신도비에 모두 나타났다.

數量은 제시된 표에 의하면 신도비의 수량이 가장 많고 묘표와 묘갈이 그 다음이나 좀 더 자료를 보충하면 묘표의 수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묘표의 造成이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규모는 신도비, 묘갈, 묘표의 순이었다.

능묘비의 입석이 가장 활발하던 때는 肅宗부터 正祖代까지인데, 이시기는 文化史的인 분류에 의하면 眞景時代에 해당된다. 진경시대는 文學과 藝術의 각 분야에서 조선의 固有色이 發現되면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문화의 황금기였다. 능묘비 역시 이러한 배경속에서 다른 때 보다 많은 입비가 이루어져, 본 논문에서 표로 제시한 조선시대 능묘비 총수량의 40.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선호되던 양식은 碑座蓋石이었다.

目 次

머리말	1
I. 碑의 起源과 朝鮮時代 以前의 碑	5
1. 碑의 起源	5
2. 三國時代 및 統一新羅時代	9
3. 高麗時代	13
II. 朝鮮時代 陵墓碑의 流行	21
III. 陵墓碑의 種類와 樣式	31
1. 陵墓表	31
2. 墓碣	48
3. 陵墓神道碑	56
IV. 陵墓碑의 分析과 考察	79
맺음말	86
<표6>-<표11>	89
<사진>	119
<參考文獻>	129
Abstract	132

머리말

우리나라는 석조미술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우수한 석조문화재를 만들어 왔다. 특히 4세기 후반 불교가 이 땅에 도래한 이래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진 石佛, 石塔, 浮屠, 塔碑, 石燈, 幢竿支柱 등은 종교적 열정과 뛰어난 조각기법이 조화되어 다양한 주제의 석조미술을 꾸준히 변화 발전시켜 왔다.

석조미술의 발전은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그 절정기를 구가하였고 고려도 이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조선시대의 국가정책은 崇儒抑佛이었으나 일부 군왕과 王室의 비호로 인해 願刹이라는 명분으로 寺刹이 유지되고, 그에 따른 佛事도 적지 않아 불교 관련 석조미술은 명맥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불상은 대부분이 塑造나 木造, 金銅 등으로 제작되어 석불은 고작 金浦의 藥師寺石佛立像을 포함해서 몇 점 안되는데다가 조각도 불만한 것이 없는 반면에, 석탑¹⁾ 부도²⁾ 석등³⁾ 석비⁴⁾ 등은 웅장하고도 매우 정교한 작품을 만들어 고려시대의 우수한 조각 기법을 그대로 전승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듯 불교관련 석조미술은 鮮初의 抑佛政策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우수한 작품을 제작해 내었으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고 만다. 조선초에 정국을 專斷하던 勳舊派들이 成宗代부터 士林의 중앙정계 진출을 허용하여 정권을 다투더니, 급기야는 士禍를 일으켜 사림파들을 내몬 듯 하였으나 결국에는 宣祖代(1567~1608)에 이르러 중앙정권에서 완전히 축출당하고 말았다. 이제 정권을 오로지할 수 있게된 사림파는 그들의 이념인 性理學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파시키고 現實化 시키려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미미하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불교관련 석조미술품의 제작은 더욱 위축되었다.

-
- 1) 圓覺寺址十層石塔(국보 2호, 1467), 神勒寺多層石塔(보물 225호, 1472), 洛山寺七層石塔(보물 499호, 세조년간), 碧松寺三層石塔(보물 474호, 1520) 등이 있다.
 - 2) 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국보 197호, 1393), 龍門寺正智國師浮屠(보물 531호, 1398), 檜巖寺址浮屠(보물 388호, 1407), 鵞谷寺西浮屠(보물 154호, 1650) 등이 있다.
 - 3) 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前獅子石燈(보물 656호, 1393), 檜巖寺址雙獅子石燈(보물 389호, 1407) 등이 있다.
 - 4) 圓覺寺碑(보물 3호, 1471) 등이 있다.

선조대 이후 주목할 만한 불교 관련 석조미술품은 거의 조성되지 않았으며 설혹 있다 하더라도 이전과 비교해서 매우 적은 양이다. 이렇게 불교관련 석조미술이 퇴조하는 한편, 국초부터 이와 함께 나란히 조선왕조의 석조미술을 이끌어온 石物類⁵⁾가 양과 질적인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별로 각광받지 못하던 석물이 조선시대에 들어와 크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는 주자학적인 喪·祭禮를 중시한 유교문화의 사회였다. 그래서 집안의 祠堂내에 神主를 안치하여 조상을 모시고, 선조의 묘에 묘비를 비롯한 석물을 설치하는 것이 후손된 자의 당연한 道理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사상과 문화의 배경이 석물의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석물에 대해서는 石人(文·武人石)과 石獸에 대한 연구성과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석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술사와 服飾史의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다.⁶⁾ 그러나 필자가 논제로 삼은 陵墓碑에 대한 연구는 현존하는

5) 석물이라 함은 분묘 앞에 설치되는 돌로 만들어진 모든 造形品을 의미하는 것으로 文人石, 武人石, 童子石, 長明燈, 望柱石, 香爐石, 床石, 石獸, 墓表, 墓碣, 神道碑 등을 말한다.

6) 조선시대 능묘의 석물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들이 참고가 된다.

권용옥, 1980 〈朝鮮王朝 文人石像의 服裝形態에 관한 研究〉 聖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家庭學科 碩士學位論文

金九鎮, 1975 〈舊英陵 神道碑와 石物에 대하여〉 《歷史教育》18 國史教育研究會

金成馥, 1992 〈朝鮮時代 文人石에 관한 研究:王陵을 中心으로〉 弘益大學校大學院 彫刻科 碩士學位論文

金元龍, 1959 〈李朝王陵의 石人彫刻〉 《亞細亞研究》2-2 高麗大學校 亞細亞研究所

——, 1987 〈朝鮮朝王陵의 石人彫刻〉 《韓國美術史研究》一志社

——, 1987 〈朝鮮朝石獸彫刻〉 《韓國美術史研究》一志社

裴允秀, 1984 〈朝鮮時代 王陵 石獸에 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봉학, 1992 〈朝鮮時代 墳墓와 石物〉 《高陽市 幸信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한신大學校博物館

——, 1993 〈朝鮮時代 墳墓와 石物〉 《水原靈通·龍仁靈德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한신大學校博物館

——, 1993 〈朝鮮時代 墳墓와 石物〉 《高陽市 陵谷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한신大學校博物館

——, 1994 〈朝鮮時代 墳墓와 石物〉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한신大學校博物館

——, 1995 〈朝鮮時代 墳墓와 石物〉 《龍仁 水枝2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陵墓碑의 수에 비해서 너무 간소하고 내용면에서도 碑主의 행적과 양식을 간략히 논하는데 그쳤을 뿐이다.⁷⁾ 이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碑에 관한 연구 경향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⁸⁾

이처럼 조선시대의 陵墓碑가 연구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지 못한 이유는 史料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碑의 碑文들은 부족한 文獻史料를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거나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廣開土大王陵碑와 眞興王巡狩碑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陵墓碑는 광개토대왕릉비나 진흥왕순수비처럼 역사를 새롭게 서술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름대로 조선시대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를 살펴볼 수 있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墓碑文에 나오는 각 인물의 家系는 조선전기의 부족한 族譜 내용을 보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아니라 능묘비에 씌어진 글씨는 書藝史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비문을 쓴 名書家들의 작품이 인위적으로 파괴되거나 풍화작용에 의해

》한신大學校博物館

劉永教, 1976 〈朝鮮後期 王陵의 石人·石獸〉 弘益大學校大學院 彫刻科 碩士學位論文

殷光俊, 1988 《朝鮮王陵石物誌》 民俗苑

李璟珣, 1995 《朝鮮前期 陵墓石人像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李宗碩, 1977 〈우두커니 선 李朝의 武人〉 《시사》

이찬우, 1985 〈朝鮮時代 文武人石에 관한 研究〉 弘益大學校教育大學院 美術教育科 碩士學位論文

朱海濤, 1976 〈李朝 石獸彫刻이 李朝彫刻에 미친 影響〉 《建國大學校學術志》 20

秦弘燮, 1968 〈昭陵石虎〉 《藝林》 1 梨花女子大學校

秦弘燮, 1995 〈其他石造-石人-〉 《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최인성, 1977 〈朝鮮王朝 王陵 武人石像의 甲冑 形態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家庭學科 碩士學位論文

失島忞介, 1959 〈李朝時代の石人と石羊-博物館の石像〉 《國立博物館》 112

7) 조선시대 능묘비류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들이 참고가 된다.

李浩官, 1981 〈石碑의 발생과 樣式變遷〉 韓國의 美⑮ 《石燈·浮屠·碑》 中央日報社

秦弘燮, 1995 〈石碑〉 《韓國의 石造美術》 文藝出版社

8) 조선시대 이전에 건립된 碑의 미술사적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여 그동안 일정량의 연구 업적을 쌓았다. 특히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조성된 塔碑를 대상으로 龜趺와 螭首의 양식을 고찰하여 이 시대 석조미술의 범위가 石佛, 石塔, 石燈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좀 더 폭 넓게 확대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마모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존되어 내려 오기 때문이다. 이를 탁본해서 수집 정리한다면 그동안 眞蹟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던 書家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無名의 서가를 발굴해내어 서예사를 새롭게 조명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서예사 연구에 다양하고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조선시대 능묘비는 석조미술과 서예사의 분야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이제까지 심도있게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立碑의 행위가 儒敎의 喪禮를 따라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이같은 연구를 통해 주자성리학적인 논리로 운영된 조선사회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장에서는 비의 기원과 조선시대 이전의 碑의 변천과정을 대략적으로 서술하고, II 장에서는 조선시대 능묘비의 유행 배경을, III 장에서는 조선시대의 능묘비를 능묘표, 묘갈, 능묘신도비로 크게 나누어 아직까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각각의 개념과 명칭을 정의한 다음, 수량과 양식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능묘비의 입비가 가장 활발하였던 속종에서 정조대까지를 분석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주제로 삼은 조선시대 능묘비의 수량이 워낙 방대하고 분포지역도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필자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자료와⁹⁾ 기존에 출간된 금석문 자료를 바탕으로 표를 작성하여 이를 주된 서술 대상으로 삼았다.

9) 조선시대 능묘비는 7할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는 한양을 둘러싼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王室과 高位官僚層의 田莊과 先山이 많이 분포했던 지역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능묘비를 조사 정리한 다음, 이를 중심으로 타 지방의 능묘비를 참고하여 조선시대 능묘비의 대강을 살펴보다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I. 碑의 起源과 朝鮮時代 以前의 碑

1. 碑의 起源

碑의 起源은 뚜렷한 文獻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後漢代에 劉熙가 저술한 ‘釋名’과 唐代 封演的 ‘封氏見聞記’ 그리고 南宋代 洪适의 ‘隸續’과 清代 顧炎武의 ‘金石文字記’, 阮元的 ‘山左金石志’ 등에서 모두 周代(B.C.1134~B.C.250)에 王侯의 陵을 조성하고 墓壙에 시신을 하관할 때 안정을 위해 밧줄을 도르래로 걸어 내리기 위해 전후에 세웠던 도르래 장치(穿)의 기둥인 碑木이 비의 시원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周代의 왕이 大廟에 祭를 지낼 때 제물들을 위해 廟庭에 비를 세웠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孔子가 延陵季子の 묘비에 ‘嗚呼延陵季子之墓’라 題한 故事를¹⁰⁾ 남긴 것으로 보아 공자가 생존하였던 春秋時代에 이미 비가 건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北宋代의 學者인 司馬光是 비원 기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古人이 큰 功勳과 德이 있으면 그 이름을 鍾과 鼎에 새기어 간직하고, 宗廟에 配享하지 않으면 豐碑를 만들어 하관할 따름이다. 秦漢以來에 처음으로 文士에게 命하여 功德을 褒賞하고 贊揚하게 하여 그 내용을 石에 새겼는데 또한 이를 碑라 일컫는다¹¹⁾

이 기록을 볼때 秦漢代부터 비의 立碑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나, 앞서 나온 공자의 고사로 보건대 이 내용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周代이후는 돌에 글을 刻字하는 것이 유행하여 先秦代(戰國時代 初期)의 ‘石鼓文’과 秦始皇代의 ‘泰山刻石’(B.C.28), ‘瑯邪臺刻石’이 있으며 漢代(B.C.206~A.D.219)에도 계속 제작되어 ‘群臣上壽刻石’(B.C.158), ‘魯靈光殿址刻石’(B.C.149), ‘開通褒斜道刻石’(A.D.66)을 남겼다. 한대 초기에 이르러 일반적인 비의 原始的인 外樣을 갖춰가는데 그 원인은 바로 墓制의 변화에 있었다. 豎穴式土墳墓에서 필요하던 비목이 橫穴式築室墳으로 바뀌면서 비목이 하던 도르래의 역할이 더 이

10) 趙綱 撰, 戶曹判書贈左參贊李自堅墓碣, 顯宗 1年(1669)立

‘昔延陵季子之葬 夫子題之 曰嗚呼延陵季子之墓 無餘辭矣’

11) 李燾, 《四禮纂說》卷之五 喪禮 石碑條

‘司馬溫公曰 古人有大勳德勒名鍾鼎藏之 宗廟不葬則有豐碑而下棺耳 秦漢以來始命文士褒贊功德刻之於石 亦謂之碑’

상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正三角形의 尖頭로 圭角의 모습을 하던 비의 외관이 漢代에는 圓形의 圓首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에 빗줄이 급히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를 걸어 제어할수 있는 홈이 그위에 파여 있던 흔적이 남아 있으니 이것이 量이며 빗들의 이마에 도르래장치로 사용되던 구멍이 穿이다. 이렇게 漢代의 비는 周代 碑木의 원형을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그 위에 비문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이런 장식이 가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한대비의 기원에 대하여 中村不折은 다른 학설을 주장하였다.¹²⁾ 즉 한비의 형태는 笏인 琰圭와 琬圭 및 패옥인 璋, 瑁, 琥, 璧등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圭首碑는 琰圭를 본뜬 것이고 圓首碑는 琬圭를 본뜬 것이라서 蔡邕가 그 文集 내용중 胡公碑銘을 琬圭에 새긴다 하였으며 宋의 杜大桂가 名臣碑傳을 編錄하고 '琬琰集'이라 지었다고 하면서 한대비의 형태가 周代碑의 계승이 아니고 笏과 패옥에서 발전한 형태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후한 말기 이전의 유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대비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中村不折의 주장보다도 앞서 나온 劉熙 등의 주장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교이념이 일반 백성에게까지 깊이 침투하여 생활화되는 후한시대에 이르면 유교윤리의 근간이 되는 孝廉이 인물평가의 기준이 되어 다른 덕망에 우선하였으므로 選舉科目이 이 한 과목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이 선발제도는 점차 지방의 호족세력이 성장하면서부터는 이들이 그 세력을 이용하여 鄉評을 조작하는 폐단이 생겨났다. 그 결과 호족의 자제들만이 선거에 뽑히고 이들이 중앙관리가 되면서 다시 중앙권력과 결탁되어 權門勢族化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제 각 지방에서 門閥貴族이 생겨난 것이다. 이들이 후한말에 清流를 자처하던 부류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選舉에 들만한 효렴의 귀감이라는 것을 천하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효행을 돋보이게 하려고 조상의 墓所치레를 장엄하게 하고 廉恥를 아는 사람이 되기위해 스승에게는 물론 上司나 자신을 천거해 준 舉主에게 報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학덕을 기리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는 일들을 다투어 행하게 되었다. 그결과 孝子나 門生, 故吏가 건립하는 神道碑 및 功德碑는 전국의 방방곡곡을 메워 수천 수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12) 中村不折, 1933 《秦碑之研究 漢碑之形制》

후한대의 비는 長方板形の 碑身과 이를 받치는 碑座¹³⁾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 형태였다. 비신은 원수, 규수의 구별이 있고 원수일 경우 壘이라는 홈이 파여 있는데 그 두드러진 부분의 양 끝에 龍頭를 붙여 龍身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鄭季宣碑, 高頤碑, 樊敏碑 등). 이것이 장래 이수로 발달하였으나 이때는 아직 그런 定形이 이루어지지않아 혹은 朱雀를 장식하기도 하고(張遷碑), 人物이나(造稿碑, 石社碑), 麒麟(邦雄傑碑) 등을 조각하기도 하였으며, 碑首에는 주작, 碑座에는 玄武를 새겨 龜趺의 선구를 보인것도 있다.(柳敏碑, 六物碑, 沒字碑, 沈府君神道碑) 益州太守 無名碑는 玄武를 새기고 좌우에 다시 龍虎를 넣어 四神을 모두 표현하기도 하였다. 후한대에는 桓帝(147~167)와 靈帝(168~188)의 재위 기간에 가장 많은 비가 세워졌는데 유명한 것으로는 乙瑛碑(153), 禮器碑(156), 孔宙碑(164), 史晨碑(169), 曹全碑(185), 魯峻碑(173) 등이 있다.¹⁴⁾

이렇게 후한대에는 厚葬 풍습으로 인해 분묘앞에 묘비를 건립하였고 이에 발맞춰 양식과 장식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후세의 이수와 귀부의 표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後漢 獻帝 10年(205)에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曹操가 묘비의 건립을 중지시키고 이어서 魏文帝가 薄葬의 조칙을 발표하면서부터 묘비의 건립이 줄어들고 양식도 쇠퇴하여 후한대의 것을 모방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南北朝時代에는 한대처럼 儒敎가 발달하지 못하고 佛敎가 성행하여 많은 불교 조각미술품들이 제작되었으며 특히 石窟이 여러곳에서 제작되었다. 석굴은 지금의 新疆지역에서 제일 먼저 출현하여 이후 점차 河西走廊을 따라 동쪽으로 전해져 오늘날의 감숙성, 산서성, 하남성 등지에 산재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산서성 大同의 雲崗石窟과 하남성 낙양의 龍門石窟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한대처럼 수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비의 건립은 계속되어서 한대비의 양식을 바탕으로 南朝와 北朝가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었다. 먼저 南朝碑는 양식이 일정해지면서 기교가 화려함의 극에 달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남조 최초로 알려져 있는 宋의 劉宋碑(大明2, 458)와 梁의 臨川靖惠王蕭宏碑를 들 수 있다. 전자는 穿위에 장방형의 題額을 마련하였으며 비수에는 2마리의 蟠龍을 두고 양 옆의 日月象안에 三足鳥와 蟾蜍를 두었고, 후자는 처음으로 귀부를 갖췄

13) 碑座는 일반적으로 長方形의 臺石을 말하는 것인데 碑臺, 方趺 등으로도 불린다.

14) 崔完秀, 1983 <韓國美의 源流> 31~39 <韓國經濟新聞> 참조.

으며 그위에 비신을 꽃고 이수를 갖추는 형식을 보였다. 귀부는 漢代에 玄武를 彫飾한 것 보다 더 사실적인 거북을 새겼으며 이수에는 좌우에 모두 2마리의 반룡이 엉켜있는 것을 조각하고 그 주위에 연꽃과 寶珠, 忍冬紋 등을 배치하는 등 전시대에 비해 다양한 기교를 선보이고 있다. 북조비도 비신 상단에 반룡을 새기는 수법이 발달하여 이수의 형태를 갖췄고 귀부도 남조의 양식을 받아 들여 장중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북조의 隨가 남북조를 통일하자 북조비의 양식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었고 뒤에 나오는 唐碑의 전형적인 양식인 이수과 귀부의 선구적인 바탕이 되었다.

唐代的 비에는 반룡을 넣은 이수과 비신을 받치는 비좌나 귀부를 반드시 갖추는 등 立碑 양식이 定型化되었으며 前例가 없었던, 비신의 양 측면에 雲龍이나 寶相花紋을 새겨 넣었다. 이수에는 보통 2~3마리의 반룡을 넣어 그 龍頭가 비신 상단의 양끝을 물게하고 뒷발은 寶珠를 받치게끔 하였으며, 중앙부분에는 題額을 마련하여 碑題를 써 넣었다. 비좌는 아무런 조식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少林寺太宗御書碑처럼 四面에 菩薩이나 瑞禽寶華를 새겨 넣는 경우도 있었다. 귀부는 거대하고 장중하게 제작되었는데 李勣碑와 清河郡王紀功碑가 가장 대표적이다. 당대에 와서 정형화된 이 양식은 비의 표본적인 기본 양식이 되면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이후의 다른 양식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설혹 변화가 있더라도 기본체제는 그대로 둔채 양식과 문양을 시대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 발전시켜 나갔다.¹⁵⁾

지금까지 비의 기원과 각 시대별 양식을 살펴보았는데 주목할 점은 비중에서도 묘비의 입비가 시대의 지배이념과 그 軌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묘비의 입비가 가장 성행하던 때는 한대였는데 그 이유는 儒敎가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황제와 관료, 지식인 모두가 이에 傾倒되어 국가의 운영과 사회의 도덕 규범을 모두 여기서 찾았다. 더욱이 후한대에 이르면 사대부 중에 經術로서 관리가 되지 않은 者가 없었고 수도의 太學生은 많을 때는 3만명에 이르는 등 유례없는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도교와 불교도 발생하여 상호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유교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漢代이후에는 도교나 불교가 유교보다 더욱 발전하여 때로는 황제가 이

15) 李浩官, 1981 〈石碑의 발생과 樣式變遷〉韓國의 美⑤《石燈・浮屠・碑》pp183-188.

를 國敎로 삼는 등 유교보다 성행하였으며 유교는 예전과 같이 전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지배층에게 통치이념만을 제공할 뿐이었다. 隋唐에 이르러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도교와 불교말고도 서방에서 전래해온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景敎, 이슬람교도 유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비의 기원에 대하여 周代부터 唐代에 걸쳐 살펴 보았다. 비는 葬禮에서 사용되던 碑木에서부터 출발하여 비석으로 발달하여 漢代 특히 後漢代에 이르러서는 유교이념에 따른 厚葬과 더불어 묘비의 입비가 크게 유행하면서 수량과 양식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때나마 묘비의 입비금지와 薄葬의 조치로 인해 비의 입비와 양식발달이 주춤하였다가 南北朝時代에 다시 명맥을 이어나갔고 隋의 뒤를 이은 唐代에 이르러 비의 典型이된 이수와 귀부의 양식은 定型化 되었다. 당대의 양식은 당의 문화를 적극 수입하였던 統一新羅에 의해 직수입되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의 우리나라 비 양식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2. 三國時代 및 統一新羅時代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立碑가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最古의 비석인 樂浪의 粘蟬縣神祠碑(平南 龍岡郡)가 後漢 章帝 元和 2年(85)경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전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제현신사비는 人工이 가해지지 않은 네모난 화강암의 板石을 물갈이해서 세운 것으로 그 내용은 豐年을 祈願하는 것이다.

삼국시대에도 많이 立碑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하는 것이 적어 고증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몇기 남아 있는 것 중에서도 양식을 비교검토해볼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고구려는 韓·日 古代史의 관계 규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廣開土 大王陵碑가 발견된 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¹⁶⁾ 碑文에 의하면 그동안 先代의 王陵에 세우지 못했던 陵碑를 광개토대왕의 명으로 세웠다는 기사가 보이
나¹⁷⁾ 지금까지 광개토대왕릉비 말고는 발견된 것이 없으며 다만 山城下 1411호

16) 廣開土大王陵碑는 일반적으로 勳績碑나 守墓碑로 알려져 있지만, 비문에 대왕의 一代記가 실려 있어 우리나라 神道碑의 가장 앞선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

17) 광개토대왕릉비문에 의하면 그동안 선왕들 능묘에 석비를 세우지 않아 守墓人 烟戶

墓와 禹山下 1080호 墓 측면에서 비석이 각각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모두 비문이 완전 마멸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발견된 위치가 陵으로 추정되는 墓의 부근이지만 과연 陵碑인지는 의심스럽다.¹⁸⁾ 이외의 고구려 비로는 충북에서 발견된 中原高句麗碑가 있을뿐, 유구한 역사에 비하여 더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백제 역시 아직까지 碑의 양식을 살펴볼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그 片鱗조차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며, 砂宅智積碑片(義慈王2年, 642)이 발견되었으나 양식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삼국시대 비석중 시대가 가장 앞선 것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로 건립년대가 長壽王 3年(414, 높이 639Cm)이다.¹⁹⁾ 비의 外樣은 方柱形의 자연석을 彫飾없이 테두리만 다듬은 것으로 이같은 예로는 中原高句麗碑(長壽王代 推定)와 新羅의 迎日冷水里碑(智證王4, 503), 大邱戊戌銘塢作碑(眞智王3年頃, 578), 蔚珍鳳坪碑(法興王11, 524), 丙辰銘永川菁堤碑(法興王23, 536), 慶州我道和尚碑(眞興王5, 544)²⁰⁾, 丹陽赤城碑(眞興王6, 545), 慶州明活山城碑(眞興王12, 551), 昌寧眞興王拓境碑(眞興王22, 561)가 있는데 규모는 일정치 않으며 인공를 가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미를 살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에서도 중원고구려 비는 광개토대왕릉비와 비교해 볼 때 규모만 작을뿐 외양이 흡사하다. 그리고 대구무술명오작비, 병진명영천청제비와 창녕진흥왕척경비는 자연석의 외양조차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그 질박함을 엿볼수 있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이는 양식은 인공을 가하지 않고 꼭 필요한 面만을 다듬어 사용하던

돌의 구분이 분명치 않아지자 대왕이 선조왕들을 위해 墓上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한 내용이 있다. 묘상의 해석을 두고 봉분 위(上)나 아니면 墓域이나 하는 의견이 많지만 묘역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罫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1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30~31.

19) 고구려의 영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는 魏 齊王 正始 7年(246)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魏의 岫丘儉紀功碑로 集安縣에서 그 비편이 발견된바 있다. 비편만으로는 비의 양식을 파악할수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20) 朝鮮金石總覽에 登載된 것으로 그 註에 의하면 碑文은 三國遺事에 소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는 비의 위치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立石이 되어졌다면 앞서 나열한 이 시대의 비들과 같은 양식일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자연스런 양식이었다.

6세기 중엽에 세워진 진흥왕순수비는 3基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북한산순수비(眞興王29年頃, 568)로 북한산 碑峰의 봉우리를 三段으로 단이지게 다듬어 碑座로 삼고 그위에 직사각형의 비신을 꽂았다. 비신 상단에 돌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입비 당시에는 개석을 갖췄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의 소재지가 산 정상에 가까워 평지보다 비바람이 심할 것으로 판단, 비문의 마멸을 우려해 이러한 양식을 택한 것 같다. 磨雲嶺巡狩碑(眞興王29, 568)와 黃草嶺巡狩碑(眞興王29, 568)도 사진이나 탁본자료로 보건데 동일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또 하나의 진흥왕순수비로 알려진 경기도 양주군의 紺岳山 정상에 위치하는 一名 ‘빛돌대왕비’가 있는데 앞서 나온 순수비들과 건립 위치의 입지 조건이나 양식이 비슷하여 순수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좀 더 정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²¹⁾

신라가 진흥왕대에 이르러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던 南北朝와의 교역로를 확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남북조의 문화를 직수입하여 국력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의 양식도 여러 문화와 더불어 수입되어 삼국시대 비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진흥왕이후에 건립된 太宗武烈王陵碑(文武王1, 661)가 전형적인 唐碑 양식을 갖춘 것에서 알 수 있으며, 귀부만 남아 있는 慶州西岳里龜趺(7世紀中葉)에서도 입증된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통일과정에서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던 당이 그 戰勝을 기념하여 남겼던 大唐平百濟國碑銘(武烈王7, 660)과 唐劉仁願紀功碑(文武王3, 663)가 있다. 전자는 定林寺五層石塔面에서 새긴 것이고 후자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비신과 이수가 남아 있다. 당의 주관하에 입비되었겠지만 조각 솜씨가 태종무열왕릉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며 이수를 입체감 있게 조각한 것이 다르다.

통일신라시대는 불교의 융성한 발달과 더불어 각지에 많은 塔碑들이 立石되었는데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기가 있다. 주류를 이룬 양식은 귀부와 이수가 구비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구도는

21) 李龍範, 1983 〈紺岳山 古碑에 대하여〉 《佛敎美術》 7 東國大學校博物館 참조.

바뀌지 않았다.

이밖에 陵墓碑가 있는데 완형은 없고 단지 碑片만이 수습되었을 뿐이다. 文武王陵碑片(神文王代)을 비롯하여 金仁問碑片(孝昭王10, 701), 聖德王陵碑片(孝成王1年頃, 737), 興德王陵碑片(僖康王1年頃, 836), 漁之碑片(9-10世紀)이 발견되었는데 찬지비는 불완전하지만 이수편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것들이 왕이나 고위 관료의 碑인만큼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귀부와 이수의 양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찬지비의 이수편은 題額을 가운데에 두고 용이 비신의 양쪽 상단을 물고 있는 형태가 태종무열왕릉비의 이수 구조와 동일하나 조각기법이 투박하고 정밀하지 못한편이다.

통일신라시대의 비가 완형으로 남은 것으로는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憲康王10, 884), 雙溪寺眞鑑禪師大空塔碑(定康王2, 887), 月光寺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眞聖女王4, 890),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眞聖女王4年頃, 890), 實相寺秀澈和尚凌伽寶月塔碑(897-912年頃),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景明王7年頃, 923),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景哀王1, 924)가 있고 비편이나 귀부와 이수만 남은 비로는 鑒藏寺阿彌陀佛造像事蹟碑(哀莊王2年頃, 801), 雙峯寺澈鑒禪師塔碑(景文王8, 868), 大安寺寂忍禪師照輪清淨塔碑(景文王12, 872), 禪林院(沙林寺)弘覺禪師碑(定康王1年頃, 886), 鷲谷寺東浮屠碑(9世紀), 實相寺證覺大師癡寥塔碑(9世紀), 靈岩寺址龜趺(9世紀, 2基)가 있다. 대부분이 9세기에 조성된 것들인데 이렇게 왕성하게 입비할수 있었던 것은 景文王과 憲康王이 개혁을 통해 확립했던 정치적 안정과 강력한 전제왕권을 토대로 펼친 불교의 중흥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²²⁾

위에 열거한 비들의 귀부는 거의 龜頭보다는 龍頭를 하고 있으며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龜甲에는 기본적으로 6甲紋을 새겼으나 연곡사동부도비의 경우 귀갑위에 새의 날개로 보이는 彫飾을 더 첨가한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비의 귀부에서 雙龜趺가 처음으로 등장하나 귀두가 떨어져나가고 마모가 심하여 자세히 파악할수 없는 상태이다. 쌍귀부의 출현은 귀부가 계속 장식화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보인 것으로 그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또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는 귀부 대신에 碑座를 사용하였는데 이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四面에 眼象을 그리고 上面에는

22) 朴慶植, 1994 《統一新羅石造美術研究》學研文化社 pp322-389.

覆蓮을 둘렀다. 비좌가 이수보다 크기가 작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수의 구도는 비마다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題額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문양을 새기며 浮彫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量感을 살리려 노력하였다. 월광사원랑선사대보선광탑비의 이수는 너무 양감을 살린 나머지 용들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지금이라도 昇天할 듯한 기세지만 질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쌍봉사철감선사비,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비, 연곡사동부도비의 이수에는 그위로 솟아오른 1개 내지 3개의 火焰寶珠가 있다.

이밖에 비편만 남아 전하는 것으로 淸州雲泉洞事蹟碑片(神文王6年頃, 686), 四天王寺碑片(孝昭王1年頃, 692), 高仙寺誓幢和尚碑片(哀莊王代, 800-808), 金立之撰聖住寺碑片(文聖王7, 845), 崇福寺碑片(眞聖女王10, 896)이 있으며 기록으로만 전하는 斷俗寺神行禪師碑(憲德王5, 813), 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景文王4, 864), 深源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眞聖女王7, 893)가 있는데 이것들 또한 대부분 귀부와 이수 양식을 갖춘 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통일신라시대의 비 양식을 살펴보았는데, 그 주된 양식은 역시 귀부와 이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귀부와 이수 양식은 唐으로부터 유입된 양식으로 당의 문화수입에 적극적이던 통일신라가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우리의 고유한 양식을 밀어내고 그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시대의 많은 비들은 당의 전형적인 양식인 귀부와 이수를 갖춘 형태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당비 양식에 의존하지 않고 토착화과정에서 우리의 미적 감각에 맞게 변화, 발전시켜 태종무열왕릉비의 귀부와 이수에서 보이듯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이외에도 昌寧塔金堂治成文記碑(810年頃) 같이 碑座에 개석을 얹는 양식이 선보이기도 하였지만 아직은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3. 高麗時代

後三國을 통일한 고려도 國初부터 佛教를 지배 이념으로 삼고 이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통일과정에서 신라를 별다른 무력 충돌없이 원만하게 흡수하여 大業을 이룬 고려는 그 문화를 거부감없이 수용, 계승하여 佛教美術이

더욱 발전하게 하였다. 그래서 고려초기의 일반적인 비 양식도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양식인 귀부와 이수 양식을 충실히 따르게 되었다.

고려 초기의 작품 중에서 귀부와 이수 양식을 따른 것으로 廣照寺眞澈大師寶月乘空塔碑(太祖20, 937), 毗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太祖22, 939),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太祖22, 939), 普賢寺朗圓大師悟眞塔碑(太祖23, 940), 興法寺眞空大師塔碑(太祖23, 940),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太祖26, 943), 太祖顯陵表(惠宗元年, 943), 興寧寺澄曉大師塔碑(惠宗1, 944), 五龍寺法鏡大師普照慧光塔碑(惠宗1 944), 無爲寺禪覺大師遍光塔碑(定宗1, 946), 大安寺廣慈大師碑(光宗1, 950),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光宗16, 965),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光宗26, 975), 覺淵寺統一大師塔碑(光宗代),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景宗3, 978), 鷲谷寺玄覺禪師塔碑(景宗4, 979), 月南寺石碑(10世紀末),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顯宗8, 1017),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顯宗9, 1018), 國泰寺應眞大師碑(顯宗10, 1019), 玄化寺創寺碑(顯宗12, 1021), 奉先弘慶寺碑碣(顯宗17, 1026), 浮石寺圓融國師碑(文宗8, 1054), 七長寺慧炤國師碑(文宗14, 1060), 鎮川連谷里無字碑(高麗初期), 神光寺無字碑(高麗初期),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宣宗2, 1085)가 있다.

귀부의 머리 부분은 모두 龍頭化되고 머리 양쪽에 비늘과 수염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용두가 正面을 향하던 것에 비해 봉선홍경사비갈의 용두는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는 시선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귀갑문은 대안사광자대자비에서 八角形의 도형이 나오고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와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의 龜甲紋에는 각각 '卍'字와 '王'字을 새겨 넣는 등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수는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内容物을 다양화하였는데 대안사광자대사비의 이수에서 佛家の 極樂淨土에 있다는 迦陵嚩迦가 처음으로 보이며,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비의 이수 하단에는 사면에 遮日(일종의 커튼)을 둘러 장엄성을 더 하였다. 또 이수 상단에 화염보주를 장치하였는데 그 수량은 1개에서 3개까지 다양하다. 흥녕사징효대사탑비와 보현사낭원대사오진탑비의 이수과 같은 구조를 보이고 있는 보원사법인국사보승탑비 이수의 上面에는 보주가 분실된 듯 깊은 홈이 파여져 있다.

그동안 아무런 彫飾을 가하지않고 비문만 새겨 넣었던 비신에도 변화가 일어

나는데 비신의 양측면에 화염보주를 두고 서로 쟁투하는 龍紋이나 唐草紋을 장식하고 비신의 前面 테두리에도 문양을 새겨넣기 시작한 것이다. 현화사창사비, 신평사무자비, 칠장사혜소국사비, 범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에서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귀부와 이수에 갖은 장식을 다하고 나서, 이제 비신의 남은 공간에까지 장식을 넣는 등 화려함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 비신에 대한 장엄은 범천사지광국사현묘탑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는데 이를 기점으로 하여 비의 양식은 화려한 장식을 점차 줄이며, 대신에 단순하면서도 실용성이 강한 양식으로 변화해 가게 된다.

이외에 비편만 남았거나 기록으로만 전하는 비로는 寂照寺了悟和尚碑(太祖20, 937), 境清禪院慈寂禪師凌雲塔碑(太祖24, 941), 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光宗5, 954), 玉龍寺洞眞大師寶雲塔碑(光宗9, 958), 智谷寺眞觀禪師碑(光宗13, 962), 斷俗寺眞定大師塔碑(光宗26, 975), 智谷寺僧慧月碑(顯宗代)가 있는데 모두 이 시대의 유행 양식인 귀부와 이수 양식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개국초기의 불안정한 체제를 무사히 넘기고 새로운 통치체제와 문물 제도를 정비하여 전반적인 안정속에서 번영을 누리던 고려는 12세기에 접어들어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李資謙의 亂(1126), 妙淸의 亂(1134), 武臣의 亂(1170)이 일어나 지배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권세가의 토지 약탈로 인해 田柴科制度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農庄이 생겨나고, 民에 대한 국가와 지배층의 수탈이 점점 심해지자 생활 근거지를 떠나 전국으로 流浪하게 되고 이들이 점차 무리를 이루어 지배층을 향해 抗爭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武臣執權期에 農民과 賤民의 항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처음에는 枝葉的이다가 점차 全國的으로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망이, 망소이의 난(1176)과 만적의 난(1198)를 들 수가 있다. 더구나 이런 혼란한 상황이 수습되지 않은채 蒙古의 대규모 침략을 받아 고려는 전 국토가 戰場化되고 蒙古兵의 掠奪과 放火로 인해 焦土化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마침내 武臣政權이 무너지고 1259년 고려 조정이 몽고에 항복한 이후로는 일개 蒙古의 附庸國으로 전락하고 말아 自主權마저 상실하게 되고마니 지배층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백성층의 民族的 自尊心은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렇게 사회전체가 동요되고 외침으로 인해 나라가 決斷나자 그동안 안정속

에서 번영을 구가하던 佛教관련 석조미술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던 비들도 변화해야만 했다. 입비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던 귀부와 이수 양식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立碑 목적을 충분히 成就할 수 있는 碑座와 蓋石 양식을 비롯하여 여러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偃鳳寺大覺國師碑(肅宗5年頃, 1101),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睿宗6, 1111), 般若寺元景王師碑(仁宗3, 1125), 靈通寺大覺國師碑(仁宗3, 1125), 文殊院重修碑(仁宗8, 1130), 普賢寺記碑(仁宗20, 1142), 雲門寺圓應國師碑(仁宗22年頃, 1144), 寧國寺圓覺國師碑(明宗10, 1180), 慶州皇南里孝子孫時楊旌閭碑(明宗12, 1182), 瑞鳳寺玄悟國師塔碑(明宗15, 1185), 龍門寺重修碑(明宗15, 1185), 寶鏡寺圓眞國師碑(高宗11, 1224), 趙仁規祠堂記碑(忠烈王34, 1308), 法住寺慈淨國尊普明塔碑(忠惠王復位3, 1342), 普光寺重勅碑(恭愍王7, 1358), 檜巖寺禪覺王師碑(禑王3年, 1377)가 있다.

먼저 비좌와 개석 양식으로는 천봉사대각국사비가 있고, 귀부와 개석 양식은 반야사원경왕사비와 영통사대각국사비가 있으며 碑身위에 이수나 개석을 얹지 않고 비신의 上端에만 변화를 준 圓首形の 문수원중수비와 奎首形の 보현사기비와 서봉사현오국사비 그리고 용문사중수비, 조인규사당기비, 보광사중창비가 있다.

이밖에 귀부위에 규수형의 비신을 꽂은 보경사원진국사비와 자연석을 다듬어 그대로 세운 方柱形の 경주황남리효자손시양정려비 등 여러 양식이 선 보이거나 어느 한 양식도 主流를 이루지 못하고 混在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귀부와 이수 양식도 사라지지 않고 영국사원각국사비와 회암사선각왕사비에서 보이듯이 소수지만 아직도 이용되고 있었다. 회암사선각왕사비는 비신과 이수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의 비들이 비신과 이수를 구분하여 造成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이같은 조성법은 조선시대에 그대로 받아 들여져 墓碑類에 주로 사용하였다.

이 시기 가장 독특한 형식의 비는 범주사자정국존보명탑비인데 境內의 주변에 위치하는 磨崖의 아랫면에 비신이 들어갈 만큼의 홈을 파고 비신을 그대로 安置한 형태로 기존의 형식에 비해 파격적일 만큼 매우 독특하다. 어떤 연유에

서 이같이 조성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다른 비들의 입비 과정에서 많은 인력 동원으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이같은 病弊를 줄이고 입비는 하되 최대한 경비를 줄여 백성에게 民弊를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창안된 양식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 가서는 이와 똑같은 양식이 보이지는 않지만 암벽면에 線刻으로 비의 外樣을 만든 다음 그 안에 事蹟을 새겨 넣는 비슷한 사례가 塹城壇重修記와²³⁾ 忠襄公金俊龍戰勝地 磨崖刻字에서²⁴⁾ 나타나는데 그 기원을 범주사자정국존보명탑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외에 현존하지 않고 비편이나 기록으로만 전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玉龍寺先覺國師證聖慧燈塔碑(毅宗4, 1150), 斷俗寺大鑑國師塔碑(明宗2, 1172), 龍壽寺開創碑(明宗11, 1181), 直指寺大藏殿碑(明宗15, 1185), 興教寺冲曦禪師碑(明宗20, 1190), 鉢淵寺眞表律師藏骨塔碑(神宗3, 1200), 華藏寺靜覺國師塔碑(高宗16, 1229), 松廣寺眞覺國師圓炤塔碑(高宗22, 1235), 白蓮社圓妙國師中眞塔碑(高宗32, 1245), 慈雲寺眞明國師普光塔碑(元宗13, 1272), 佛蓋寺慈眞圓悟國師靜照塔碑(忠烈王12, 1286), 麟角寺普覺國師靜照塔碑(忠烈王21, 1295), 桐華寺弘眞國尊眞應塔碑(忠烈王24, 1298), 三日浦埋香碑(忠宣王1, 1309), 松廣寺慧鑑國師廣照塔碑(忠肅王6, 1319), 瑩源寺寶鑑國師妙應塔碑(忠肅王9, 1322), 文殊寺藏經碑(忠肅王14, 1327), 月精寺社施藏經碑(忠肅王復位8, 1339), 長安寺重興碑(忠穆王1, 1345), 普光寺圓明國師碑(恭愍王7, 1358), 佛岬寺覺眞國師慈雲塔碑(恭愍王8, 1359), 廣通普濟禪師碑(禔王3, 1377)가 있다.

고려말 忠宣王이 元의 燕京에 설치한 萬卷堂을 통해서 고려 학자들은 性理學을 전수받고 본국에 돌아와 傳播하는 과정에서 뜻을 같이하는 일정한 學者群과 政治群을 이루는데 이들이 이른바 新興士大夫라 불리우던 무리이다. 이들은 처

23) 塹城壇重修記는 磨崖面에 돌을 새김으로 직사각형의 비 형태를 만든 다음, 그안에 참성단중수에 관한 전말을 肅宗43년(1717) 당시의 留守 崔錫恒이記하여 새긴 것이다. 일부의 금석문 관계 자료에서 이를 碑로 분류하고 있지만 碑題가 없으므로 비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24) 忠襄公金俊龍戰勝地 磨崖刻字는 마애면에 線刻으로 圓首形의 碑身 형태를 만든 다음, 중앙에 忠襄公金俊龍戰勝地라 大楷로 크게 쓰고 그 左右에 小楷로 丙子清亂公提湖南兵 勤王至此殺清三大將이라 각자 하였다. 비록 비신의 형태를 선각으로 그렸지만 碑題가 없어 비로 보기는 어렵다. 일부의 금석문 관련 자료에서 이를 비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 여겨진다.

음에는 세력이 미약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가 科擧를 통해 점차 官界에 진출하여 영역을 확보하다가 공민왕의 개혁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麗末鮮初의 교체기에는 政局을 좌지우지할 만큼 거대한 세력이 되었다. 비록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이란 문제에서는 서로 이견이 생겨 分派되었지만, 고려말의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麗末의 입비 과정에서 신흥사대부들의 핵심 인물들이 관여하게 되면서 비의 양식이 변하게 되는데 그동안 다양한 양식이 혼재되던 상황에서 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禡王5, 1379)이후로 비좌와 개석 양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불교가 국가 통치의 지배적 이념이었을때의 대표적인 양식이 귀부와 이수이었다면, 性理學이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여말선초에는 그를 수용한 신흥사대부들이 새로운 이념의 출현에 발맞춰 새로운 양식으로 입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대의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였던 李穡(1328~1396)²⁵⁾이 비문을撰한 檜岩寺提納薄陀尊者指空淨屠碑(禡王4, 1378)²⁶⁾, 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禡王5, 1379), 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禡王10, 1384),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禡王12, 1386)가 모두 비좌와 개석 양식을 취하고 있다. 또 이색의 門人이자 학자이던 李崇仁이撰한 神勒寺大藏閣記碑(禡王9, 1383)와 역시 이색의 문인이면서 朝鮮開國의 一等功臣인 鄭道傳이撰한 舍那寺圓證國師石鐘碑(禡王12, 1386)가 모두 이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신륵사보제존자석종비와 안심사지공나옹사리석종비, 신륵사대장각기비, 사나사원증국사석종비의 비신 양옆에는 비신의 보호를 위해 방형의 隅柱石을 대어 더 견고하게 하였는데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의 비 양식에서 처음나오는 매우 참신한 방법이었다.

25) 이색은 당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益齋 李齊賢의 문인이었으며 벼슬에 나아가서는 成均館大司成이 되어 학칙을 새로 정하고 金九容(1338~1384), 鄭夢周(1337~1392), 李崇仁(1349~1392) 등을 學官으로 채용하여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門下에 金九容, 權近, 卞季良, 李崇仁, 鄭道傳, 河崙 등 기라성 같은 당대의 학자들을 배출해내어 조선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게 하였다.

26) 原碑가 純祖 21年(1821)에 破壞되어 純祖 28年(1828)에 비대와 개석 양식으로 再立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원비의 양식을 알 방법이 없지만 전후사정으로 보아 방부와 개석 양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입비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墓碑類의 등장이다. 고려시대에는 墓墳이나 그 주변에 묻는 墓誌가 많이 이용되고 墳墓의 외곽에 세우는 묘비의 입비는 全無하다시피 하였는데, 麗末에 성리학이 고려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묘비류의 입비가 시작되었다.

먼저 신도비는 白文寶(1303-1374)가撰한 洪彦博(1309-1363)神道碑²⁷⁾와 李穡(1328-1396)이撰한 廉悌臣(1304-1382)神道碑²⁸⁾가 이시기에 造成된 것으로 추정되며, 墓碣은 卓葉墓碣, 卓道敏墓碣, 卓元光墓碣, 卓思正墓碣, 卓宗成墓碣, 卓英墓碣, 卓文位墓碣, 卓光茂墓碣이 모두 恭愍王 15年(1366)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²⁹⁾

묘표로는 李穀(1298-1351)이撰한 李達尊(1313-1340)墓表³⁰⁾와 鄭道傳(?-1398)이撰한 鄭先生墓表³¹⁾가 이때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며, 崔瑩의 父인 崔元直墓表(사진1-1)가 禔王 12年(1386)에 입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계층에 의해서만 묘비류의 입비가 시작됐을뿐 사회 저변까지 일반화되지 않아 현존하는 묘비류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선의 개국직후에 건립된 億政寺大智國師碑(太祖2, 1393), 靑龍寺普覺國師定

27) 白文寶, 《淡庵逸集》卷二 碑銘條

‘南陽侯陽坡洪文正公神道碑銘并序’

28) 李穡, 《牧隱集》卷十五 碑銘條

‘高麗國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曲城府院君贈諡忠敬公廉公神道碑并序’

29) 卓光茂, 《景濂亭集》卷二 先世墓碣條

‘先世墓碣 恭愍十五年九月日竝立

高麗太師光山君卓公之葉之墓 夫人開城王氏之墓

左政丞府院君卓公道敏之墓 夫人延日鄭氏之墓

宣宗駙馬光城君卓公元光之墓 夫人公主王氏之墓 夫人光州宣氏附左

版圖判書卓公思正之墓 夫人延安李氏附前 夫人□□鄭氏附右

寶文閣大提學海陽君卓公宗成之墓 夫人光州金氏之墓

平章事武珍伯卓公英之墓 夫人和順崔氏附左 夫人昌寧成氏之墓

集賢殿大提學卓公文位之墓 夫人南原梁氏之墓

禮儀判書 贈吏曹判書卓公光茂之墓 夫人文義朴氏附前 夫人光州金氏附前

右載庚子譜 又見王氏昇所傳家碑碣軸中’

30) 李穀, 《稼亭集》卷十一

‘高麗國奉常大夫典理摠郎寶文閣直提學知製教李君墓表’

31) 鄭道傳, 《三峯集》卷四 墓表條

‘廉義之墓’

慧圓融塔碑(太祖3, 1394) 龍門寺正智國師碑(太祖7, 1398) 등은 비좌와 개석 양식보다 더 간출한 奎首形을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양식이 주를 이룬 까닭도 개국초의 건실한 기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II. 朝鮮時代 陵墓碑의 流行

조선시대는 前時代보다 남아 있는 碑의 종류와 수량이 많고, 양식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분포지역도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소재하고 있으나, 비교적 전국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규모가 5m를 넘는 것도 있으나 반대로 1m도 안되는 비도 있다.

碑題에³²⁾ 의해 그 種類를 나눠보면 陵앞에 세워지던 陵碑에는 神道碑와 陵表가 있고 墓 앞에 세워지던 墓碑에는 神道碑, 墓碣, 墓表 등이 있다. 그리고 寺碑에는 塔碑와 高僧大德들의 생애를 기록한 僧侶碑, 寺刹과 관련된 사적을 기록한 사적비가 있다. 일반 事蹟碑에는 重建碑, 事實碑, 旌閭碑, 大捷碑, 廟庭碑, 紀蹟碑, 遺虛碑, 世葬碑, 舊基碑, 遺蹟碑, 勝戰碑, 舊里碑, 殉義碑 등이 있다.

이중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비는 묘비로서 他碑보다 규모나 예술성에 있어서 뛰어나며 그 수량이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수천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다른 종류의 碑 중에서도 묘비와 비견할 만한 것이 있겠으나 그 수량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전성기를 맞았던 塔碑들은 조선시대가 개국되면서 급격히 退潮하고 미미한 수량만이 제작되어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해 나간 정도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지배구조에 어느 정도 적응해 나가면서부터는 다시 禪師碑나 大師碑와 같은 승려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비를 조성하고 타 종류와 구별되는 양식을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미 陵墓 앞의 石物에 밀려 石造美術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조선시대의 석조미술은 陵墓碑를 포함한 석물이 대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는 塔碑가 주류를 이루던 것에 비해 조선시대는 陵墓碑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특히 일반 墳墓의 墓碑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는 被葬者의 子孫과 門人 등이 儒敎의 倫理的 價値觀에 입각해서 조상에 대한 崇慕의 마음으로 일정한 格式에 맞춰 묘비를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士大夫들은 묘비 입석의 행위가 조상의 德을 밝히고 顯揚하는 것이며 동시에 올바른 禮의 실

32) 碑文의 序頭에 나오는 碑의 題目을 略稱하여 碑題라 부른다.

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儒學의 창시자인 孔子가 延陵季子의 묘비에 '嗚呼延陵季子之墓'라題한 故事에 근거하고 있기도 한데, 그 實例를 顯宗代의 문장가인 龍洲 趙綱이 撰한 戶曹判書李自堅墓碣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묘갈의 입석을 주저하고 있는 이자건의 후손에게 공자의 고사와 禮記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가 참으로 공자께서 延陵季子의 묘에 쓴 바를 본받아 다른 말이 없이 한다면 선조의 덕도 드러내고 선조의 훈계도 따르는 것이 되어 一舉兩全이 되는데 도리만 따라준다면 아울러 행해도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³³⁾

라고 하면서 묘갈의 입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또 顯宗代에 송시열이 寧陵의 표석에 관한 일로 조정에서 金佑明과 논쟁할 때도 능표석 건립의 정당성을 공자의 고사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故事는 묘비 입비의 명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 특히 조선시대처럼 孔子를 至高至純한 聖人으로 떠받치던 사회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었을 것이다.

33) 趙綱 撰, 戶曹判書贈左參贊李自堅墓碣, 顯宗 1年(1669)立

‘昔延陵季子之葬 夫子題之 曰嗚呼延陵季子之墓 無餘辭矣 其後千有餘載 學士大夫無不誦法孔子而獨於銘人之墓不法聖筆者奚 豈非文滅質朴濁心之故耶 不佞觀故大司徒星山 李公遺戒子孫 而異之…顯公則汲汲以身後 子孫之或益辭加其身 是廬預作遺書累百言戒子孫勿用誌石碑碣於乎…公之五世孫 水曹員外郎穀氏 手其遺書來諗不佞曰 吾祖之遺誨筆法赫赫若前日事 孱孫雖不猶人 豈敢以世遠而有所忽焉 獨吾等之所大懼大憫者 述祖德古人重之 墓之無表古人哀感不置 祖德雖大非文曷以行遠 自參贊公以下 歷四世丘隴不樹一石者違參贊公遺教也 若過數世子孫浸遠爲所不知何人必矣 安能哀感 而必朮無表之祖墓哉 此吾等之所大憫也 願先生之詔之 不佞辭非其人不獲 則乃跪而言曰 禮有之宜祖無嫌而稱之是誣也 有善而弗知不明也 知而不傳不仁也 此三者君子以所恥也 子之宜祖遺戒禁樹碑者慮其誣也 其何善如之 有此善而不傳 禮經之所恥 子孫安所逃 今子誠法夫子之題延陵季子墓 無餘辭 則著祖之德 遵祖之訓一舉而兩全 道固存竝行 而不倍者矣 員外公唯唯而去 遂與諸孫 謀刻麗牲之石于參贊公墓道 錄其子孫’

34) 《顯宗實錄》14年 9月 17日(癸未)

‘今佑明以伏羲之墓爲言 夫伏羲之墓 果未知有表與否 而孔子篆於季札之墓 則墓表之設 必有道矣且季札讓國之義 與泰伯伯夷相埒 則其名亦當百世不磨矣 孔子猶篆其墓 豈專爲傳不傳而爲之哉 然人各有所見 以此爲是非之端 固無害於各陳其意’

北宋代의 道學者인 司馬光도

古人이 큰 功勳과 德이 있으면 그 이름을 鍾과 鼎에 새기어 간직하고, 宗廟에 配享하지 않으면 豐碑를 만들어 하관할 따름이다. 秦漢以來에 처음으로 文士에게 命하여 功德을 褒賞하고 贊揚하게 하여 그 내용을 石에 새겼는데 또한 이를 碑라 일렀다…그러나 前人의 말에 아름다움이 없으나 칭송하는 것은 무합하는 것이요, 아름다움이 있으나 칭송하지 않는 것은 옹패하는 것이니 무합과 옹패를 군자는 행하지 않는다.³⁵⁾

고 하여 고인의 행적중에 공훈이 있다면 이를 鐘鼎이나 碑에 새겨 贊揚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대신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고 있는 사실을 옹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서술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歐陽修와 朱子の 고사를 묘비문 작성에 인용한 사례가 宋胤昌墓表, 李福源墓表에서 보이고 있어³⁶⁾ 조선시대 지식층들의 立碑 행위가 이들 도학자들의 가르침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재 건립된 비의 序文에서 동일한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梁誠之神道碑文³⁷⁾과 左議政鄭惟吉神道碑文³⁸⁾에

35) 李燾, 《四禮纂說》卷之五 喪禮 石碑條

‘司馬溫公曰 古人有大勳德勒名鍾鼎藏之 宗廟不葬則有豐碑而下棺耳 秦漢以來始命文士褒贊功德刻之於石 亦謂之碑…然前人有言 無其美而稱者謂之誣 有其美而不稱者謂之蔽 誣與蔽君子不由也’

36) ○ 宋浚吉 撰, 宋胤昌墓表, 顯宗 9年(1668)立

‘昔歐陽子銘其叔父而曰 其狀貌起居言笑皆吾負也 而皆不得而見焉 惟勉而紀其可傳者庶以盡吾之焉 噫此正說出余今日心情也 吾叔之墓 吾不忍銘 又烏乎寫吾情 遂泣而書之’

○ 李時秀 撰, 李福源墓表, 正祖 24年(1800)立

‘嗚呼 府君棄不肖等八易數燧 而墓前尙無顯刻 非敢緩也 昔朱夫子爲韋齋先生墓記曰 將請文而表隧 夫以朱子之大賢 不得自述其先美 況不肖無能爲役乎’

37) 金安國 撰, 梁誠之神道碑, 中宗 22年以前(1527)立

‘正德己卯公之孫 內資副正洞 利川府使淑 持乖崖金相公南原君政案 四佳徐相公南原君家乘記 來告安國曰 我先祖以文學才略奮于時 歷事 五朝秩躋一品 事業之盛 見錄於當時名公之筆 有不可誣者 而吾子孫力孤慮短 至今不得樹碑于阡隧 以稱我先祖之休德 雖其載在 國乘 者彪著于後 而千載之下人有歷吾丘壟者 寧知我先祖之所厝 而發起敬謹護之念哉 爲用是懼石既磨矣 敢請刻辭與銘’

38) 金尙憲 撰, 左議政鄭惟吉神道碑, 仁祖 24年(1646)立

‘自古國家隆平之世 天必降之名臣賢佐 以左右之 以鳴其盛 而又其子孫 必以德善功烈 著

선조의 훌륭한 점이 없는데도 稱述하는 것은 속임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점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밝지 못함이 되는 것이며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이는 어질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조선시대는 이같이 조상의 功과 德을 밝히는 것을, 후손이 당연히 해야 할 孝이며 禮라는 생각에서 입비를 시작하였는데 점차 그 본뜻은 퇴색하고, 自家의 威勢를 드러내기 위하여 정도에 지나치게 입비를 하게 되었다. 입비의 주체는 입비를 많이 할수록 타인들로부터 조상에 대한 효가 지극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아울러 自家의 위세를 他家에 떨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門中에서 官職을 지내거나 顯達한 先祖들의 묘역에 묘비를 다투어 건립하게 되어 조선 팔도의 모든 지역에 묘비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종류도 세분화 되었다.

孔子로부터 시작된 儒學은 여러 道學者들을 거쳐 朱子에 의해 性理學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조선은 이 성리학을 國是로 삼았다. 따라서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공자를 비롯해서 주자까지의 도학자들이 傳한 학문과 행동이 모든 것의 규범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묘비의 입비도 조선의 지배층들에게는 禮로 인식되어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주자성리학이 일부 선진적인 지식계층에 의해서만 이해되던 수준이어서 묘비의 입비도 이들에 의해서만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고 아직까지는 저변확대가 안된 상황이었으며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成宗代에 비로소 士林이 중앙정계에 등장하면서 주자성리학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明宗과 宣祖代에 활동하던 李滉과 李珥가 주자성리학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朝鮮性理學을 完成하기에 이르자 지식층 전반에 걸쳐 묘비의 입비는 朱子가 제시한 家禮에 의한 禮의 한 실행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之文辭銘之鼎彝 以垂後世 而爲國之光 經傳所記 槩可見已 我外王父故左議政林塘府君 歷事四朝世載令德 功施到今 宜有穹碑顯刻傳示永久 而麗牲之石 闕然無文 踰五十年 盖出於愼也 日內弟鄭廣成屬尙憲曰 王父幽堂之銘 兄既已爲之 茲有未盡之役于神道 事無異記 銘無異辭 惟是一在地中一在地上 兩存並傳 惟兄圖之 尙憲不敢辭 謹以誌所叙者申之曰'

朱子學은 사회의 모든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력을 미치고 明宗, 宣祖代의 理氣心性論과 孝宗과 顯宗代의 禮論에 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深奧한 학문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선사회의 지도적 理念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顯宗代에는 士大夫 뿐만 아니라 일반 中·庶人層까지도 묘비를 건립하는 것이 一般化되어 그 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중·서인층의 묘비 입석이 法度에 지나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³⁹⁾

주자성리학의 이해정도와 묘비 수량의 증가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내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묘비의 수량이 워낙 많고 분포 범위 또한 광범위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墓碑文의 작성은 피장자와 交友가 있는 文士나 당대의 文章家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므로 撰者가 남긴 文集을 조사하여 묘비문의 수량을 비교 검토하면 연대별로 입석된 묘비의 수량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고 믿는다.

〈표6〉⁴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집중에서 墓碑文類가 실린 것을 選別하여 그 항목과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墓碑文類 撰者의 인원과 수량이 초기에는 매우 적다가 士林이 중앙정계에 등장하는 成宗代부터 수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中宗代에는 115개, 宣祖代에는 310여개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가장 많은 多作을 한 인물은 41개를 찬술한 金安國(1478-1543)이며⁴¹⁾ 35개의 비문을 찬술한 李滉(1501-1570)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선조대이후에도 仁祖代에 289개, 孝宗代157개, 顯宗代 173개가 꾸준히 제작되

39) 《顯宗實錄》4年 5月 4日(辛未)

‘大司憲金壽恒等 論斥洪宇遠 仍請削黜 且請還收元萬里特遞之命 皆不從 又啓曰 國綱解弛 奢侈成習 民不畏法 僭偽日增 近來醫譯吏胥公私賤墳塚 敢樹豐碣 長皆五六尺 前後面稷御陰記 一如宰臣之墓表 至以戶刑工曹漢城府義禁府都總府 具兼職書墳 其奸僞僭濫之罪 不可不懲 請令漢城府 一一嚴查 並治其罪 盡令撤去墓表 且勅吏曹 非士大夫則追贈切勿許 六曹京兆及金吾摠府兼職 贈已追贈者則並令還收 以防僭越之弊 上從之 且曰 已給職牒者 今不必還收也’

40) 〈표1〉은 民族文化推進委員會에서 발간한 《韓國文集叢刊》1권~160권 중에서 墓碑文類가 실린 문집만을 選別하여 著者의 生沒年代와 墓碑文類의 項目과 數量을 정리한 것이다. 霞谷集이후의 자료는 차후에 보충하기로 한다.

41) 김안국은 중종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의 한 사람으로 金宏弼(1454-1504)의 門人이자 金正國(1485-1541)의 兄이다.

다가 肅宗代에 이르면 1,185개가 제작되어 그 수량이 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시기 묘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 여러 학파들에 의해서 禮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면서 禮論과 禮說이 심화되었는데, 효종과 현종대에 國喪의 服制문제로 禮訟이 크게 벌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시기는 예를 통한 주자학적인 사회질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로, 효의 중요성과 더불어 忠의 가치도 크게 부각되어, 충효로 본 받을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각 처에 書院과 祠宇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각 씨족마다 門中이 성립되고 宗法이 적용되었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묘비의 입비도 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禮訟의 선봉에 섰던 인물들도 많은 묘비문을 찬술하였다. 濟南의 領袖였던 許穆(1595-1682)은 191개를 그리고 이와 대립하던 老論의 領袖인 宋時烈(1607-1689)은 무려 451개의 묘비문을 지었다. 송시열은 조선시대를 통털어 가장 많은 묘비문을 찬술하였으며 조상의 功勳과 德을 밝히는 禮를 가장 충실히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多作을 하면서도 아무나 부탁한다고 해서 비문을 지어주지 아니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과장되게 표현하지도 않았음은 그 門下의 高弟였던 尹拯의 아버지, 尹宣舉의 墓碣文 작성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윤증과 反目하는 결과를 초래할 만큼 비문의 작성에도 엄격하였었다. 그의 首弟子인 權尙夏(1641-1721) 역시 116개의 묘비문을 지어 스승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묘비의 입석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으로 조성하였다. 첫째, 어느 한 개인이 단독으로 비용을 출자하여 세우지는 못하고 대부분이 直系後孫이거나 門中에서 비용을 거두어 일을 圖謀하였으며⁴²⁾ 둘째, 親孫들이 官職을 지내지 못했거나 財力이 없을 때는 外孫들이 주도하여 건립하기도 하고⁴³⁾ 셋째, 이마저도 어려우면 親外孫의 전 구성원들이 舉族的으

42) ○ 徐龍輔 撰, 趙仁賓墓碣 追記, 純祖 8年(1808)立

‘…今諸孫鳩財伐石 方謀鐫刻…’

○ 沈奭基 撰, 沈龜齡墓表 追記, 光武 9年(1905)立

‘…而碑文歲久湮沒 諸宗族鳩財伐石 謹仍二公之撰而刻之 追述如右’

43) 韓浚謙 撰, 鄭昌孫神道碑 追記, 仁祖 1年(1623)立

公의 外五代孫 李元翼이 유배에서 풀려나 정승으로 등용되면서 공의 신도비가 없음을 알고 여러 외후손들에게 지시하기를

로 참여하여 입석하는 경우가 있었다.⁴⁴⁾ 그리고 當代에 親外孫들이 모두 여의치 못할 경우 100년이나 200여년을 기다린 뒤 비용을 마련하여 세우는 예도 있었다.⁴⁵⁾ 입비에 참여하는 인원은 십수명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遁村李集墓表의 경우는 直系後孫 160여명과 外後孫 170여명이 대규모로 참여하여⁴⁶⁾ 친족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묘비의 입석은 비단 사대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王室에서도 행해져 능앞에도 陵神道碑와 陵表가 세워졌다. 그러나 신도비는 定陵, 健元陵, 齊陵, 獻陵, 英陵에만 건립되었고 文宗이후에는 입석이 폐지되었다. 이는 帝王의 사적은 모두 國史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私家처럼 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文宗이후부터는 陵에 다시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는데 廣州에 소재하던 英陵의 驪州로의 遷葬은 睿宗朝에 이미 비를 폐지하기로 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세웠던 신도비 또한 묻어 두고 移建하지 않았다.⁴⁷⁾ 신도비 건립의 폐지는 帝王의 碑文을 신하가 지어 올리는 것이 사체가 거북스러워 그만두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주목된다.⁴⁸⁾

‘…左參贊李公時彦…同副承旨金自點暨 浚謙同蒙□□指授 以起其役 今同樞李公愼義 曾宰首陽 爲是事伐石輪于江 以前郡守李君升亨幹事□ 誠舉是役付之 是俱爲公之外裔 又有姓孫慶昌 居在 墓下貴主監董 皆首□相急之經紀焉 內外諸孫 官冕甚盛 各捐帛以爲之費 …’

44) 沈通源 撰, 青城伯沈德符神道碑, 明宗 18年(1563)立

‘公卒之後 遺家屯難 神道無碑 參贊君 慨然唱之 內外雲仍感喜響應 使郡守義儉 縣令鎮進士鎬 奉事隆 掌其事 俾通源銘之辭 不獲已略叙 其梗槩云’

45) ○ 宋寅 撰, 永順君李溥神道碑, 宣祖 7年(1574)立

‘…始公之卒也 諸子皆幼 未及樹碑 乃今百有五年 曾孫前漢城判官恬 前黃澗縣監希顏 諗于宗人曰 我恭昭公之聲烈 國人所共聞知 而尙闕神道之刻 猶爲有子孫乎 遂相與謀 伐石加礪 而求文於寅 辭非人不獲 據其家乘以筆之 復繫短銘’

○ 撰者未詳, 李經漢神道碑 追記, 高宗 13年(1876)立

‘嗚呼 茲石之磨而未鐫者 於焉餘二百年矣 事鉅力錦 先人之苦心是役者 厥惟舊矣 而幸茲長房八代孫載弘 克承先志 殫力多年 今始經紀 銘書及篆 亦已就正於當世立言君子 公之潛德懿行庶可萬一於百年之後 而事力之成就 亦有待而然歟…’

46) 李休徵 撰, 遁村李集墓表, 仁祖年間(1623-1649)立

‘舊有短碣 歲久而缺 諸孫僉知亨胤…生員健徵等 百六十餘人 外孫 綾川府院君具仁堊…司憲府掌令趙冲等 百七十餘人 恐其湮泯無傳 合辭出力 改立豐石 屬不肖孫休徵 略叙顛末 …’

47) 《孝宗實錄》2年 7月 26日(辛丑)과 《英祖實錄》14年 9月 30日(己卯)의 蓮城守 李權의 상소 내용 참조.

48) 《正祖實錄》10年 7月 4日(乙巳)

이렇게 陵에 신도비를 세울 수 없게 되자 그 標識의 수단으로 陵表(表石)을 쓰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顯宗 14年(1673)에 判中樞府事 宋時烈이 상소하여 새로 이장한 英陵에 표석을 세우자고 건의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아 내었으나⁴⁹⁾ 肅宗 30年(1704)의 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못하였고 능의 표석은 寧陵에만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그래서 英祖 30年(1754)에는 左議政 金尙魯(1702-1766)가 미처 표석을 세우지 않은 능이 열두 곳이라고 말하면서 顯陵, 光陵, 敬陵, 昌陵은 이미 세우라는 임금의 명이 있었지만 그밖에 厚陵, 宣陵, 靖陵에도 표석이 없으니 세우자고 건의하여 허락을 받아 내고 있다.⁵¹⁾ 이때 영조는 김상로가 건의한 七陵에 표석 세우는 役事로 인하여 혹시나 백성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까 하여 모든일에 절대 백성을 勞役시키지 못하게 하고 암행어사를 畿內에 파견하여 염탐하게 하는 등 民願이 생기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⁵²⁾

七陵의 役事이후 16년만인 英祖 46年(1770)에 雲南君 李진이 상소하여, 東西各陵에 碑(表石)를 후일에 세운 것은 곧 우리 聖上께서 즉위하신 뒤에 처음으로 施行한 바라 하면서 思陵에도 비석이 없으니 성전을 베풀어달라 하자 영조는 詳考한 뒤 貞陵, 恭陵, 順陵, 溫陵에도 함께 세우라고 명을 내리고 있다.⁵³⁾ 그러나 이중에서 온릉의 표석은 正祖 12年(1788)까지도 세워지지 않았던 듯 동년 9월에 溫陵令 崔昌國이 端敬王后의 현책 회복과 朴元宗(1467-1510) 등의 官職을 追奪할 것을 請하며 표석의 입석을 再次 요청하고 있다.⁵⁴⁾

이렇듯 능에는 文宗이후에 신도비의 건립이 중지되고 표석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영조대에 이르러 비로소 입석이 행해진 반면, 宗室이나 外戚들은 왕과 왕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가며 조선초부터 신도비를 비롯한 묘비를 입석하

‘敎曰 取考誌狀通紀 則陵寢有神道碑 又有表石 而後因神道碑之自下撰進 事面未安 近例只用表石 今番有親撰碑銘 自可樹之 至於生卒日月不載 不可不別立表石 都監知悉’

49) 《顯宗改修實錄》 14年 9月 11日(丁丑)과 《顯宗實錄》 14年 9月 17日(癸未)의 行判中樞府事 宋時烈의 상소 참조.

50) 《肅宗實錄》 30年 9月 30日(丁卯)

‘上曰 神道碑則只於健元陵獻陵有之 英陵亦有之 而遷陵時 仍不移豎 表石則寧陵外 皆不爲之矣’

51) 《英祖實錄》 30年 12月 23日(丁卯)

52) 《英祖實錄》 31年 1月 28日(壬寅)과 《英祖實錄》 31年 2月 8日(壬子) 참조.

53) 《英祖實錄》 46年 5月 9日(甲寅)

54) 《正祖實錄》 12年 9月 21日(己卯)

는 경우가 많았다. 그 건립의 목적은 일반 사대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⁵⁵⁾ 孝宗은 外祖인 西平府院君韓浚謙神道碑의 重建에 內需司의 內帑金을 내어 돕고 있으며⁵⁶⁾ 그 뒤 영조는 碑閣을 세우라 하고⁵⁷⁾ 이어 정조는 기울어진 비각을 다시 京畿監司에게 命하여 고쳐 세우게 하는 등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⁵⁸⁾ 또 인조의 아우인 綾原大君神道碑는 宋時烈이 미리 撰해 놓은 비문을, 숙종의 명을 받들어 趙相愚(1640-1718)가 書하고 아들인 靈恩君 涵이 篆을 낸 다음 內需司가 건립하였다.⁵⁹⁾

그리고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선조때 仁興君 李瑛(1604-1651)이 그의 어머니 靜嬪閔氏의 묘에 신도비를 세운 예를 본받아 私親인 淑嬪崔氏의 묘에 신도비를 세우고자 돌의 채취를 下敎하고도⁶⁰⁾ 신도비의 石材 운반에 참여한 백성들의 農事가 손상될까 염려하고, 그 勞役을 덜고자 담당 監營에게 거듭 警戒시키고 있다.⁶¹⁾

이렇듯 묘비류의 입석은 士大夫를 비롯한 王室과 그 姻戚에 의해서 활발하게 행해졌는데, 顯宗代에 이르면 兩亂을 겪고나서 무너진 신분질서속에서 성장한 中·庶人계층들인 醫譯, 吏胥, 公私賤 등이 職牒을 사들여 신분의 上昇을 이루고 死後에 墳塚을 쓰면서 5, 6尺이나 되는 큰 비석을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비의 前面과 後面에 宰臣의 묘표와 똑같이 職銜을 陰記하거나 심지어는 戶曹, 刑曹, 工曹, 漢城府, 義禁府, 都摠部를 兼職한 것으로 쓰고 있어, 顯宗 4

55) 英祖御製, 延齡君李田墓表 追記, 肅宗 45年(1719)立

‘凡墓標記者 備事實而垂後世也 己亥冬延齡君既卒之後 聖考賜諡孝憲 親製陰記 命宗臣書之 而今於商山郡夫人祔葬之日 墓文不可不添入 故茲以數句之語 題于墓石之傍 以述聖考之意焉’

56) 李敏求 識, 韓浚謙神道碑 追記, 孝宗 3年(1652)立

‘而已碑自原移安亦十有七年 以左尹公中沒綿歷歲時不克豎立 壬辰春 聖上特命內需司發帑藏 募工徒重連於墓陵之南 龍纏龜戴岌巖於新阡 陰祗呵護行路矜式 可謂希觀盛事 始仁祖大王賜 安山吉地俾遷公藏 以爲千萬代永固之域 今聖上再樹豐碑 以爲千萬代不朽之圖’

57) 《英祖實錄》45年 10月 1日(己酉)

58) 《正祖實錄》15年 10月 4日(乙巳)

59) 宋時烈 撰, 綾原大君神道碑, 肅宗 33年(1707)立

‘大明崇禎戊辰後丁亥十月 日內需司奉命立’

60) 《英祖實錄》元年 9月 21日(辛酉)

61) 《英祖實錄》1年 3月 18日(丙辰)

年(1663) 5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大司憲 金壽恒(1629-1689) 등이 上疏하여 姦惡하고 僭濫하게 행동한 죄를 懲戒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성부로 하여금 일일이 엄하게 조사해서 모두 그 죄를 다스리게 하고 묘표를 전부 철거토록 하고 있다. 또 吏曹를 申飭하여 사대부가 아닌 경우에는 追贈을 절대 허락해주지 못하게 하고 六曹, 京兆 및 金吾, 摠部の 兼職을 이미 追贈한 것들은 모두 還收하여 참람한 폐단을 막도록 하자고 강경한 주장을하고 있다. 이에 현종이 그대로 시행하라 이르면서 이미 직첩을 준 경우 지금 꼭 환수할 것까지는 없다는 하교를 내리고 있다.⁶²⁾

조치후 6개월이 지난 同王 同年 11월에 한성부에서 그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여 현종에게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庶人の 墓碣을 참람되게 허위로 기재한 자를 죄주었는데, 이에 앞서 漢城府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조에서 追贈한 사람을 기록한 책자 가운데 명단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조가 알아서 稟處해야 하겠습니까마는, 이름이 없는데도 僭濫되게 贈職된 것으로 한 자, 敎旨 중에는 加資된 것만 기재되어 있는데 實職을 함부로 써넣은 자, 敎寧이 아닌데도 곧바로 敎寧이라고 써넣은 자, 原從에 참여되었을 뿐인데도 곧장 功臣이라고 써넣은 자 등에 대해서는 차례로 論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表石의 경우, 庶人은 2尺을 넘지 못하게 하도록 先朝때 분명히 承傳을 받들었으니, 子孫이 없어 이름을 물어볼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모두 일체 철거토록 該部에 분부하는 한편, 10里 밖 圻內와 접경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할 일로 京畿 監司에게 移文하였습니다. 그러나 律을 상고하여 죄를 다스리는 일은 臣府의 소관이 아니니, 該府로 하여금 稟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⁶³⁾

표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와 서인의 표석이 2尺(60Cm)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자는 처벌하고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철거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인들의 墓表 건립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늘어만 갔다. 현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량을 파악할 수 없으나 서울시와 그 주변에 상당량이 존재하고 있다.

62) 앞의 註)49-54 참조.

63) 《顯宗實錄》4年 11月 1日(乙丑)

앞으로 이의 조사와 더불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러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이 묘비의 유행은 조선초기에는 사대부나 왕실을 중심으로한 지배층에 의해서 만 거의 이루어지다가 현종대에 이르면 중·서인들의 묘비 입석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모든 계층에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들이 묘비의 입석을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 및 확인받고 被支配層에 대한 우월감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듯이 中·庶人들도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조선중후기에 이르러, 그들의 상승된 신분을 과시하고 또 신분상승의 욕구를 묘비에 담아 표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서인층의 행동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지배층들은 中·庶人 묘표의 실태조사에 따른 강제 철거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여 그 위기감을 해소하려 하였을 것이다.

III. 陵墓碑의 種類와 樣式

1. 陵墓表

1) 名稱과 概念

碑에는 크게 碑와 碣이 있는데, 근래에 출간된 중국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古人들이 장방형의 각석을 세운 것을 碑라 하고 圓首形이나 方圓의 사이에 위는 작고 아래는 커다란 刻石을 碣이라 하였는데, 秦始皇이 돌에 그 공적을 새겨 이때부터 碑碣의 원형이 갖추어졌다 東漢이래로 비같이 점차 많아져서 碑訟, 碑記가 있었고 또한 墓碑가 있어 사실을 기록하고 德을 稱頌하는데 使用되었으며 비의 形制와 일정한 격식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후세에는 비갈의 명칭이 왕왕 혼동되어 사용되었다.⁶⁴⁾

이 내용을 보면 비와 갈의 구분을 外樣에 의해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墓表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64) 1989, 《中國工藝美術大辭典》南京, 碑碣條

墓碑・碑는 墓前에 혹은 墓道內에 세우는데 죽은자를 表彰하는고로 묘표라 칭한다 唐 柳宗元의 《柳先生集, 文通先生降給事墓表》와 같다 墓道에 세우니 또한 神道表 혹은 神道碑라 칭하기도 한다 北周 庾信의 《庾子山集, 周大將軍崔說神道碑》等과 같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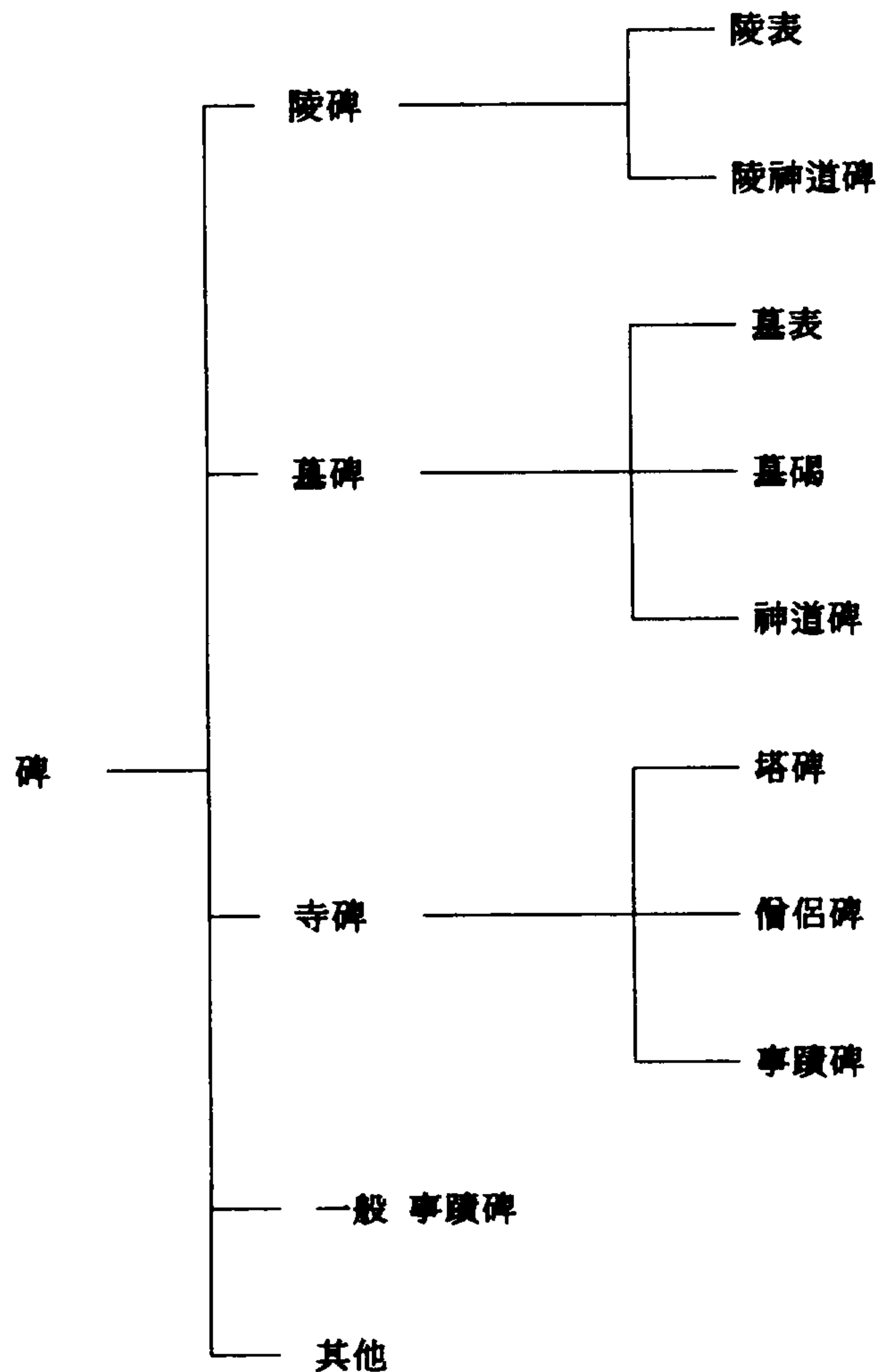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보면 묘비중에서도 죽은자를 表彰하는 것이 墓表이며 이를 神道表 또는 神道碑라고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같이 명칭과 개념이 정리되고 그 쓰임새가 구분되어 있었지만 앞서의 내용처럼 後代에 이르면 모두 混用되어 함께 사용되어 왔다.

조선시대도 중국처럼 초기에는 명칭과 개념이 混用되어 사용되다가 차츰 정리되어 묘표, 묘갈, 신도비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碑碣의 원시적인 구분법에 의거하지 않고, 外樣보다는 碑文의 碑題에 따라 碑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同一한 양식과 규모의 비라 하더라도 碑題가 墓表面 ‘홍길동墓表’라 불렀고 墓碣이면 ‘홍길동墓碣’ 신도비면 ‘홍길동神道碑’라 하였다. 즉 ‘長方形의 刻石을 세운 것을 碑라 하고 圓首形이나 方圓의 사이에 위는 작고 아래는 커다란 刻石을 碣’이라 한다는 구분법에 구애됨이 없이 장방형의 각석을 한것이라도 비문의 碑題가 묘표나 묘갈이면 묘표, 묘갈이라 하였고, 원수형이나 방원의 사이에 위는 작고 아래는 커다란 각석이라 하여도 비문의 碑題가 묘표나 신도비이면 묘표나 신도비라 하였다. 사찰의 塔碑나 事蹟碑 등도 이같이 碑題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같은 구분법에 의해 조선시대의 비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65) 1989, 《中國工藝美術大辭典》南京, 墓表條

< 朝鮮時代 碑의 分類圖 >



이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우선 큰 비의 한 종류로 陵碑가 있어, 여기서 陵表와 陵神道碑가 분류되고, 墓碑는 墓表, 墓碣, 神道碑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逆으로 말하면 陵墓表, 墓碣, 陵墓神道碑가 모두 碑로도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陵墓表, 墓碣, 陵墓神道碑는 작게는 陵墓碑의 한 종류지만 크게는 碑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 呼稱하거나 指稱하는 경우에는 많이

混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陵表를 두고 왕과 신하간에 논의되던 아래의 자료를 통해서 그 실례를 보겠다.

- 顯宗 14年 9月 宋時烈이 상소하여 '陵 앞에 表石을 세우자고...'
- 顯宗 14年 9月 金壽興이 진달하여 '表石의 경우 다른 儀物과는 차이가...'
- 肅宗 30年 9月 肅宗이 '表石은 寧陵외에는 모두 이를 하지 않았다...' 李滉가 '表石은 다른 陵寢에도 두루 세우지...'
- 英祖 30年 12月 金商魯가 상소하여 '七陵에 表石을 세우자고...'
- 英祖 31年 1月 英祖가 '각 陵의 碑石...'
- 英祖 31年 2月 英祖가 '七陵의 碑...'
- 英祖 46年 5月 雲南君 李진이 상소하여 '思陵에 碑石...厚陵과 敬陵의 碑石...'
- 正祖 10年 7月 하교하기를 '陵寢에는 神道碑가 있고 또 表石이 있다...'
- 正祖 12年 9월에 溫陵令 崔昌國이 상소하여 '능을 세우면 반드시 碑가 있는 것인데...'

위에서 보듯이 陵表 하나를 가지고도 表石, 碑石, 碑의 세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表石이 정확한 표현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陵表가 맞다. 여기서 논의되는 表石은 陵에 관계된 것이지 일반 墳墓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비, 비석이란 단어도 틀린 것은 아니다. 표석도 넓은 의미로는 비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표석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비에도 陵碑, 墓碑, 寺碑, 事蹟碑 등의 여러종류가 있어 단순히 碑라 하면 정확히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혼동은 문헌 자료나 실재 건립된 비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로부터 墳墓의 標識法에는 被葬者의 身分을 알리기 위해 墓前에 세우는 墓碑와 墓墳에 넣는 墓誌가 있었는데⁶⁶⁾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墓碑와 墓誌를 피장자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우거나 땅에 묻었었다.⁶⁷⁾ 묘

66) 金尙憲 撰, 左議政鄭惟吉神道碑, 仁祖 24年(1646)立

'日內弟鄭廣成屬尙憲曰 王父幽堂之銘 兄既已爲之 茲有未盡之役于神道 事無異記 銘無異辭 惟是一在地中 一在地上 兩存並傳 惟兄圖之'

67) 李滉 撰, 廣州治西光秀山李氏世葬記碑, 肅宗 21年(1695)立

'嗚呼 自大君以後 于今十餘代 子孫以族而位焉 纍纍相連 殆不可辨 而其有碑碣表誌者 無

비의 세 종류를 보통 묘표, 묘갈, 신도비라 부르지만 碑題에 의한 가장 올바른 표현은 墓表陰記, 墓碣銘并序, 神道碑銘并序이다. 즉 묘의 表石 陰(後面)에記하고 그리고 墓碣과 神道碑에 序(被葬者の一生)한 다음 아울러 銘(被葬者에 대한 讚詩)한다는 뜻이다. 글의 내용중 9할 이상을 散文으로 된 序로 하고 나머지를 韻文으로 된 銘으로 채우는 것이 전형적인 碑文이다. 조선시대 묘비문의 종류는 이 세 가지이며 더러 撰者の 취향에 따라 <표6> 처럼 異稱을 사용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이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6>에서 나온 묘표의 명칭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墓表, 墓表陰記, 墓表銘, 石表, 小表, 墓表文, 墓記, 墓表誌後, 墓表後記 등 1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⁶⁸⁾ 묘표라는 表題을 사용한 撰者가 대부분으로 묘표음기나 묘표명이 약간 있고 나머지는 극소수 뿐이다. 이로보면 보편적인 명칭으로 묘표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용어도 그것과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石表와 小表는 墓表를 이르고 墓表文, 墓記, 墓表誌後, 墓表後記는 墓表陰記와 의미가 같다. 그리고 묘갈과 신도비에만 보이는 銘이 묘표에도 보이는 것이 異彩롭다. 이같은 예는 극소수지만 楊士彦墓表, 花昌君李沆墓表, 宋愉墓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許穆墓表와 洪可臣墓表처럼 自銘을 하는 경우도 있어 墓表文에 변화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문집에 실린 묘표문의 題目이 이같은 반면, 실제 입석된 묘표의 표제가 어떠한지 <표7> 묘표 목록에 실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여섯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表題의 末尾에 묘표가 나오는 예로 許稠墓表, 邊安烈墓表, 宋愉墓表, 李德洞墓表, 洪보墓表, 宋黃生墓表, 宋奎淵墓表, 金南重墓表, 宋裕祚墓表, 金吉通墓表 등이다. 이중에서 송유묘표, 홍보묘표, 송규연묘표, 송유조묘표는 篆額도 올렸으며 김길통묘표는 앞면 우측면에 大楷로 縱書 하였다.⁶⁹⁾

幾 想歲月之愈久而愈泯 遂錄諸墓 凡一百八十六 疏其向背步數 別其岡麓次第如右'

68) <표6>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神道表라는 명칭도 있으며 실제로 건립되기도 하였다.

申大羽 撰, 鄭齊斗神道表, 純祖 3年(1803)立

69) ○ 許稠墓表, 世宗 21年頃(1439)立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贈諡文敬公府君墓表'

○ 邊安烈墓表, 宣祖 4年(1571)立

'高麗國推忠亮節宣威翊贊補祚功臣...原川府院君邊公墓表'

둘째, 표제의 말미에 墓表陰記라 한 예로 成渾墓表陰記, 安坦大墓表陰記, 宋浚吉墓表陰記, 尹煌墓表陰記, 尹文學墓表陰記, 俞直基墓表陰記⁷⁰⁾가 있다.

셋째, 표제는 없지만 篆額을 올려 묘표임을 밝힌 예가 있다.⁷¹⁾

넷째, 표제가 없지만 묘표문중에서 묘표나 묘표음기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로 李安訥墓表, 李敬輿墓表, 金演墓表, 李莞墓表, 臨昌君李焜墓表, 金若

- 宋儵墓表, 孝宗 7年以前(1656)立
‘有明朝鮮處士雙清堂宋公墓表’
- 李德河墓表, 孝宗 8年(1657)立
‘朝鮮國議政府右贊成…竹泉李公墓表’
- 洪보墓表의 篆額은 다음과 같다. 孝宗 10年(1659)立
‘有明朝鮮國議政府左參贊豐寧君 贈議政府領議政豐寧府院君月峰洪公墓表’
- 宋黃生墓表, 顯宗 6年(1665)立
‘有明朝鮮通政大夫宋公墓表’
- 金南重墓表, 肅宗 13年(1687)立
‘朝鮮國資憲大夫禮曹判書…慶川君金公墓表’
- 宋奎淵墓表의 篆額은 다음과 같다. 肅宗 13年(1687)立
‘有明朝鮮通政大夫延安都護府使宋公墓表’
- 宋裕祚墓表, 肅宗 42年(1716)立
‘安城郡守李公墓表’
- 金吉通墓表, 純祖 22年(1822)立
‘戶曹判書月川君文平金公墓表’
- 70) ○ 成渾墓表陰記의 末尾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宣祖 22年(1589)立
‘諡文簡公行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牛溪成先生墓表陰記 外孫尹舜舉敬書’
- 安坦大墓表陰記의 表題는 다음과 같다. 孝宗 7年(1656)立
‘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安公墓表陰記’
- 宋浚吉墓表陰記의 表題는 다음과 같다. 肅宗 37年(1711)立
‘有明朝鮮國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成均館祭酒 世子贊善 贈…同春堂宋先生墓表陰記’
- 尹煌墓表陰記의 表題는 다음과 같다. 肅宗 37年(1711)立
‘有明朝鮮國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尹公墓表陰記’
- 尹文學墓表陰記의 表題는 다음과 같다. 正祖 5年(1781)立
‘有明朝鮮國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春秋成均館事 贈…石湖尹先生墓表陰記’
- 俞直基墓表陰記의 表題는 다음과 같다. 正祖 2年(1787)立
‘有明朝鮮國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贈…俞公墓表陰記’
- 71) ○ 宋繼祀墓表, 顯宗 9年(1668)立, ‘持平宋公墓表’
- 宋胤昌墓表, 顯宗 9年(1668)立, ‘侮將軍宋公墓表’
- 宋國準墓表, 肅宗 12年(1686)立, ‘尙衣院正宋公墓表’
- 宋之明墓表, 光武 2年(1898)立, ‘左承旨宋公墓表’
- 宋龍壽墓表, 光武 6年(1902)立, ‘知中樞宋公墓表’

魯墓表, 尹타墓表, 金萬謹墓表, 鄭燦欽墓表 등이 있다.⁷²⁾

다섯째, 묘표문은 있으나 표제가 없는 경우로 많은 수의 묘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宋時烈의 宋子大全에 실린 宋斯敏墓表, 李元秀墓表, 宋國澤墓表, 宋光弼墓表 와 李廷龜의 月沙集에 수록된 李珥墓表처럼 찬자의 문집에서 이런 유형이 墓表로 분류되어 있어 묘표임을 알 수가 있다.

여섯째, 묘표문과, 표제 둘다 없고 다만 前面에 被葬者의 身分과 後面에 建立年이나 葬日만 있는 경우다. 그리고 尹拯墓表같이 음기부분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도 있다. 윤증묘표는 前面에 大字로 ‘有明朝鮮徵士 坡平尹公諱拯之墓’라 써 놓고 양측면과 후면에 아무런 기록을 새겨 놓지 않았는데, 前面의 大字 바로 아래에 小字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새겨 놓아 묘표임을 알 수가 있는 경우다.

魯西先生(尹拯)의 墓表는 곧 石湖先生(尹文舉)이 쓰신 것인데 石面의 13자는 다르지 않아 삼가 摸해 새겼노라 다만 諱자는 그 작은 글씨를 늘여서 키워서 보충하였다.⁷³⁾

72) ○ 李安訥墓表, 肅宗 13年(1687)立

‘…牧使 君將豎公墓表 屬余記其陰辭 不獲謹拔 大略而識之’

○ 李敬輿墓表, 肅宗 34年(1708)立

‘…頤命最蒙置膝之愛 敢於表墓之記 粗述聞見以寓永慕之思 且補碑文之不備者…’

○ 金演墓表, 肅宗 41年(1715)立

‘…而深知之惟子其人 其爲我表其阡 淳既辭而敬諾…’

○ 李莞墓表, 肅宗 43年(1717)立

‘…曾玄若干人 今樹表者 滿子弘植也’

○ 臨昌君李焜墓表, 英祖 24年(1748)立

‘…既卒事 俾師洙識墓表之陰…’

○ 金若魯墓表, 英祖 31年(1755)立

‘…平日言行事業當具載國乘 且將有徑碑之述 只記始終大略 于表陰女右’

○ 尹타墓表, 英祖 48年(1772)立

‘…公以 肅宗壬戌九月十五日沒 今近八十年 先人具石欲建表未就 曾孫得觀謹依先大父所撰遺事 集唐柳公權書識表陰’

○ 金萬謹墓表, 純祖 17年(1817)立

‘…謹就家狀撮其始終大槩 以表於墓道…’

○ 鄭燦欽墓表, 憲宗 9年(1843)立

‘…今茲樹表守墓 略書爲陰記’

73) 尹拯墓表, 推定 18C

‘魯西先生墓表 乃石湖先生筆 而石面十三字無異同 謹摸入刻 惟諱子演其小字 而大之 以

이상과 같이 묘표의 명칭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文集에 나온 墓表文의 題目이 여러 가지였던 것과는 달리 실제 입비된 묘표를 살펴본 결과 表題가 있는 경우 거의 ‘墓表’나 ‘墓表陰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墓表文은 있으나 表題가 없어 篆額으로 묘표임을 나타내는 예도 있었다. 또 墓表文은 있는데 表題와 篆額이 없고, 墓表文조차 없는 경우도 자료를 통해서 묘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두 경우가 입석된 묘표 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처음 조성된 陵表는 淑陵表인데⁷⁴⁾, 太祖 2年(1393)에 세워진 것이다.⁷⁵⁾ 〈표8〉를 살펴보면 淑陵이후에는 능표를 건립하지 않다가 顯宗 15年(1674)에 寧陵表를 시작으로 英祖代에 이르러 대량으로 조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조대 이후에도 꾸준히 입석하여 거의 모든 능에 능표를 세웠다.⁷⁶⁾

墓表는 〈표7〉에 의하면 15世紀初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朴可興墓表(사진1-2)가 건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입석되어 묘갈이나 신도비보다 월등히 많은 수량이 제작되었으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中·庶人들까지도 입석에 참여하여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⁷⁷⁾

2) 立石 制限

표석 즉, 陵表와 墓表는 앞서 나온 것처럼 王室과 官僚層, 그리고 일반 士大夫를 비롯하여 中·庶人들까지도 입석할 수 있었던 墓碑였다. 서인의 경우 그 크기가 2尺(약 60Cm)으로 한정되어 있어 만약 이를 어기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았었다. 사대부의 경우 《家禮源流》에 北宋의 司馬光이 제시한 品階別 허용 규모가 나오고 그리고 《家禮增解》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서인같이 국법으로 엄하게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準해서 立石할 것을 勸獎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補焉’

74) 淑陵은 翼祖妃 貞淑王后의 陵으로, 익조는 穆祖의 아들이자 朝鮮太祖의 曾祖이다.

75) 《朝鮮金石總覽》下 1976 亞細亞文化社 p719.

‘貞妃淑陵(裏面) 洪武二十六年十月 日 立石’

76) 앞의 註) 62 참조.

77) 앞의 註) 62 참조.

* 《家禮源流》 78)

司馬溫公曰 按今式墳碑石獸 大小多寡 雖各有品數.

廣記, 封王 : 螭首高三尺二寸 碑身高九尺 闊三尺六寸 龜趺高三尺八寸

一品 : 螭首高三尺 碑身高八尺五寸 闊三尺四寸 龜趺三尺六寸

二品 : 盖用麟鳳高二尺八寸 碑身高八尺 闊三尺二寸 龜趺高三尺四寸

三品 : 盖用天祿辟邪高二尺六寸 碑身高七尺五寸 闊三尺 龜趺高三尺二寸

四品 : 圓首高二尺四寸 身高七尺 闊二尺八寸 方趺高三尺

五品 : 圓首高二尺二寸 身高六尺五寸 闊二尺六寸 方趺高三尺八寸

六品 : 圓首高二尺 身高六尺 闊二尺四寸 方趺高二尺六寸

七品 : 圓首高一尺二寸 身高五尺五寸 闊二尺二寸 方趺高二尺八寸

唐葬令, 五品以上螭龜趺 降五品爲碣方趺圓首其高四尺

石碑, 一品螭首 二品麒麟 三品天祿辟 皆用龜趺 四品至七品 皆圓首方趺

* 《家禮增解》 79)

碑, 封王 : 螭首高三尺二寸 碑身高九尺 闊三尺六寸 龜趺高三尺八寸

一品 : 螭首高三尺 碑身高八尺五寸 闊三尺四寸 龜趺高三尺六寸

二品 : 盖用麟鳳

三品 : 天祿辟盖 盖用龜趺

四品以下 : 圓首方趺 碑身之高 每品減五寸 闊減二寸 螭二寸

3) 數量和 規模

〈표7〉 묘표 목록에 기재된 묘표의 수량은 총 280개인데 이를 역대 왕별로 나눠 보면 태종 2, 세종 6, 문종 1, 세조 5, 성종 16, 연산군 8, 중종 16, 명종 3, 선조 11, 광해군 4, 인조 19, 효종 8, 현종 13, 숙종 50, 경종 3, 영조 43, 정조 20, 순조 20, 헌종 5, 철종 10, 고종 16, 순종대에 1기가 입석되었다. 가장 입석이 활

78) 俞榮, 《家禮源流》卷十一

79) 李宜朝, 《家禮增解》卷六

발하던 시기는 肅宗에서 正祖代까지로 전체수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묘표의 규모는 대부분이 100-200Cm안밖이지만 邊安烈墓表(325Cm)와 李惟淸墓表(223Cm)가 이례적으로 300Cm를 넘고 있으며 200Cm를 넘는 묘표로도 宋之翰墓表(237Cm)를 비롯하여 62개가 있다. 그러나 100Cm도 안되는 작은 묘표도 있으니 奉奎墓表(94Cm)와 奉原良墓表(91Cm) 등이다.

4) 樣式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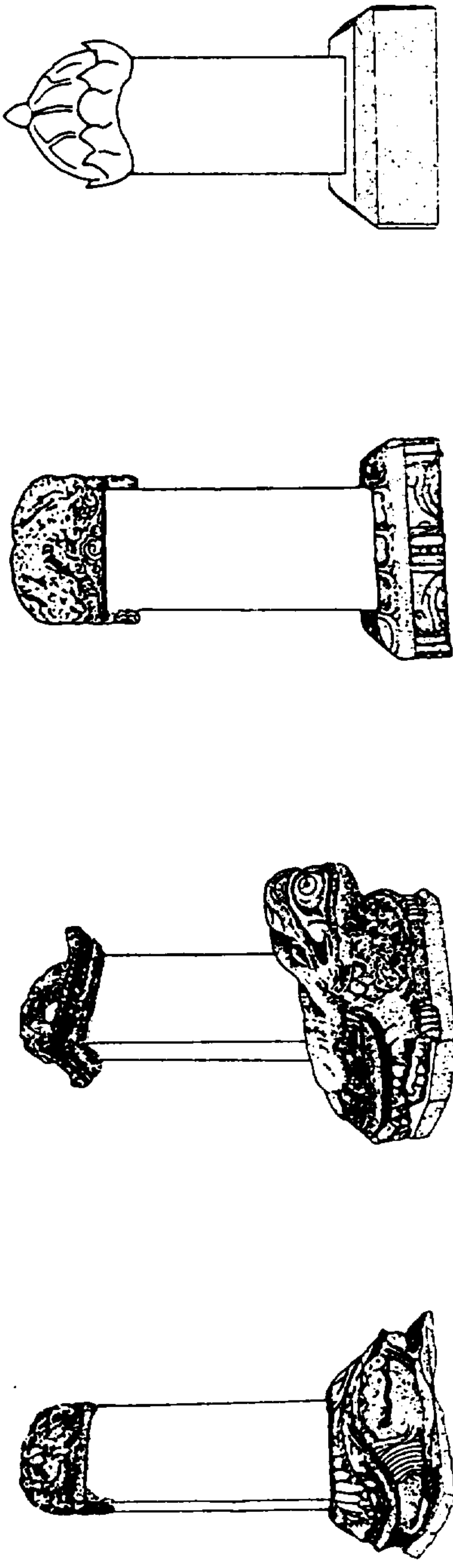
조선초부터 주류를 이룬 양식은 朴可興墓表(15世紀初, 사진1-2)부터 나오는 碑座荷葉 양식과 許稠墓表(世宗25以前, 1443)에서 처음 나타나는 碑座奎首 양식으로 집약된다. 이 두 양식이 연산군 후반까지 사용되었는데 後者보다는 前者가 좀 더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月山大君墓表(燕山君11, 1505)부터 碑座螭首 양식이, 그리고 朴元宗墓表(中宗5年頃, 1510)부터 碑座圓首 양식이 등장하고 이어서 成渾墓表(宣祖22, 1589)에서 碑座蓋石 양식이 출현하면서 부터는 어느 한 양식이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諸樣式이 混用되었다.

陵表는 태조 2년(1393)에 건립된 淑陵表를 제외하고는, 寧陵表(顯宗15, 1674)부터 대부분의 능표가 碑座蓋石 양식을 취하는데 현존하는 陵神道碑가 모두 귀부이수 양식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간소하게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좌하엽 양식은 鄭承周妻市津宋氏墓表(光海君1, 1609)를 끝으로 仁祖代이후 부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 이때에 이르러 불교적인 색채의 하엽 양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당시 급변하던 政局과 사상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비좌하엽 양식 다음에는 비좌원수 양식이 많이 선 보이고 있다.

碑座奎首 양식도 南舜民墓表(宣祖3, 1570)이후 잠시 사라졌다가 金集墓表(顯宗3, 1662)때 다시 한번 등장하더니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 두 양식이 사라진 후에는 비좌이수, 비좌원수, 비좌개석 양식이 남았는데 이중 비좌이수 양식은 高宗代까지 사용되었지만 나머지 두 양식에 비해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고, 肅宗代이후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80) 묘표, 묘갈, 신도비의 양식에 대한 서술은 〈표7〉 - 〈표10〉의 자료에 의거하고 있다. 표에 수록된 자료는 대부분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만, 未詳인 것도 더러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차후에 더 보충하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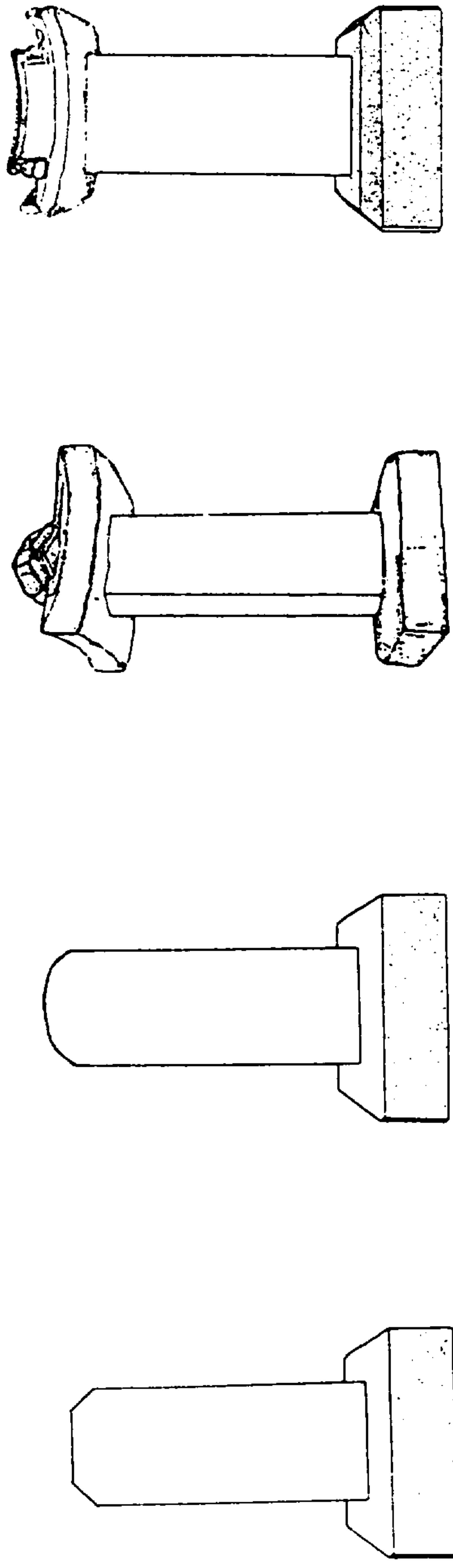


1. 龜趺螭首

2. 龜趺螭首

3. 碑座螭首

4. 碑座荷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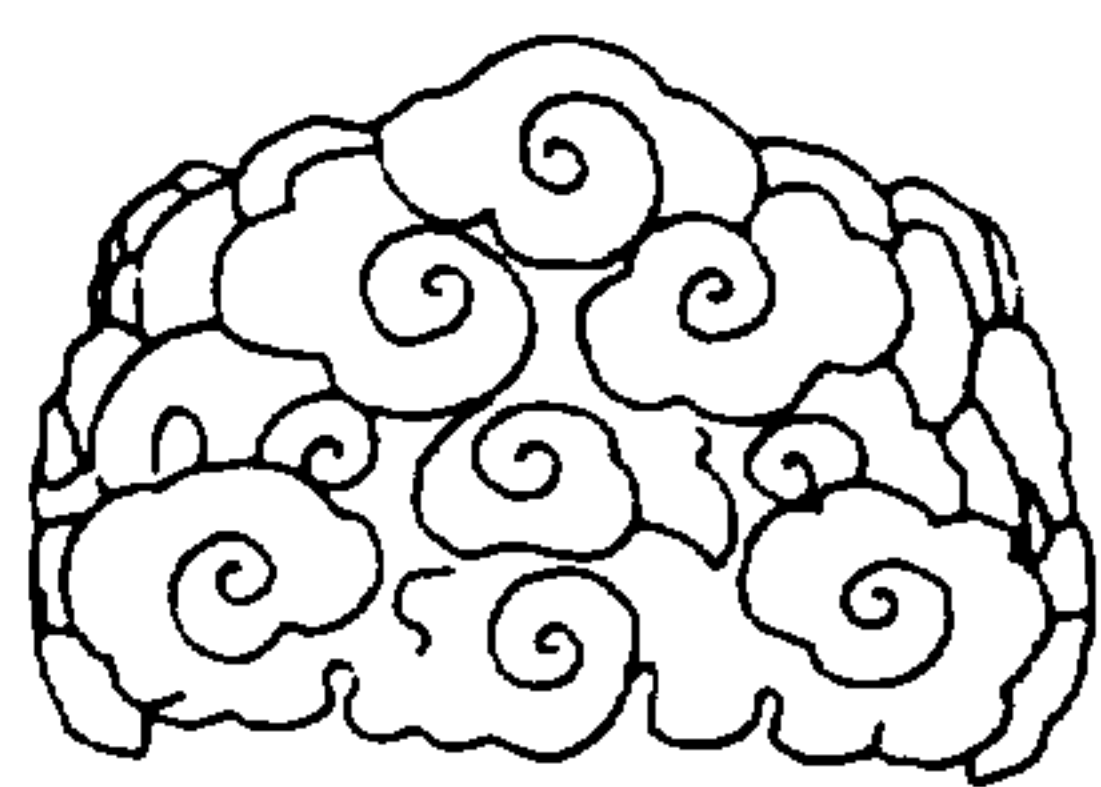
5. 碑座奎首

6. 碑座圓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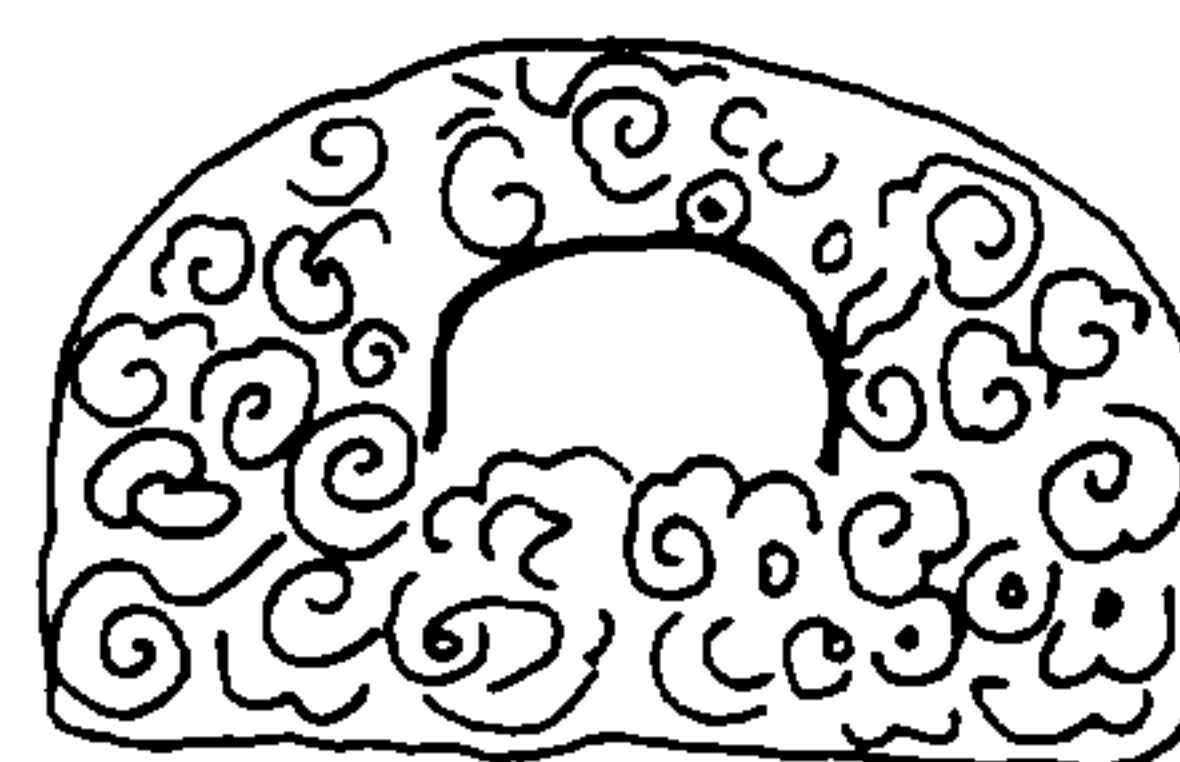
7. 碑座蓋石(正方形)

8. 碑座蓋石

도면 1. 碑의 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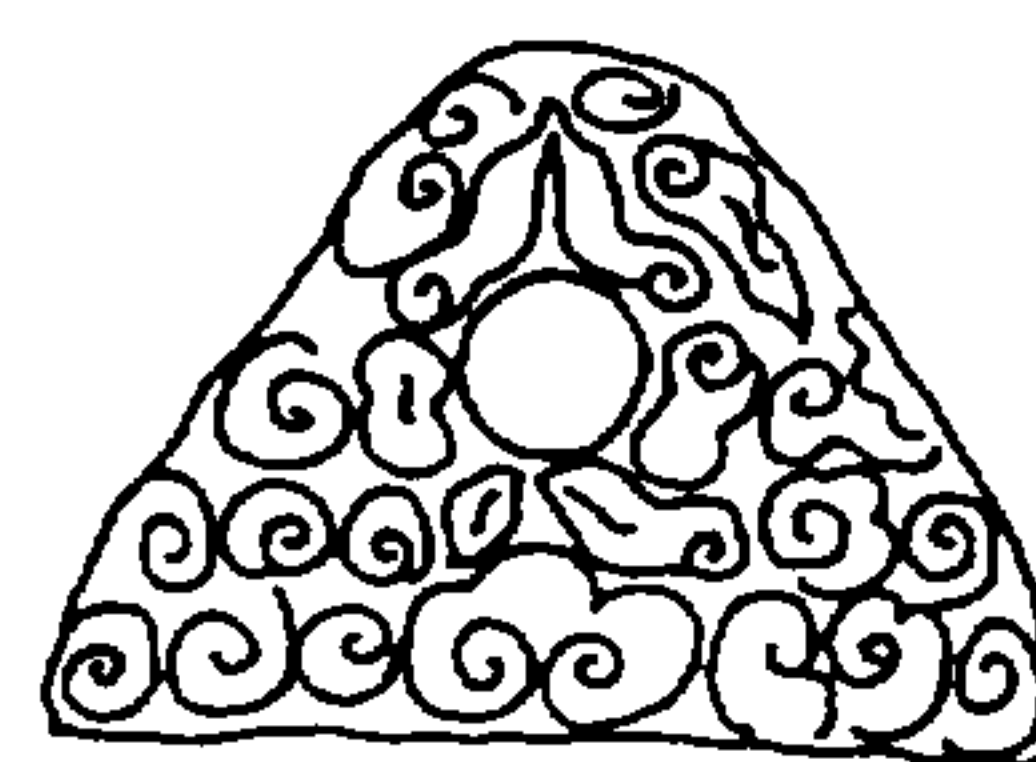
1. 月山大君墓表 (燕山君11, 1505)



5. 邊安烈墓表 (宣祖4, 1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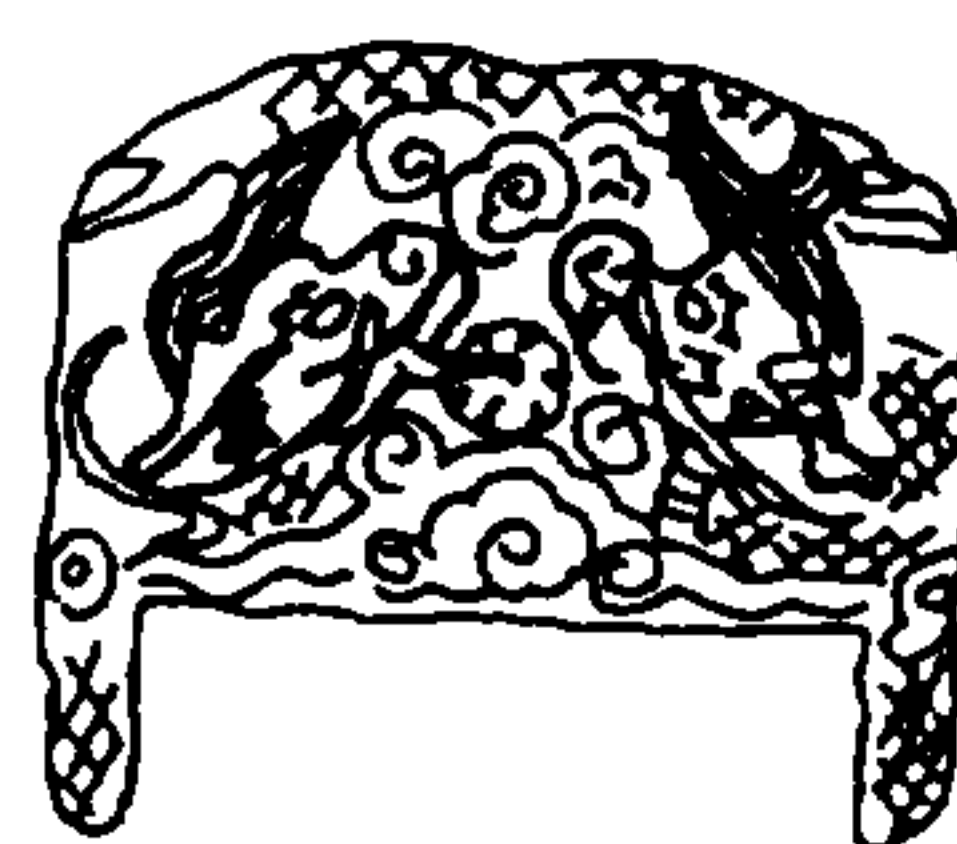
2. 鄭光輔墓表 (中宗19, 1524)



6. 李滉墓表 (宣祖10, 1577)



3. 朴雲墓表 前 (中宗34, 1539)



7. 鄭太和墓表 (肅宗1, 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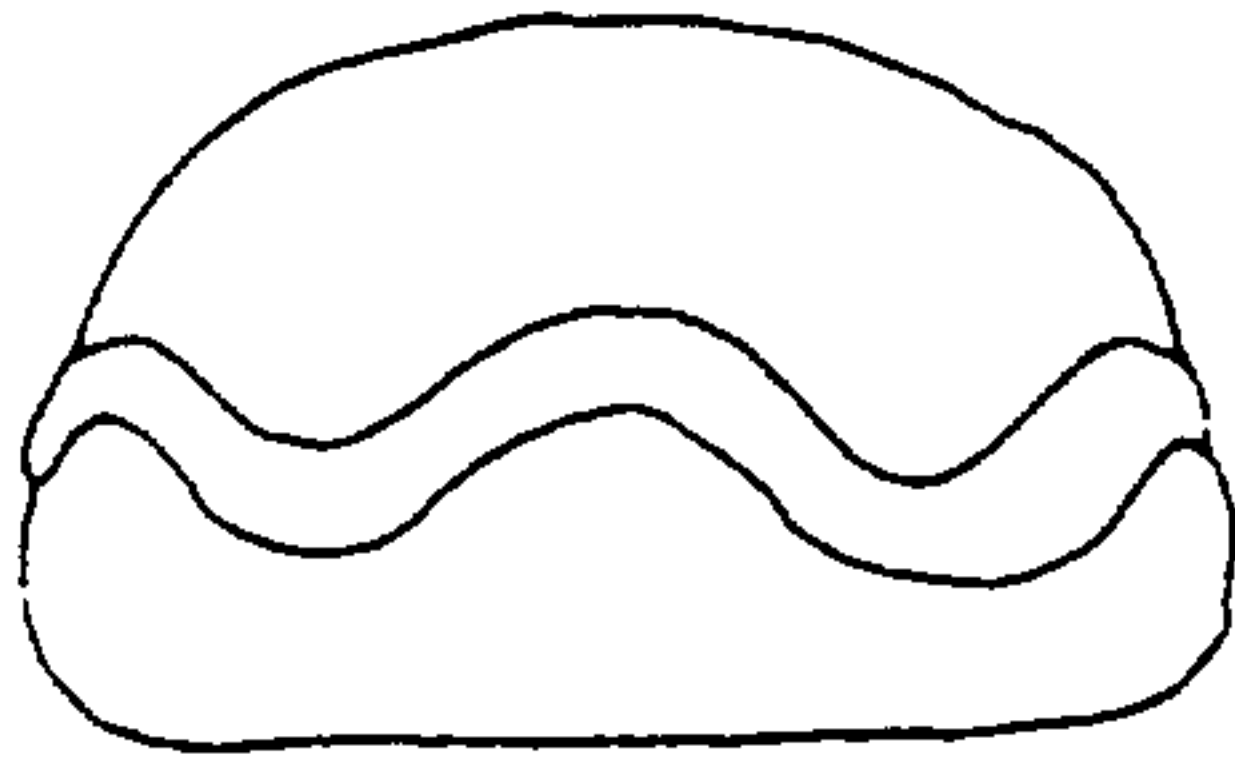


4. 朴雲墓表 後 (中宗34, 1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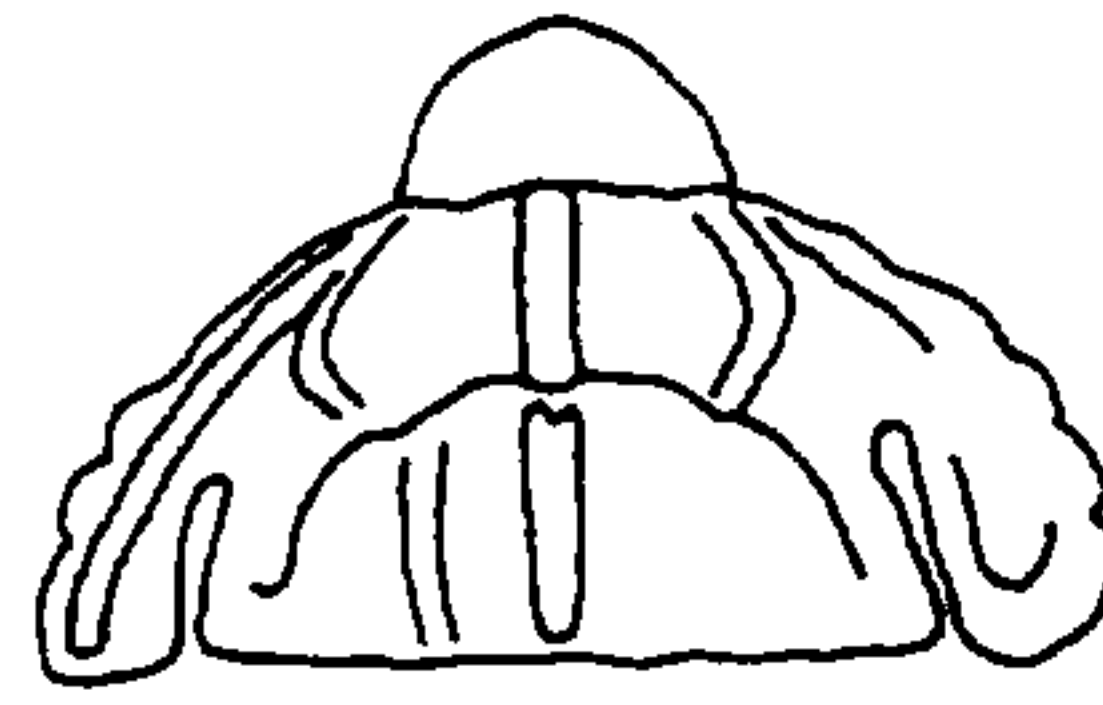


8. 鄭福謙墓表 (肅宗7, 1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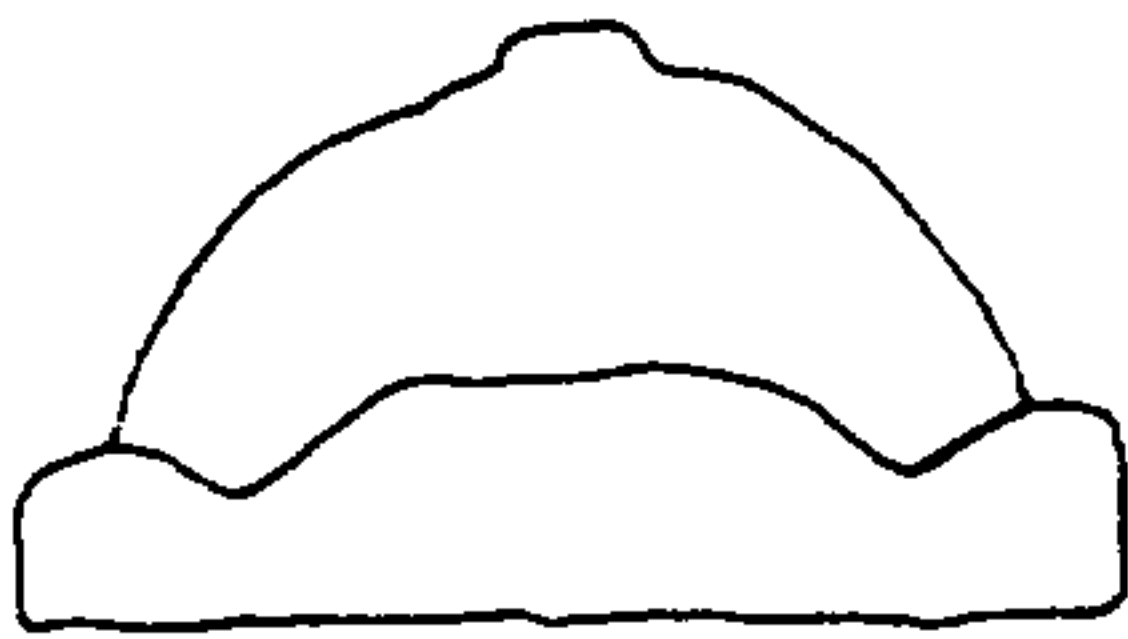
도면 2. 墓表 螭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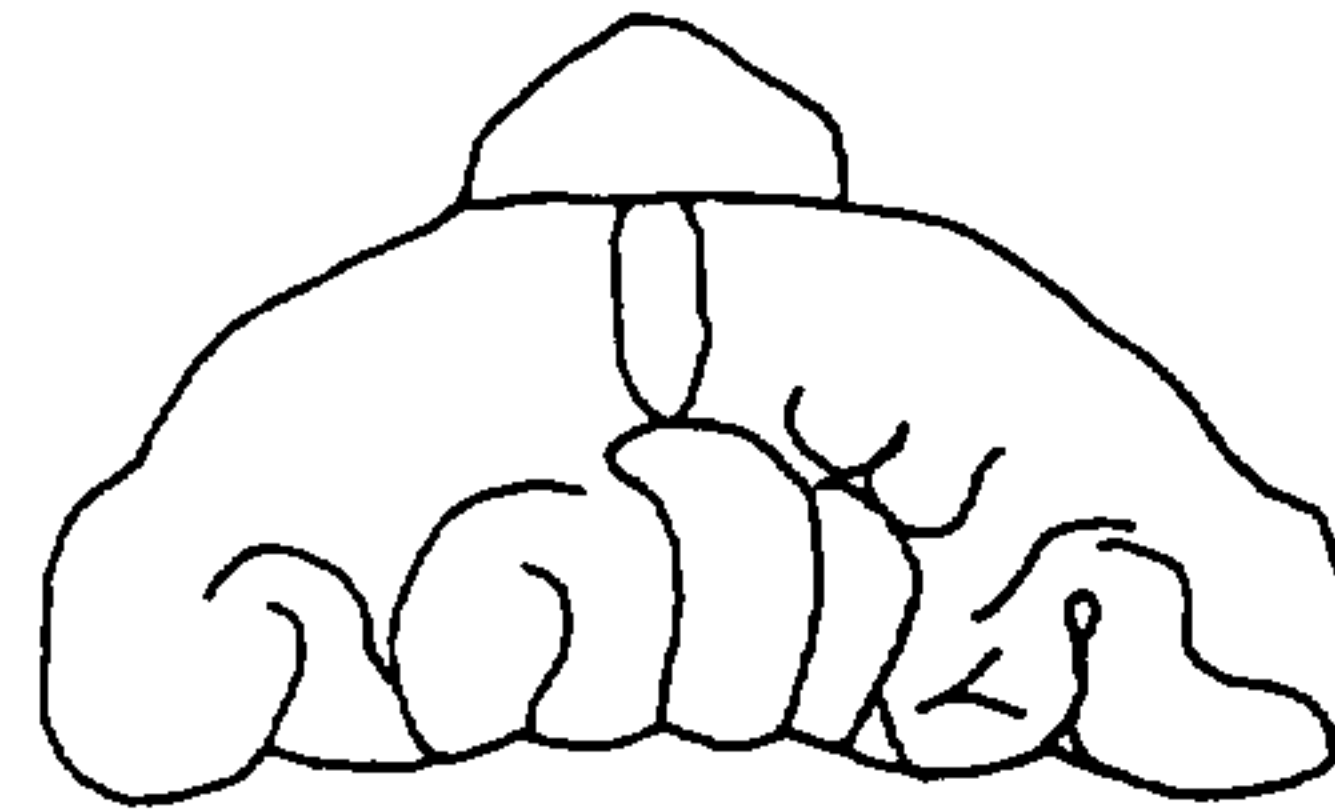
1. 朴可興墓表 (15C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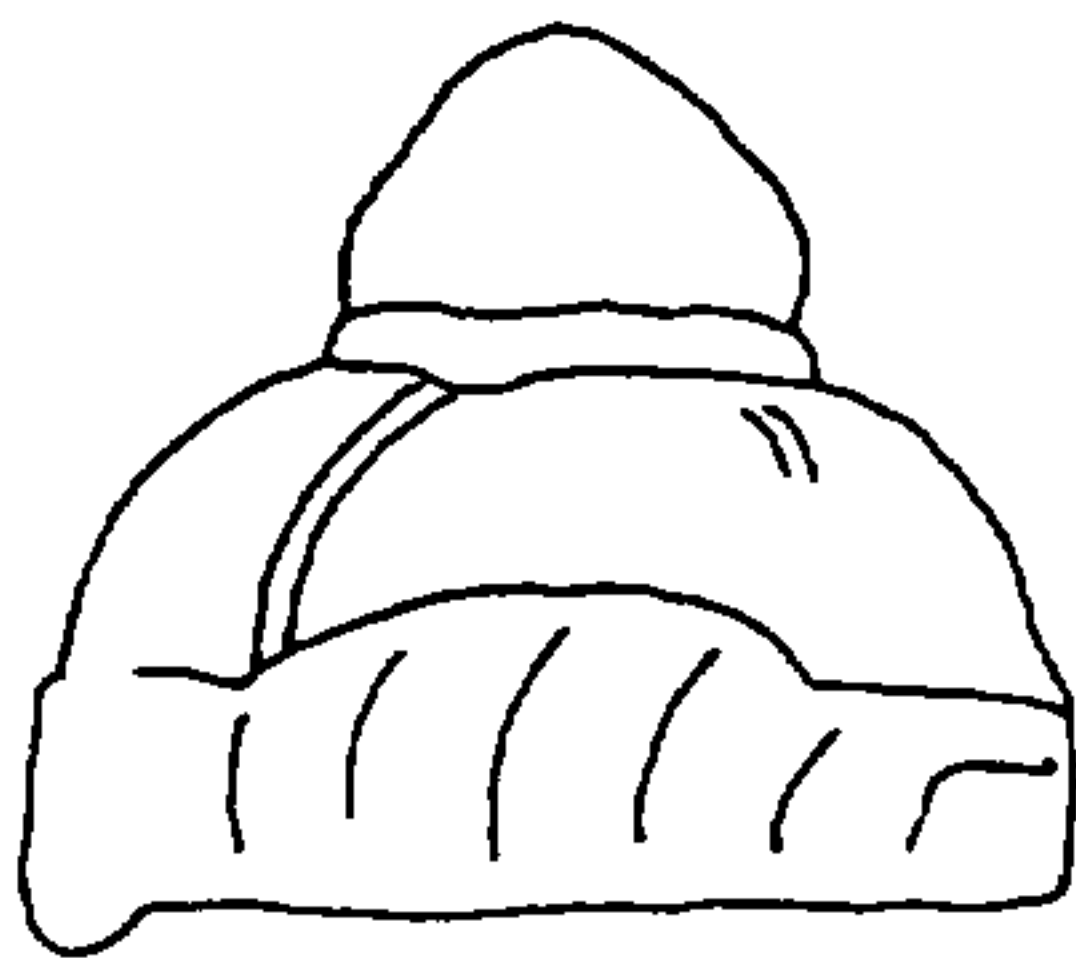
5. 魚世恭墓表 (成宗17年頃, 1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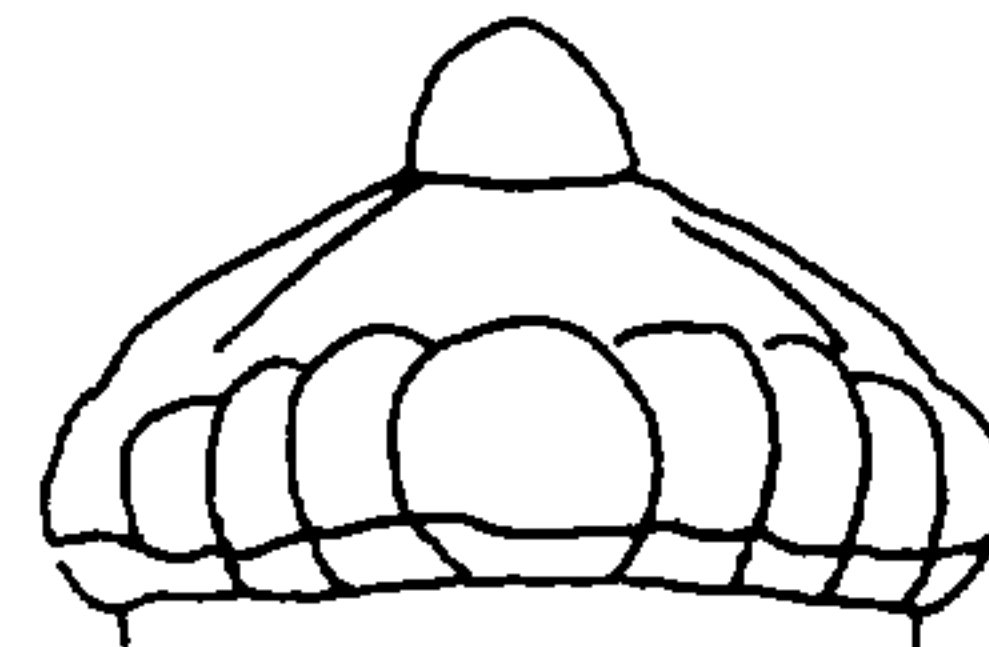
2. 韓確墓表 (世祖2, 1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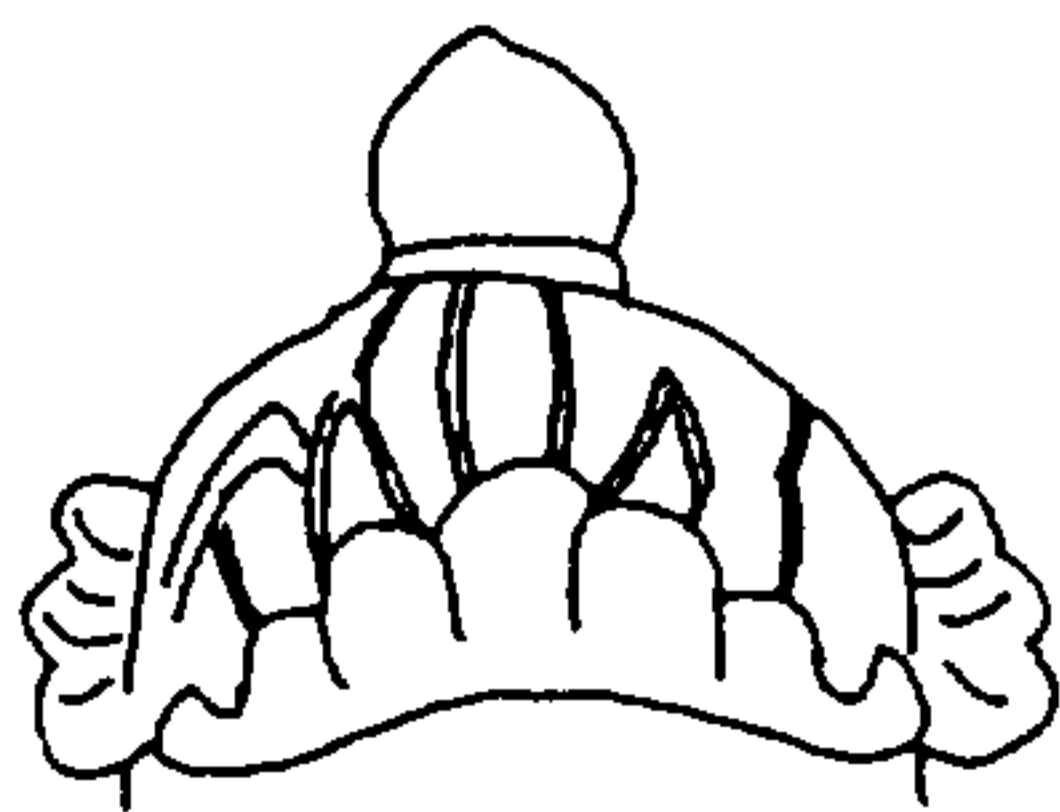
6. 鄭文炯墓表 (燕山君7, 1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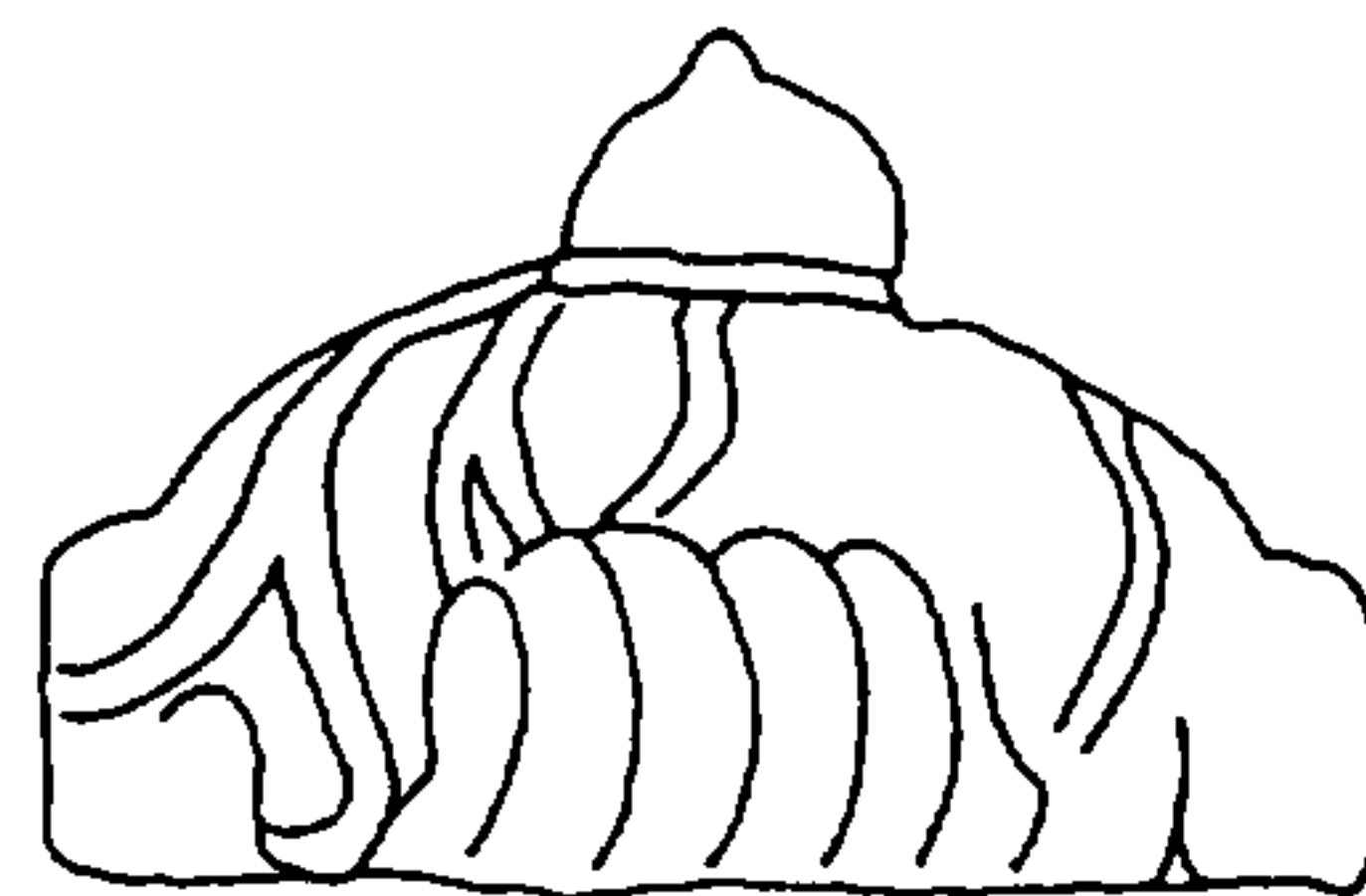
3. 趙鐵山墓表 (世祖13, 1467)



7. 金悌臣墓表 (燕山君9, 1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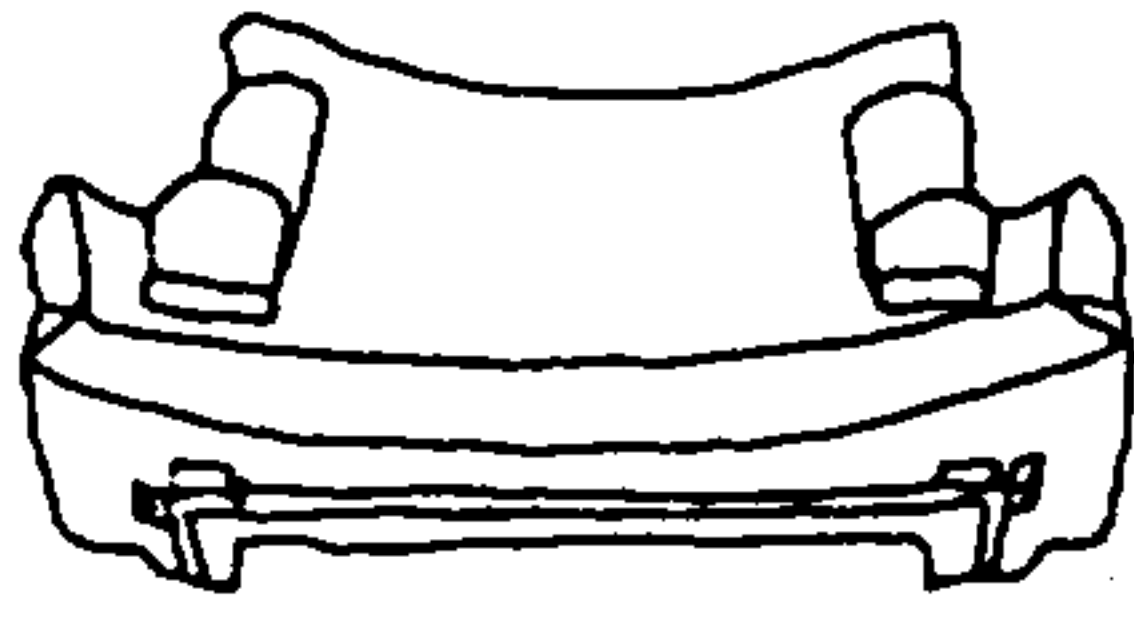


4. 韓繼美墓表 (成宗3年頃, 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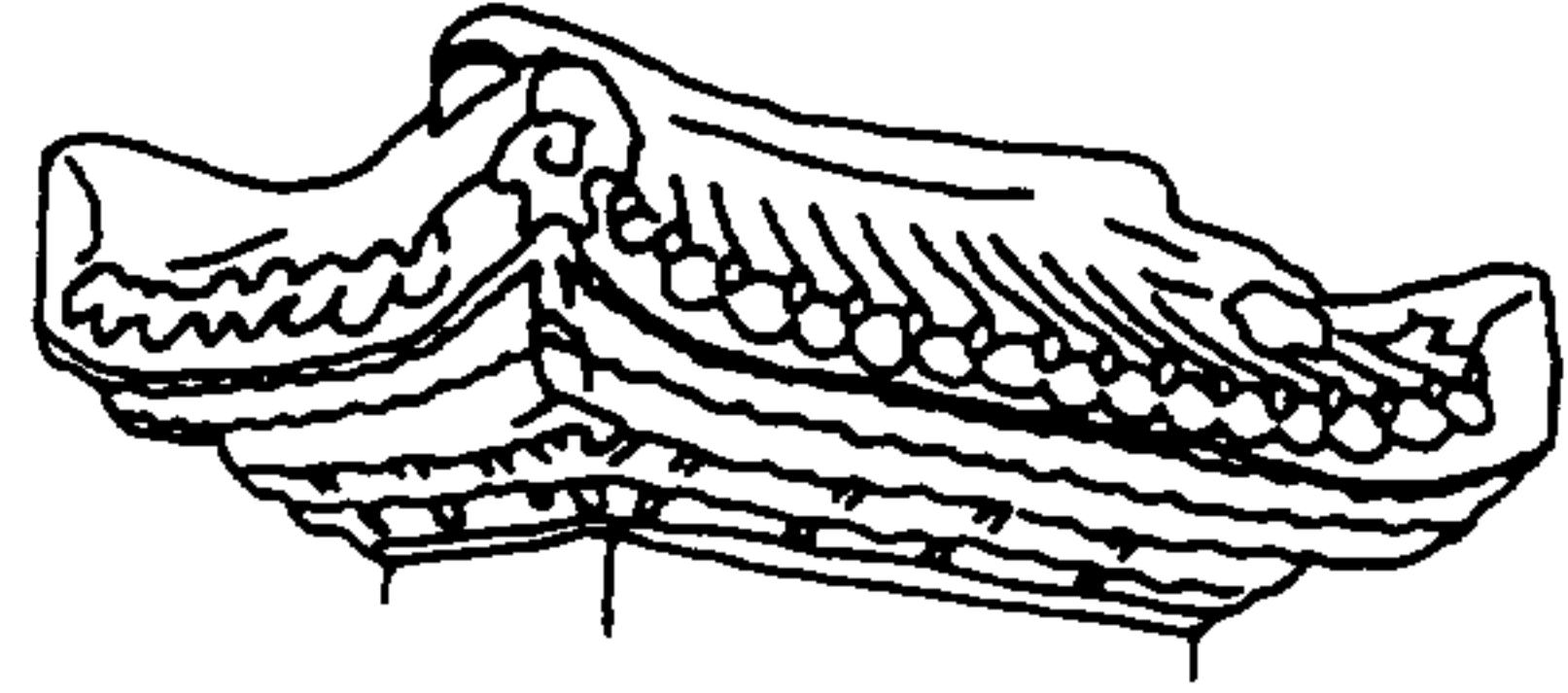


8. 宋惟毅墓表 (宣祖38, 1605)

도면 3. 墓表 荷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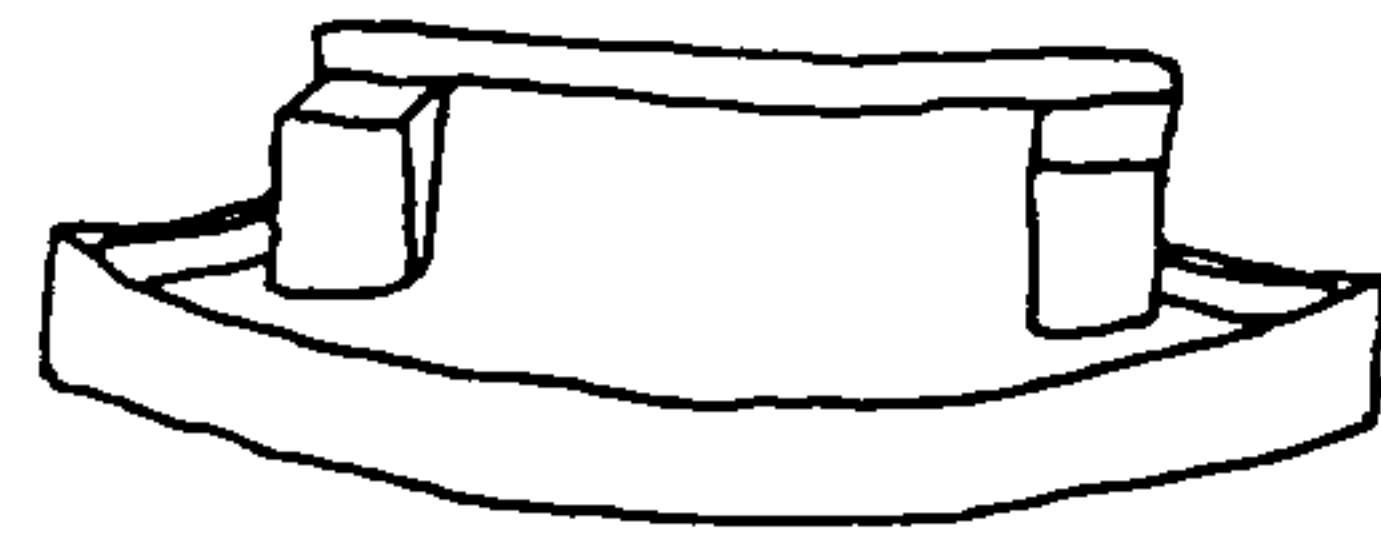
1. 成渾墓表 (宣祖22, 1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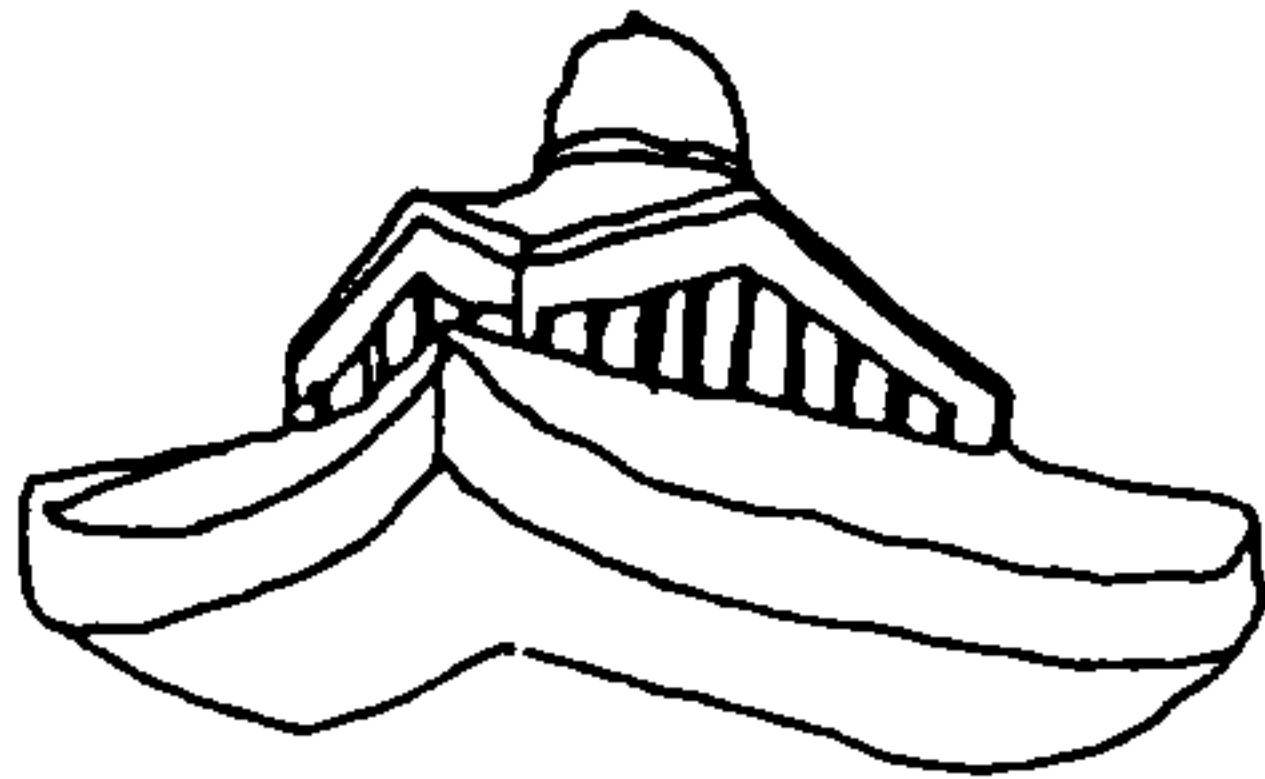
5. 延齡君李田墓表 (肅宗45, 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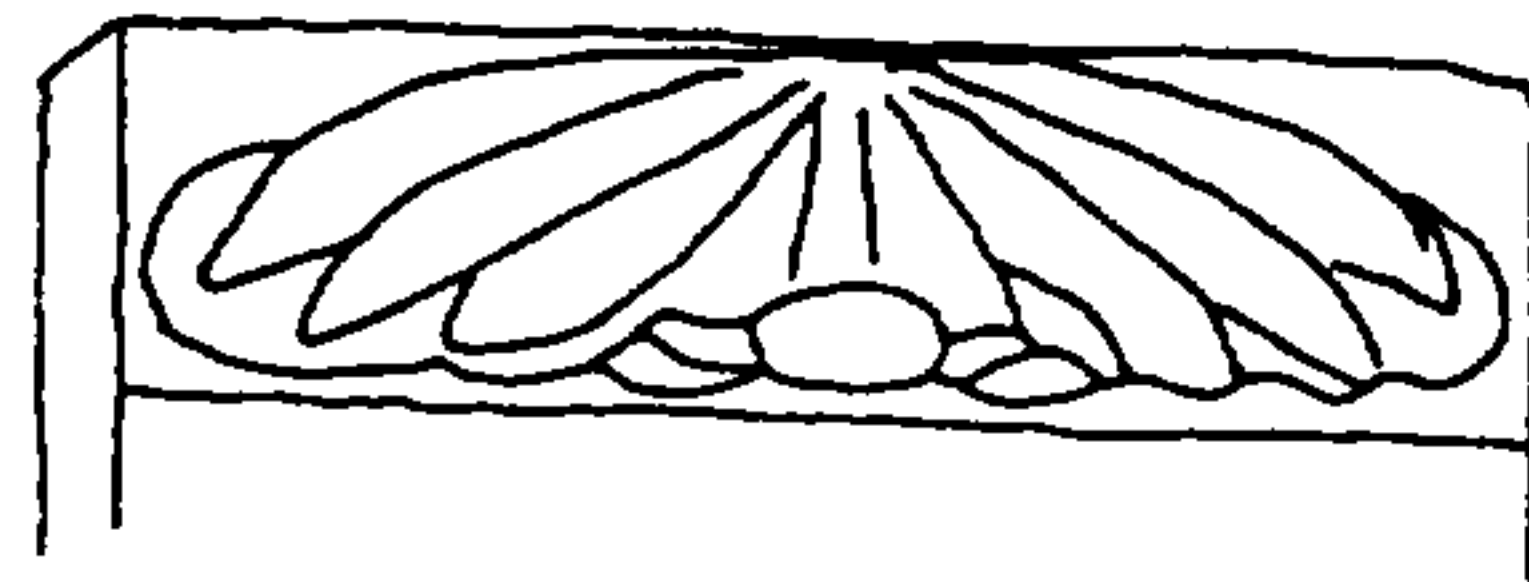
2. 申景稟墓表 (肅宗1, 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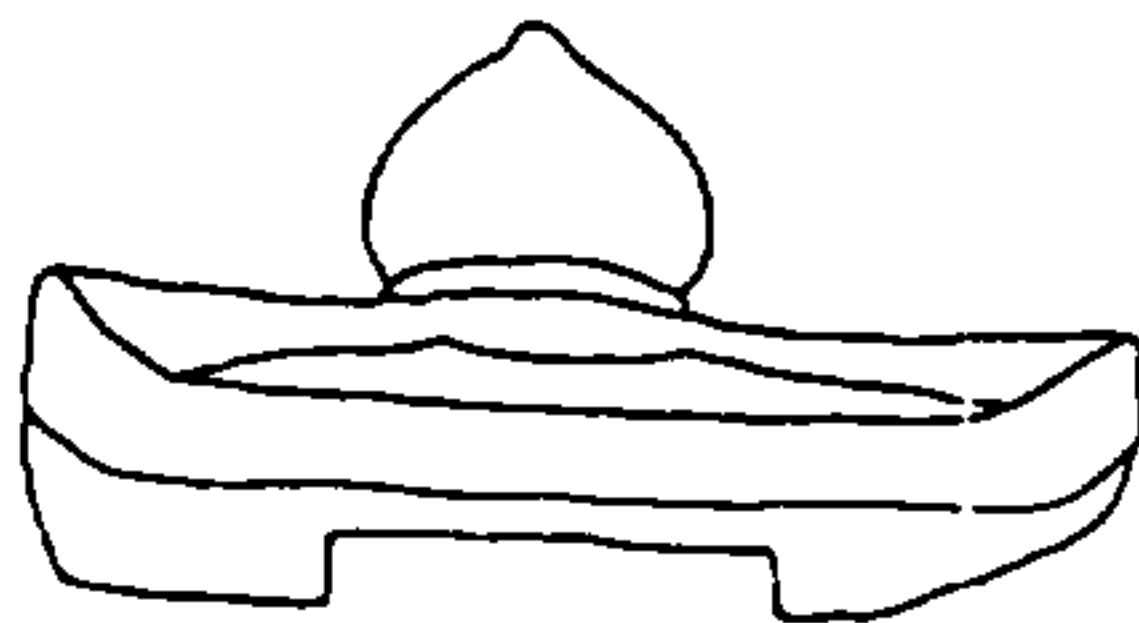
6. 宋基泰墓表 (哲宗12, 1861)



3. 洪柱天墓表 (肅宗19, 1693)



7. 鄭鴻慶墓表 (哲宗3, 1852)



4. 朗善君李侯墓表 (肅宗19年頃, 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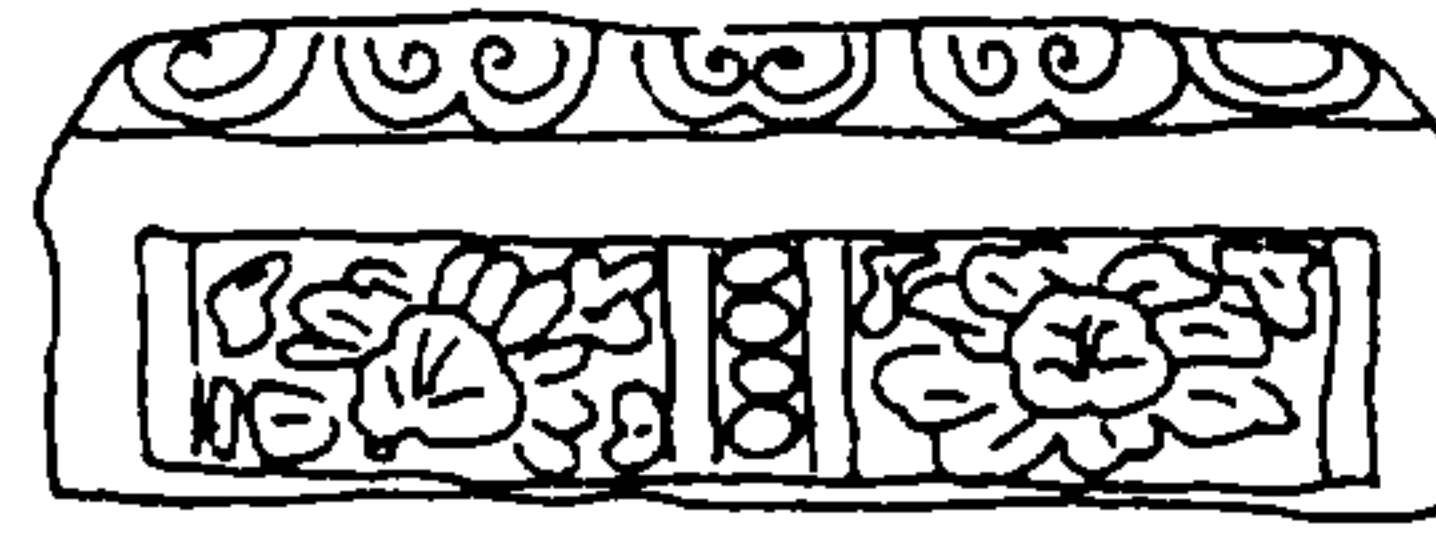


8. 樊忠壇碑 (光武4,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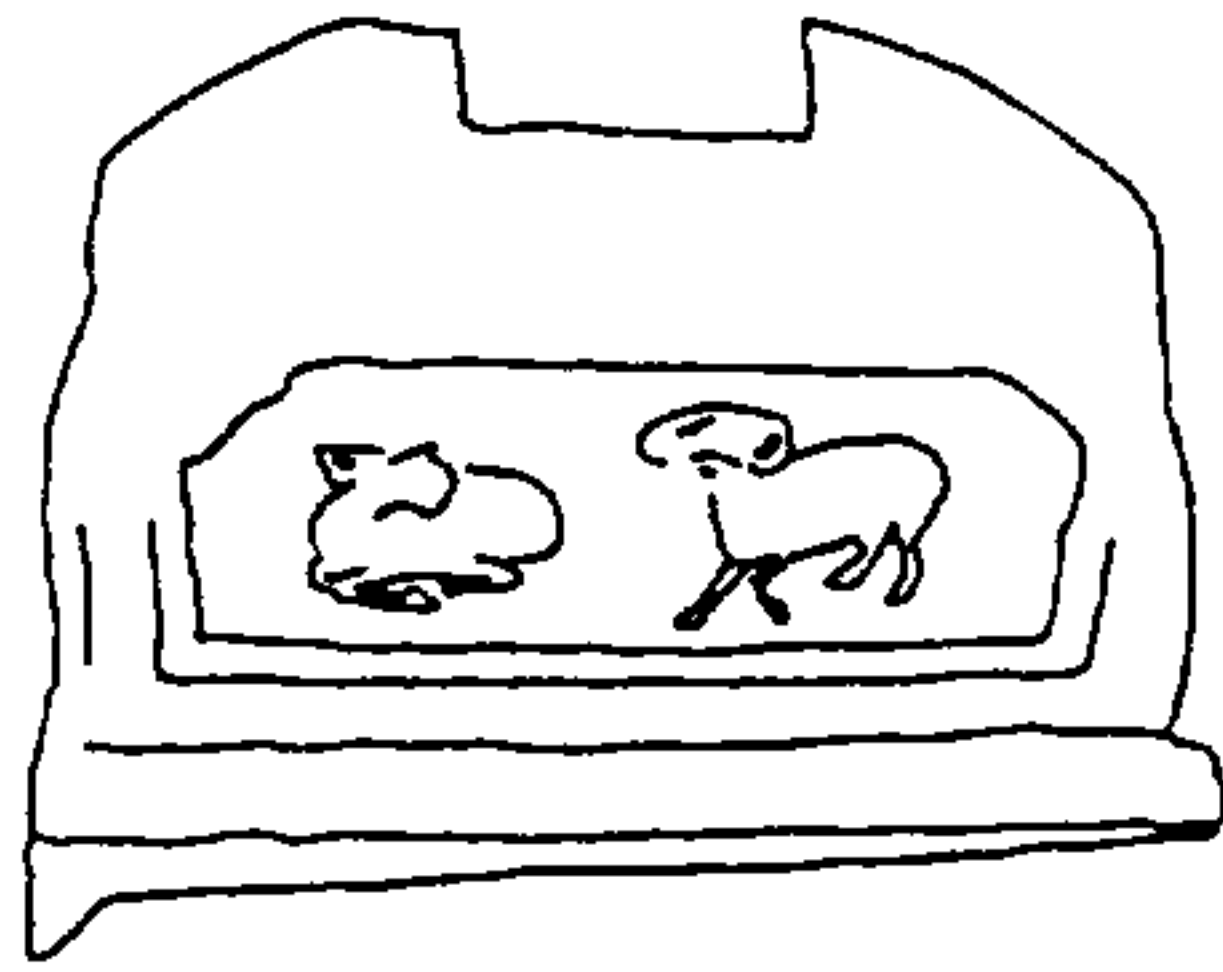
도면 4. 墓表 蓋石 外



1. 鄭蘭宗墓表 (成宗20, 1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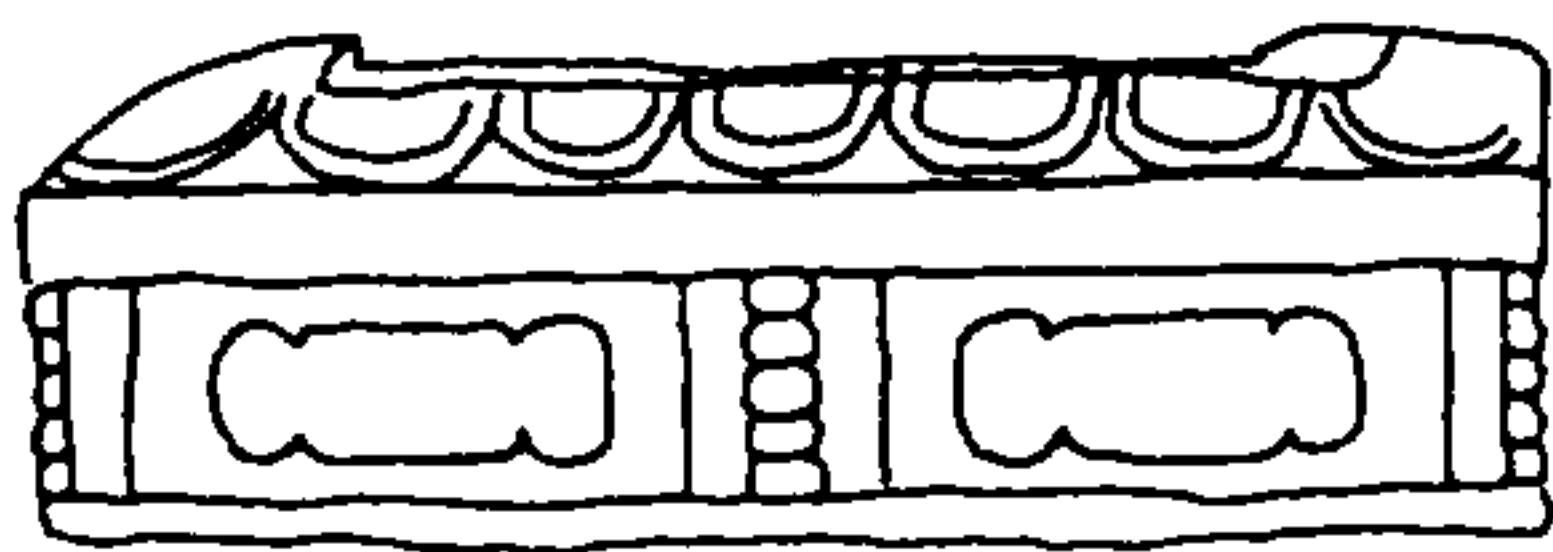
5. 申景禎墓表 (肅宗1, 1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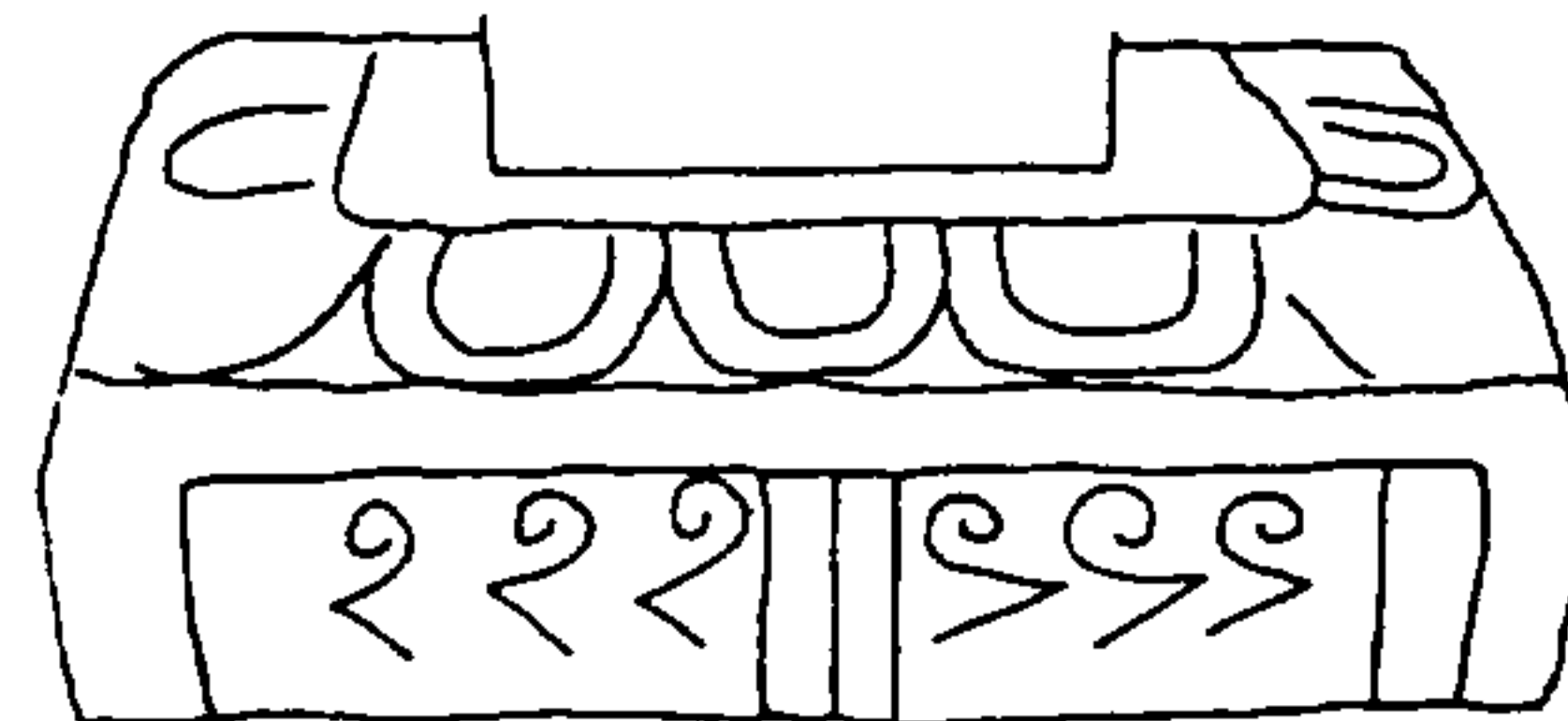
2. 鄭光輔墓表 (中宗19, 1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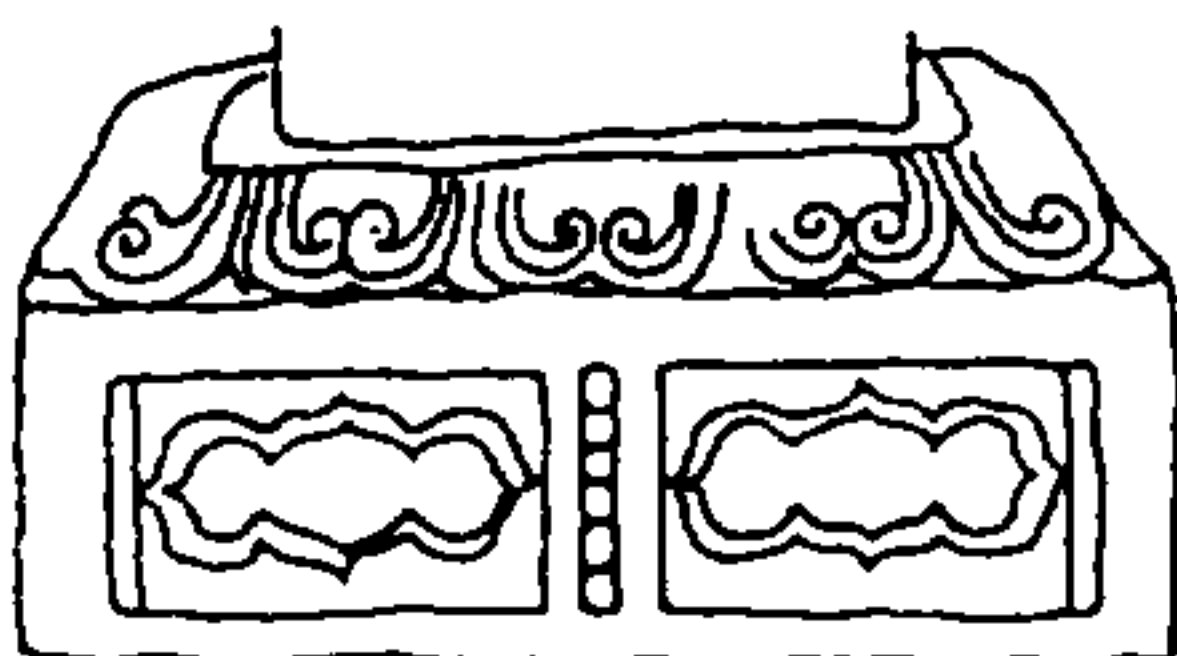
6. 金萬基墓表 (肅宗13年頃, 1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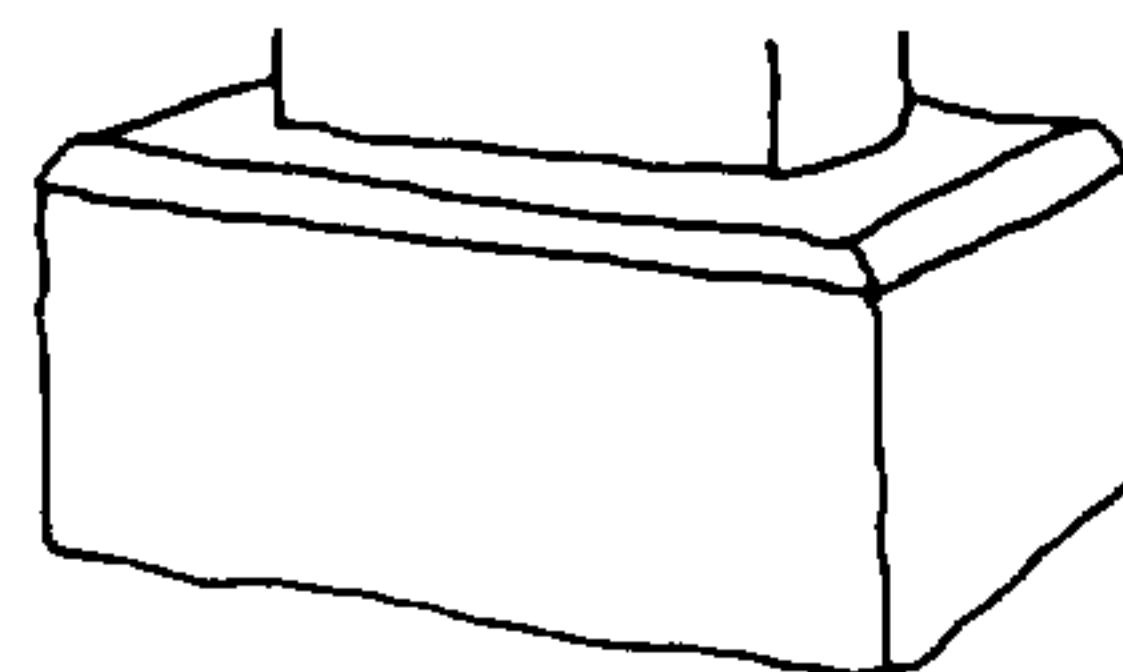
3. 趙光祖墓表 (宣祖18, 1585)



7. 杞溪俞氏墓表 (肅宗28, 1702)



4. 金尙憲墓表 (顯宗10, 1669)



8. 李時中墓表 (正祖20, 1796)

도면 5. 墓表 碑座

이수의 문양은 雲紋과 雲龍紋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顯宗代이후에는 雲紋이 없어지고 주로 운룡문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운문으로는 月山大君墓表(도면 2-1, 사진1-4)를 들 수 있으며, 또 단순히 운문만을 그리지 않고 이수의 앞뒤에 각각 日月을 새겨 陰陽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邊安烈墓表(도면 2-5), 李滉墓表(도면2-6)의 운문을 들 수 있다.

운룡문은 單龍弄珠나 雙龍이 寶珠爭鬪하는 모습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德豐君李愷墓表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숙종대에 이르면 그 彫飾이 사실적이고 화려하게 꾸며져 석조미술의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鄭太和墓表(도면2-7, 사진2-3)와 鄭知和墓表 등이 있다. 하지만 숙종대에 이르러 화려하게 꽃을 피운 운룡문은 곧바로 退潮하게 되어 묘표의 양식은 碑座蓋石과 碑座圓首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운룡문이 莊嚴하기는 하나 너무 화려하여 質朴單純하지 못하고, 비문의 보호에도 미흡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이수의 문양이 특이한 것으로 鄭光輔墓表의 麒麟(도면2-2, 사진2-1)과 鄭福謙墓表의 怪獸(도면2-8)를 들 수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조각이 역동적이다. 정광보와 정복겸이 같은 집안의 인물이고 묘표의 소재지도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麒麟과 怪獸의 출현은 당시의 流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東萊鄭氏 집안의 취향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후의 어떠한 묘표의 이같은 문양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린이 이수에 새겨지는 것은 後漢代의 邦雄傑碑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 朴雲墓表(도면2-3, 사진2-2)의 이수에는 四周圓雲紋을 돌리고 그 안에 波濤紋을 넣은 다음 둥그런 해 안에 三足鳥를 새겨 넣었다. 도면을 보면 이 그림은 동해에서 막 떠오르는 일출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近景에는 해를 떠 받치며 막 피워오르는 구름을, 遠景에는 동해의 성난 파도를 힘있게 첩첩이 겹쳐 놓고, 중앙의 해 안에는 三足鳥를 새겨 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신비감에 싸이게 하고 있다. 그리고 뒷면에는(도면2-4) 수 많은 운문에 둘러싸인 대보름달 속에 떡방아를 찧는 옥토끼를 그렸는데 마모가 심해서 달을 상징하는 蟾蜍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윤곽은 뚜렷한 편이다. 일월문속에 삼족오와 옥토끼를 새기는 것 역시 박운묘표 이전이나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 양식이다.

초기에 주류를 이루던 비좌하엽 양식은 비좌보다는 하엽에서 많은 양식 변화를 보였다. 초기의 朴可興墓表(도면3-1, 사진1-2)와 韓確墓表(도면3-2)는 하엽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연잎의 말린 線만을 간단히 표현하였으나, 趙鐵山墓表(도면3-3)부터 하엽의 외관이 제대로 갖춰지고 韓繼美墓表(도면3-4)에 이르러 蓮峯이나 연잎이 사실적으로 조각되면서 하엽 모양이 定型化 되었다. 이후의 여러 묘표(도면3-5~3-8)에서도 하엽이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계미묘표의 造型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연봉의 크기나, 말린 연잎의 다채로운 모습만으로 변화를 주었다.

비좌개석 양식은 成渾墓表 이래 高宗代까지 碑座圓首 양식과 함께 이용된 양식으로 여러 양식중에서도 비문의 보호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다. 蓋石은 거의 팔작지붕을 사용하다가 간혹 사모지붕도 이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성혼묘표(도면4-1)에서 보듯이 팔작지붕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하지만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추녀 곡선이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며 건립되었다.

申景禎墓表(도면4-2)에서처럼 용마루의 양쪽에 龍頭를 설치하거나, 延齡君李田墓表(도면4-5, 사진3-4)처럼 기왓골과 架構를 세밀히 표현하기도 하였다. 사모지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朗善君李侯墓表(도면4-4, 사진3-1)를 들 수 있으며, 다각지붕에 합각과 박공널을 더하여 표현한 洪柱天墓表(도면4-2, 사진3-2)도 있어 이채롭다.

비좌원수 양식은 朴元宗墓表 이래 高宗代까지 비좌개석 양식과 함께 꾸준히 이용된 양식이다. 비신의 상단이 원형으로 이루어진 것 말고는 아무런 조식이 없는데, 鄭鴻慶墓表(도면4-7), 鄭燦欽墓表에 이르면 비신의 상단이 直首로 변화하고, 비신 상단의 바로 아래에 공간을 설정하여 線刻으로 화문을 새겨 넣는 변화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도 잠시뿐이고 대부분 아무런 조식을 가하지 않은채 無紋으로 남겨 두었다. 이외에 묘표는 아니지만 獎忠壇碑(도면4-8)에서 원수의 상단 아래에 雲紋을 조각한 것도 있다.

묘표의 臺石은 대부분이 碑座로 조성되었고 龜趺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개 비좌의 四面과 上面의 공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상면에는 거의 覆蓮을 돌리고, 사면에는 기본적으로 眼象을(도면5-3, 5-4) 새겼는데 이런 방법은 불교관련 석조미술품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수법이다. 점

차 시대가 내려가면서 여러 종류의 花紋(도면5-5)과 추상적인 문양(도면5-7)을 조각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사슴(도면5-2)이나 鐸을 다투는 두 마리의 獅子(도면5-6)를 조각하기도 하여 문양의 다양함을 추구하였다. 특히 金萬基墓表(사진 2-4)의 비좌 정면에 새겨진 작품은 明의 石物彫刻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 한데, 현재 北京市 昌平縣에 소재하고 있는 明十三陵 石牌坊(明 世宗19, 1540)의 基座에 새겨진 조각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둘다 기본적인 구도가 비슷하고 조각 기법이 圓渾有力한 특징이 있다. 이 석패방의 지붕 역시 매우 섬세하게 만들어 졌는데⁸¹⁾ 조선시대 개석의 팔작지붕도 肅宗代부터 이렇게 섬세하고 화려한 작품이 나오고 있다.

正祖代 이후의 비좌는 거의 無紋(도면5-8)이며 外樣도 이전에는 장방형이던 것이 이때에 이르러 윗변이 아랫변보다 짧은 사다리꼴로 변모하였다. 이같은 형태의 비좌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장식성보다는 기능성이 더 강조된 것이다. 문양을 새기지 않았던 것은 ‘惇實圓厚 拙樸無巧’의 미적 감각을 가졌던 정조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듯 하다. 왜냐하면 정조가 관여된 金石文의 대부분이 無紋의 비좌개석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⁸²⁾

2. 墓碣

1) 名稱과 概念

조선이전의 碣로는 고려 顯宗 17年(1026)에 세워진 奉先弘慶寺碣記가 유일한데 귀부와 이수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특이하게 龍頭화된 龜頭의 방향이 우측으로 돌아가 있다. 이 시대에 세워진 다른 탑비들과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81) 1988, 《中國美術全集》建築藝術編2 陵墓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82) ○ 宋時烈墓表, 碑臺蓋石, 正祖御製, 正祖 3年(1780)立
○ 黔巖紀蹟碑, 碑臺蓋石, 正祖御製御筆, 正祖 5年(1781)立
○ 弘陵表, 碑臺蓋石, 正祖御製御筆, 正祖 9年(1785)立
○ 永陵表, 碑臺蓋石, 正祖御製御筆, 正祖 9年(1785)立
○ 大老祠碑, 碑臺蓋石, 正祖御製御筆, 正祖 11年以後(1787)立
○ 顯隆園表, 碑臺蓋石, 正祖御製御筆, 正祖 13年(1789)立
○ 蔡濟恭誄文碑, 碑臺蓋石, 正祖御製, 正祖 23年(1799)立
○ 靜窩鄭民始之藏碑, 碑臺蓋石, 前面大字 正祖御筆, 純祖 7年(1807)立

다른점이 없는데 무슨 연유로 碣記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때 세워지게 되는 수많은 묘갈의 선구적인 예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에 碣이라는 용어는 墓碣에만 사용되었는데 碣題에 의한 좀더 정확한 명칭은 墓碣銘并序이다. 묘갈 역시 묘표와 마찬가지로 <표6>에서 보듯이 撰者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異稱들이 있었는데, 묘갈의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6>을 보면 墓碣銘, 墓碣, 碣銘, 碣陰紀事, 墓碣識, 碣陰銘, 墓碣記, 墓碣銘後, 墓碣陰記, 墓碣後叙, 墓碣碑, 墓碣後記, 墓碣文 등 여러가지의 명칭이 있다. 그러나 그 수량에 있어서는 墓碣銘이 대부분을, 묘갈과 묘갈음기가 그 다음을 그리고 나머지가 소수를 차지했을 뿐이다. 이로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묘갈명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나머지 용어도 묘갈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묘갈, 묘갈지, 묘갈기, 묘갈음기, 묘갈후서, 묘갈비, 묘갈후기, 묘갈문이 같은 의미이며 갈명, 갈음기사, 갈음명이 묘갈명, 묘갈명후의 略稱이자 別稱이기 때문이다.

실제 입석된 묘갈의 명칭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碣題가 墓碣銘并序인 예로는 李孝植墓碣, 趙翊墓碣, 吳斗興墓碣, 鄭道亨墓碣, 方泰興墓碣, 趙仁賓墓碣⁸³⁾등이 있으며, 묘갈명은 鄭光輔墓碣, 鄭裕墓碣, 柳自湄墓碣⁸⁴⁾등이 있

-
- 83) ○ 李孝植墓碣, 燕山君 4年(1498)立
 ‘有明朝鮮國正義大夫竺山君墓碣銘并序’
 ○ 趙翊墓碣, 明宗 4年(1549)立
 ‘有明朝鮮國通訓大夫軍資監正趙君墓碣銘并序’
 ○ 吳斗興墓碣, 肅宗 30年(1794)立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兵曹參判…吳公墓碣銘并序’
 ○ 鄭道亨墓碣, 英祖 2年(1726)立
 ‘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鄭公墓碣銘并序’
 ○ 方泰興墓碣, 正祖 18年(1794)立
 ‘有明朝鮮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方公墓碣銘并序’
 ○ 趙仁賓墓碣, 純祖 8年(1808)立
 ‘朝鮮國 贈通訓大夫司僕寺正…趙公墓碣銘并序’
 84) ○ 鄭光輔墓碣, 中宗20(1525)
 ‘有明朝鮮國通政大夫行昌原都護府使…鄭公墓碣銘’
 ○ 鄭裕墓碣, 宣祖18(1585)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墓碣銘’
 ○ 柳自湄墓碣, 英祖5(1729)

다. 그리고 碣題가 墓碣인 경우는 崔岵墓碣, 鄭亨復墓碣 등이 있는데 정형복묘갈에 일반적으로 묘갈에 있는 銘이 빠진 것이 이색적이다.⁸⁵⁾ 이외에도 烈婦安人高興柳氏墓碣에서 墓碣記가⁸⁶⁾ 贈貞敬夫人許氏墓碣에서 墓碣陰記가 보이며⁸⁷⁾ 李允濯墓碣의 篆額에서 墓碣陰誌란 표현이 나온다.

이렇듯 碣題 역시 表題 같이 찬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 異稱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표9> 묘갈 목록에 실린 대부분의 묘갈에 의하면 실재 입석시에는 갈제를 墓碣銘并序라 하였고 異稱은 많이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立石 制限

묘갈은 사대부층이 주로 입석하였지만 왕실과 서인층에서도 세운 기록이 보인다. 英祖 19年(1743)에 영조가 貞陵에 나아가 酌獻禮를 행한 다음 參奉 유성제에게 惠愼翁主의 묘갈 길이가 얼마나 되나 질문하는 기사가 있으며⁸⁸⁾ 또 同王 31年(1755)에 明宗의 後宮이었던 慶嬪李氏의 墓碣을 영조가 친히 써서 畿伯에게 주면서 세우게 하고 있다.⁸⁹⁾

그리고 顯宗代에 漢城府가 中·庶人들이 묘갈을 참람되게 허위로 기재한 자를 죄주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에는 이미 중·서인들도 묘표와 함께 묘갈을 많이 입석한 사실을 알 수 있다.⁹⁰⁾ 하지만 아직까지 서인층들의 묘갈에 대한 조사는 全無한편이며 學界에 알려진 墓碣은 대부분의 것이 士大夫들의 것들이다.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柳公墓碣銘’

85) ○ 崔岵墓碣, 肅宗 41年(1715)立

‘有明朝鮮嘉善大夫刑曹參判崔公墓碣’ 有銘

○ 鄭亨復墓碣, 正祖 13年(1789)立

‘有明朝鮮國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鄭公墓碣’ 無銘

86) 烈婦安人高興柳氏墓碣, 孝宗 8年(1657)立

碣題는 ‘烈婦安人高興柳氏墓碣記’로 頭篆은 ‘烈婦安人柳氏墓碣記’로 되어 있다.

87) 贈貞敬夫人許氏墓碣, 仁祖 13年(1635)立

‘有明朝鮮國 贈貞敬夫人許氏墓碣陰記’

88) 《英祖實錄》 19年 8月 20日(庚午)

89) 《英祖實錄》 31年 6月 14日(丙辰)

‘贈淑儀李氏爲慶嬪 淑儀卽明廟後宮 而仁嬪表姊也 仁嬪少依焉 仍選入宣廟後宮至是 上

以仁嬪既上諡封園 淑儀當溯本而贈之 遂有是命 因親書墓碣 今畿伯堅之’

90) 앞의 註) 62 참조.

입석제한 품계는 실재 관직에 나가지 않았던 進士 鄭澤雷과 崔澱의 墓碣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대부의 신분이라면 누구나 세울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宗親이나 儀賓, 外命婦, 內命婦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벌써 현종대에 이르면 中·庶人들의 묘갈 문제가 朝廷에서 논의될만큼 서인들의 입석도 일반화되었으니 이들 지배층에 대한 남다른 규제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⁹¹⁾

3) 數量과 規模

〈표9〉 묘갈 목록에 의하면 그 수는 141개에 이르며 성종 23년에 건립된 順興安氏墓碣을 시작으로 연산군 1, 중종 9, 명종 6, 선조 10, 광해군 3, 인조 10, 효종 3, 현종 7, 숙종 35, 경종 2, 영조 29, 정조 9, 순조10, 헌종 2, 고종대에 4기가 있다. 이로 볼때 肅宗代에 가장 많은 묘갈이 입석되었고, 숙종부터 정조대까지가 입석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제일 큰 규모는 仁城君李珙墓碣로 總高가 361Cm에 이르며, 이외에 300Cm를 넘는 묘갈로 柳尙運墓碣(350Cm), 趙瑗墓碣(310Cm), 趙楷墓碣(304Cm)이 있으며 가장 소규모로는 南挺華墓碣(134Cm)이 있다.

4) 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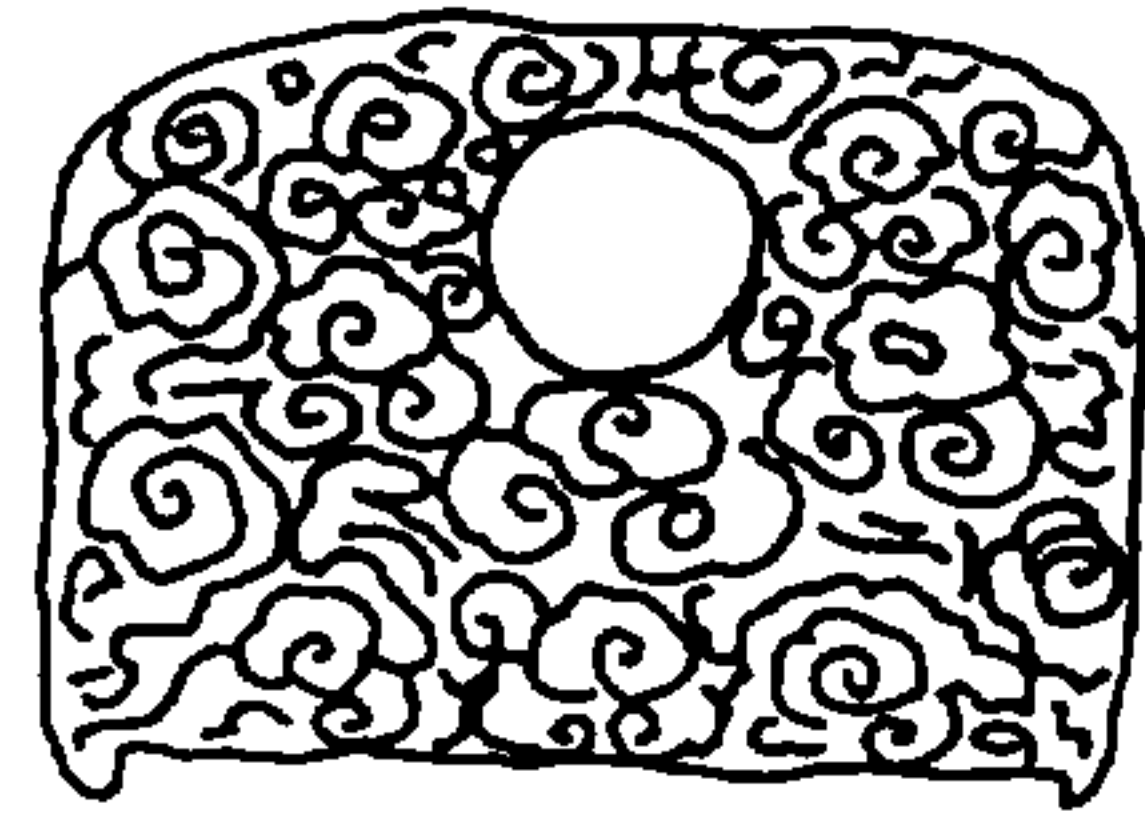
順興安氏墓碣(成宗23, 1492)에서 처음 碑座螭首양식이 나오는 것을 필두로 宋叔琪墓碣(中宗10年以前, 1515)에서 碑座荷葉이 그리고 李允濯墓碣(中宗31, 1536)에서 碑座奎首 양식이 또 李孝篤妻海州崔氏墓碣(中宗34, 1539)에서 碑座圓首 양식이 등장하여 뚜렷하게 어느 한 양식이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混用되어 왔다. 이중에서 비좌하엽과 비좌규수 양식은 宣祖代부터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朴世蓺墓碣(宣祖18以前, 1585)부터 나타나는 碑座蓋石과 碑座圓首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碑座螭首 양식은 간혹가다 보일 뿐, 두 양식에 비하여 입석된 수량이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묘갈에 사용된 이수의 문양은 운룡문과 운문이 대부분으로 묘표의 이수처럼 다양한 문양이 나오지 않았다. 운룡문은 순흥안씨묘갈(도면6-1)과 한치의묘갈(도면6-2)의 이수에서 보이는 單龍弄珠와 鄭光輔墓碣(도면6-3, 사진4-2)의 이수

91) 앞의 註) 6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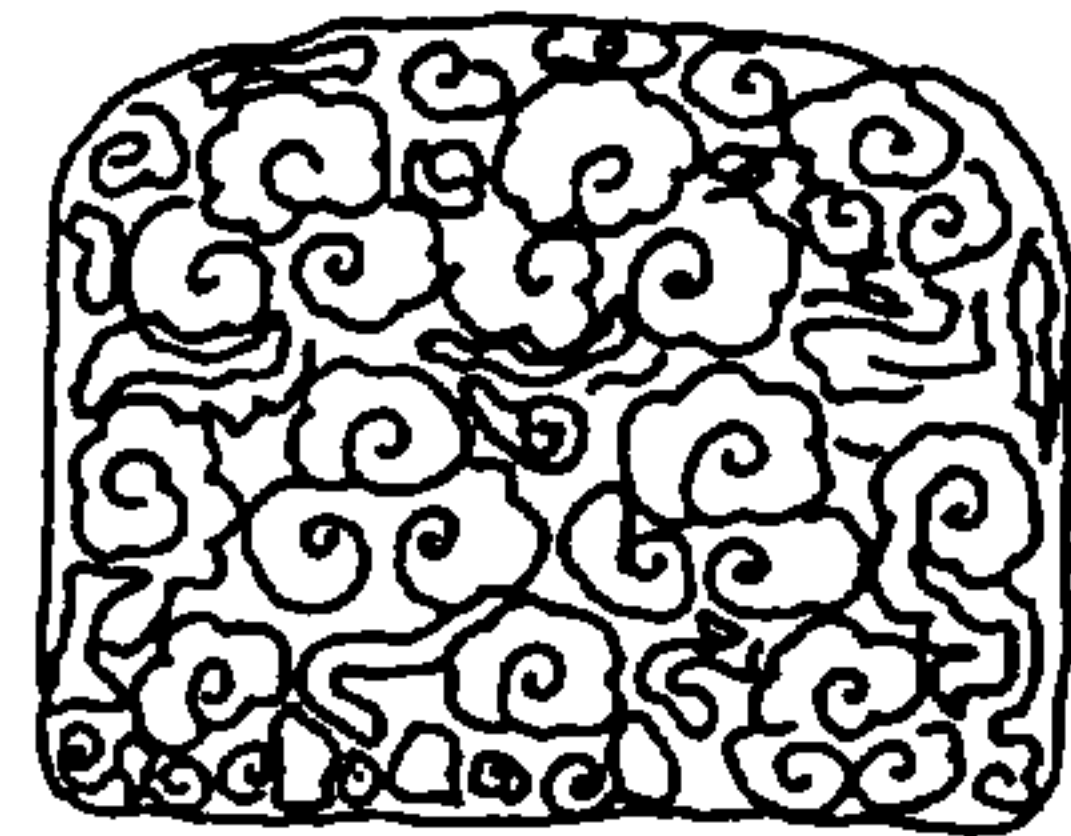
1. 順興安氏墓碣 (成宗23, 1492)



4. 韓亨元墓碣 前 (中宗39, 1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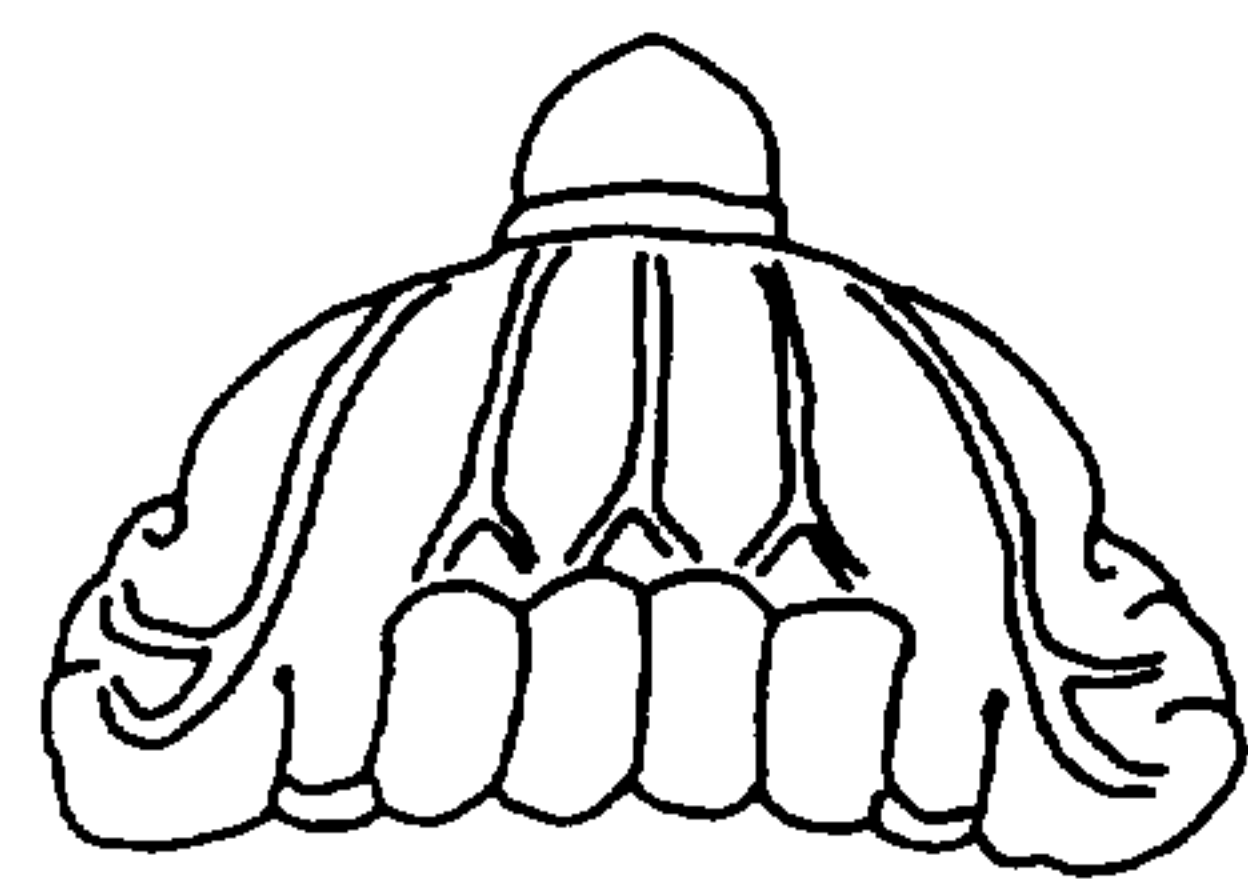
2. 韓致義墓碣 (中宗3, 1508)



5. 韓亨元墓碣 後 (中宗39, 1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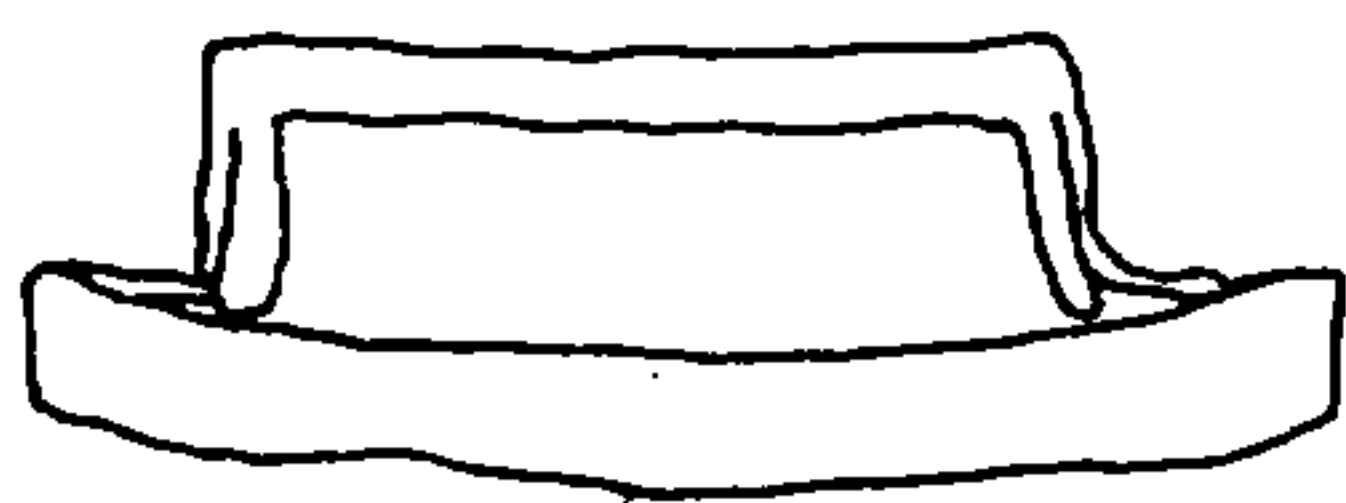


3. 鄭光輔墓碣 (中宗20, 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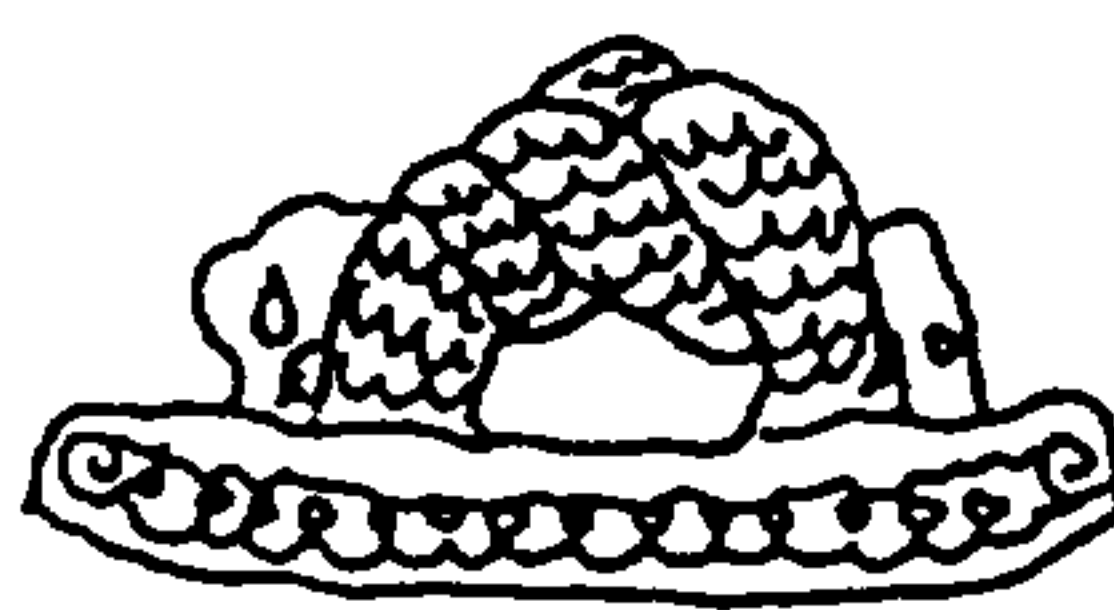


6. 韓琦墓碣 (明宗5, 1550)

도면 6. 墓碣 螭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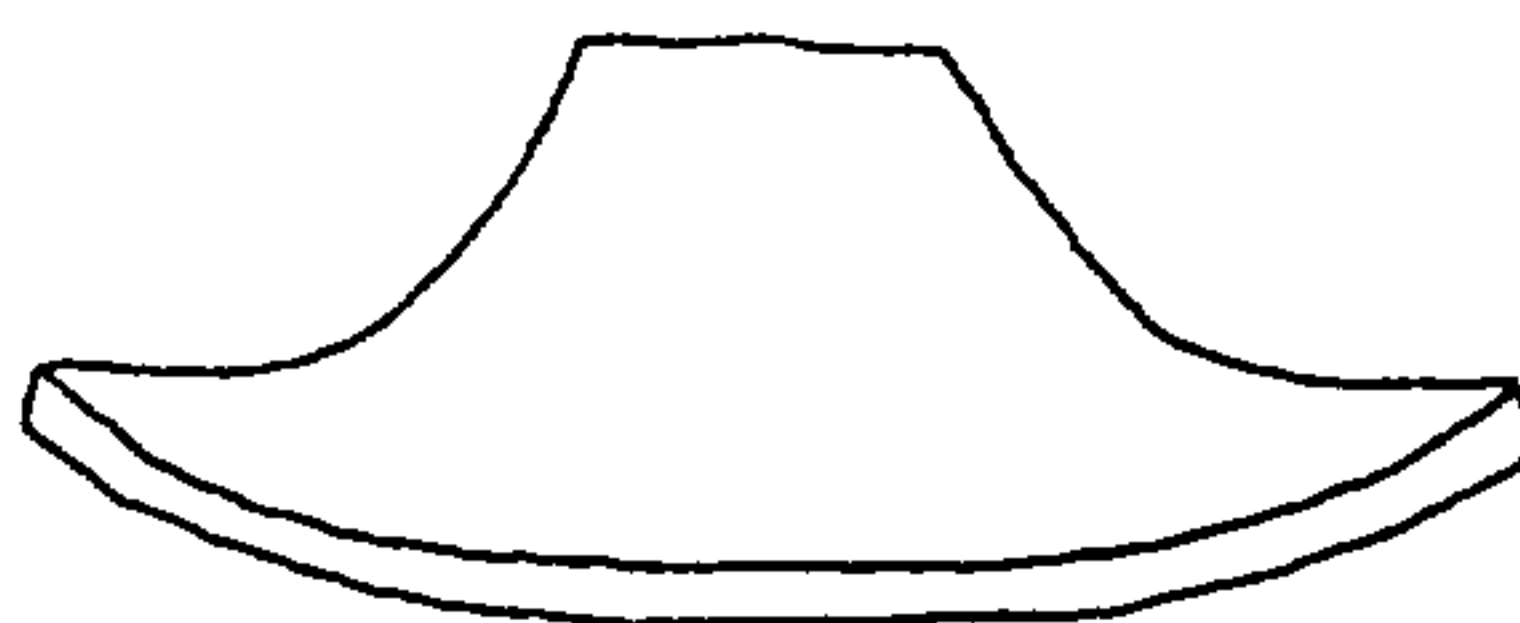
1. 朴世蕸墓碣 (宣祖18以前, 1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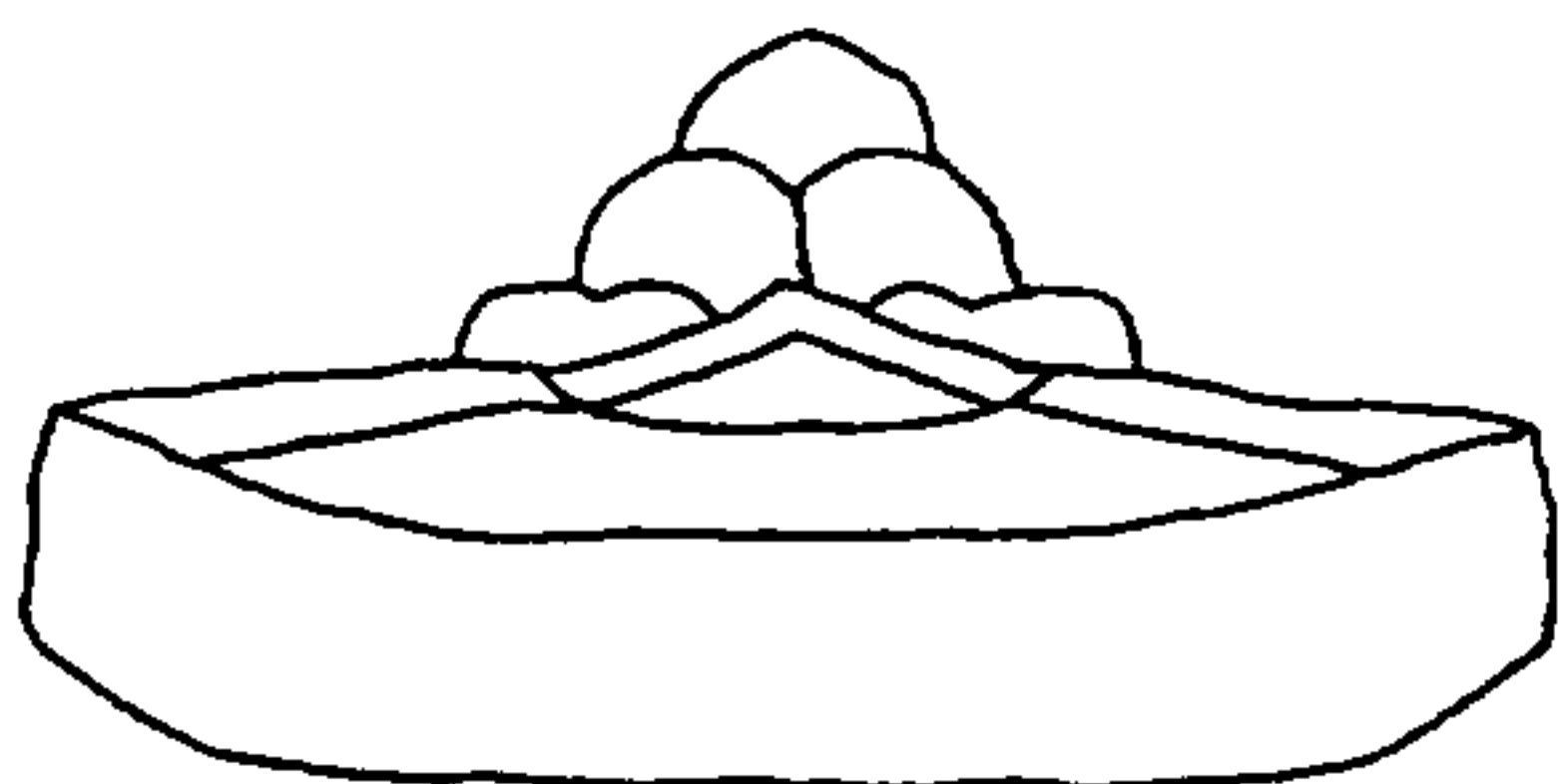
5. 俞命健墓碣 (英祖34,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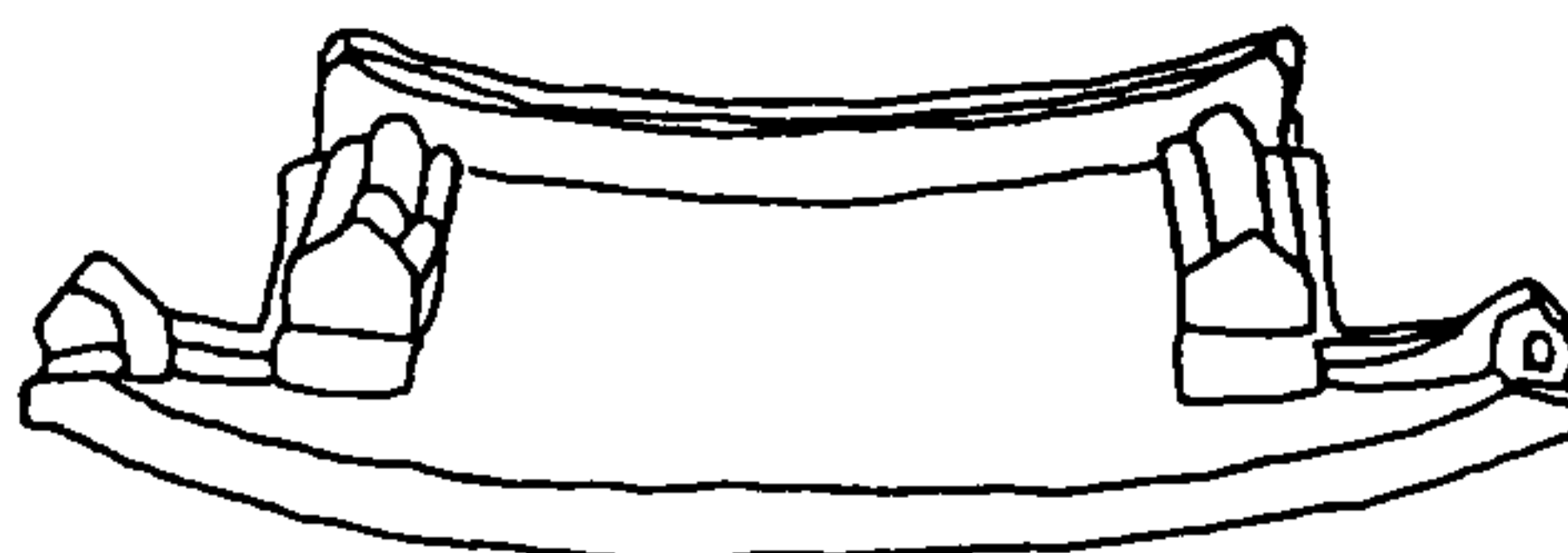
2. 申砬墓碣 (肅宗14, 1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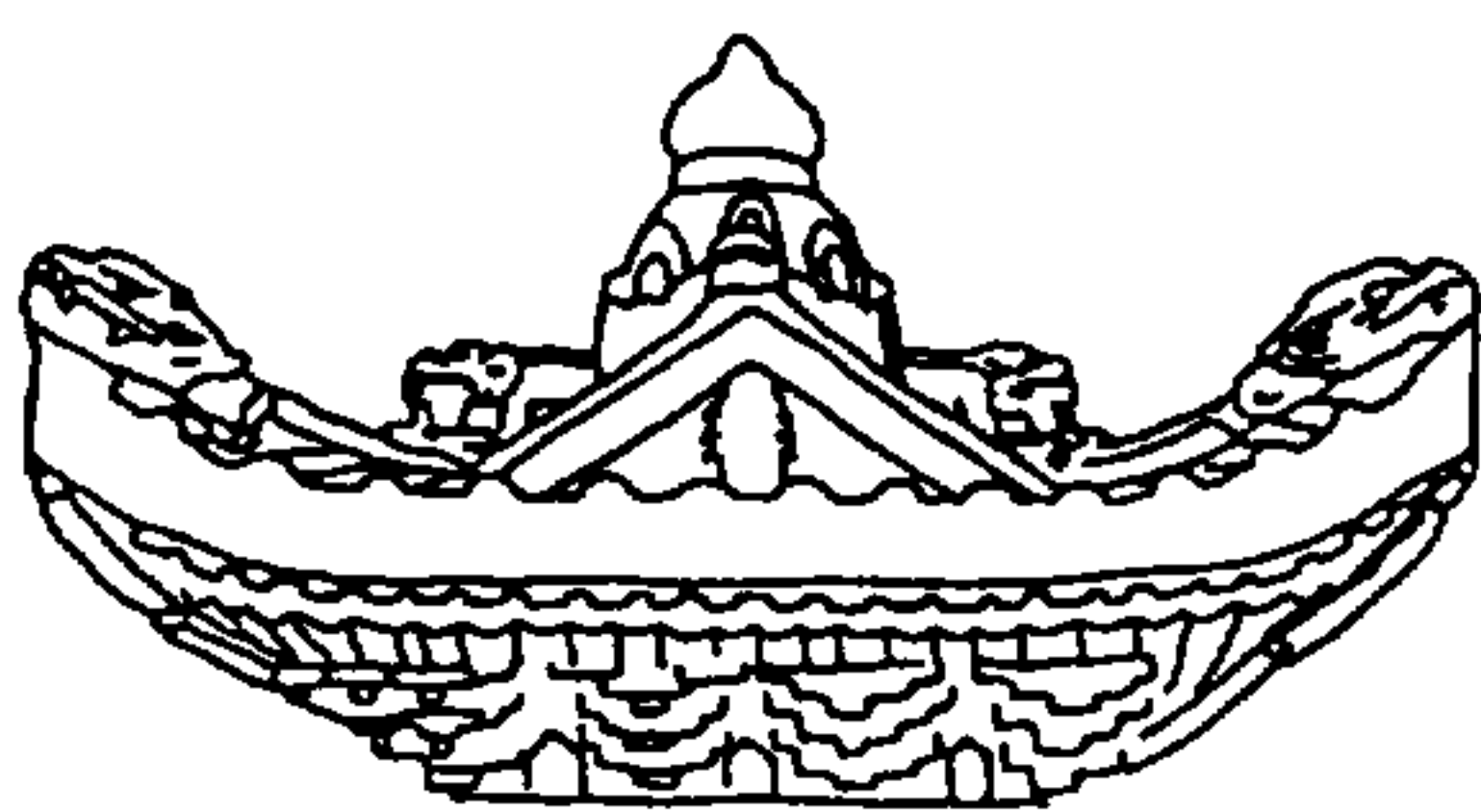
6. 鄭亨復墓碣 (正祖13, 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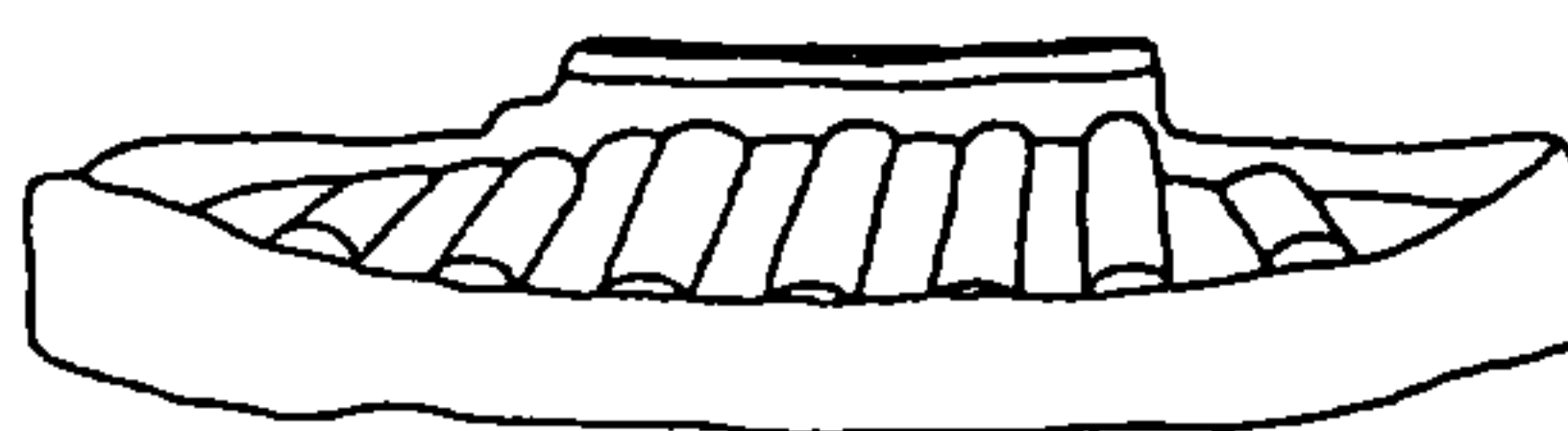
3. 任允錫墓碣 (肅宗27, 1701)



7. 李吉輔墓碣 (正祖15, 1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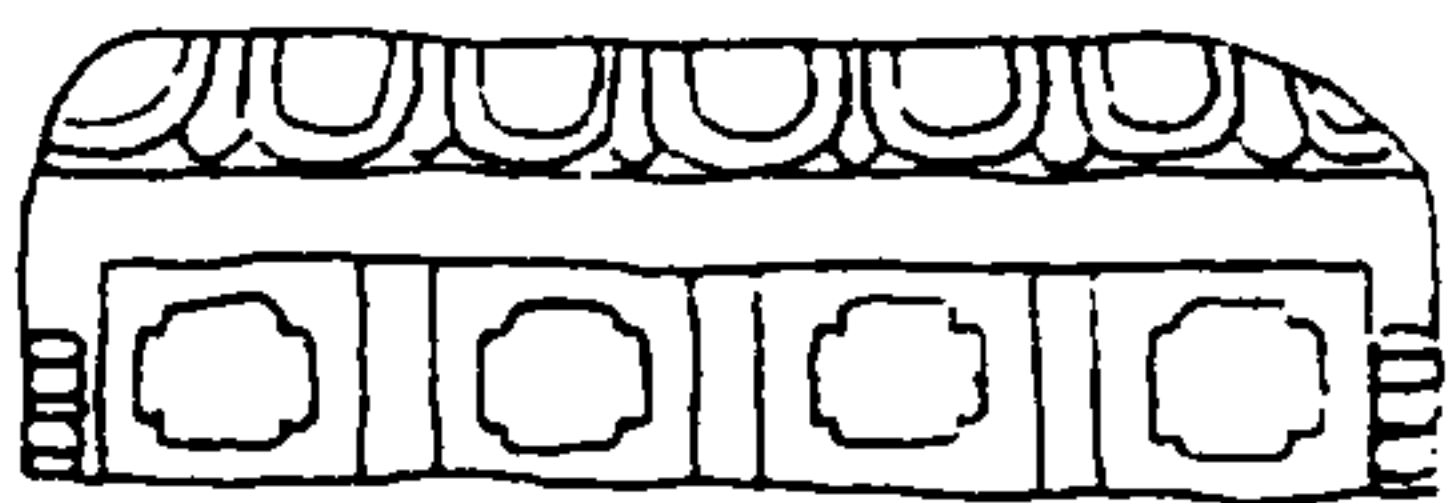


4. 尙州黃氏墓碣 (肅宗31, 1705)



8. 趙仁賓墓碣 (純祖8, 1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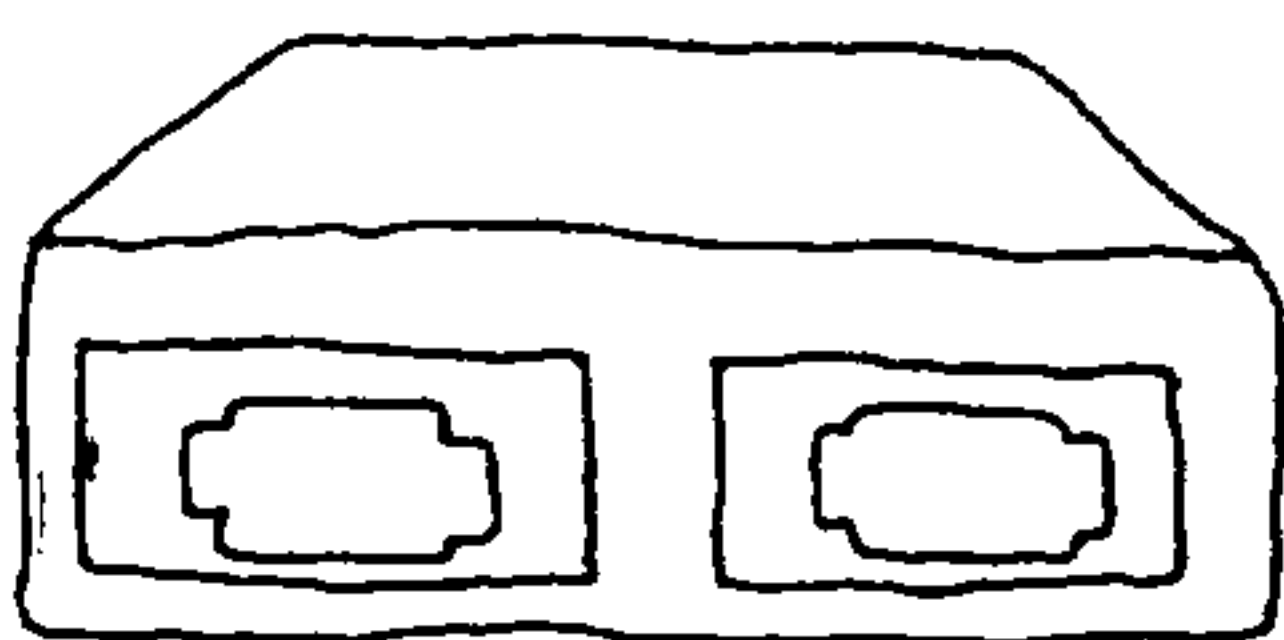
도면 7. 墓碣 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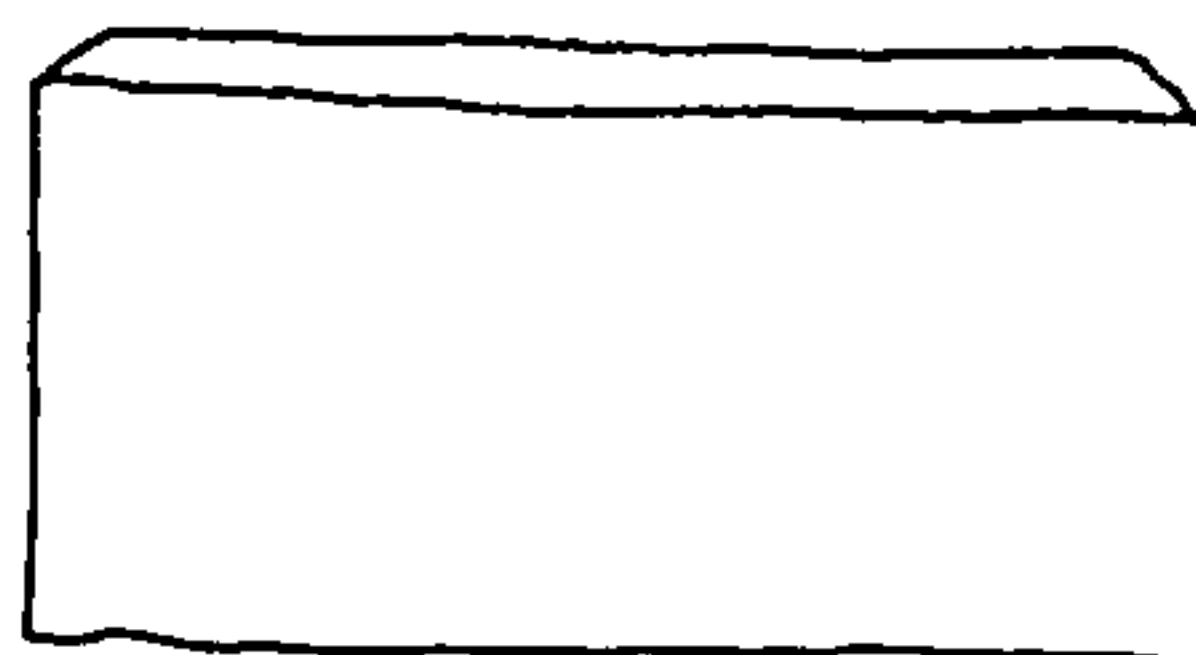
1. 韓致義墓碣 (中宗3,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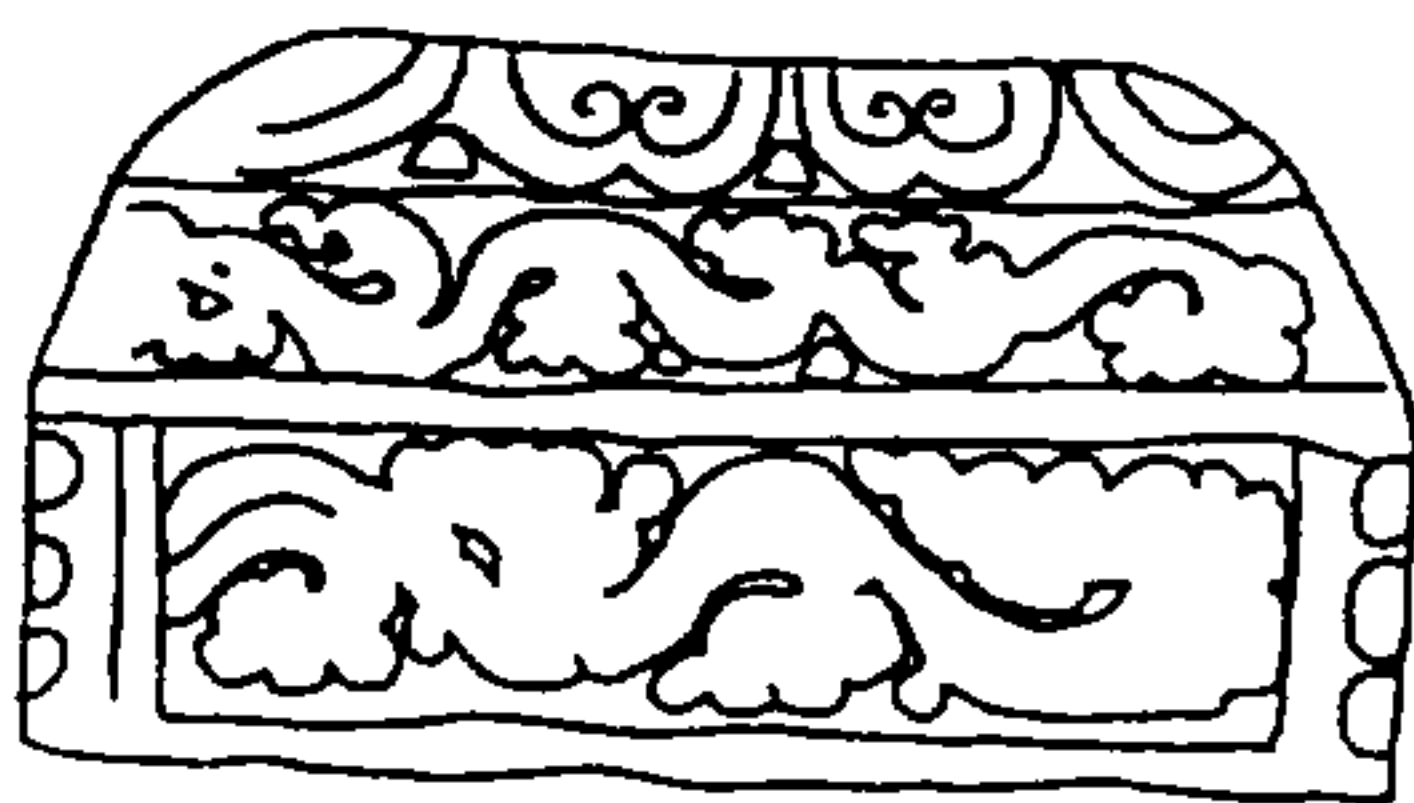
5. 吳泰周墓碣 (肅宗46, 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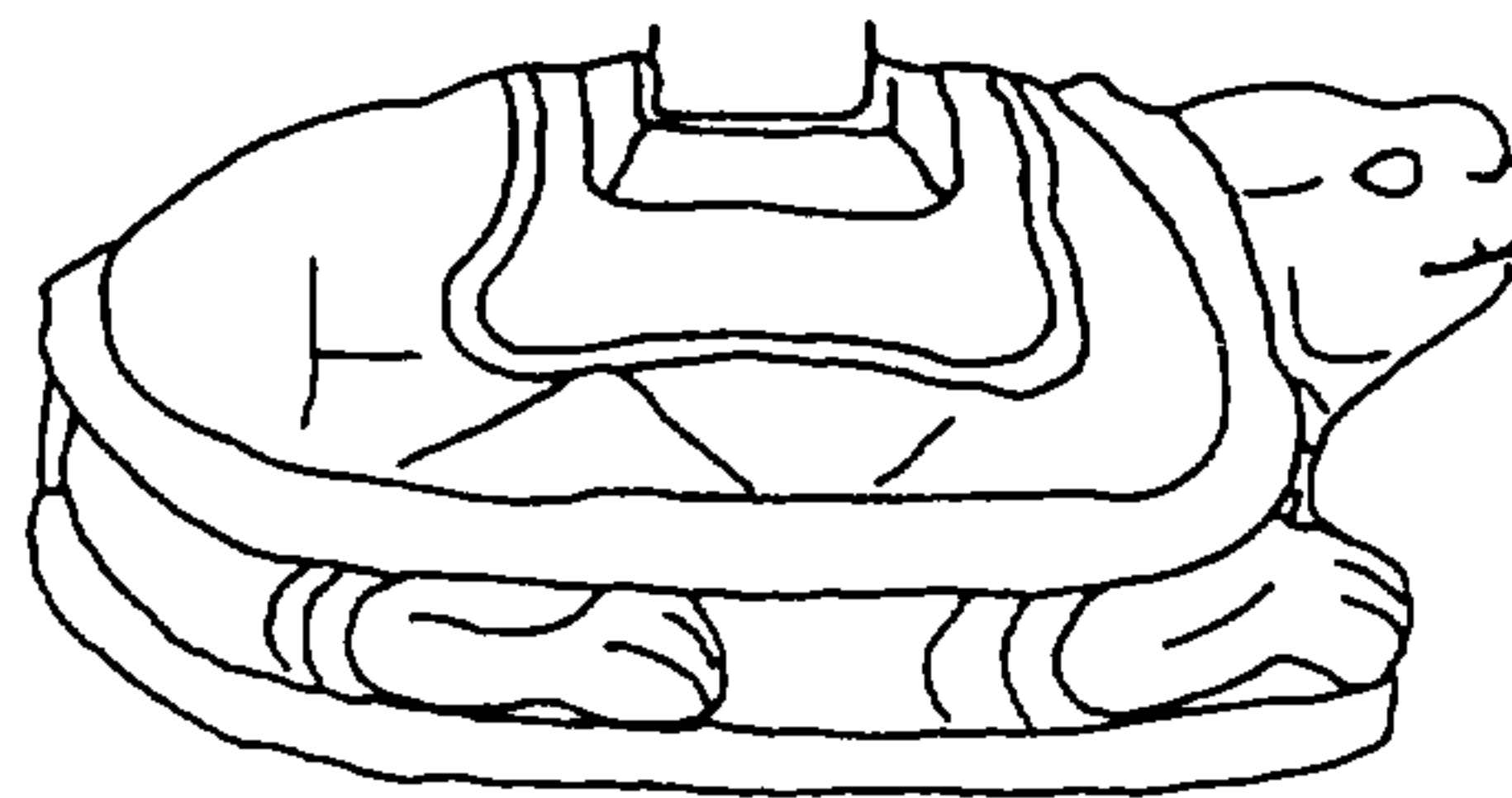
2. 韓亨元墓碣 (中宗39, 1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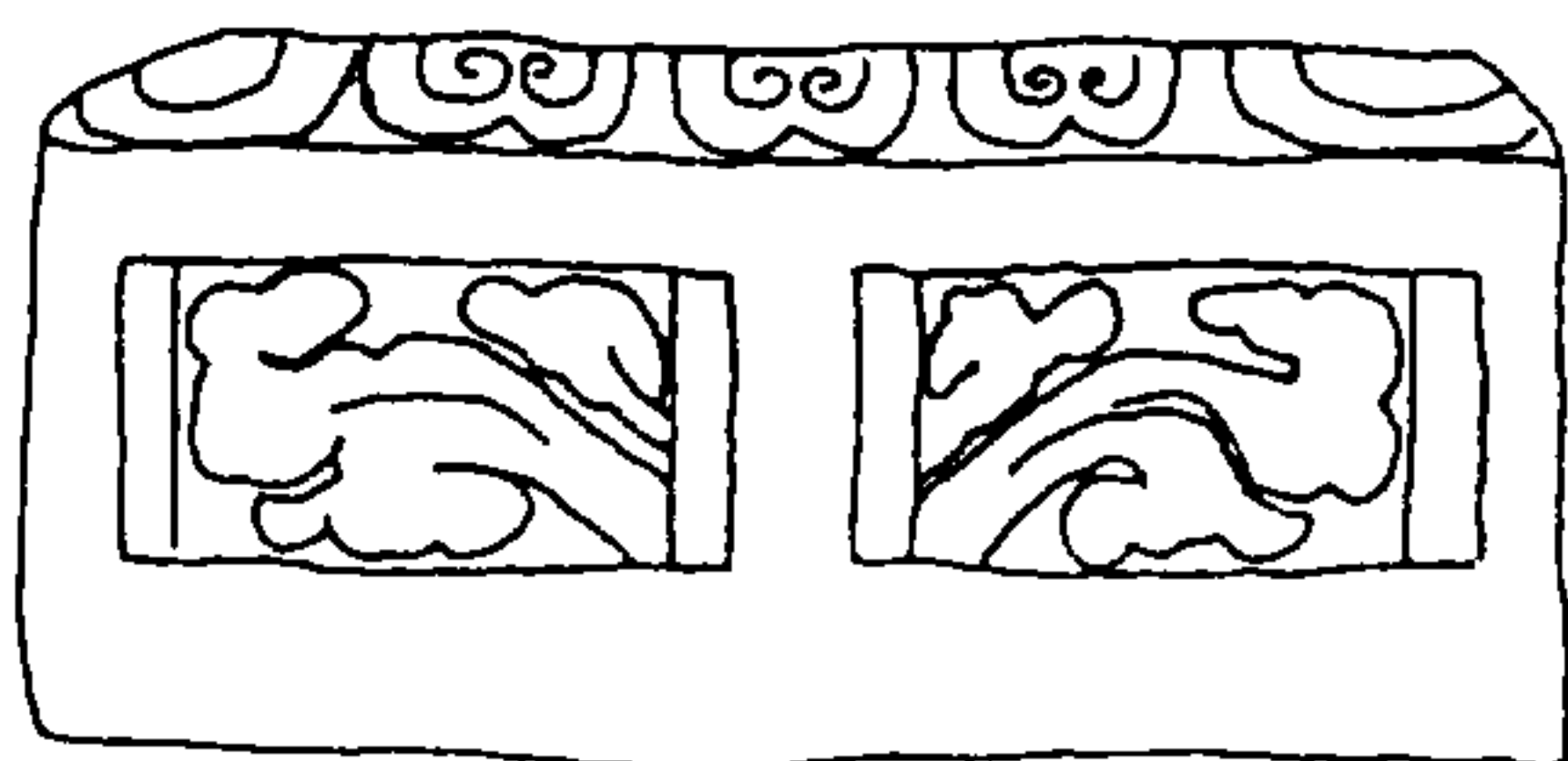
6. 徐命九墓碣 (正祖15, 1791)



3. 韓壽遠墓碣 (肅宗12, 1686)



7. 鄭光輔墓碣 (中宗20, 1525)



4. 申稔墓碣 (肅宗14, 1688)



8. 金行墓碣 (仁祖14, 1636)

도면 8. 墓碣 碑座와 龜趺

나타나는 雙龍이 寶珠爭鬪하는 장면이 나온다. 운문은 韓亨元墓碣(사진4-3)의 이수 앞면(도면6-4)과 뒷면(도면6-5)에 새겨진 문양이 가장 뛰어나며 荷葉은 韓琦墓碣(도면6-6, 사진4-4)의 것이 가장 사실적이다.

개석은 팔작지붕을 기본으로 하되 사모지붕이나 다각지붕을 올렸다. 묘표의 경우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朴世蕸墓碣(도면7-1, 사진5-1)은 각 마루의 표현이 간소하지만 李吉輔墓碣(도면7-7)은 좀 더 사실적으로 조각하였고, 趙仁賓墓碣(도면7-8)은 지붕의 기왓골을 너무 굵게 그려 전체적으로 비례가 맞지 않는다.

박세옹묘갈에서는 비신의 양 측면에 비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주형의 隅柱石을 설치하였는데, 이런 방법은 멀리 고려시대의 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禪王5, 1379)와 神勒寺大藏閣記碑(禪王9, 1383)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고, 가까이는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한 誠寧大君神道碑(사진6-1)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박세옹묘갈 뒤로는 이같은 양식이 단절되고 있다. 이외에 지붕의 마루를 모두 생략하고 臥龍을 올리거나(도면7-2) 梵鐘의 龍鈕 모양처럼 龍身을 역동적으로 교차시켜(도면7-5) 매우 생동감있게 표현한 것도 있다.

사모지붕은 任允錫墓碣(도면7-3)과 鄭亨復墓碣(도면7-8)이 있는데 전자는 절병통을 갖추었으나 후자는 전부 생략되어, 장식성이 배제되고 단순히 비신만을 보호하는 기능성만을 살렸다. 다각지붕의 예로는 吳泰周의 妻인 尙州黃氏墓碣(도면7-4, 사진5-3)을 들 수 있는데 조각의 정교함과 장식의 화려함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조선시대를 대표할만한 작품이다. 맨상층부에는 절병통을 올려 놓고 용마루 양끝과 추녀마루의 吐首마다 龍頭를 달았다. 그리고 부연, 서까래, 겹처마, 架構까지도 섬세하게 새겨 넣었으나, 전체적으로 장식이 너무 지나쳐 번잡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양식은 앞서 묘표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明十三陵 石物의 영향을 받아 생긴 듯 하다.

碑座는 초기에 묘표와 마찬가지로 眼象(도면8-1, 8-2)을 새기다가 차츰 花紋, 忍冬草紋, 唐草紋(도면8-3, 8-4)을 조각하였으며 상면에는 覆蓮을 돌렸다. 吳泰周墓碣(도면8-5, 사진5-4)의 비좌 정면에는 金萬基墓表와 거의 같은 장면을 새겨 놓았다. 김만기묘표와 오태주묘갈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데 오태주묘갈의 제작 과정에서 김만기묘표를 참고하여 조성한 듯하다. 이렇게 비좌를 화려하

게 치장하다가 정조대에 와서는 無紋의 비좌(도면8-6)로 바뀌었다.

臺石으로 龜趺는 거의 사용치 않았으나 鄭光輔墓碣(도면8-7, 사진4-2)과 金行墓碣(도면8-8) 등에 소수가 나타난다. 전자는 대체로 외관을 사실적으로 갖춘 반면, 후자는 귀부의 비례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귀부가 비신과 이수 무게에 의해 눌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龜頭는 龍頭化되는 과정의 과도기 모습을 하고 있으며 龜甲紋의 도형 또한 일정치 않아 仁祖反正이후 급변한 사회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3. 陵墓神道碑

1) 起源과 由來

墓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일정한 品階에 이르러야만 건립할 수 있었던 신도비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신도비가 정확히 언제부터 건립 되었는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儒敎의 정치 이념을 國是로 삼았던 前漢시대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한대의 지식인들은 스승이나 조상 등의 德을 기리고 장례를 성대히 치러 주는 일을 다투어 행하였는데 자신의 孝廉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신도비는 중국의 전국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신도비의 유행은 많은 名筆과 名文章이 쏟아져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⁹²⁾

신도비는 漢나라 楊震의 '故大尉楊公之神道碑'에서 시작 되었다는 설과⁹³⁾ 秦宋(5世紀初)때 비롯되어 천자 및 제후들이 모두 신도비를 세웠다는 설이 있으나⁹⁴⁾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唐代에는 顏真卿(709-784)이 비문을 쓴 顏勤禮神道碑(大歷年間 766-779)가 입석된 예가 있었다.

또 신도비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神道闕'이 있는데 後漢 元初 5年(118)에 조성된 嵩山太室石闕銘이 현존 最古의 작품이며 이외에 後漢 중기 이후의 沈君神道闕, 東普 隆安 3年(399)의 楊陽神道闕, 梁 天監 元年(502) 이후의 梁太祖神道石闕 등이 있다. 闕 또는 石闕이란 사당이나 묘소로 가는 길의 양 옆에 세우던 돌

92) 崔完秀, 1983 〈韓國美의 源流〉 35 〈韓國經濟新聞〉

93) 伏見沖敬, 1975 〈楷書 顏勤禮碑〉 東一文化社

94) 金應顯, 《民族文化大百科事典》 神道碑條

기둥을 말함인데 신도비와 기능은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⁵⁾ 闕은 신도비보다 먼저 나온 양식으로 신도비가 이 형태에서 변화, 발전하여 定立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도비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安珦(1243-1306)에 의해 성리학이 전래되던 忠烈王代(1274-1308)로 추정되며, 문헌상으로 신도비에 관한 記事가 최초로 나오는 것은 《高麗史》이다. 그 列傳 金方慶條를 보면 忠宣王의 命으로 신도비를 입석하였다는 내용이 있고⁹⁶⁾ 《東文選》에 비문이 실려 있어 실제로 입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존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또 李時發(1569-1626)이 撰한 金方慶墓誌에 ‘세월이 오래되어 징험할 수 없다’⁹⁷⁾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立石 되었더라도 이시발의 생존전에 이미 훼손된 듯 하다.

기록이 확실하다면 김방경이 돌아간 해인 충렬왕 26년(1300)년이나 충렬왕 27년(1301)에 건립 되었을 것이고 王命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장식이 화려했으리라 짐작된다. 아무튼 문헌으로 전하는 최초의 신도비임에 틀림이 없고, 입비가 최소한 충선왕대부터는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東文選》에는 高麗末에 지어진 2개의 신도비문이 더 실려 있는데, 朝鮮太祖의 父로 判將作監事를 지낸 李子春(1315-1361)⁹⁸⁾과 曲城府院君 廉悌臣(1304-1382)의 신도비문이다. 定陵神道碑는 太祖 2年(1393)에 건립되었다가 壬辰倭亂때 파괴되어 光海君 4年(1612)에 다시 改立되었다. 그 비문이 印出되어 私家에서 간직하던 것을 太宗 17年(1417)에 王命으로 거두어 들였다는 기사가 實錄에 보이며⁹⁹⁾ 光海君 4年(1612)에는 禮曹에서 定陵의 신도비를 改立하면서 그 碑文을 고쳐 쓰는 일에 대해서 아뢰는 내용이 있다.¹⁰⁰⁾

廉悌臣神道碑에 관해서는 《坡州廉氏世譜》의 廉悌臣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95) 伏見沖敬, 1976 《書藝의 歷史》 上 悅話堂

96) 《高麗史》 列傳 卷第十七 金方慶條

‘忠宣 贈宜忠協謀定難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 諡忠烈 命立神道碑’

97) 李時發 撰, 《高麗宜忠協謀靖難定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上洛忠烈公金方慶墓誌》

‘墓在禮安縣治西陵洞 神道有麗王命立碑 世久無徵’

98) 李子春은 그의 아들인 朝鮮太祖가 王位에 오르자 桓祖로 追贈되고, 墓도 格上되어 定陵이 되었다. 그리고 李子春神道碑는 定陵神道碑로 改名되었다.

99) 《太宗實錄》 17年 11月 20日(辛未)

100) 《光海君日記》 4年 9月 2日(癸巳)

文靖公 李穡(1328-1396)이 命을 받들어 神道碑銘을 撰하고 文敬公 韓修(1333-1384)가 명을 받들어 碑文을 쓰고 아울러 篆額을 올렸는데 光武3년에 다시 신도비를 重建하면서 文忠公 宋秉璿이 追記하고 判書 宋道淳이 篆額을 올렸다.¹⁰¹⁾

이 기사에는 建立年代가 보이지 않지만, 僞王 8年(1382)과 韓脩가 돌아간 僞王 10年(1384) 사이에 神道碑를 立石했다가 光武 3年(1899)에 다시 重建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肅宗代에 朗善君 李侯(1637-1693)가 編纂한 《大東金石書》에 廉悌臣神道碑가 없어 實在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定陵神道碑와 廉悌臣神道碑는 현재 모두 北韓에 소재하고 있어 양식이나 규모를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동문선》에는 이외에도 조선초기의 신도비문이 10개가 더 실려 있다. 신도비가 고려 초기나 중기부터 유행했다면 이때에 지어진 신도비문도 《동문선》에 실렸을 터인데, 후기의 것 2개만 실린 것으로 보아 신도비의 입석은 忠宣王代(1308-1313)부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安珦(1243-1306)이 性理學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던 때라 신도비의 입석이 성리학과의 깊은 연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신도비의 입석은 조선시대의 全時期에 걸쳐 행해졌다.

2) 名稱과 概念

신도비에 새겨지는 神道碑文도 墓表나 墓碣처럼 명칭이 神道碑銘并序로만 작성되지 않았다. 撰者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異稱이 사용되었지만, 神道碑銘并序의 본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표6〉에 의하면 신도비문의 명칭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神道碑銘, 神道碑, 神道碑題後, 神道碑陰記, 墓碑銘, 墓銘, 墓道碑, 墓道碑銘, 墓碑, 碑銘, 碑銘後記, 碑陰記 등 여러가지에 이른다. 그렇지만 신도비명이라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다음으로 묘비명과 비명, 묘명, 묘비 등의 순이다. 역시 신도비명이

101) 《坡州廉氏世譜》廉悌臣條, 國立中央圖書館藏

‘墓長湍南面大谷原亥坐 文靖公李穡奉教撰神道碑銘 文敬公韓修奉教書并篆額 崇禎后五己亥 重建神道碑 文忠公宋秉璿撰追記 判書宋道淳篆額’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나머지 용어도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도비명과 묘비명, 묘도비명, 비명, 묘명이 같은 의미이고 또 신도비, 묘도비, 묘비가 같은 의미이며 신도비제후, 신도비음기, 비명후기, 비음기는 신도비명병서와는 별개인 신도비의 음기라는 뜻이니 결국 모두 같은 뜻이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의 사용은 실록의 기사나 신도비의 篆額에도 나타나 혼란스럽게 하는데, 예를 들면 齊陵神道碑를 두고 君臣間에 논의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太宗 3年 10月, ‘權近이 齊陵의 碑文을 올리었다…碑에 새기겠습니까’
- 太宗 4年 2月, ‘齊陵의 碑를 세웠다…碑文은 權近이 지난해에 지은 것인데, 華莊寺의 묵은 碑를 갈아서 새기었다’
- 太宗 4年 3月, ‘右政丞 成石璘과 參贊 權近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齊陵의 碑를 세웠기 때문이다’
- 太宗 4年 9月, ‘齊陵에서 碑를 구경하고…’
- 英祖 20年 11月, ‘齊陵의 神道碑를 고쳐서 세웠다. 碑가 壬辰年 變亂에 파괴되었는데…李宜顯에게 命하여 碑의 陰記를 짓게 하였다’
- 英祖 20年 7月, ‘齊陵의 예전 神道碑는 곧 權近의 撰한 것인데 壬辰倭亂때 적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위 기사를 보면 태조의 元妃인 神懿王后韓氏의 齊陵神道碑에 대하여 太宗代에는 碑라 지칭하였으며 英祖代에는 신도비라 부르고 있는데 전후사정으로 보아 동일한 碑를 두고 말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예는 文宗 2年(1452)에 건립된 英陵神道碑(사진6-2)에서도 보인다. 碑題가 神道碑銘并序인데 반하여 篆額은 世宗英陵之碑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예들을 보면 신도비를 碑라고도 略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제는 분명히 神道碑銘并序라 하고도 篆額을 墓碑라 올리는 경우가 金友臣神道碑, 尹萱神道碑, 金詮神道碑에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¹⁰²⁾ 實錄에서도

102) ○ 金友臣神道碑, 中宗 6年(1511)立

‘大明朝鮮金胡簡公墓碑’

○ 尹萱神道碑, 中宗 38年(1543)立

나타나고 있다.

내가(성종) 장차 襄節公의 묘비를 고쳐 세우고자 하니, 글을 맡은 자로 하여금 발문의 말미를 지어서 바치게 하라.¹⁰³⁾

史臣이 論評하기를, 韓致禮는 세도를 가진 富豪로서 居室의 화려함과 車馬의 아름다움을 날로 더하고 奢侈함을 일삼으면서도, 그 아비의 墓碑에는 오히려 재물을 아끼어 세우지 아니하고 聖聽을 번거롭게 함에 이르렀으니, 당시의 의논이 鄙陋하게 여겼다. 하였
다.¹⁰⁴⁾

그 전례를…申叔舟의 《保閑齋集》에 실린 權擘의 墓碑를 보면, ‘一行을 다 원종 공신에 책록했다.’는 말이 있는데, 신숙주는 원래 망령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물며 이 큰 경사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¹⁰⁵⁾

주세붕은 아버지가 돌아가자…李荇의 악함을 알고서도 墓碑를 지어 극도로 칭송을 했다.¹⁰⁶⁾

위 기록에 나오는 양절공 묘비는 한확신도비를, 권남의 묘비는 권남신도비를, 이행의 묘비는 이행신도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외에 韓繼美神道碑, 尹炯神道碑는 篆額을 墓銘이라 하였고¹⁰⁷⁾ 月山大君神道碑, 朴仲善神道碑는 碑銘이라 전액하였으며¹⁰⁸⁾ 한계미신도비와 김우신신도비의

‘贈領議政尹公墓碑’

○ 金詮神道碑, 光海君 3年(1611)立

‘有明朝鮮金忠貞公墓碑’

103) 《成宗實錄》25年 4月 8日(丙寅)

104) 《成宗實錄》25年 10月 2日(丁巳)

105) 《中宗實錄》3年 4月 7日(甲戌)

106) 《明宗實錄》5年 7月 28日(己未)

107) ○ 尹炯神道碑, 端宗 2年(1454)立

‘恭簡尹公墓銘’

○ 韓繼美神道碑, 成宗 3年(1472)立

‘韓文襄公墓銘’

108) ○ 月山大君神道碑, 成宗 20年(1489)立

‘月山大君碑銘’

○ 朴仲善神道碑, 成宗 21年(1490)立

後面에는 碑陰記의 篆額이 새겨져 있다.¹⁰⁹⁾ 이로 보아 신도비의 別稱인 비, 묘비, 묘명, 비명, 비음기는 단어는 틀리지만 그 의미가 같고 當代에는 이 명칭들을 混用하여 사용하면서 篆額으로 올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中宗代 이후로 가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후에 건립된 모든 신도비의 전액과 碑題는 오로지 神道碑銘이나 神道碑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시기에 이르러 신도비가 보편적인 명칭으로 정착됐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6>의 자료외에 <표10> 신도비 목록에 의거 실제 입석된 신도비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神道碑銘并序는 조사된 9할 이상의 신도비가 碑題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 誠寧大君神道碑, 安孟聘神道碑, 具致寬神道碑, 鄭光弼神道碑, 李冀神道碑, 李貴神道碑, 申翼相神道碑, 洪瑞鳳神道碑, 尹舜舉神道碑 등이 있다.¹¹⁰⁾ 그리고 韓聖翼神道碑, 韓配周神道碑는 비제를 神道

‘平陽君朴公碑銘’

109) ○ 韓繼美神道碑, 成宗 3年(1472)立

‘文襄公碑陰記’

○ 金友臣神道碑, 中宗 6年(1511)立

‘先塋碑陰’

110) ○ 誠寧大君神道碑, 卞季良 撰, 太宗 18年(1418)立

‘有明朝鮮國大匡輔國誠寧大君卞韓昭頃公神道碑銘并序’

○ 安孟聘神道碑, 鄭麟趾 撰, 世祖 12年(1466)立

‘有明朝鮮國駙馬綏祿大夫延昌尉…神道碑銘并序’

○ 具致寬神道碑, 徐居正 撰, 成宗 1年(1470)立

‘朝鮮輪忠佐翼純誠佐理功臣…諡忠烈綾城具公神道碑銘并序’

○ 鄭光弼神道碑, 蘇世讓 撰, 明宗 17年(1562)立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贈諡文翼鄭公神道碑銘并序’

○ 李冀神道碑, 金貴榮 撰, 宣祖 7年(1574)立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李公神道碑銘并序’

○ 李貴神道碑, 趙翼 撰, 仁祖 12年(1634)立

‘有明朝鮮國…諡忠定李公神道碑銘并序’

○ 申翼相神道碑, 尹拯 撰, 肅宗 36年(1710)立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贈諡貞簡申公神道碑銘并序’

○ 洪瑞鳳神道碑, 崔錫鼎 撰, 英祖 14年(1738)立

‘有明朝鮮國…贈諡文靖洪公神道碑銘并序’

○ 尹舜舉神道碑, 尹拯 撰, 純祖 11年(1811)立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司憲府掌令…尹先生神道碑銘并序’

碑銘이라 썼고¹¹¹⁾ 沈通源神道碑는 비제를 神道碑라 하면서 銘을 하지는 않았다.¹¹²⁾

神道碑銘并序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墓碑銘并序는 李郁墓碑銘, 尹昌世墓碑銘, 金球墓碑銘, 尹煌墓碑銘, 趙瑩中墓碑銘, 南瑜墓碑銘, 吳定邦墓碑銘, 南應龍墓碑銘, 死六臣墓碑銘, 成三問墓碑銘 등에서 보이며¹¹³⁾墓碑銘은 李希男墓碑銘, 李

-
- 111) ○ 韓聖翼神道碑, 尹拯 撰, 肅宗 38年(1712)立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韓公神道碑銘’
- 韓配周神道碑, 趙顯命 撰, 英祖 41年(1765)立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韓公神道碑銘’
- 112) ○ 沈通源神道碑, 沈진 撰, 宣祖 8年(1575)立
 ‘有明朝鮮國沈相公晚翠堂神道碑’無銘.
- 113) ○ 李希男墓碑銘, 李軸 撰, 光海君 3年(1611)立
 ‘有明朝鮮國贈…顯祿大夫極補君墓碑銘’
- 李軸墓碑銘, 李恒福 撰, 光海君 9年(1617)立
 ‘有明朝鮮國贈…五衛都摠府都摠管李公墓碑銘’
- 李郁墓碑銘, 申欽 撰, 仁祖 11年(1633)立
 ‘有明朝鮮國贈純忠補祚功臣…墓碑銘并序’
- 尹昌世墓碑銘, 金瑬 撰, 仁祖 12年(1634)立
 ‘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吏曹參判…墓碑銘并序’
- 金球墓碑銘, 撰者未詳, 仁祖 18年(1640)立
 ‘有明朝鮮國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自庵金先生墓碑銘并序’
- 尹煌墓碑銘, 金尙憲 撰, 顯宗 1年(1660)立
 ‘有明朝鮮國嘉善大夫行司諫院大司諫尹公墓碑銘并序’
- 趙瑩中墓碑銘, 金尙憲 撰, 顯宗 13年以前(1672)立
 ‘有明朝鮮國贈大匡輔國崇祿大夫…墓碑銘并序’
- 南瑜墓碑銘, 李栻 撰, 景宗 4年(1724)立
 ‘有明朝鮮國贈…羅州牧使南公墓碑銘并序’
- 吳定邦墓碑銘, 李景奭 撰, 英祖 34年(1758)立
 ‘有明朝鮮國嘉善大夫慶尙右道兵馬節度使…吳公墓碑銘并序’
- 南應龍墓碑銘, 南就明 撰, 英祖 37年(1761)立
 ‘有明朝鮮國贈…工曹參議知制教南公墓碑銘并序’
- 死六臣墓碑銘, 趙觀彬 撰, 正祖 6年(1782)立
 ‘有明朝鮮國六臣墓碑銘并序’
- 李茂墓碑銘, 尹得觀 撰, 正祖 9年(1785)立
 ‘奮志仗義定社佐命功臣…諡翼平李公墓碑銘’
- 成三問墓碑銘, 宋煥箕 撰, 純祖 2年(1802)立
 ‘梅竹堂成先生墓碑銘并序’
- 劉敞墓碑文, 李光正 撰, 憲宗 12年(1846)立
 ‘有明朝鮮國推忠協贊開國功臣…諡文僖仙菴先生劉公墓碑文’

軸墓碑銘, 李茂墓碑銘 등에서¹¹⁴⁾ 그리고 墓碑文은 劉敞墓碑文에서 보인다.¹¹⁵⁾ 그리고 전액으로 墓碑임을 밝힌 李翔墓碑가 있다.¹¹⁶⁾ 이외에 비문의 형식이 신도비와 같으면서도 전액과 비제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尙忠旌武碑와 吳達濟帶囊藏碑, 閔泳徽壽藏碑를 예로 들 수 있다.¹¹⁷⁾

3) 建立過程과 碑의 產地

신도비는 그 규모 만큼이나 조성에 많은 인력과 재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王陵의 神道碑는 文宗代이후 폐지하고 있다. 비록 ‘帝王의 사적은 史冊에 남아 있으니 따로 비를 건립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상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山陵의 役事는 항상 백성들에게는 힘든 勞役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太宗 4年(1404) 齊陵碑의 건립때처럼 採伐과 運送에 있어서 많은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碑身을 기존에 있던 華莊寺의 묵은 비를¹¹⁸⁾ 갈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¹¹⁹⁾

- 李翔墓碑, 宋釋圭 撰, 高宗 32年(1895)立
‘有明朝鮮贈吏曹判書諡文穆公行大司憲打愚李先生墓碑’頭篆, 無碑題
- 閔泳徽壽藏碑, 自撰, 光武 9年(1905)立
碑題 ‘…荷翁壽藏碑自銘并序’頭篆‘賜號荷汀壽藏碑銘’
- 114) ○ 李希男墓碑銘, 李軸 撰, 光海君 3年(1611)立
‘有明朝鮮國贈…顯祿大夫極浦君墓碑銘’
- 李軸墓碑銘, 李恒福 撰, 光海君 9年(1617)立
‘有明朝鮮國贈…五衛都摠府都摠管李公墓碑銘’
- 李茂墓碑銘, 尹得觀 撰, 正祖 9年(1785)立
‘奮志仗義定社佐命功臣…諡翼平李公墓碑銘’
- 115) ○ 劉敞墓碑文, 李光正 撰, 憲宗 12年(1846)立
‘有明朝鮮國推忠協贊開國功臣…諡文僖仙菴先生劉公墓碑文’
- 116) ○ 李翔墓碑, 宋釋圭 撰, 高宗 32年(1895)立
無碑題, 頭篆‘有明朝鮮贈吏曹判書諡文穆公行大司憲打愚李先生墓碑’
- 117) ○ 尙忠旌武碑, 正祖 御製, 正祖 18年(1794)立
‘有明 水軍都督朝鮮國----三道統制使諡忠武公李舜臣神道碑銘并序’
상충정무비의 비제는 神道碑銘并序로 되어 있어 신도비임을 알 수 있다. 전액을 신도비라 올리지 않고 상충정무비라 한 것은 이순신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조가 특별히 생각해낸 것으로 보인다.
- 吳達濟大囊藏碑, 金祖淳 撰, 純祖 28年(1828)立
‘朝鮮國通訓大夫行弘文館副校理…諡忠烈吳公帶囊藏碑銘并序’
- 閔泳徽壽藏碑, 自撰, 光武 9年(1905)立
‘有明朝鮮國…荷翁壽藏碑自銘并序’

왕실이나 인척 그리고 공신이 신도비를 입석할 때는 왕이 경제적 부담과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별도로 인력이나 비용을 내어 주어 그 役事를 돕게 하였다. 그렇지만 워낙 대규모 공사라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야만 하였고 그에 따른 민폐와 부작용은 매우 심하여 항상 조정의 논란거리가 되었다.

成宗 25年(1494)에 襄節公 韓確神道碑의 건립과 관련해 왕이 工匠과 當領船軍을 지원해주다가 이해에 흥감이 심하자 공사를 멈추게 하였다. 그러자 그 아들 韓致禮가 공사의 재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성종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화에 대하여 史臣은 한치레가 富豪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힘에 의존한다고 비평하는 기사가 있다.¹²⁰⁾

肅宗 13年(1687)에는 金錫胄가 故 平城府院君 申景禎의 집에서 碑를 운반할 때에 부역 일꾼 1천 명을 뽑아 주기를 請하으므로 숙종이 이를 허락하자 閔鼎重이 이 命을 중지하기를 청하고 있다.¹²¹⁾ 뿐만 아니라 同王 15年(1689)에는 李日翼이 綾原大君神道碑의 역사에 楊州 백성 2천명이 동원되어 너무 지나치다고 하자 閔宗道가 玉山府院君 張炯의 예를 들어 1,500명으로 하자고 아뢰니 숙종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¹²²⁾ 또 英祖 1年(1725)에는 私親인 淑嬪崔氏神道碑의 역사에 1만명을 분배한 후에 또 보태려 하자 閔鎮遠이 마침 勅使의 행차도 오고 농사철이니 잠시 중지하고 땅이 얼기를 기다린후에 龜臺石을 운반하자고 請하였다. 그러나 영조는 돌을 갈고 다듬어 짐을 가볍게 한다음 운반하라고 강행시키고 있는 기사가 보인다.¹²³⁾ 이와 같이 신도비의 건립은 王室에서조차 버거운 役事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姻戚이나 功臣들은 그 필요한 인력을 王에게 얻어내 경제적 부담을 덜으려 하였던 것이다. 이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일반 士大夫들은 후손들이 모여서 돈과 재물을 추렴하여 공동으로 건립하였던 것이다.

건립과정에서는 각각 일을 분담하여 진행하였는데 趙希逸神道碑의 건립 때에는 監官을 座首 鄭希文이 맡고 浮石에는 軍官 金守望, 石手에는 林奉先, 刻手에

118) 이때 齊陵碑를 위해 훼손된 華莊寺의 묵은 비는 기록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華藏寺 靜覺國師塔碑(高宗16, 1229)로 추정된다.

119) 《太宗實錄》4年 2月 18日(己丑)

‘立齊陵碑碑文曰…碑文 乃權近去年所製也 磨去華莊寺舊碑而刻之’

120) 《成宗實錄》25年 10月 2日(丁巳)

121) 《肅宗實錄》8年 10月 12日(乙酉)

122) 《肅宗實錄》15年 10月 12日(乙亥)

123) 《英祖實錄》1年 3月 18日(丙辰)

는 官奴인 云白과 發伊가 그리고 本家奴인 贊永이 참여하였다. 각수의 신분이 모두 노비인 것이 특이하다.¹²⁴⁾

신도비 役事에 참여하였던 신하들은 비가 완공된후 王으로부터 그 노고에 대한 많은 物品을 下賜받고 加資도 받았다. 太宗 4年(1404)에 齊陵碑 役事에 공헌한 成石璘을 비롯한 여러 臣僚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하사품을 내리는데 그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색적인 것은 돌을 각자한 僧 明호가 노비 12구와 더불어 주, 목면, 흑마포, 백저포를 각각 한 필씩을 하사받고 있는데, 책임자인 성석린을 비롯해 役事에 참여한 모든 인원중에서 제일 많은 하사품을 받고 있어 이채롭다. 생각컨대 刻字의 가장 어려운 노역을 치러낸 공로를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여 내린 조치로 보인다.¹²⁵⁾

신도비의 건립기간은 크기에 따라 모두 틀리지만 세종신도비의 경우 太宗 3年(1403) 10월에 權近이 비문을 완성하고 5개월후인 太宗 4年(1404) 2월에 준공하였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공될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많은 工匠들을 동원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앞서 나왔듯이 비신을 쉽게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 신도비의 경우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총고 281Cm의 奇虔神道碑(高宗19, 1882)의 追記에 의하면, 고종 16년(1879) 10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만 3년만인 고종 19년(1882) 11월에 완공했다는 기록이 있어 대부분 이 기간을 전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⁶⁾

신도비에 사용되던 石材는 獻陵神道碑, 朴彌神道碑, 金慶餘神道碑가 江華에서 伐石하여 썼으며¹²⁷⁾ 尹仁鏡神道碑는 洪州에서¹²⁸⁾ 李原神道碑는 黃海道 平山에서

124) 趙希逸神道碑 右側面 刻字, 肅宗 14年(1688)立

‘監官座首鄭希文 浮石軍官金守望 石手林奉先 刻手官奴云白發伊 本家奴贊永’

125) 《太宗實錄》4年 3月 16日(丁巳)

126) ○ 奇虔神道碑, 李廷龜 撰, 高宗 19年(1882)立

‘崇禎紀元後五己卯(1879)十月日始 壬午(1882)十一月後孫 亮衍竣功’

127) ○ 《世宗實錄地理志》, 江華都護府條

‘土產 青蘭石 產摩利山西 海濱可刻碑獻陵神道碑用此石 又有崑石’

○ 朴彌神道碑 追記, 曾孫 朴弼周 撰, 英祖 1年(1725)立

‘…玄孫師益屬居留江都 都故產石…’

○ 金慶餘神道碑 追記, 撰者未詳, 光武 8年(1904)立

‘石材則江華海中石 而外孫領議政北谷洪公致中 沁留所辦送’

128) 尹仁鏡神道碑 追記, 尹昌來 記, 英祖 9年(1733)立

‘墓遂有龜趺而無螭首 先君曾泣洪州伐石以來 與族允商耆謀將用’

돌을 구해다 썼다.¹²⁹⁾ 앞에 열거한 신도비들이 대부분 畿內에 소재하고 있어 운반시 많은 인력과 물력이 소요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立石制限

신도비의 입석제한은 法典에 의거 정해진 바가 없으나 <표10>에 등록된 碑主의 實職과 贈職의 品階를 비교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비주의 실직품계는 正一品 大匡輔國崇祿大夫에서 從五品 奉訓郎까지 나오고 있으며 從二品 嘉善大夫 이하가 모두 42기나 있었다. 이를 품계별로 나열하면 正三品 堂上 通政大夫 20, 正三品 堂下 通訓大夫 11, 西班의 正三品 堂上 折衝將軍 4, 正三品 堂下 禦侮將軍 1, 從三品 中訓大夫 1, 從四品 朝散大夫 1, 從五品 奉直郎 1, 從五品 奉訓郎 1기가 있으며, 無官職인 隱士가 2기 있었다. 실직 품계가 이 같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나 4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從二品 嘉善大夫 이상의 贈職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신도비의 입석 제한은 실직은 상관 없이 없고 贈職이 從二品 이상이어야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점은 신도비 입비와 관련된 다음의 두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고의 벼슬은 통정에 그쳤으나 남한산성에서 호종한 것으로 해서 상으로 가선대부의 제직을 더하여 비답을 내리고 壙함에 미처서 때로 결림이 있기 때문에 묘지와 묘표에 모두 이것을 쓸 수가 없었다. 모두가 의논해서 말하기를 격에 준해서 비를 세우게 되면 이 품의 관계는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행직의 높은 것을 더하였다.¹³⁰⁾

선생의 현덕과 지극한 행위를 찬술하는 자가 없어 증과 진이 겨우 보고 들은 것으로 써 대략 한두개를 기록하여 가장을 만들어서 장차 묘갈명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추종의 은전을 힘입어 진이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인즉 마땅히 법식을 살펴 비를 세워야 하는데 세상에 선인을 아는 자가 드무니 형이 어찌 이를 도모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¹³¹⁾

129) 李原神道碑, 明宗 15年(1560)立

‘歲甲寅 出按關西道經平山 卽碑石之所出也’

130) 尹煌墓碑銘 又追記, 撰者未詳, 顯宗 1年(1660)立

‘先考官止通政 以南漢扈從 賞加嘉善資而下批 及壙後時有礎 故墓誌與表 皆無得以書之 諸議以爲準格 立碑則二品官階 不容不書 故是加諸行職之上焉’

131) ○ 尹舜舉神道碑, 尹拯 撰, 純祖 11年(1811)立

前者는 尹煌이 南漢山城(丙子胡亂)을 扈從한 공으로 인해 嘉善大夫로 加資되었으나 丙子胡亂이 恥辱으로 끝나자 이를 부끄럽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고 事後에도 가자된 품계를 墓誌와 墓表에 쓰지 않았는데 碑를 세움에 있어서는 하는 수 없이 格式에 準해서 쓰게 되었다는 것이고, 後者는 尹舜舉의 實職 品階가 正三品 通訓大夫에 그쳐서 碑를 세우지 못하고 墓碣을 세우려 하였으나 마침 從二品 嘉善大夫로 追贈되었으니 法式을 살펴 碑를 세우자는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건대 신도비의 입석 제한은 贈從二品嘉善大夫 以上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능한 이를 遵守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從二品으로 贈職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비를 건립한 경우도 4기나 있어¹³²⁾ 格式을 어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말 그대로 격식은 도덕적 의무이지 구속력을 갖는 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묘갈, 묘표를 신분에 맞지 않게 크게 세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中·庶人層도 신도비만은 입석하지 못했다. 사대부조차도 신도비를 건립할 때는 품계에 따라 그 격식을 따져서 건립하였기 때문이다.

5) 數量과 規模

〈표10〉에 기재된 신도비는 총 408개에 이르며 太祖 2年(1393)에 입석된 定陵神道碑를 비롯하여 태조1, 태종 5, 세종 2, 문종 1, 단종 1, 세조 3, 예종 1, 성종 15, 연산군 9, 중종 22, 명종 16, 선조 28, 광해군 14, 인조 41, 효종 19, 현종 19, 숙종 71, 경종 1, 영조 62, 정조 8, 순조 17, 헌종 3, 철종 10, 고종 29, 순종대에 5기가 건립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成宗代부터 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先生之玄德 至行無人譔述 拯與摺 僅就耳目之所逮及者 略記一二爲家狀 將以求碣銘 及蒙贈典摺謂拯 今則當按式豎碑 而世人鮮有知先人者 兄盍圖之’

- 132) ○ 柳碩神道碑, 故通政大夫, 無贈職, 肅宗 16年(1690)立
 ○ 姜子平神道碑, 行通政大夫, 無贈職, 英祖 4年(1728)立
 ○ 韓配周神道碑, 行通訓大夫, 無贈職, 英祖 41年(1765)立
 ○ 李經漢神道碑, 行通政大夫黃海道水軍節度使,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 高宗 13年(1876)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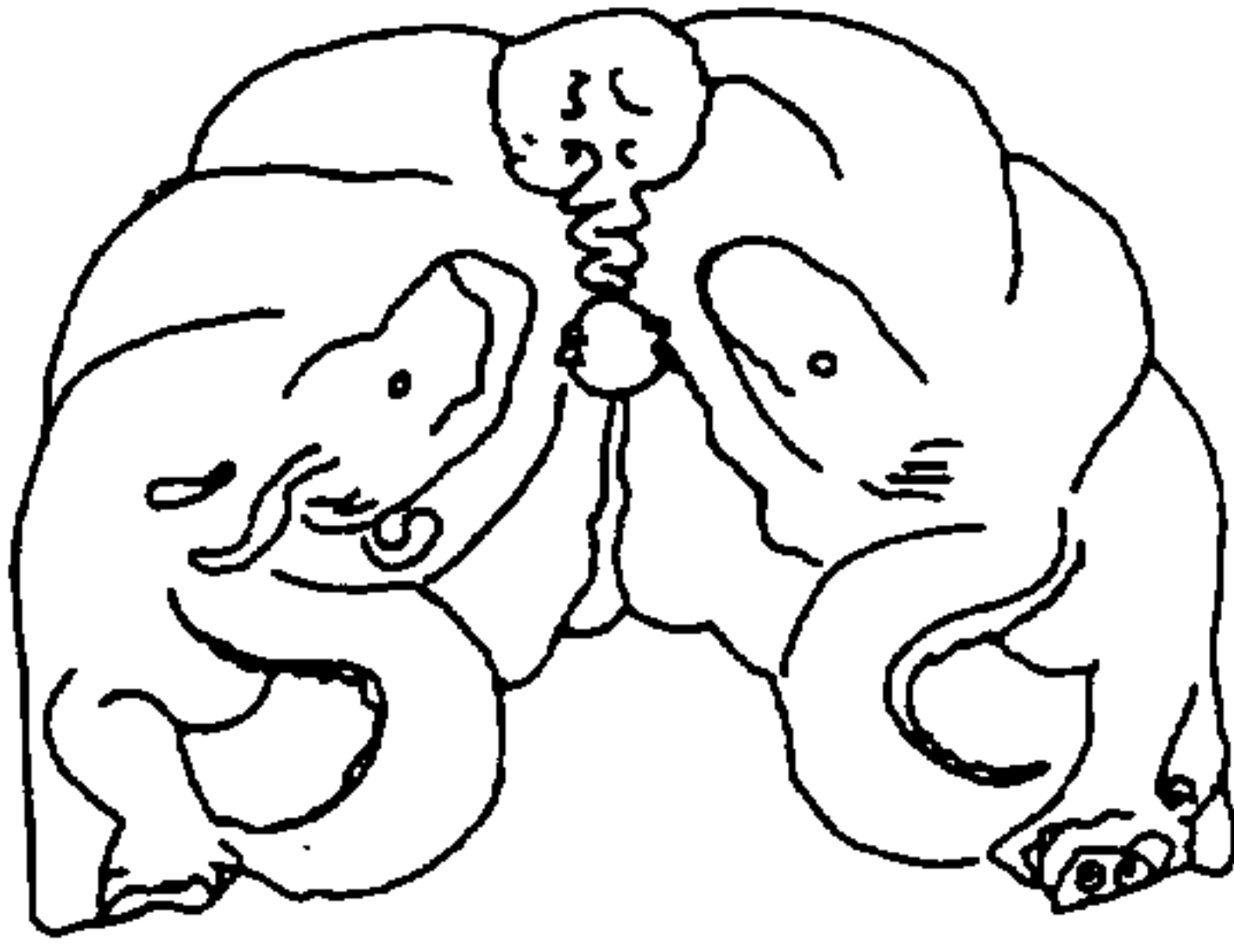
肅宗代에 가장 많은 신도비가 건립되었다. 그리고 숙종대부터 영조대까지 입석된 수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이때에 입석이 가장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尹孝孫神道碑(527Cm)이나 英陵神道碑(507Cm)가 귀부가 분실된 상태라 실제로는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되며, 400Cm 이상의 신도비로는 花山君李浣神道碑(495Cm) 洪聖民神道碑(486Cm) 李景奭神道碑(475Cm) 韓百謙神道碑(460Cm) 韓浚謙神道碑(442Cm) 李廷龜神道碑(440Cm) 金錫胄神道碑(428Cm) 閔維重神道碑(418Cm) 閔鎭厚神道碑(415Cm) 仁嬪金氏神道碑(410Cm) 趙正萬神道碑(410Cm) 金始煥神道碑(407Cm) 金構神道碑(406Cm)가 있고 350Cm 이상으로는 吳斗寅神道碑(390Cm) 安孟聃神道碑(382Cm) 張雲翼神道碑(386Cm) 延齡君李田神道碑(383Cm) 申欽神道碑(380Cm) 德興大院君神道碑(376Cm) 金堉神道碑(375Cm) 李明漢神道碑(366Cm) 月山大君神道碑(365Cm) 河原君李鎰神道碑(359Cm) 黃廷彧神道碑(360Cm)등이 있다. 그리고 최소 규모로는 姜善餘神道碑(161Cm)와 利城君李愼神道碑(170Cm)가 있으며, 대부분의 신도비 크기는 200-350Cm 안팎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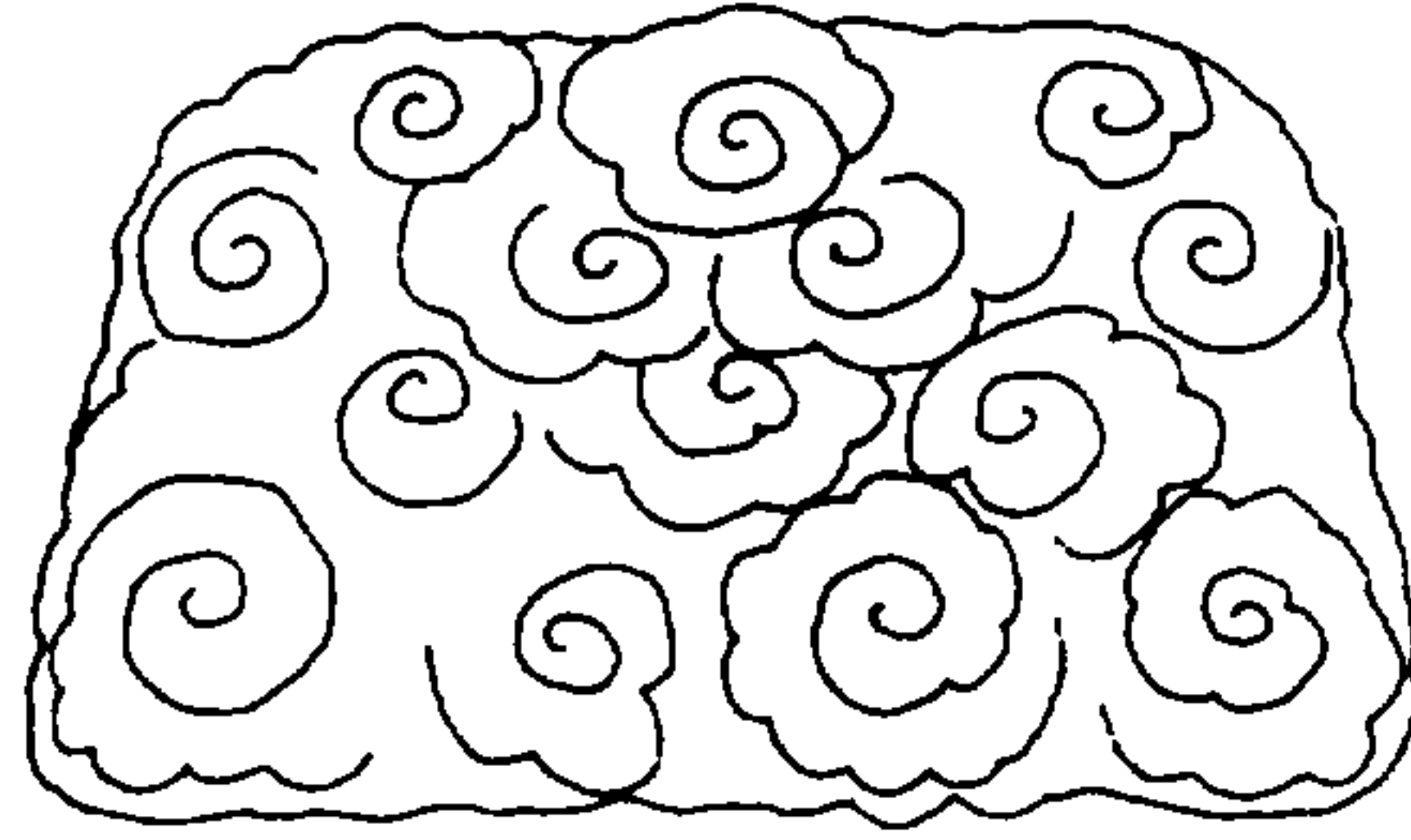
6) 樣式

조선시대 태조의 健元陵神道碑(太宗8, 1408)부터 귀부이수 양식이 나오고, 비좌하엽은 河允濟神道碑(太宗13, 1416)부터 귀부개석은 誠寧大君神道碑(太宗18, 1418)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비좌이수 양식은 尹炯神道碑(端宗2, 1454), 비좌규수 양식은 黃守身神道碑(睿宗1, 1469), 비좌개석은 成任神道碑(燕山君6, 1500), 비좌원수 양식은 朴元亨神道碑(成宗2, 1471)부터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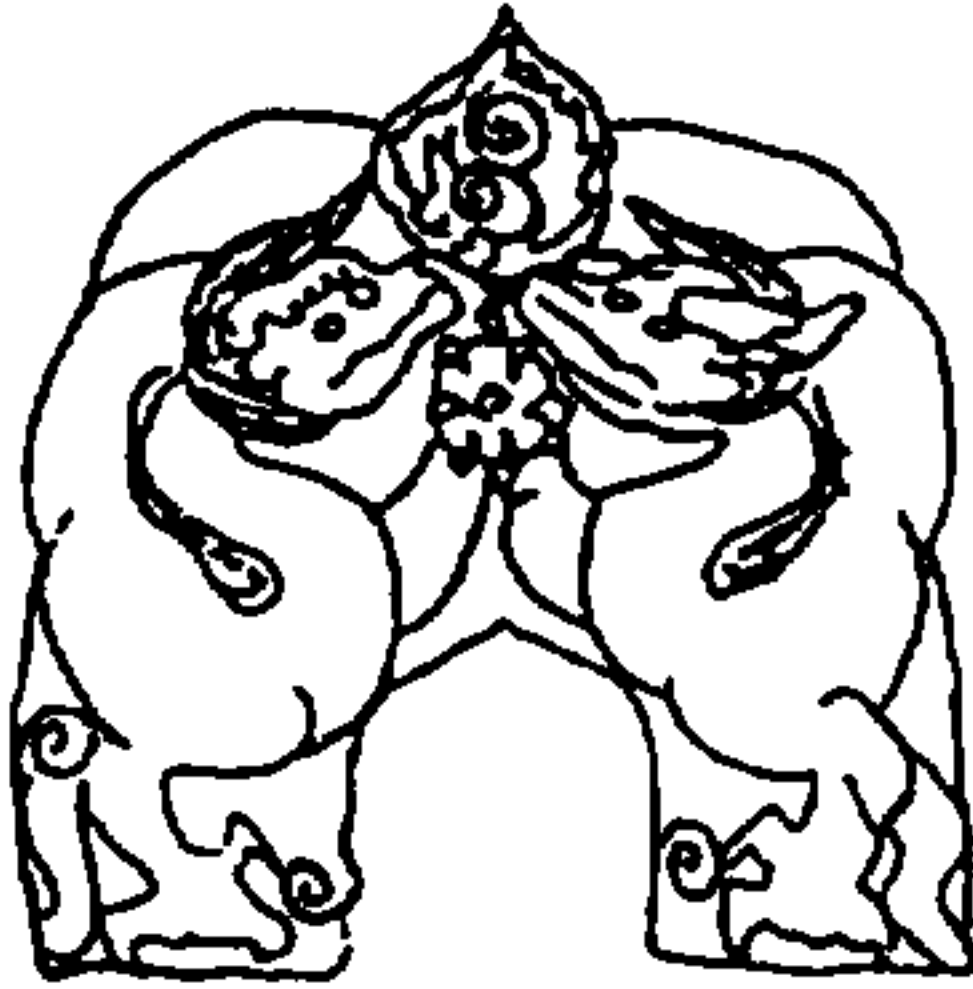
이중에서 비좌하엽은 成世昌神道碑(宣祖6, 1573)를 끝으로 사라지며 비좌규수 양식은 黃喜神道碑(燕山君6, 1500)이후 끊어졌다가 仁興君李瑛神道碑(顯宗12以前, 1671)때 재현되나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양식은 이렇게 소멸하고 나머지 양식들만이 混用되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비좌이수와 비좌개석 양식이 主流를 이루었고 다른 양식들은 간간히 등장할 뿐 두 양식만큼 愛用되지는 않았다. 비좌개석 양식은 숙종대이후 주도권을 잡고 타 양식을 압도하기 시작하여 英祖 28年(1752)에 건립된 李曼神道碑이후로는 오로지 사용되었다. 특이한 양식으로는 臺石을 自然石으로 이용한 신도비가 있는데 韓世桓神道碑(中宗31, 1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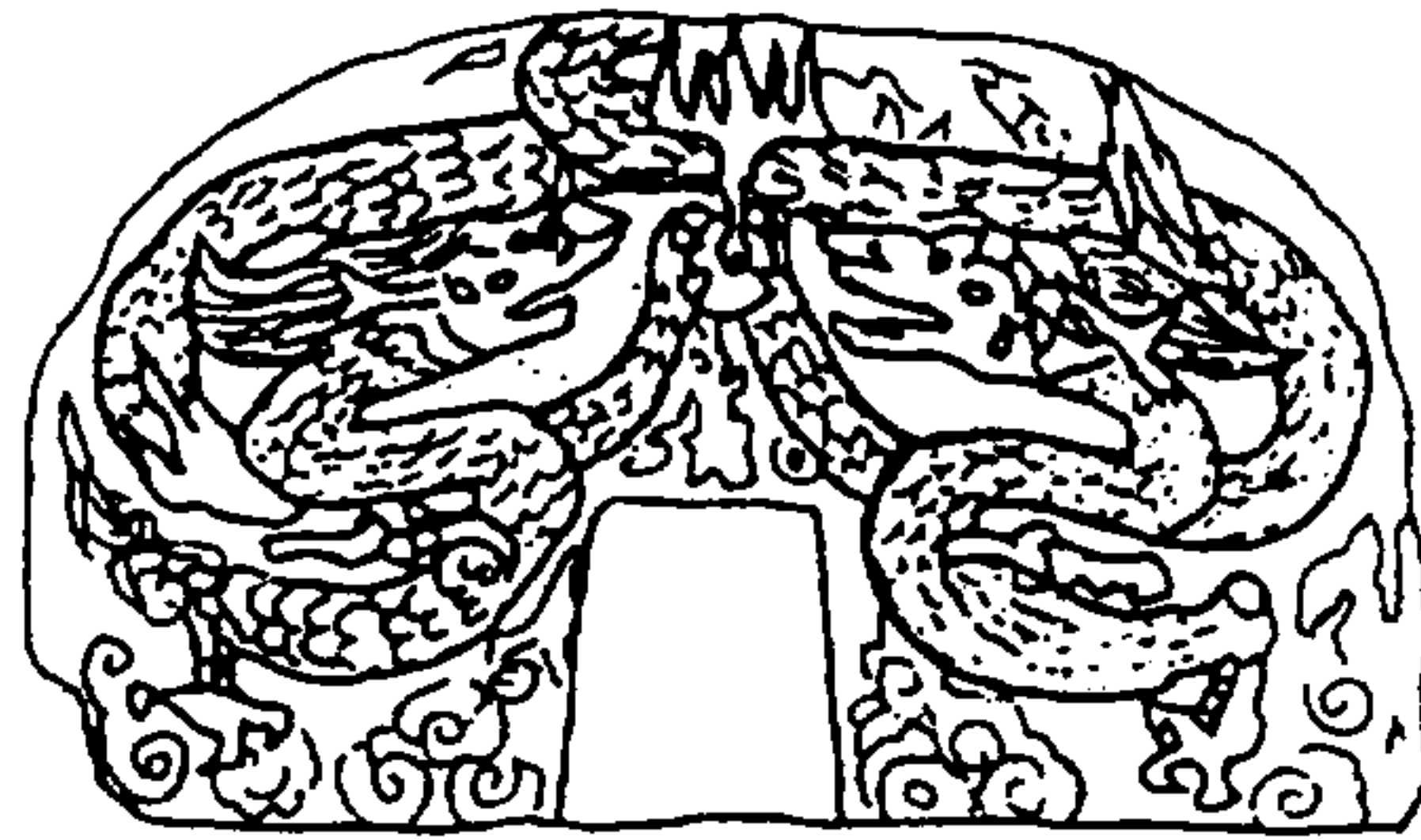
1. 英陵神道碑 (文宗2, 1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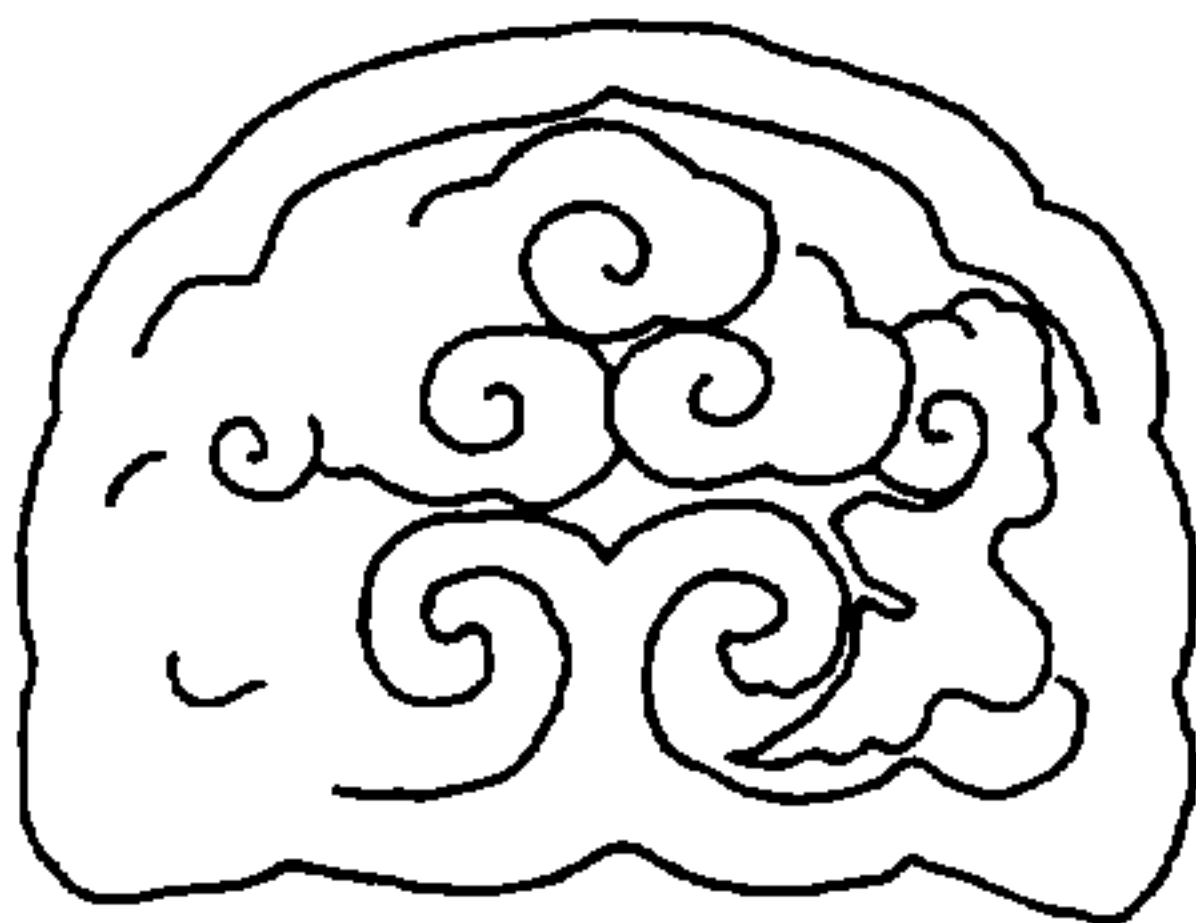
5. 朴仲善神道碑 (成宗21, 1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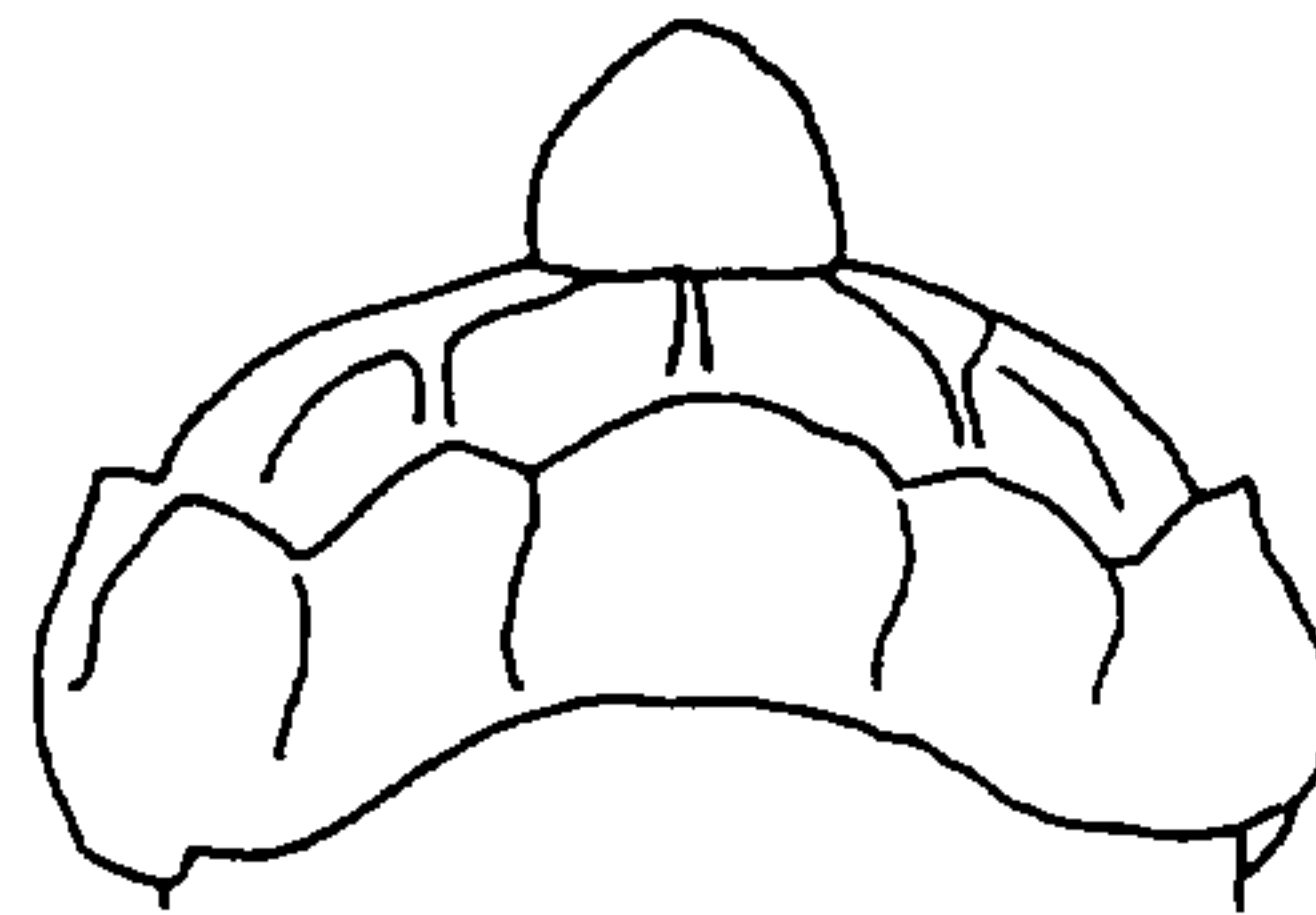
2. 韓繼美神道碑 (成宗3, 1472)



6. 金友臣神道碑 (中宗6, 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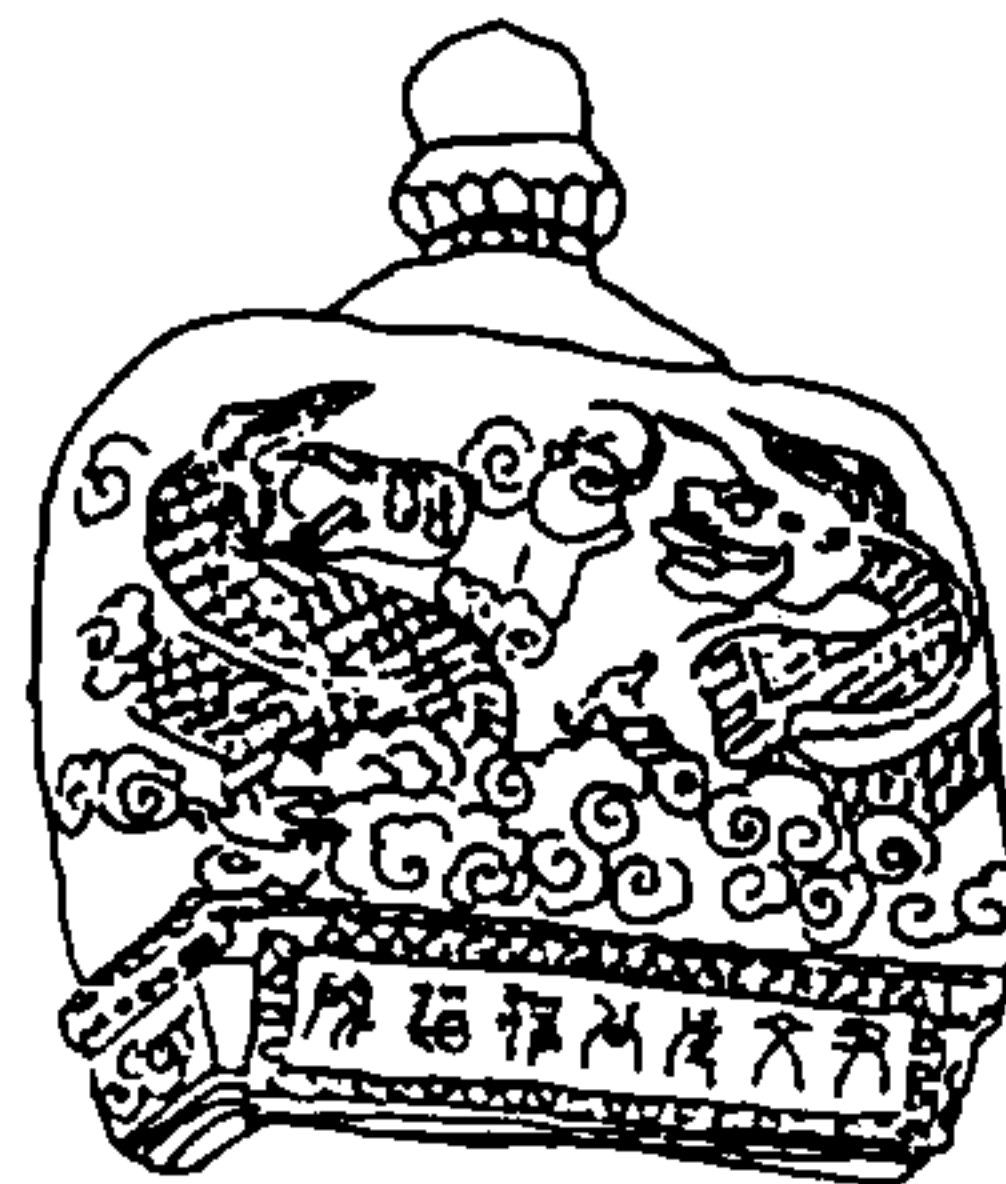
3. 尹三山神道碑 (成宗17, 1486)



7. 卞宗仁神道碑 (中宗10以前, 1515)



4. 月山大君神道碑 (成宗20, 1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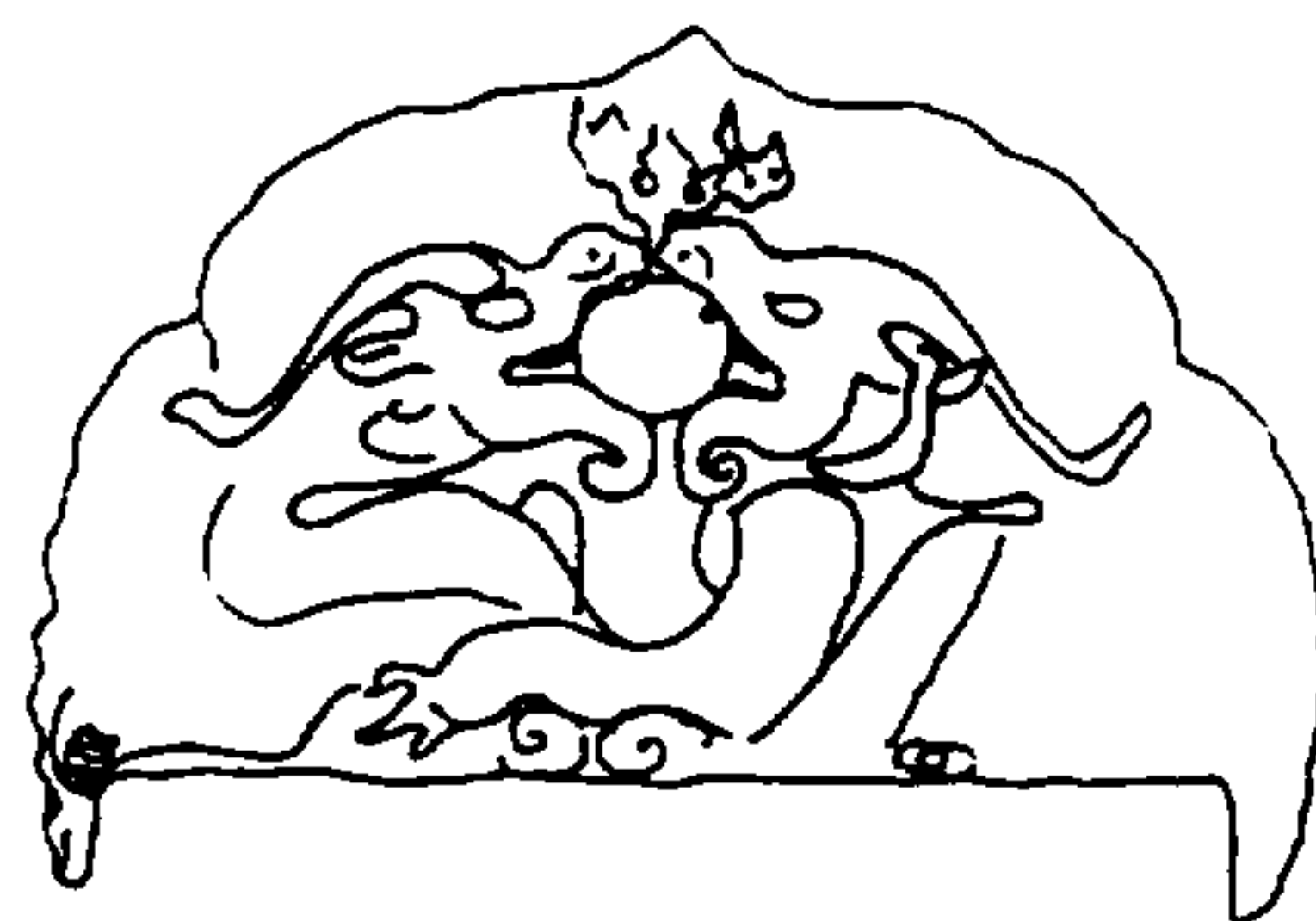


8. 尹孝孫神道碑 (中宗14,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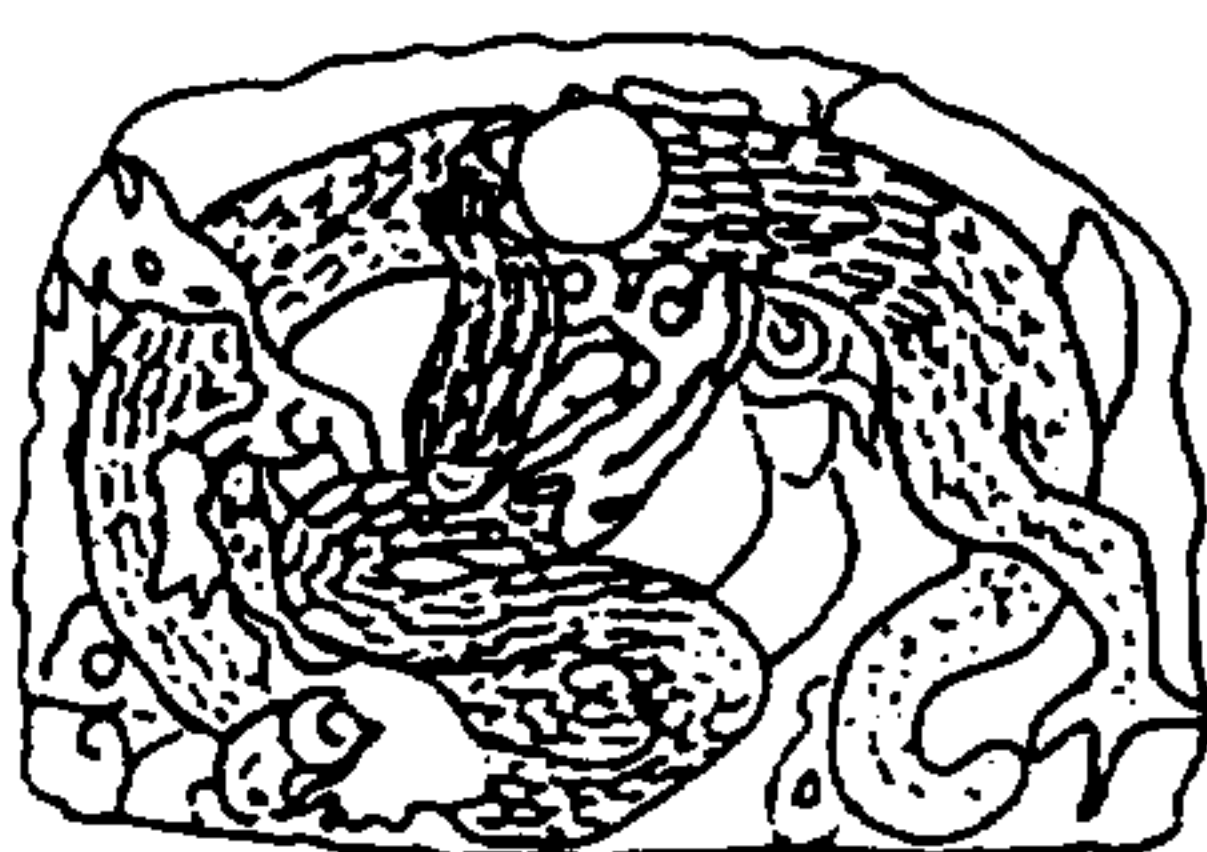
도면 9. 神道碑 螭首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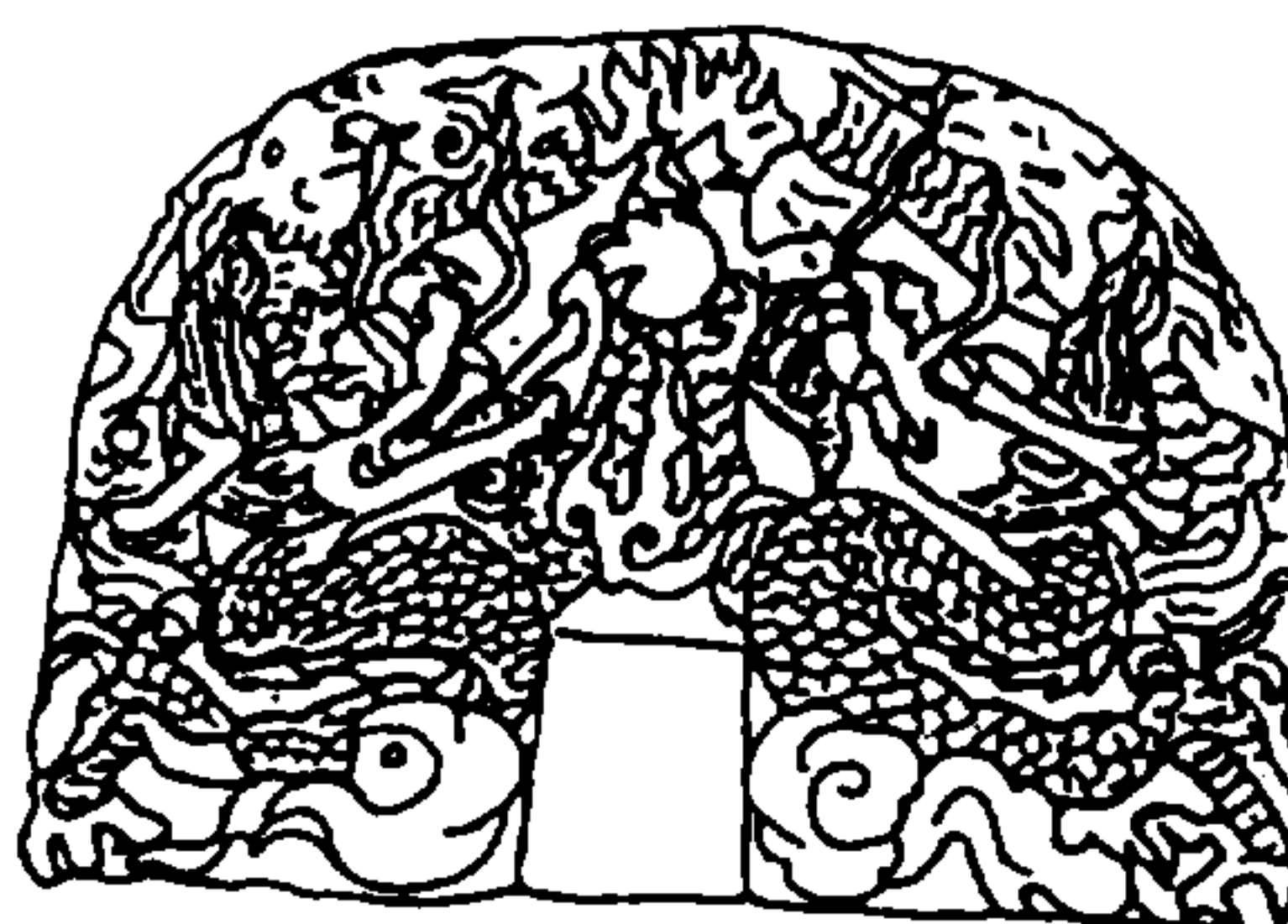
1. 利城君李愼神道碑 (明宗11, 1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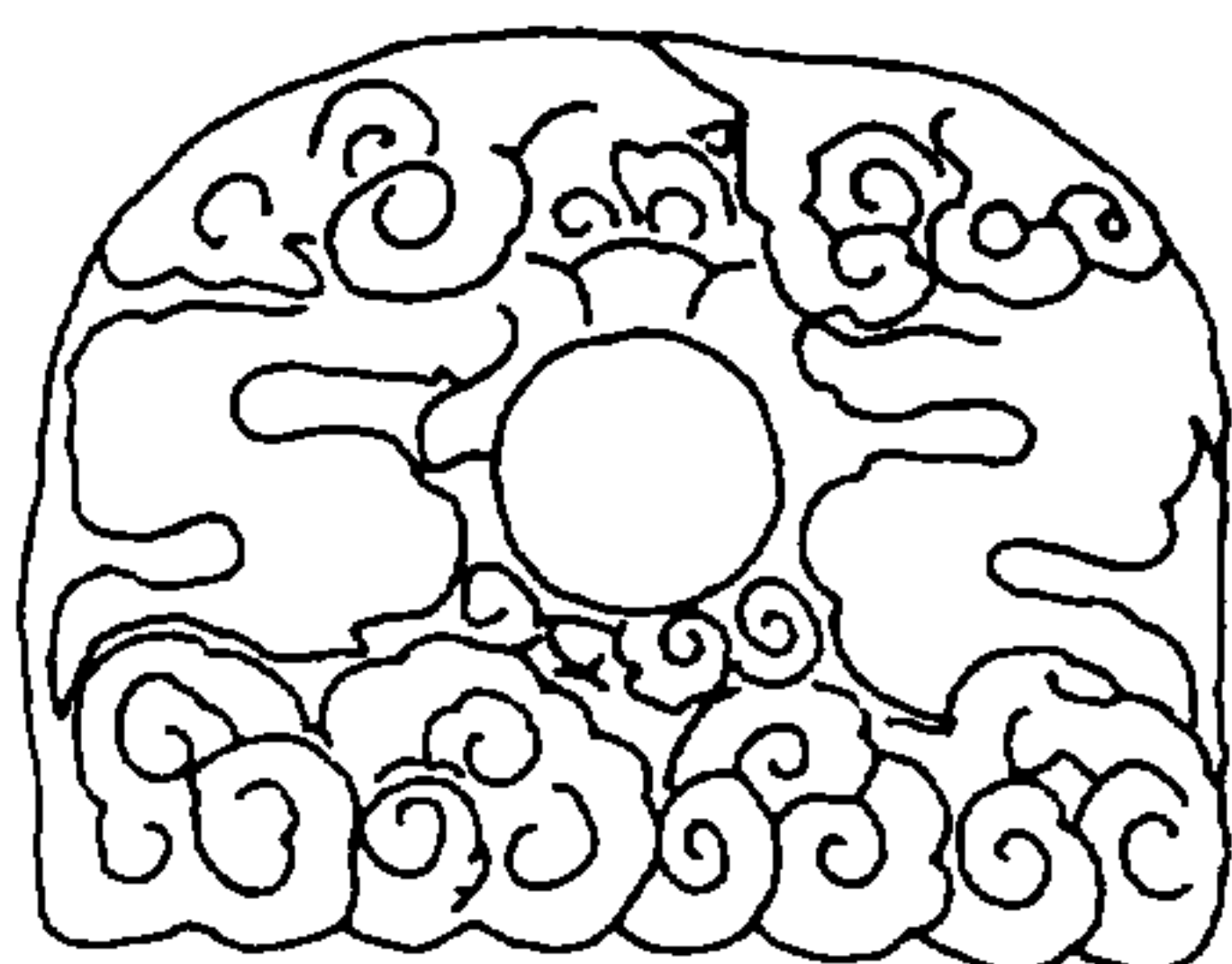
5. 曹繼商神道碑 (宣祖38以前, 1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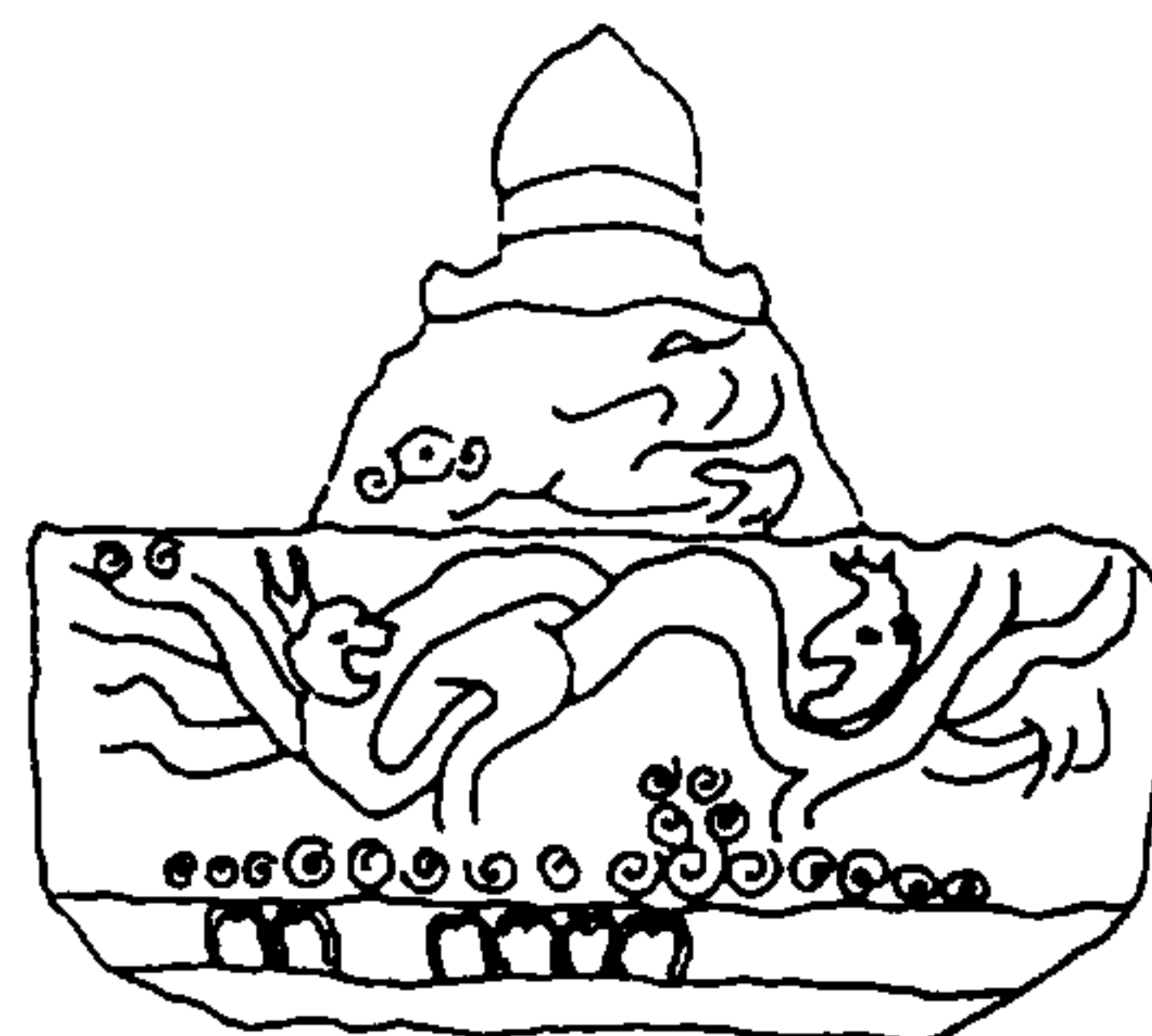
2. 坡林君李瑋神道碑 (明宗18以前, 1563)



6. 金詮神道碑 (光海君3, 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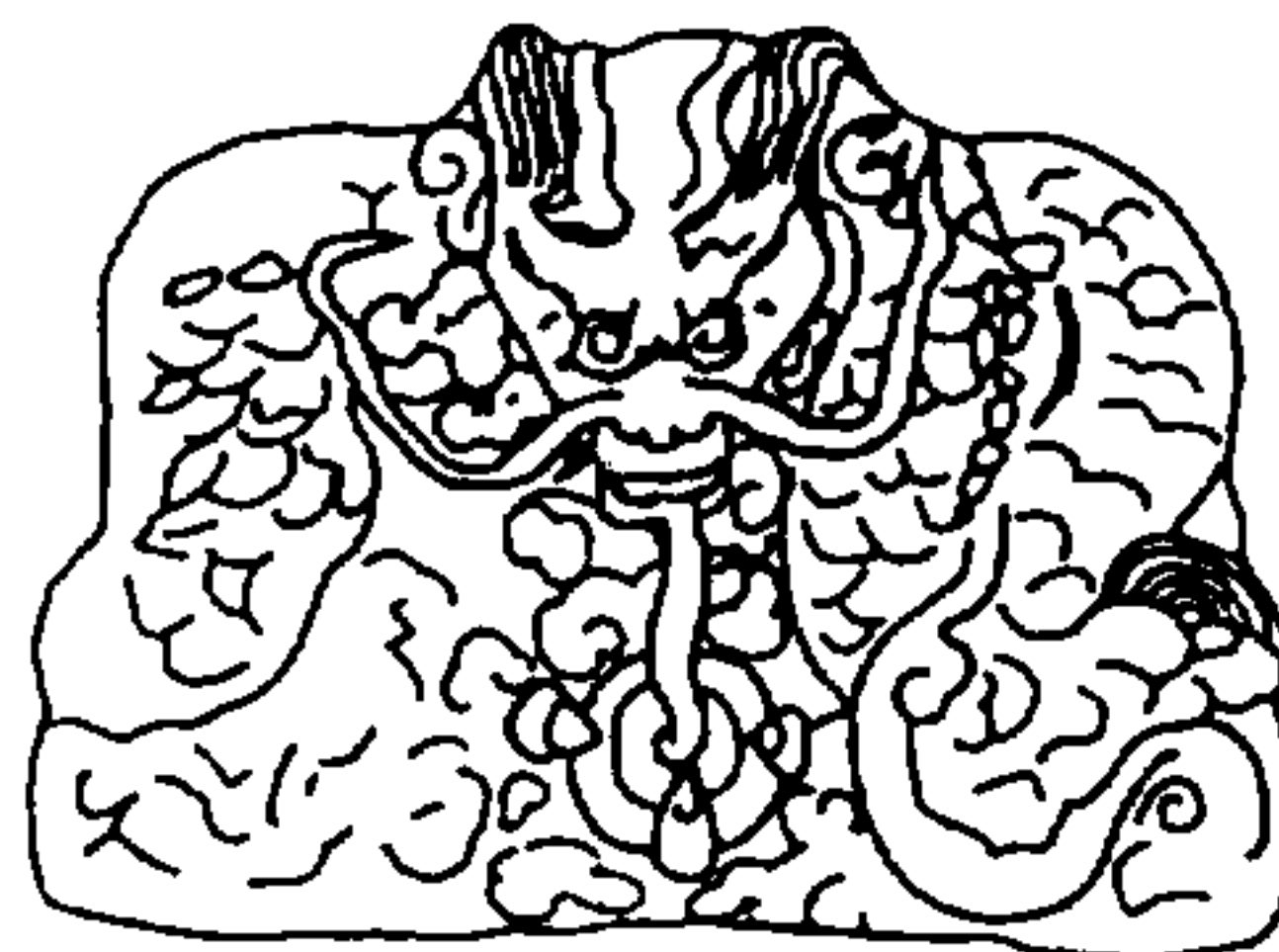
3. 沈德符神道碑 (明宗18, 1563)



7. 韓百諫神道碑 (仁祖22, 1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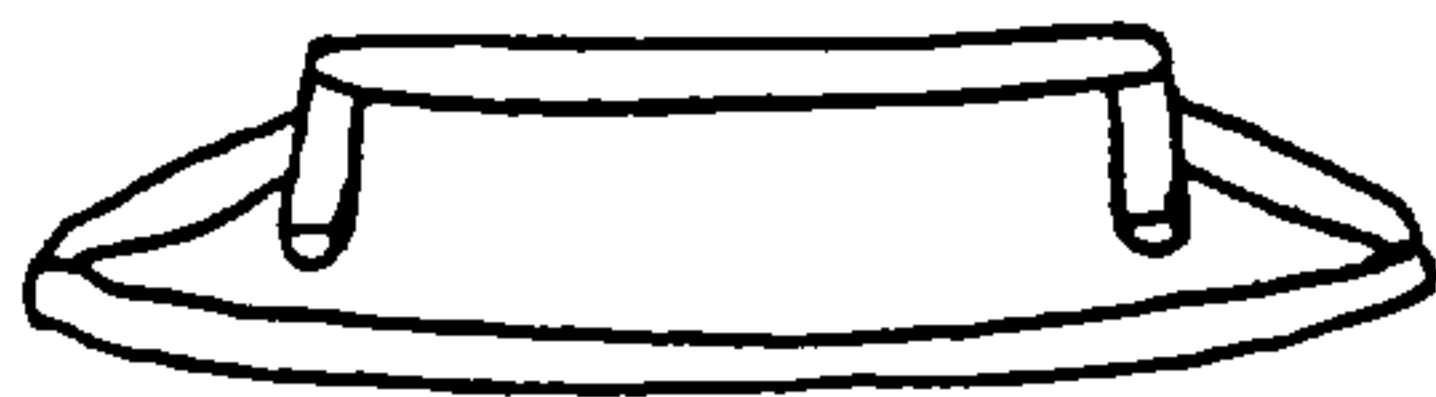


4. 朴世榮神道碑 (宣祖15, 1582)



8. 睿宗胎室碑 (英祖10, 1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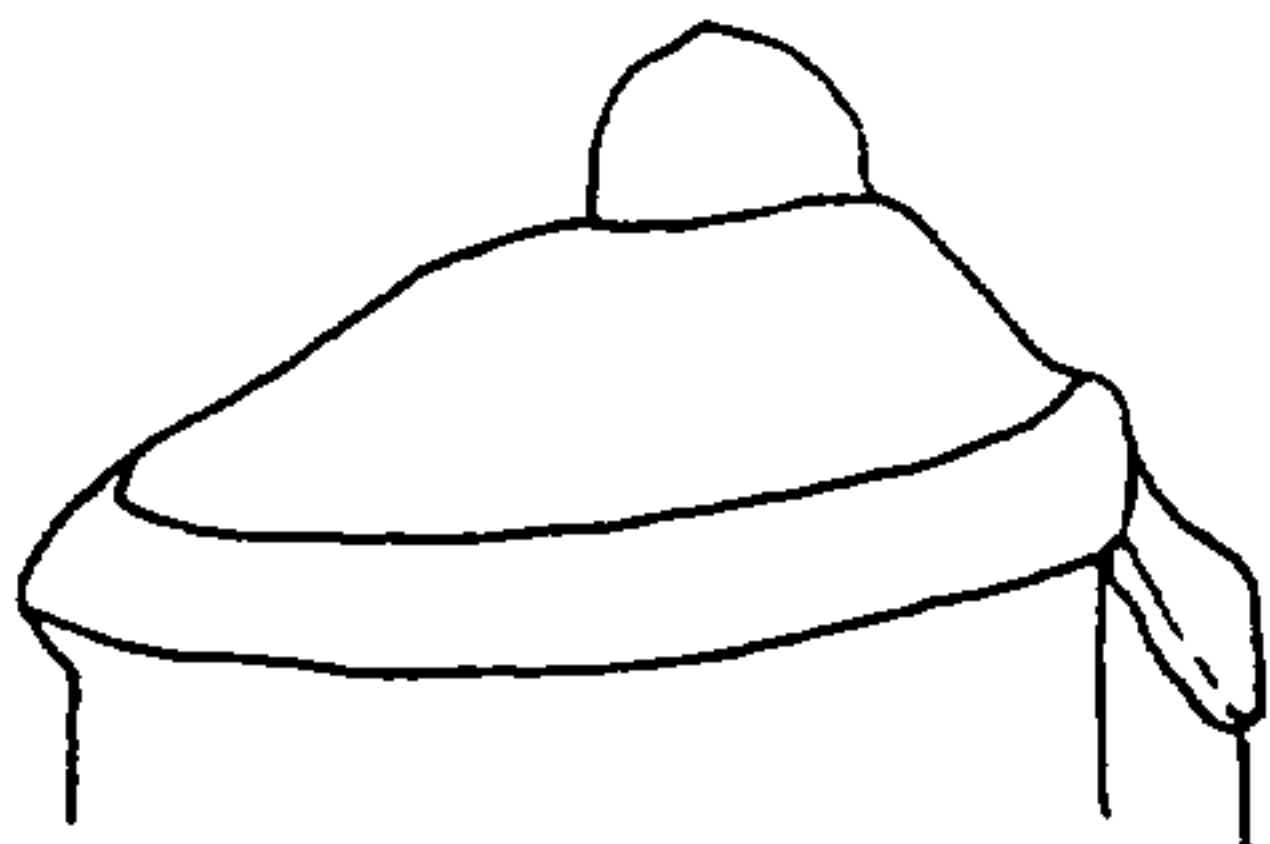
도면 10. 神道碑 螭首Ⅱ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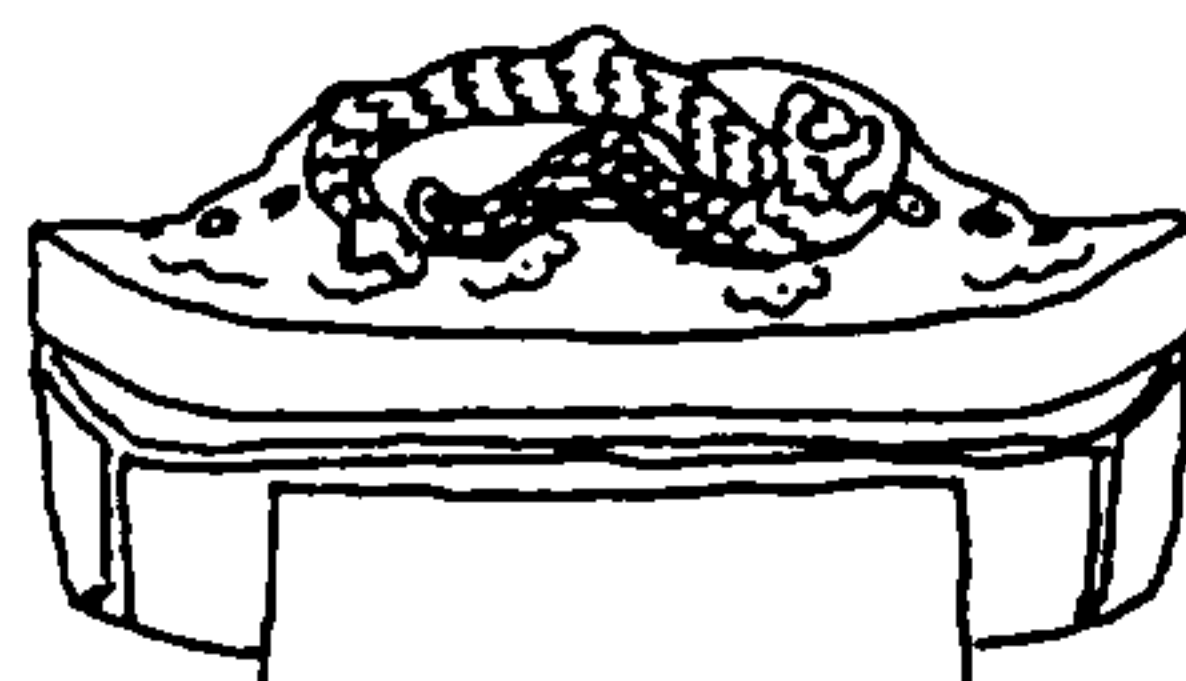
1. 誠寧大君神道碑 (太宗18, 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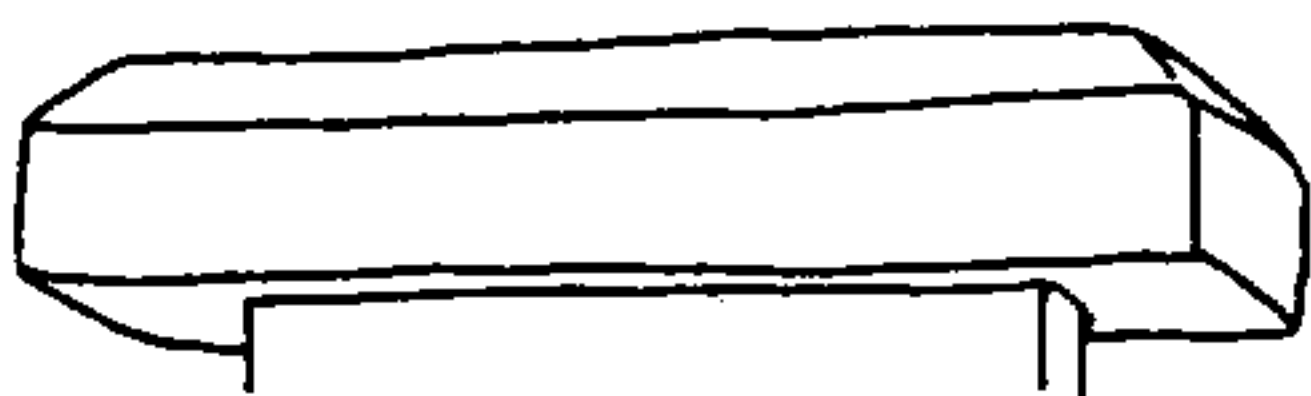
5. 姜弘重神道碑 (顯宗11, 1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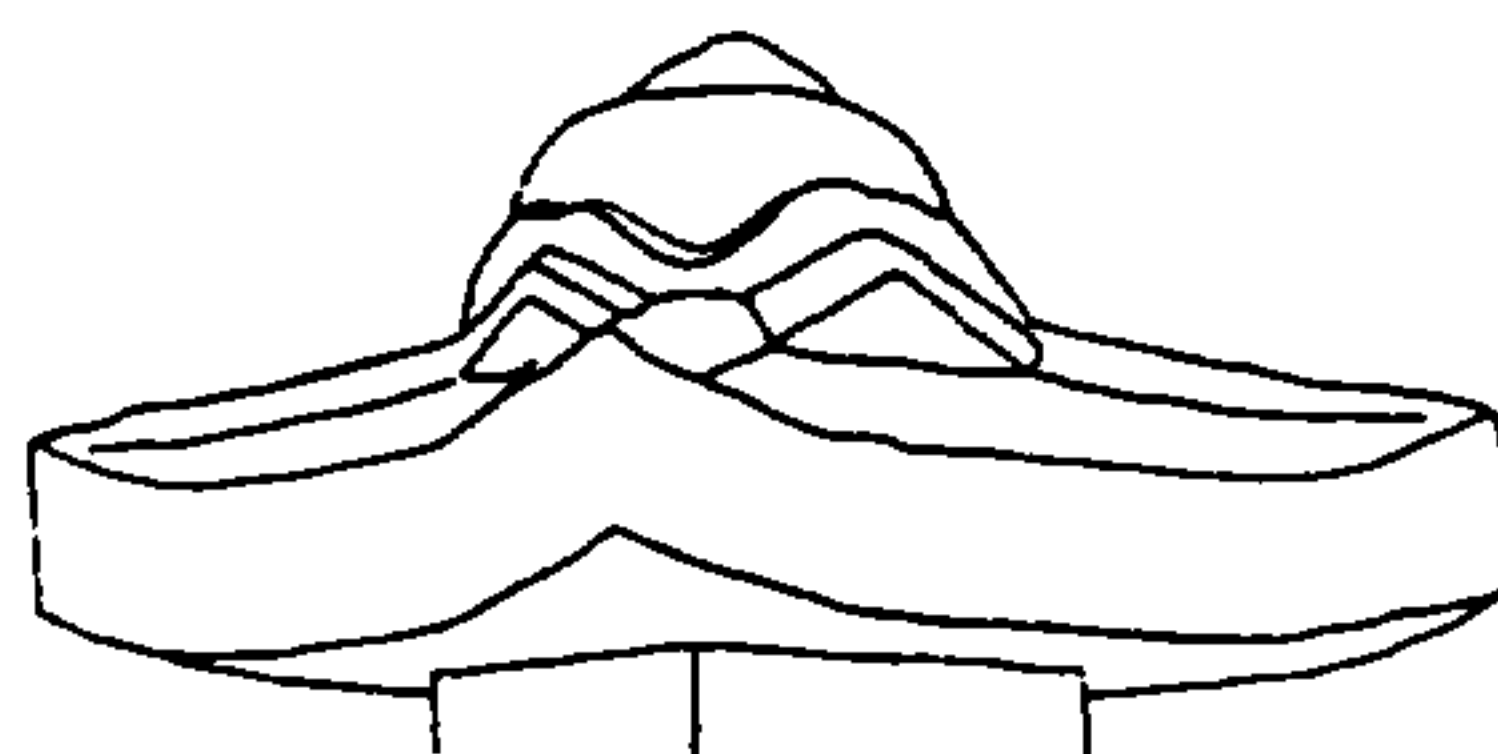
2. 申叔舟神道碑 (成宗7年頃, 1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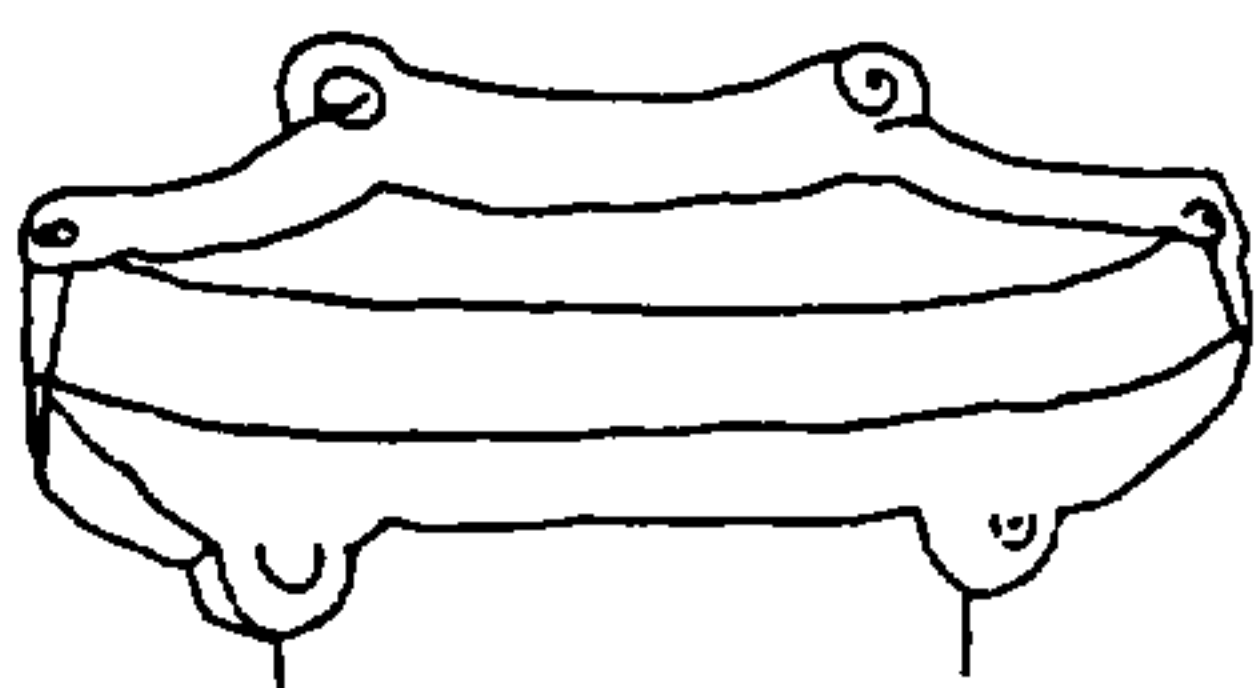
6. 張維神道碑 (肅宗2, 1676)



3. 永順君李溥神道碑 (宣祖7, 1574)



7. 昌碩安氏神道碑 (肅宗9, 1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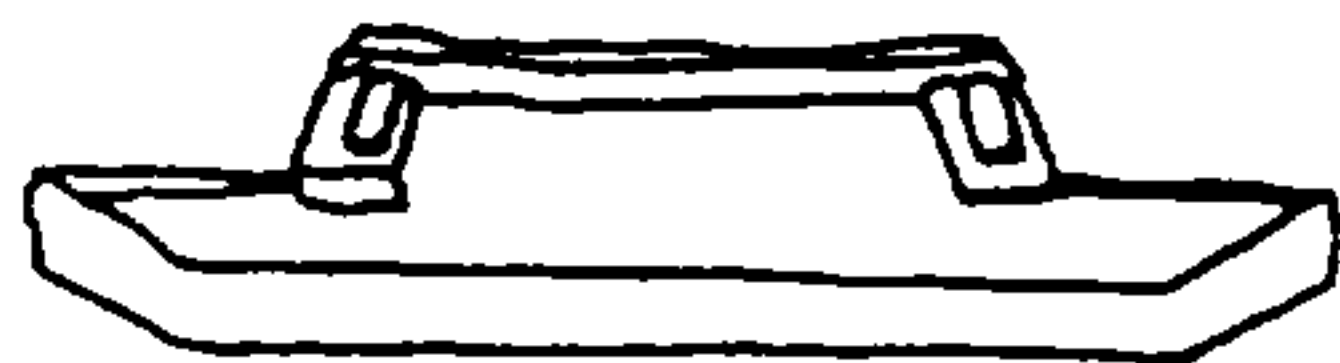


4. 韓應寅神道碑 (仁祖20, 1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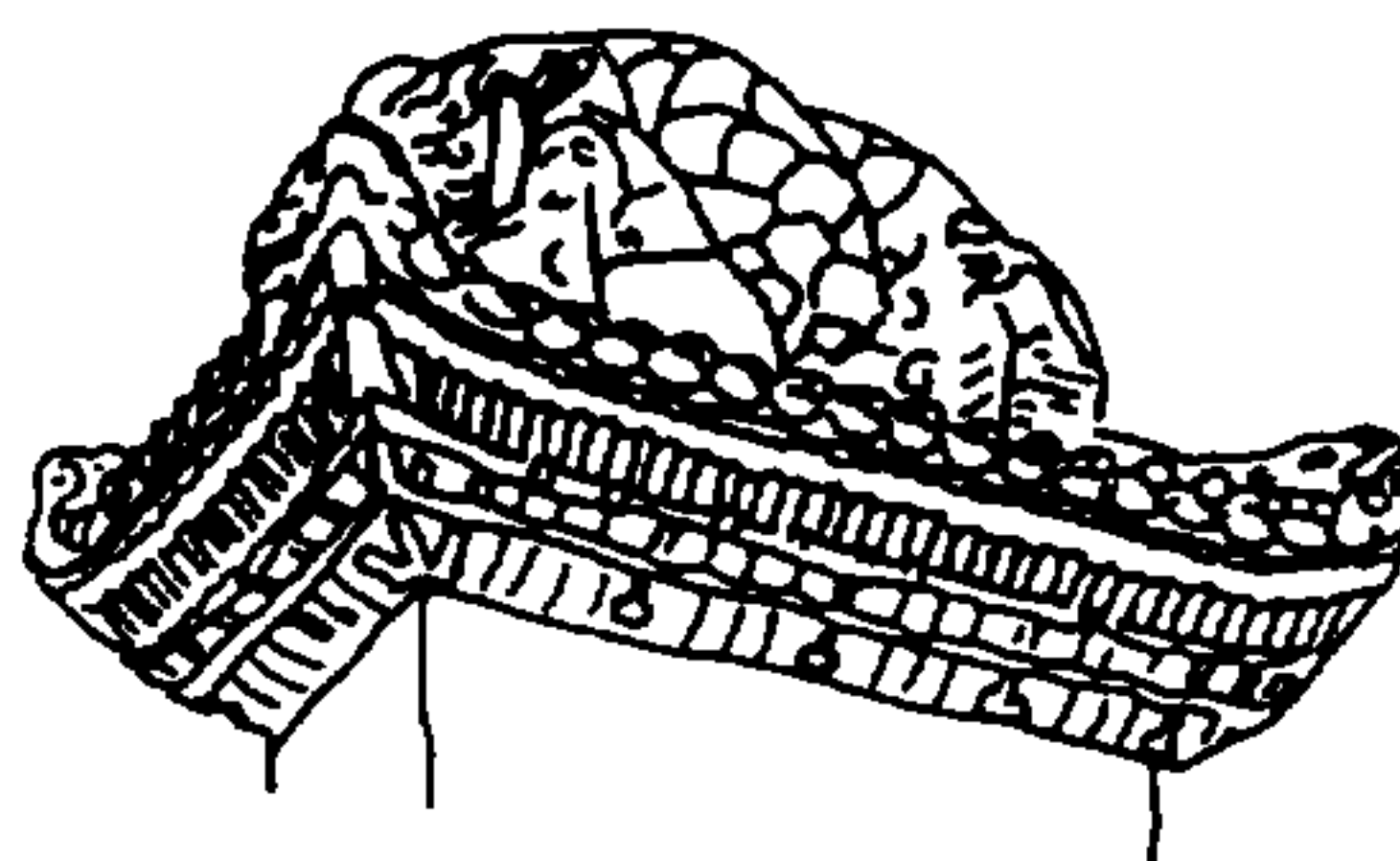


8. 申景禎神道碑 (肅宗10, 1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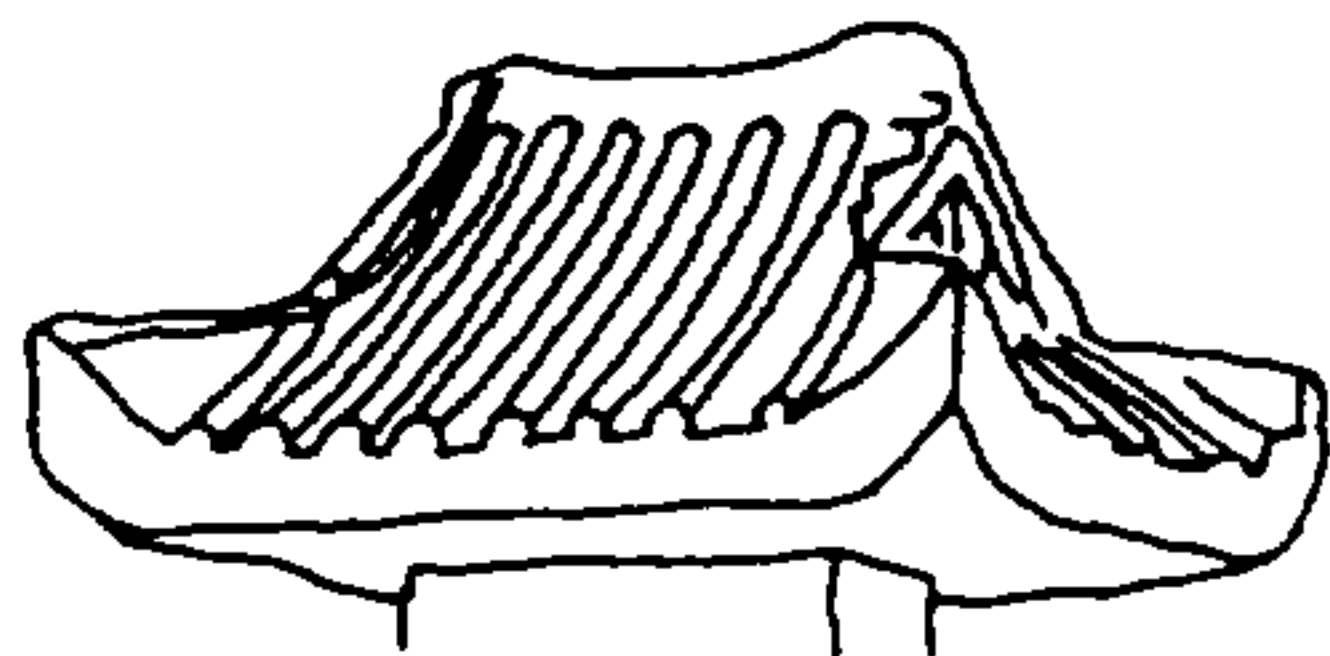
도면 11. 神道碑 蓋石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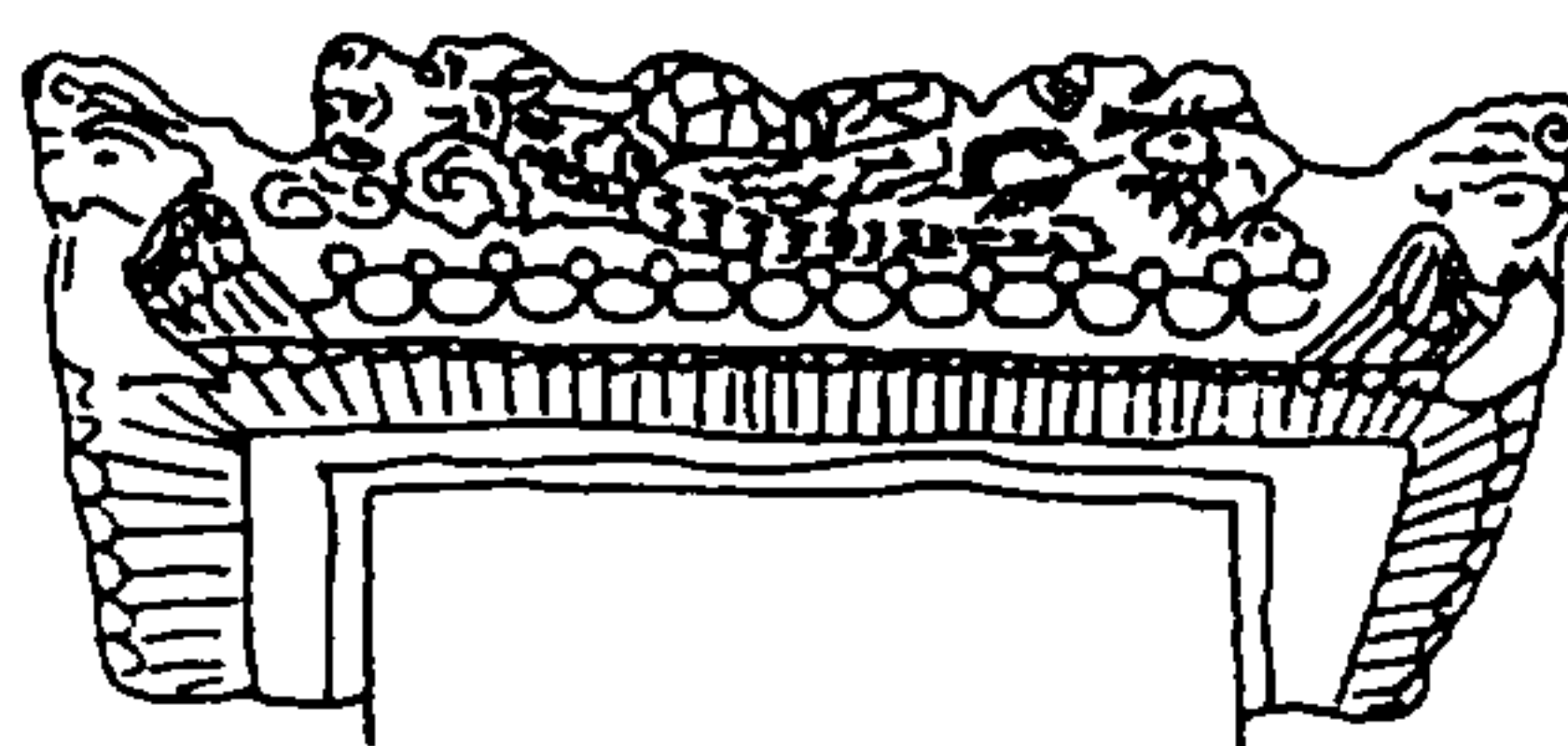
1. 柳琳神道碑 (肅宗21, 1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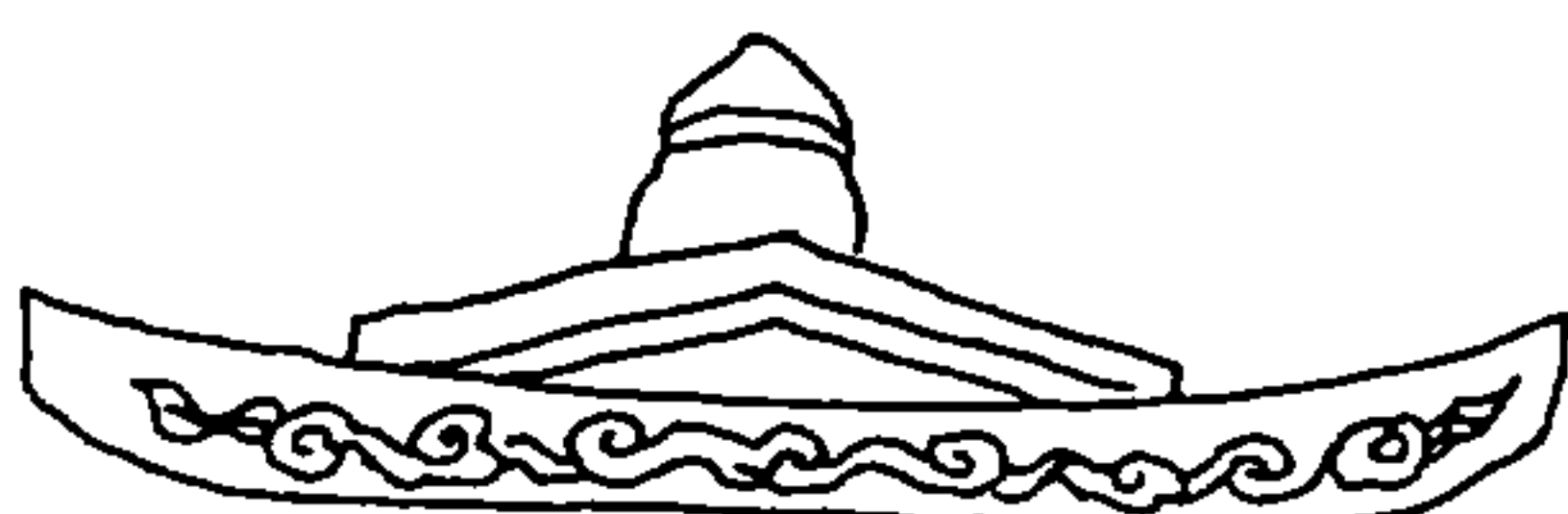
5. 延齡君李田神道碑 (肅宗46, 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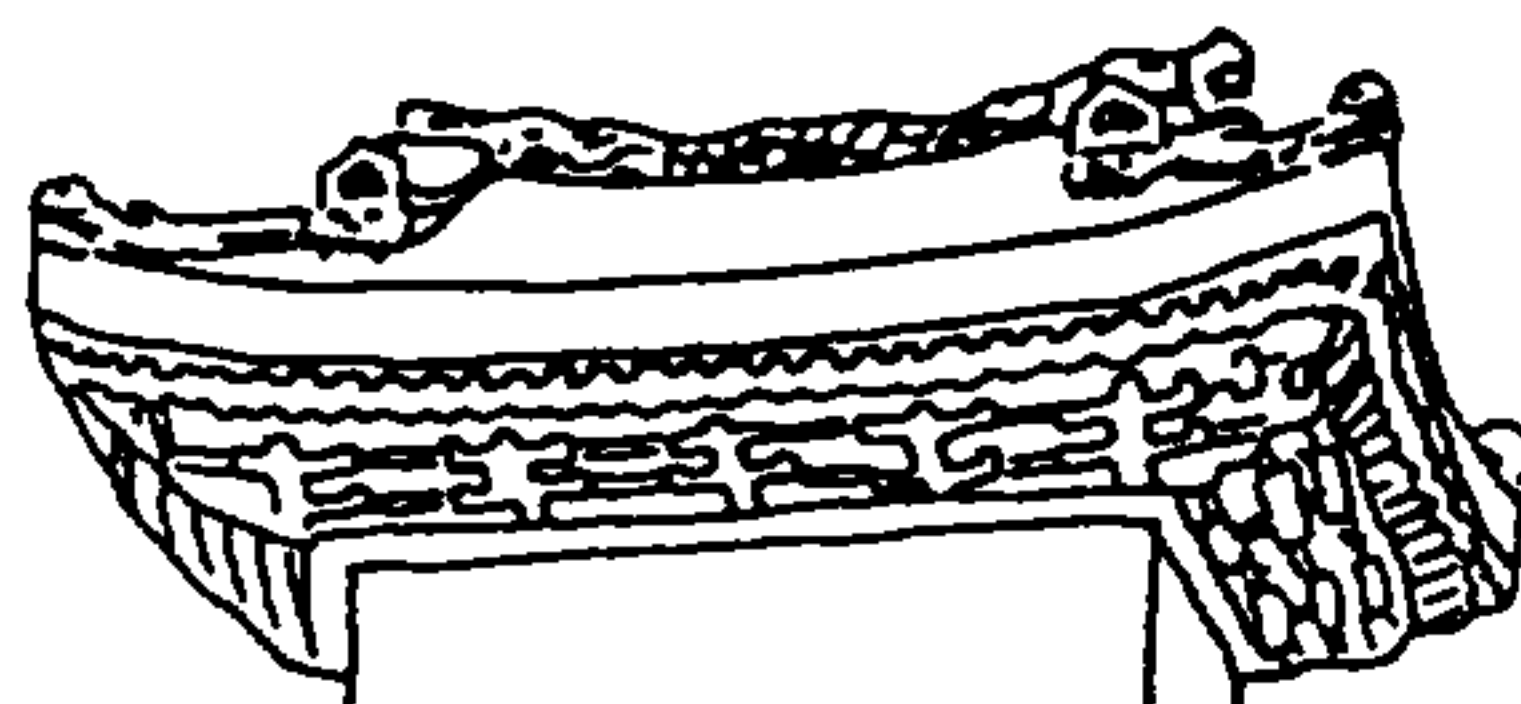
2. 朗善君李俱神道碑 (肅宗27, 1701)



6. 金構神道碑 (英祖19, 1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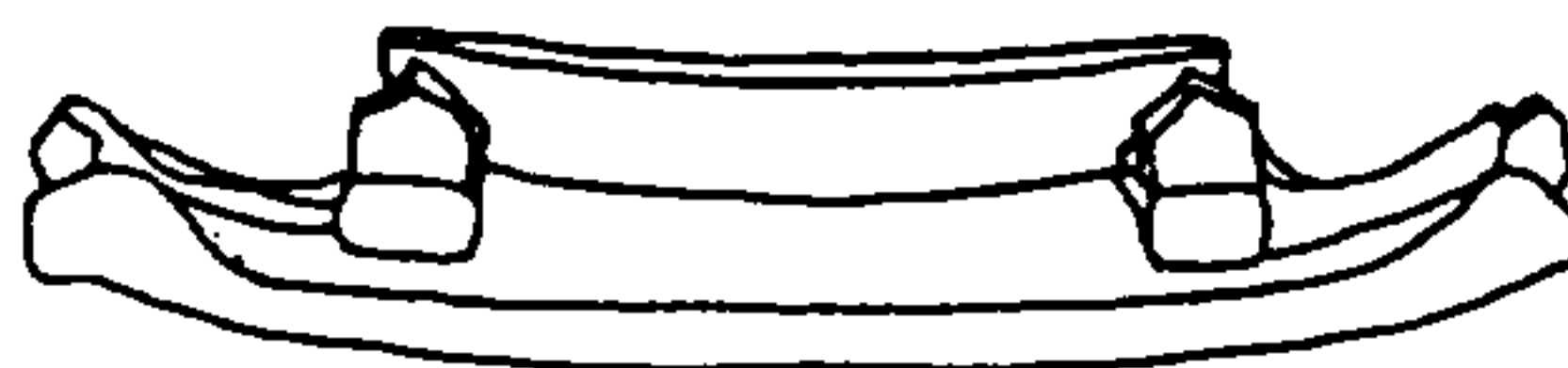
3. 閔維重神道碑 (肅宗33, 1707)



7. 花山君李況神道碑 (英祖23, 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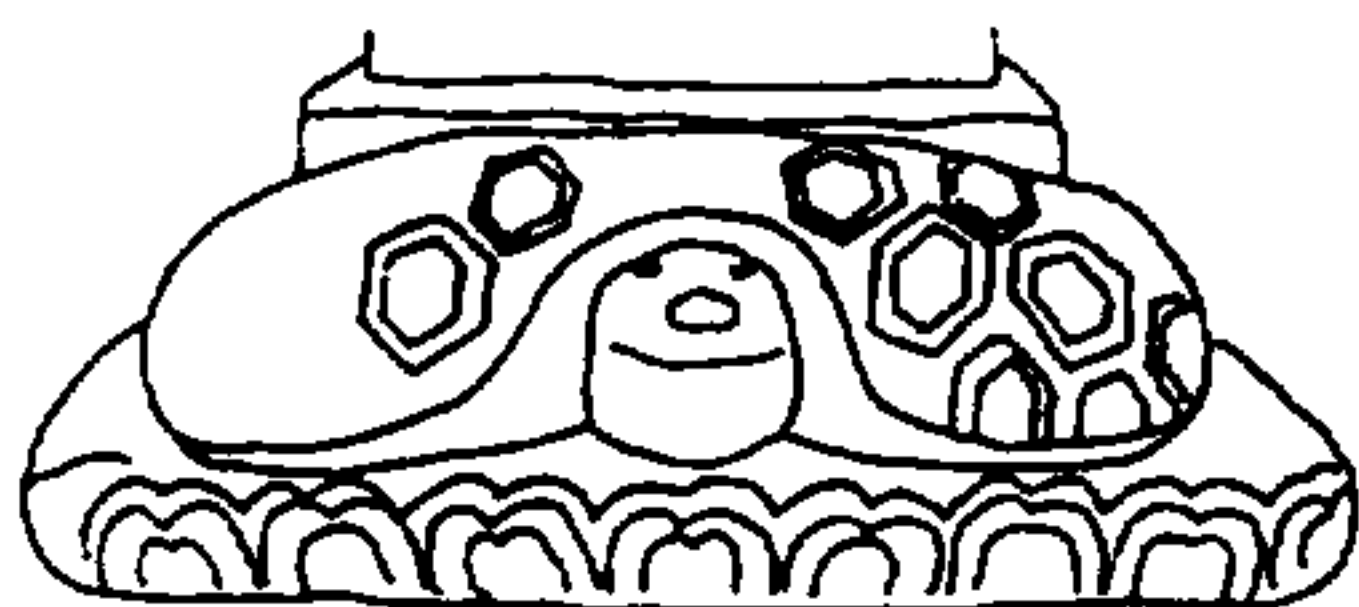


4. 鄭易神道碑 (肅宗34, 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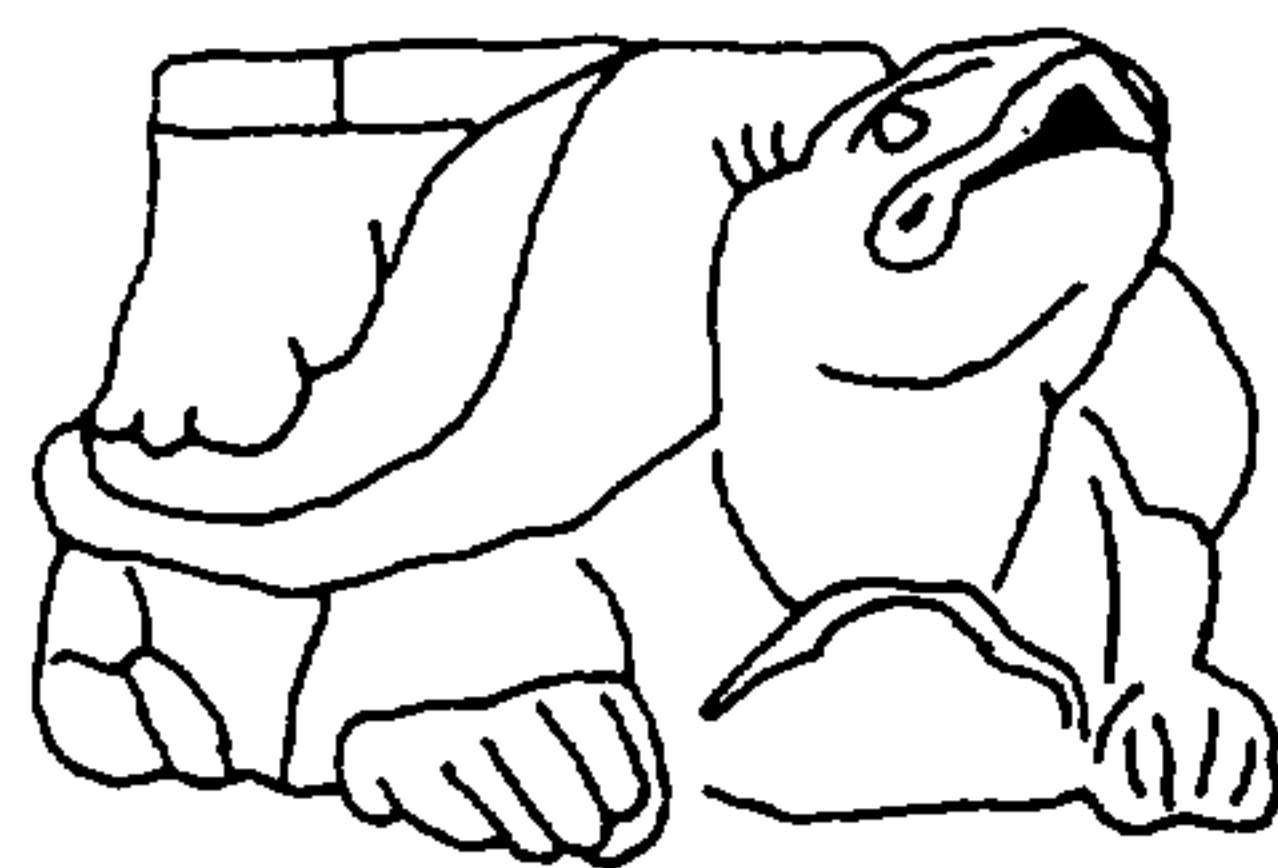


8. 金相玉神道碑 (英祖41, 1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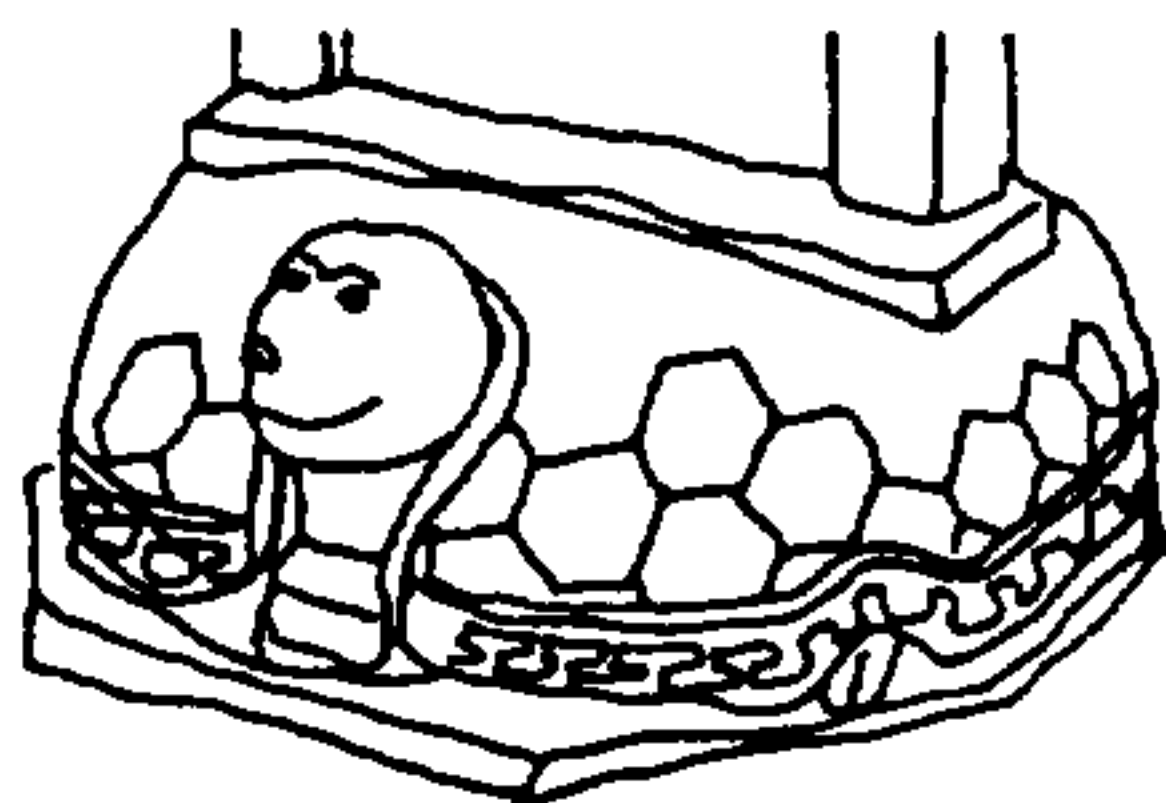
도면 12. 神道碑 蓋石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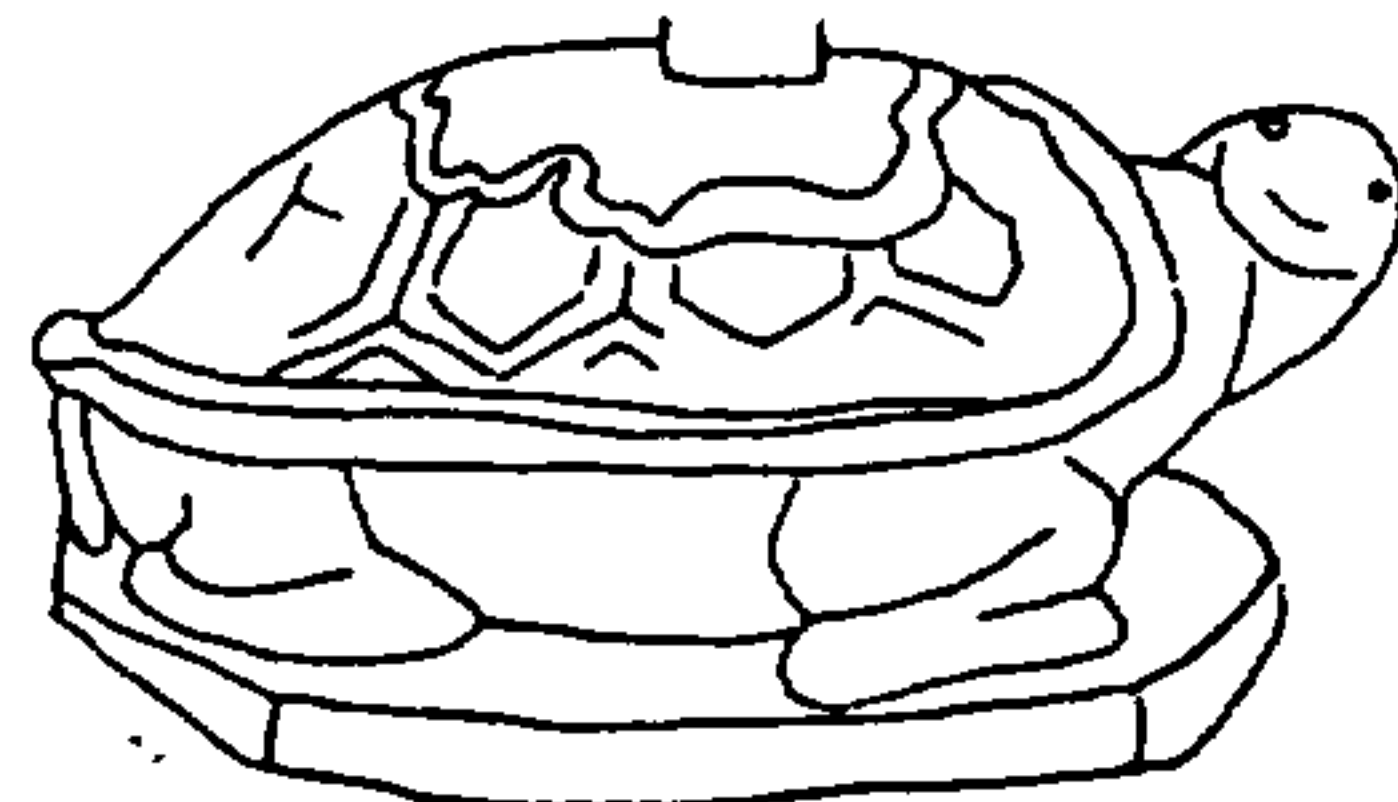
1. 健元陵神道碑 (太宗8, 1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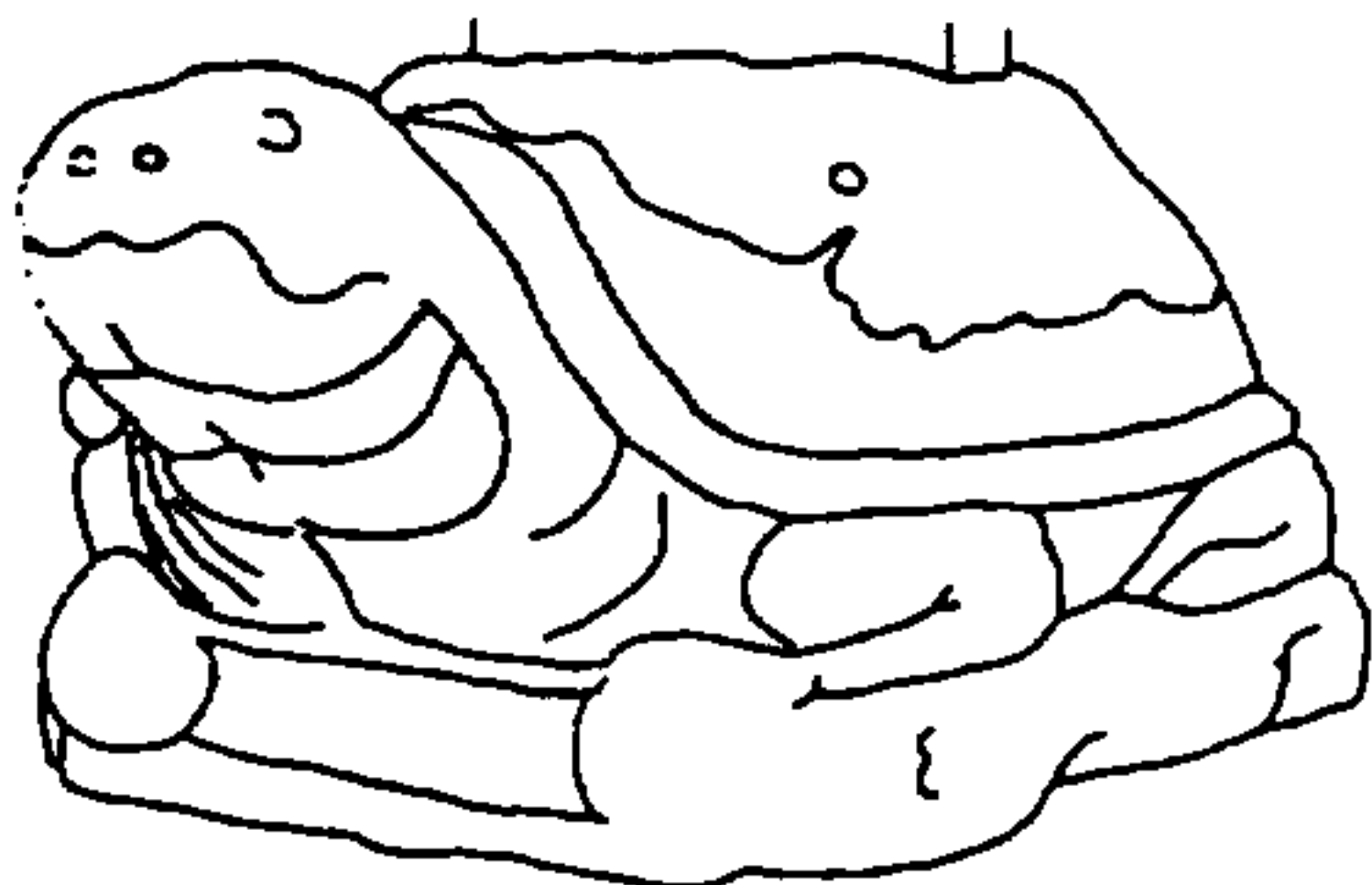
5. 尹壹神道碑 (中宗38, 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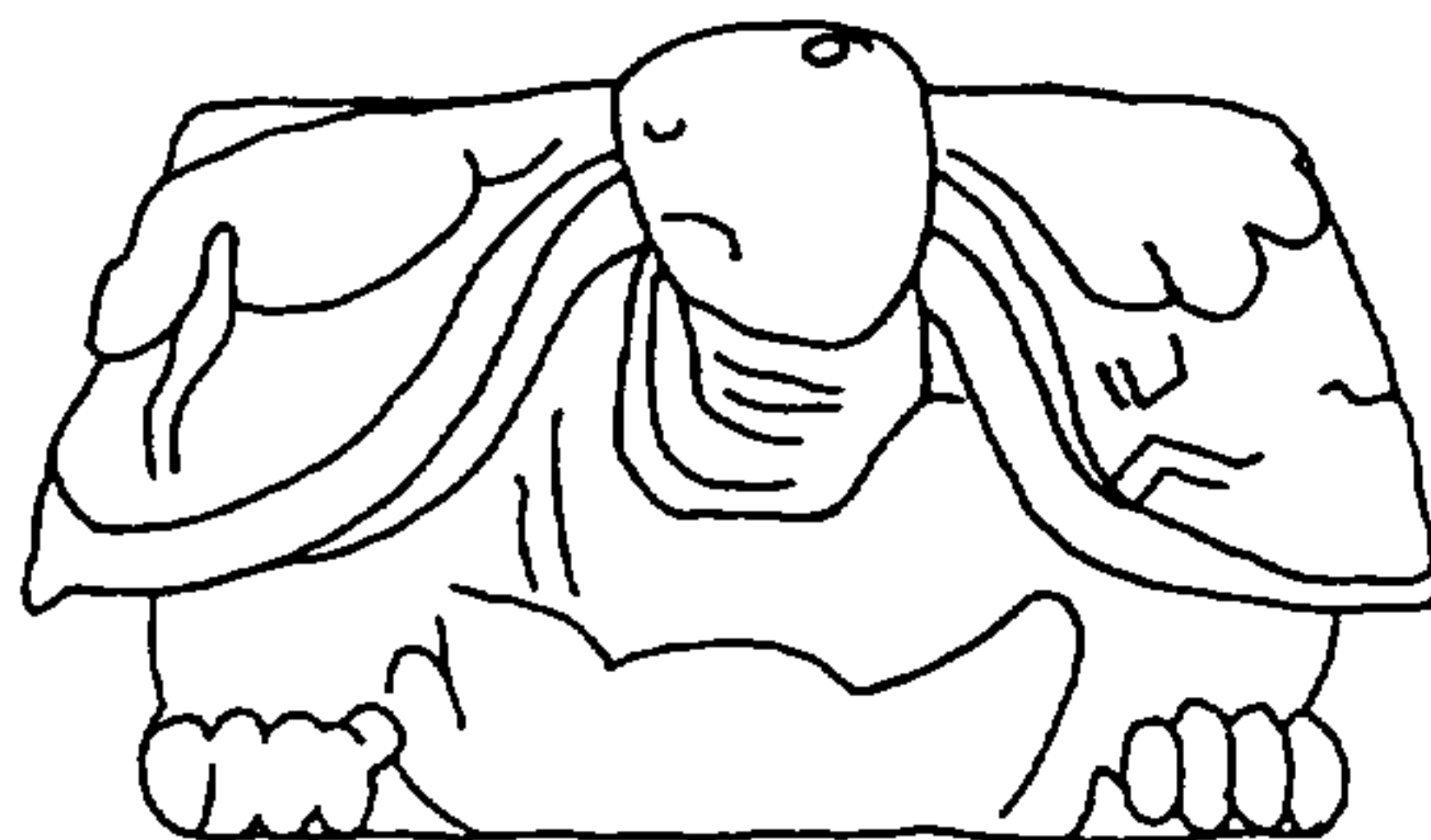
2. 誠寧大君神道碑 (太宗18, 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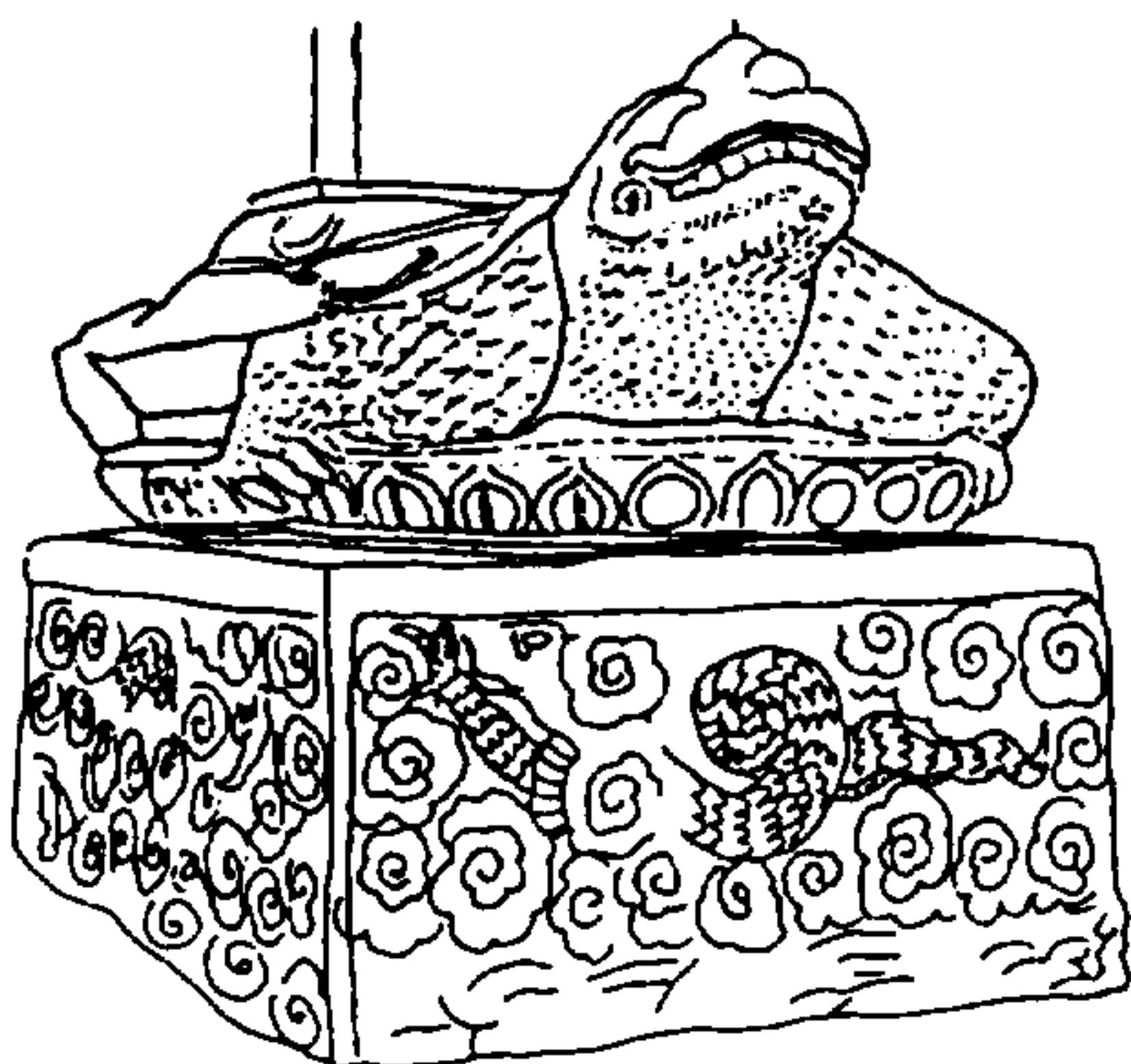
6. 尹殷輔神道碑 (明宗6, 1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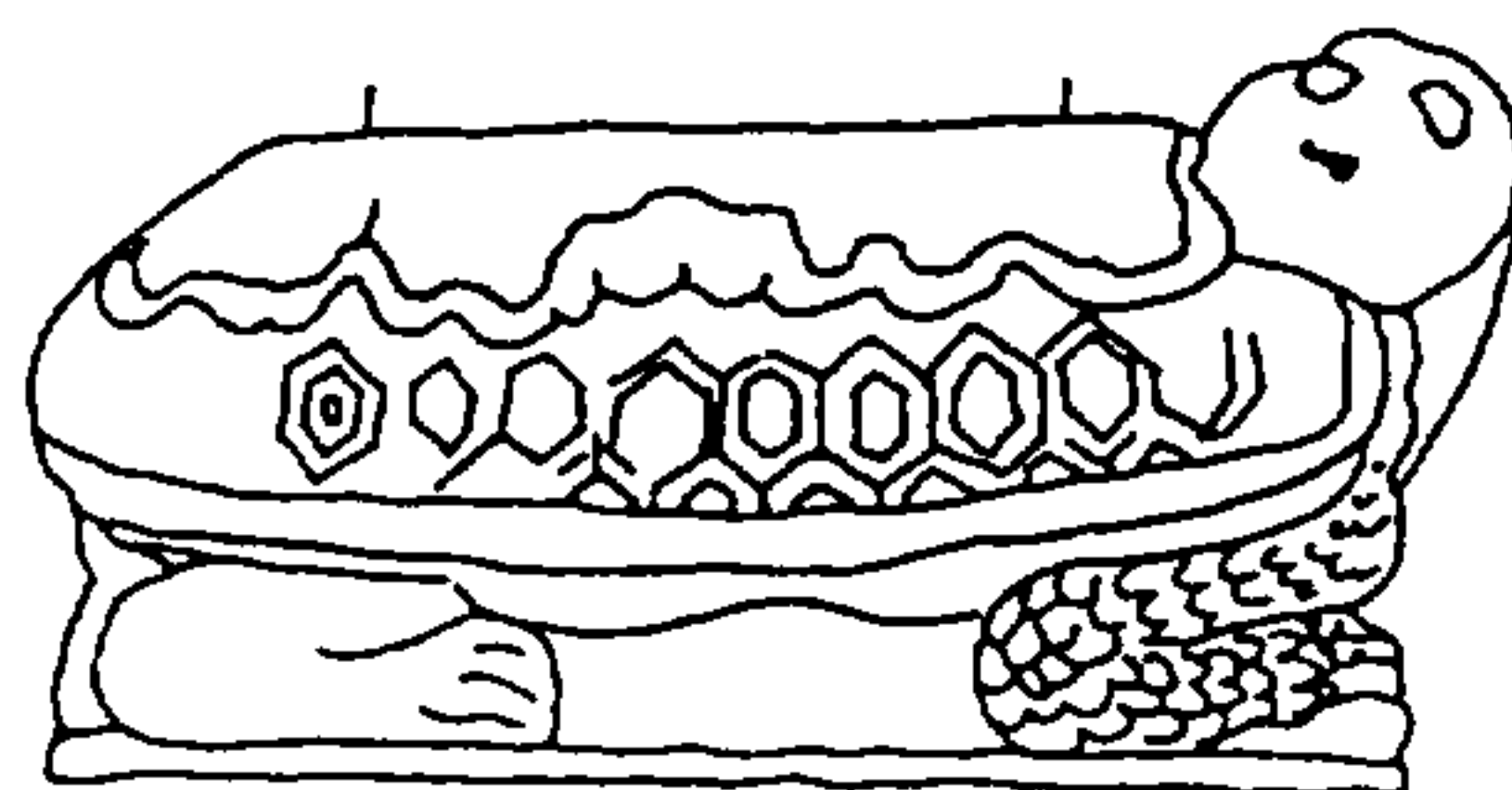
3. 安孟聘神道碑 (世祖12, 1466)



7. 沈連源神道碑 (明宗15, 1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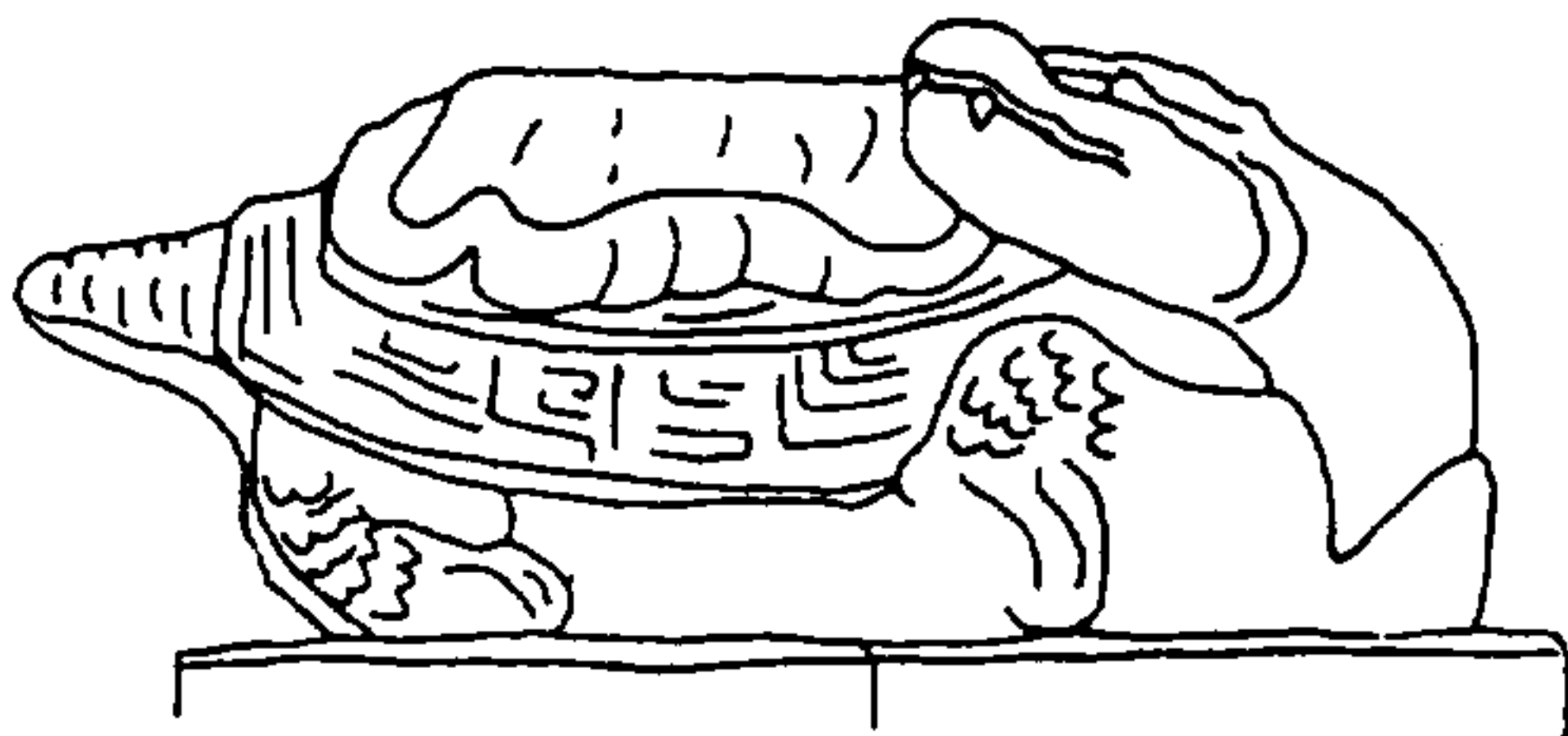


4. 尹孝孫神道碑 (中宗14,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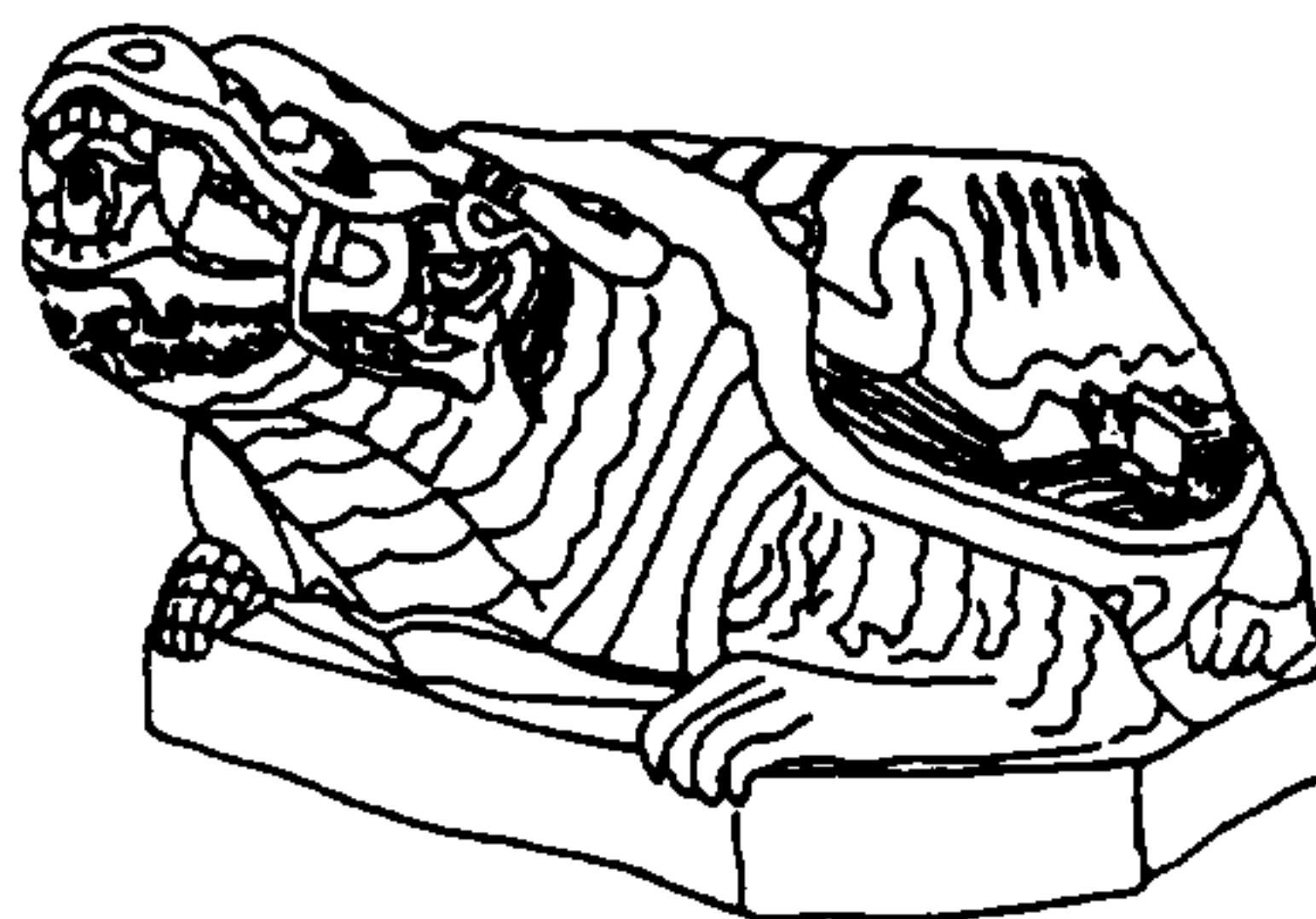


8. 沈通源神道碑 (宣祖8, 1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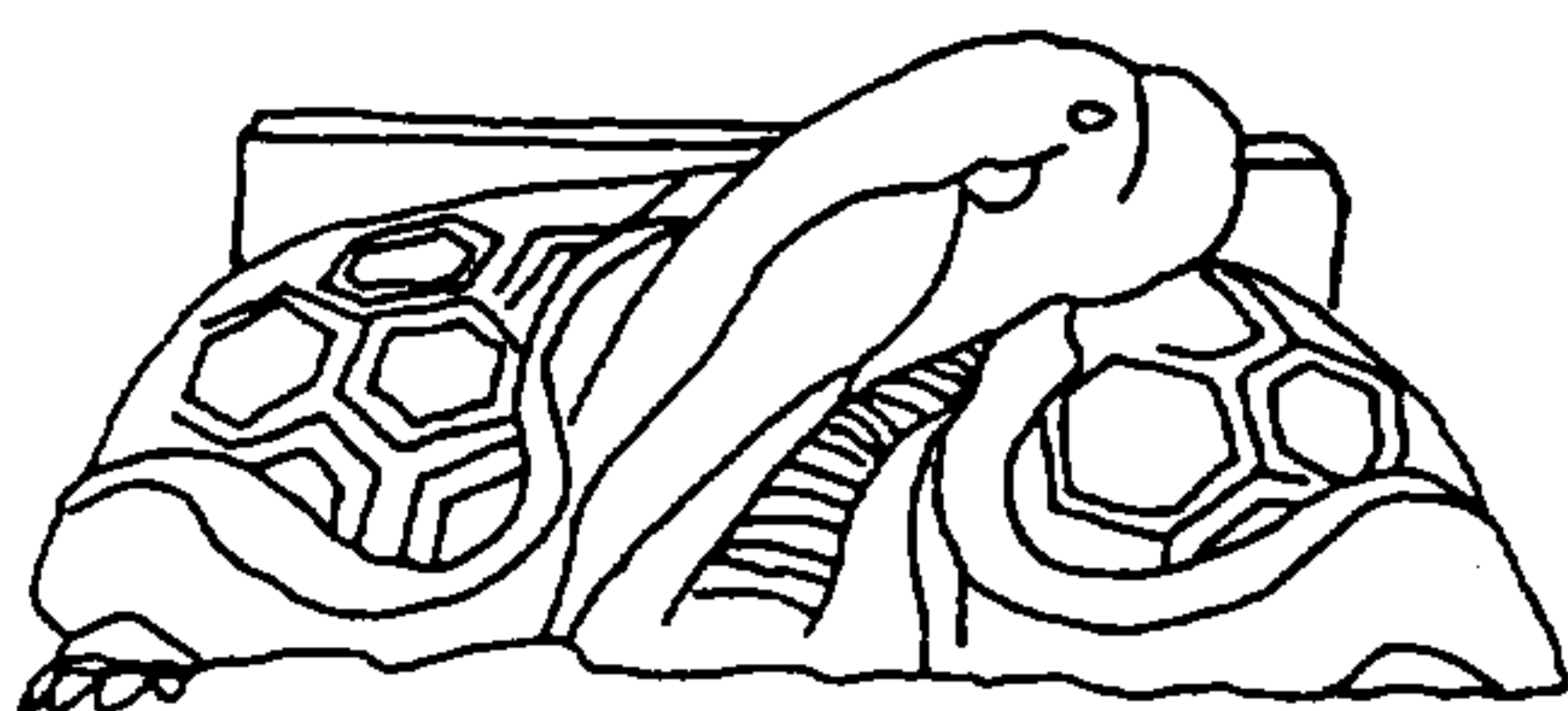
도면 13. 神道碑 龜趺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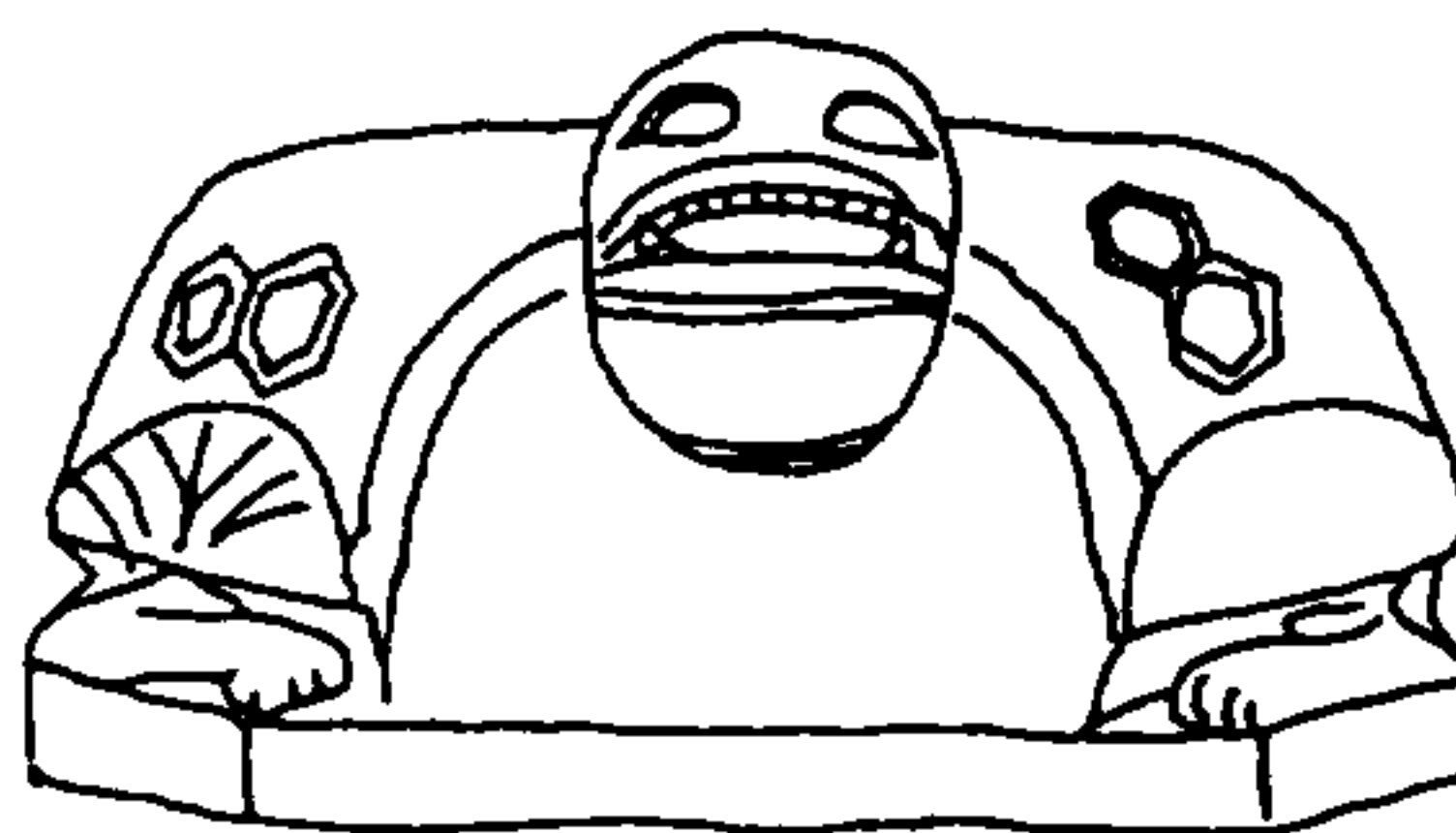
1. 沈綱神道碑 (宣祖29, 1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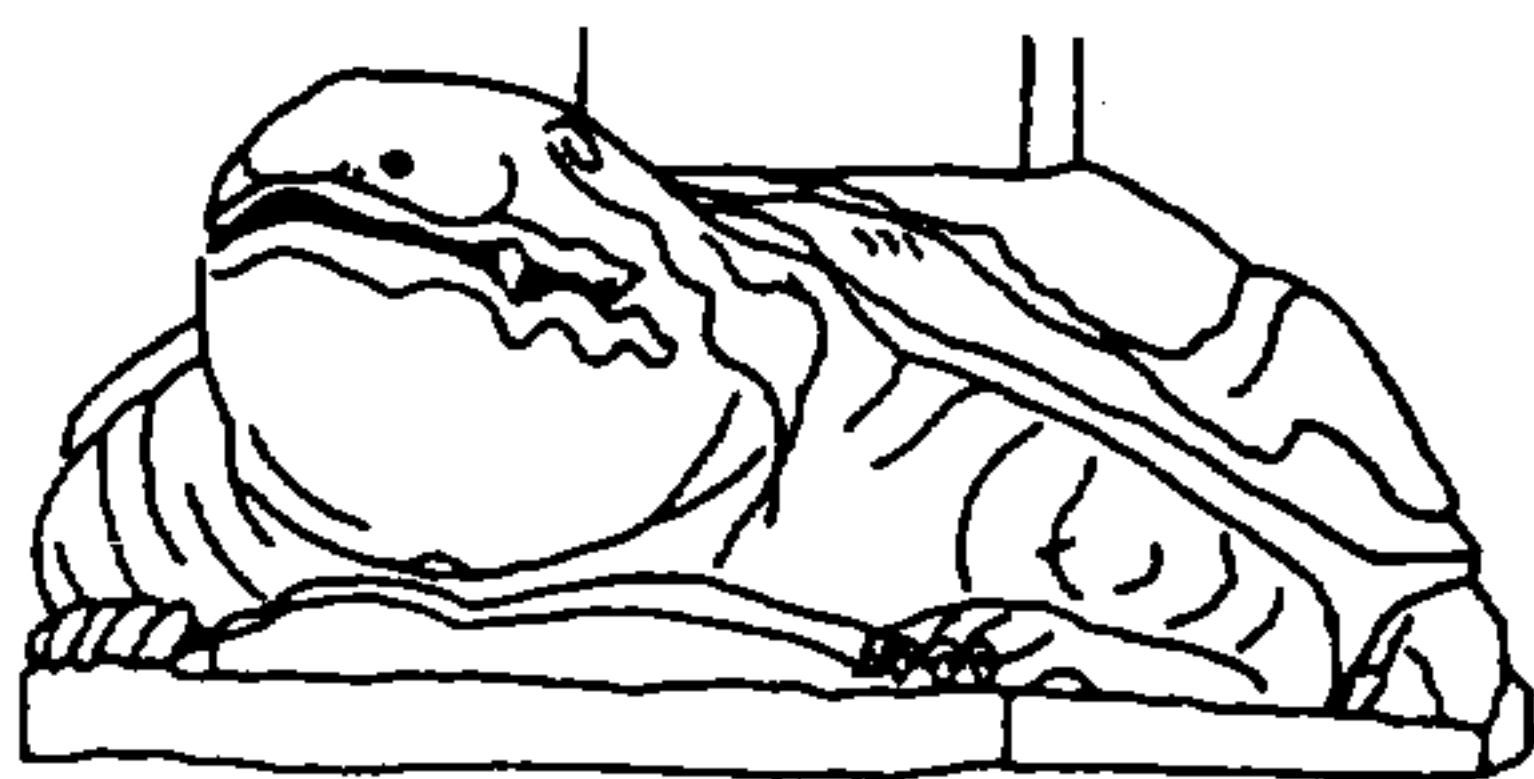
5. 花山君李浣神道碑 (英祖23, 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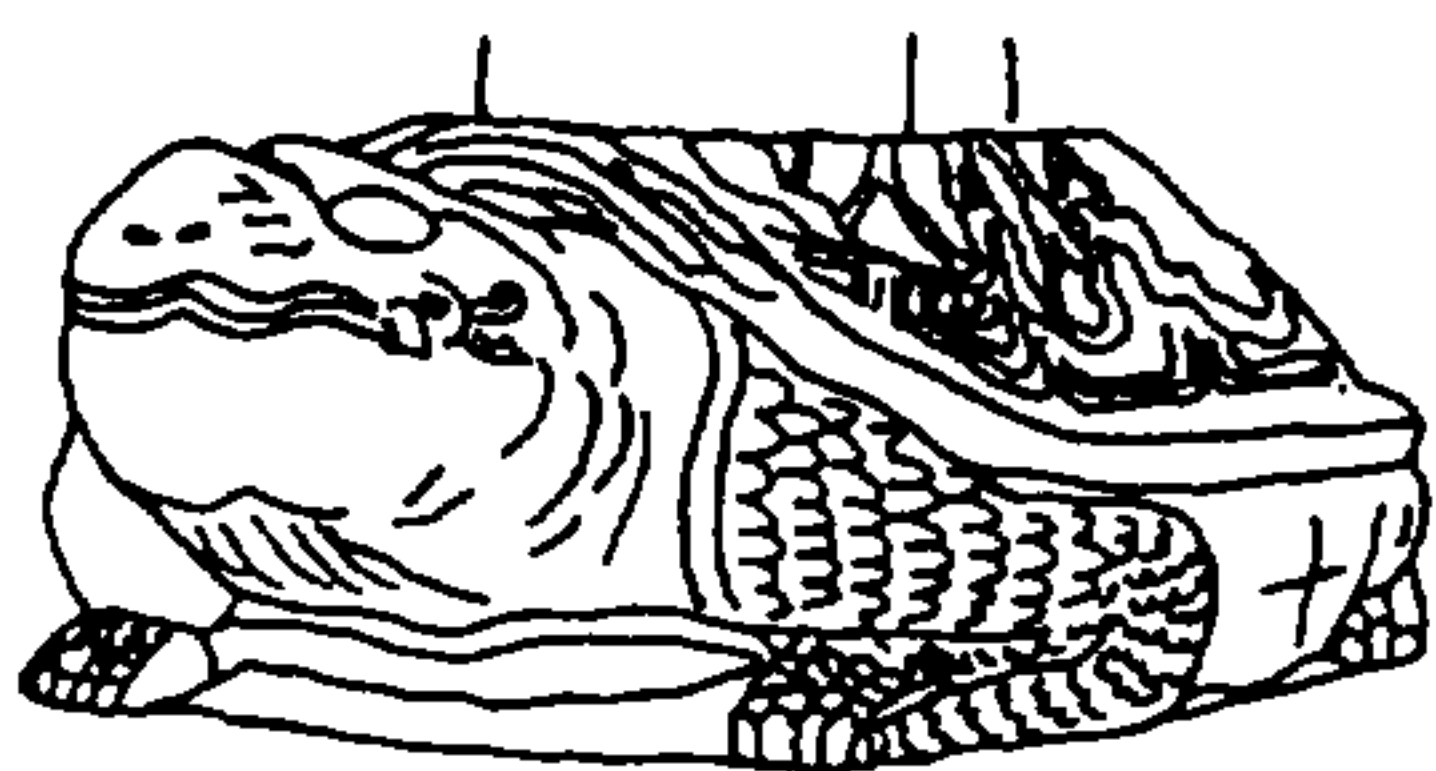
2. 韓百璽神道碑 (仁祖22, 1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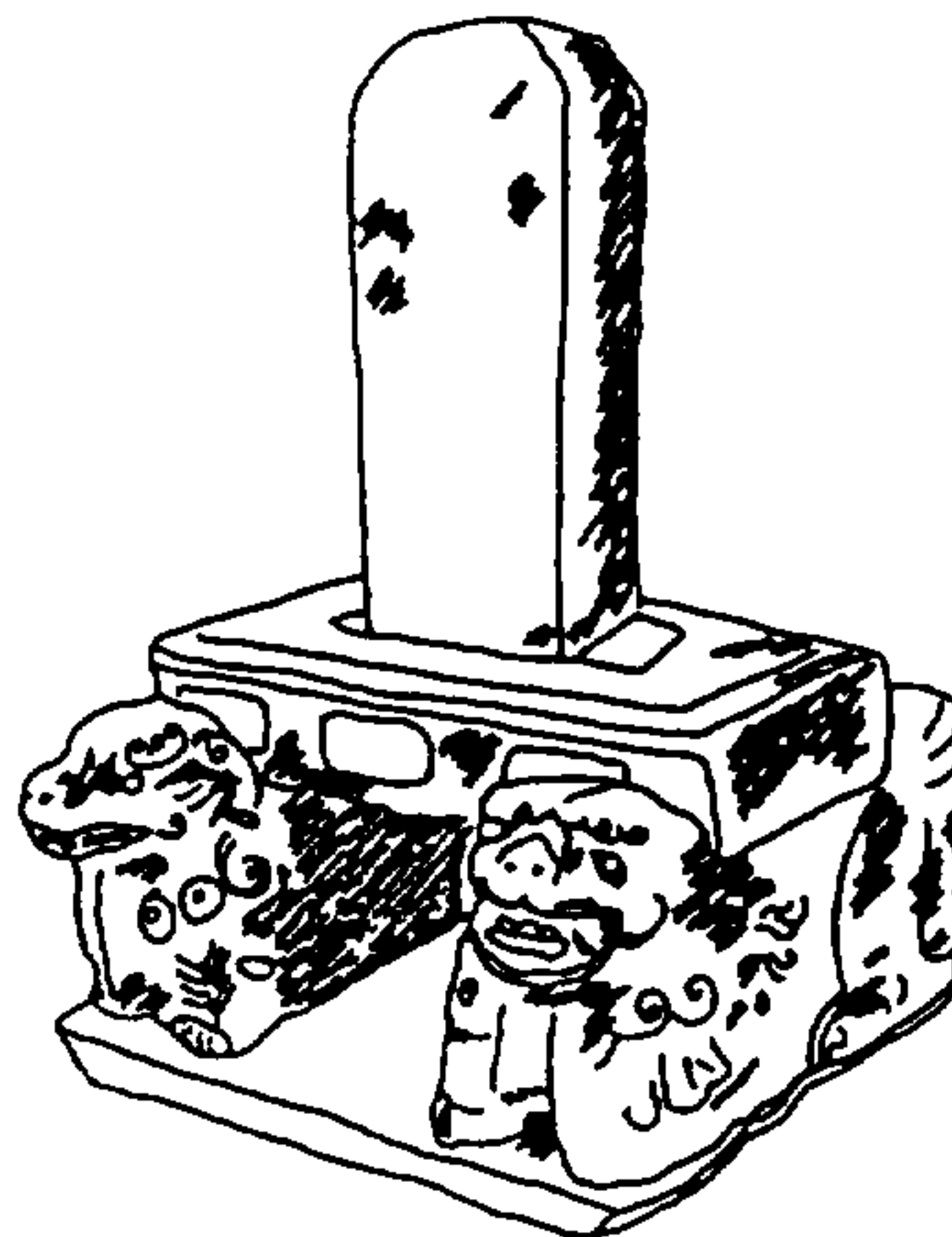
6. 鳴梁大捷碑 (肅宗14, 1688)



3. 張維神道碑 (肅宗2, 1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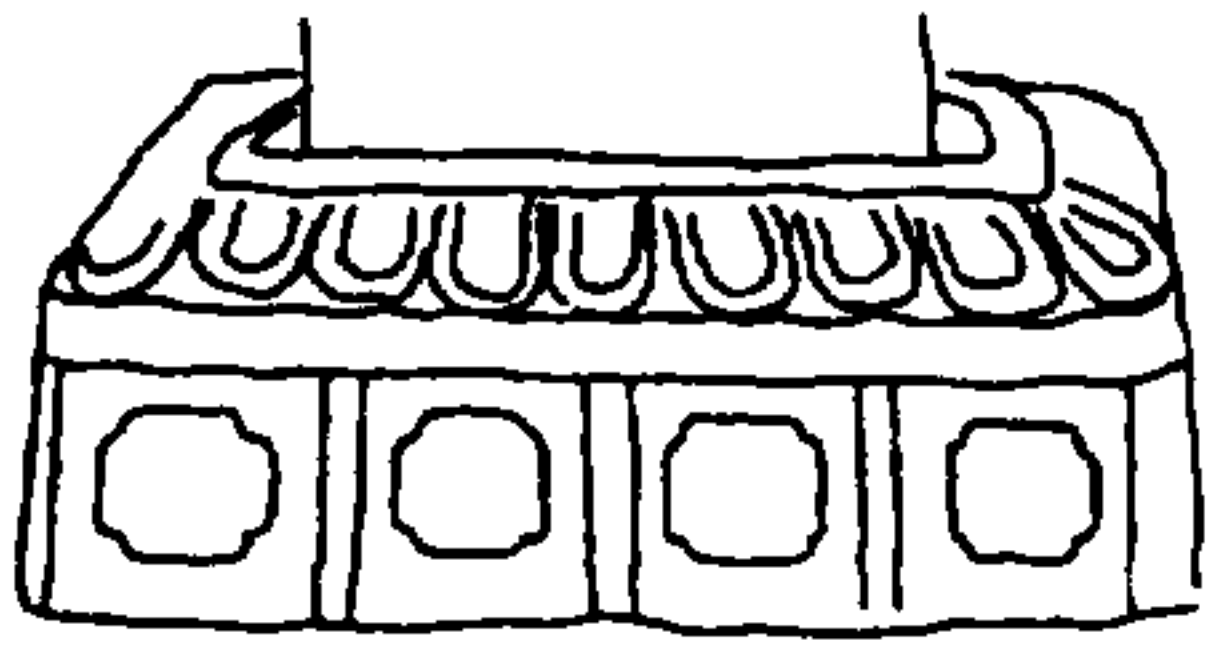


4. 朗善君李侯神道碑 (肅宗27, 1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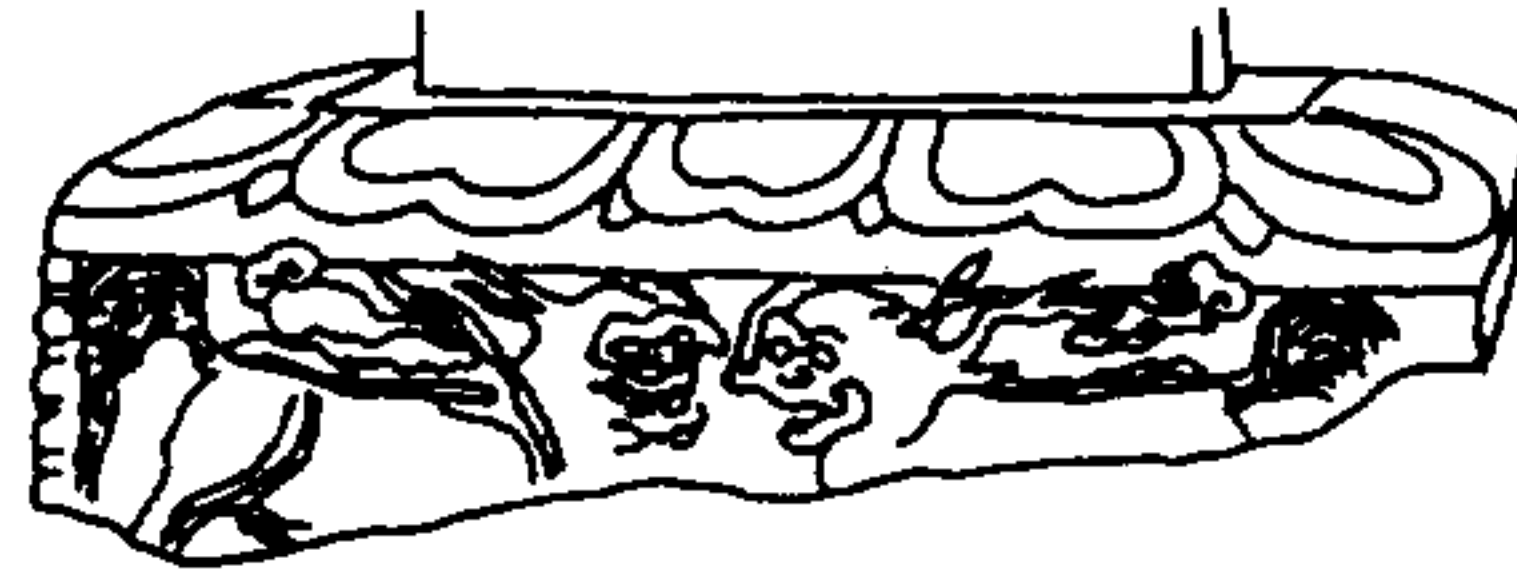


7. 慶基殿下馬碑 (光海君6, 1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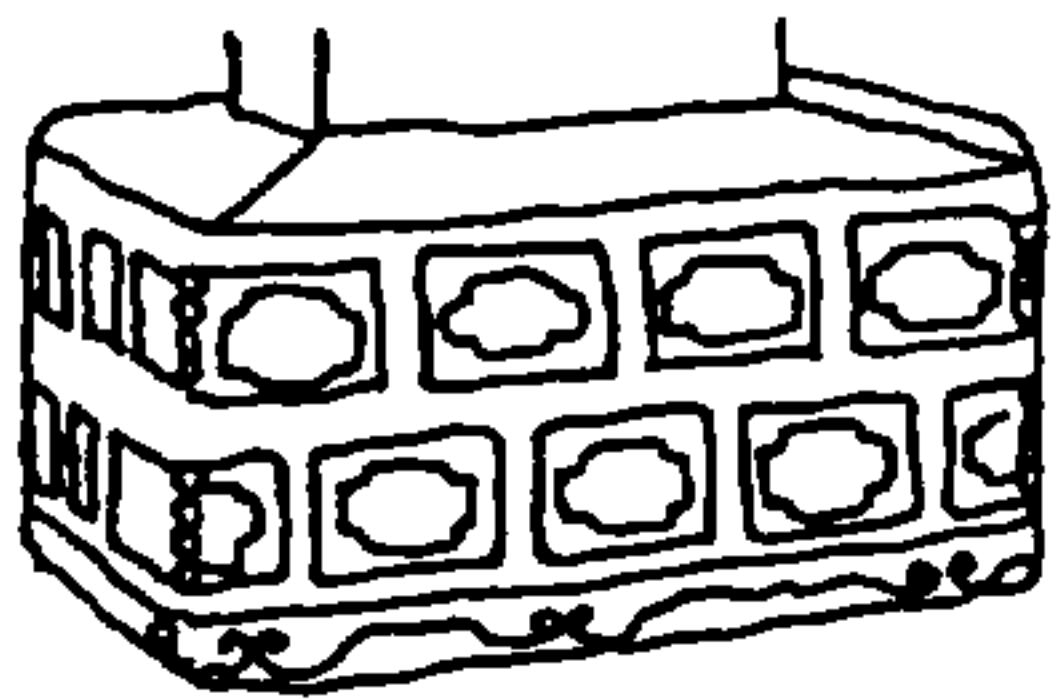
도면 14. 神道碑 龜趺Ⅱ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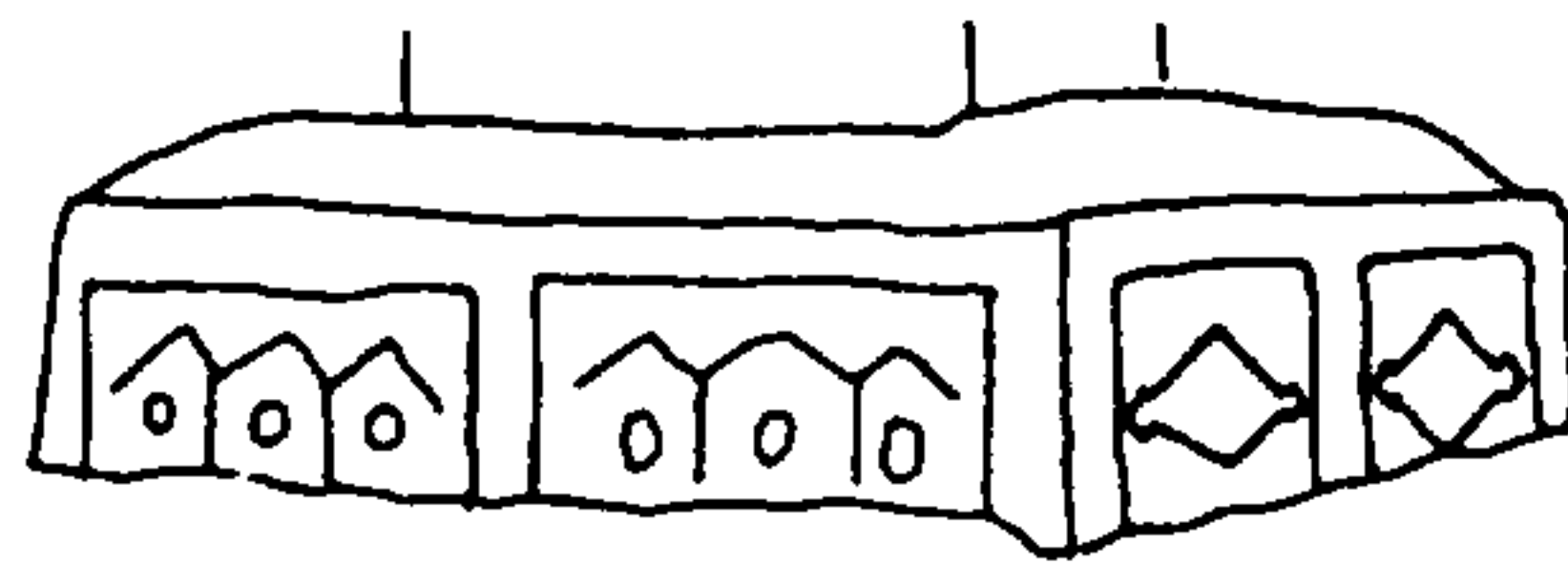
1. 朴仲善神道碑 (成宗21, 1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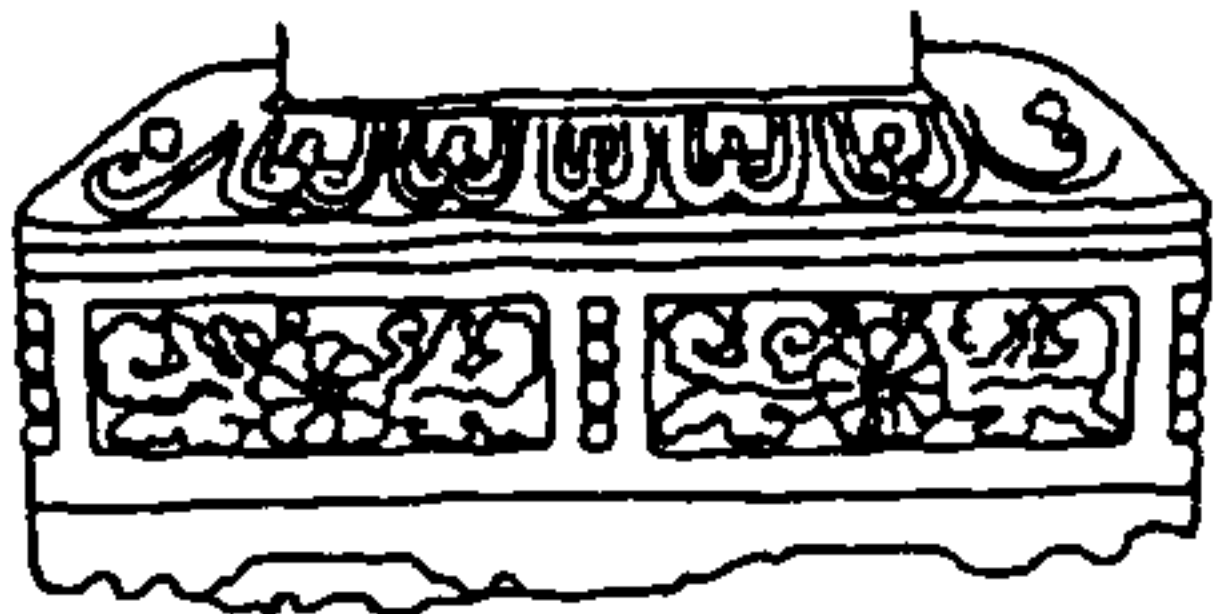
5. 鄭惟吉神道碑 (仁祖24, 1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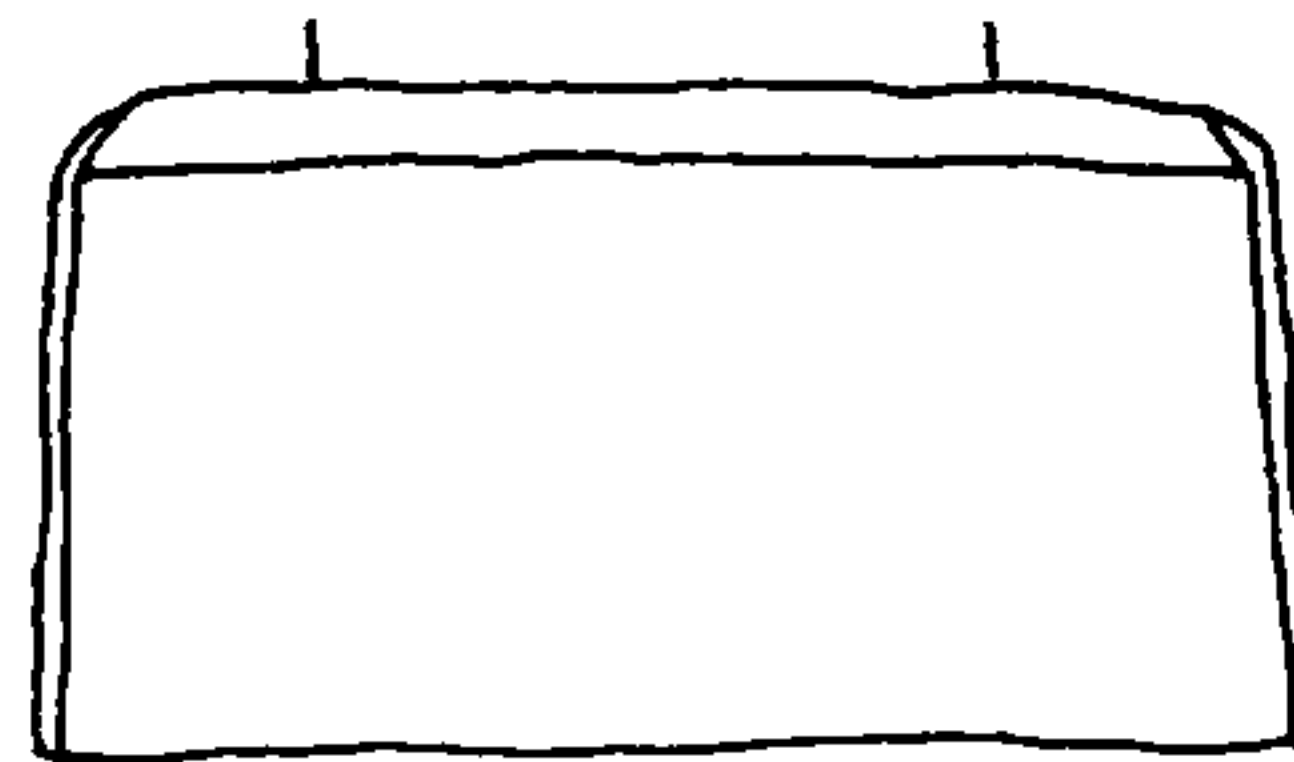
2. 鄭蘭宗神道碑 (中宗20, 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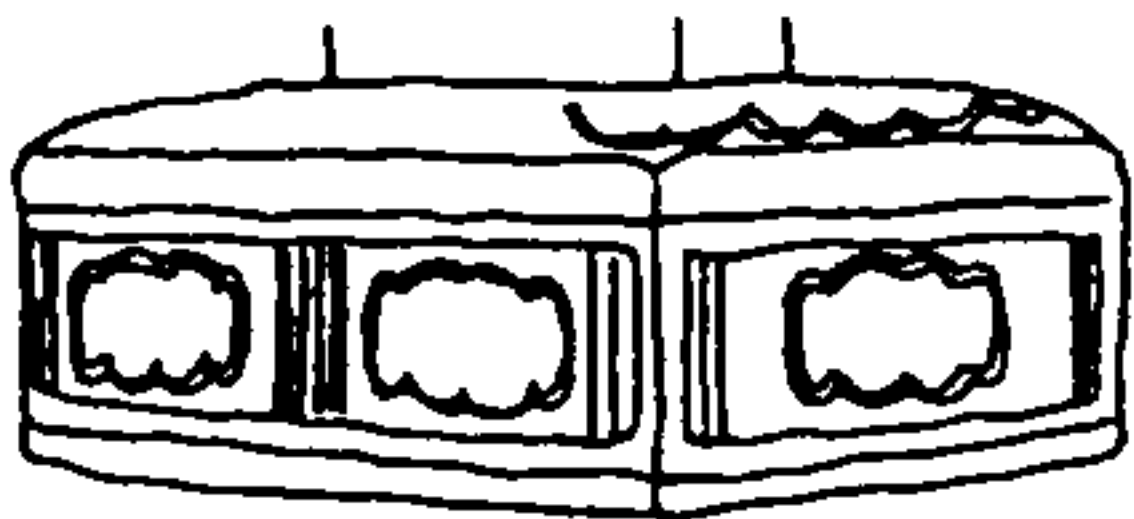
6. 李大源神道碑 (肅宗25, 1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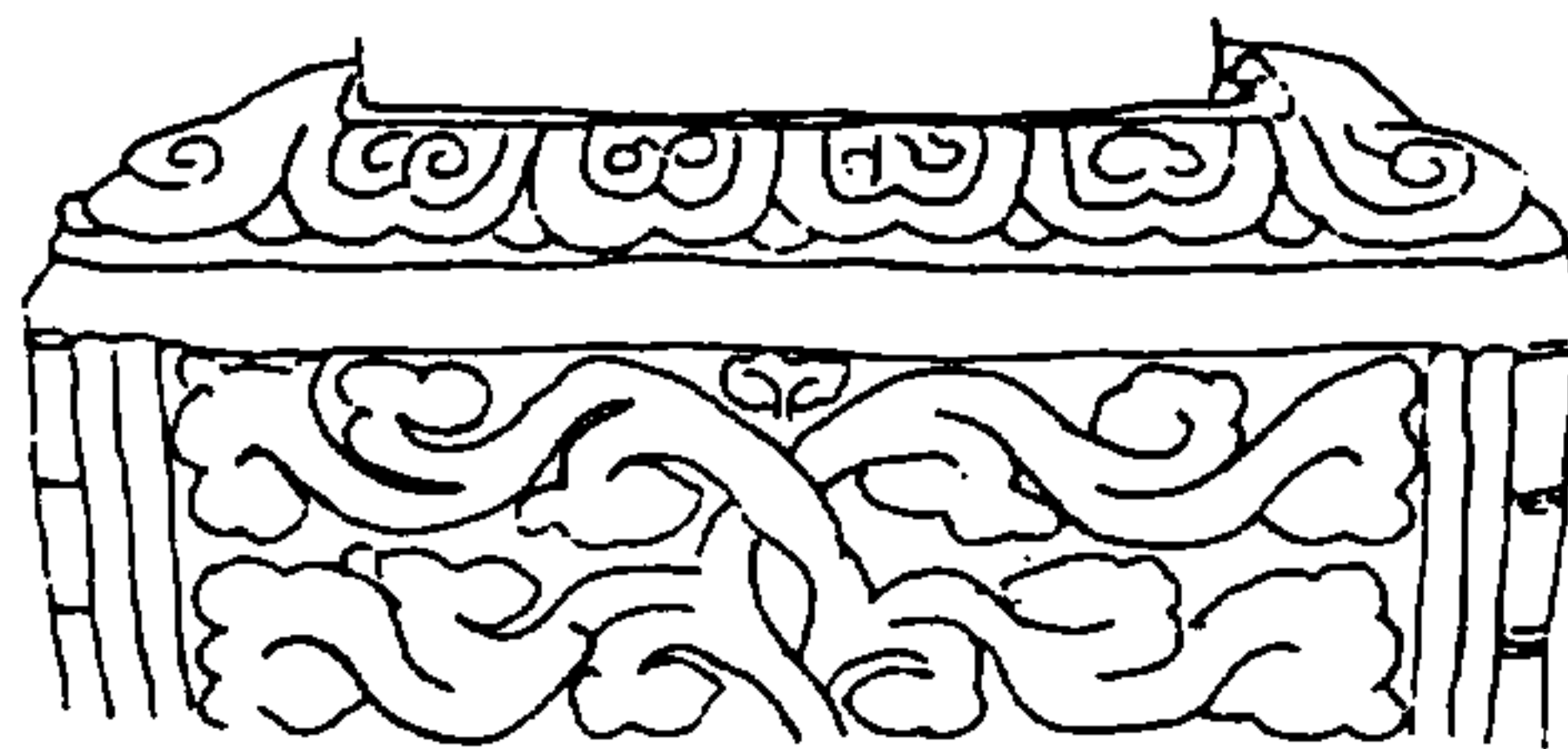
3. 趙光祖神道碑 (宣祖13, 1580)



7. 金構神道碑 (英祖19, 1743)



4. 李元翼神道碑 (仁祖12, 1634)



8. 李茂神道碑 (高宗15, 1878)

도면 15. 神道碑 碑座

와 姜澈神道碑(仁祖25, 1647), 洪可臣神道碑(肅宗43, 1717) 등이다. 이런 조형 감각은 자연미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듯 한데 그 착상이 매우 기발하다.

이수는 그 규모나 조각기법에 있어서 묘표나 묘갈보다 월등하여 조선시대 석조미술사의 가장 뛰어난 부분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전원릉신도비의 이수에서는 太宗武烈王陵碑와 檜巖寺禪覺王師碑의 이수 양식을 충실히 계승한 면모가 보이거나 이후의 英陵神道碑의 이수(도면9-1, 사진6-2)부터는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이수와는 구별되는 조선시대 나름의 양식을 정착시켜 발전해 나갔다.

우선 복잡다양하면서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보이던 고려시대의 이수와는 달리, 이수의 중앙에 寶珠를 두고, 그 좌·우에서 이를 爭鬪하는 龍의 모습을 기본적인 구도로 삼았다. 이같은 구도의 초기 대표작으로 韓繼美神道碑(도면9-2)의 이수를 들 수 있고, 金友臣神道碑(도면9-6)와 金詮神道碑(도면10-6, 사진8-2)의 이수가 충실히 계승하여 신도비 이수의 가장 대표적인 구도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 單龍弄珠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도 있는데 利城君李愼神道碑(도면10-1)와 坡林君李珣神道碑(도면10-2)가 대표적인 예다. 月山大君神道碑(도면9-4, 사진6-4)의 이수처럼 龍身을 이수의 前面에 모두 드러내고 보주를 쟁투하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낸 경우도 있다.

또 보주를 서로 입으로 마주 문체 쟁투하는 구도(도면10-5)가 있으며 용신과 용두를 측면으로만 표현하다가 尹孝孫神道碑(도면9-8)의¹³³⁾ 이수처럼 한 쪽 용두를 평면으로 새기기도 하였다. 비록 신도비는 아니지만 睿宗胎室碑(도면10-8, 사진10-4) 이수의 경우, 용두가 이수 상단의 중앙에 위치하고, 龍爪로 보주를 꼭 잡은채 정면을 응시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양식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이후의 어떠한 이수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윤효손신도비는 이수의 상단에 고려시대 탑비들의 이수에서 자주 보이던 寶珠가 나오는데 이같은 경우는 韓百謙神道碑(도면10-7)의 이수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한백겸신도비의 이수는 외관이나 그 안에 새겨진 운룡문이 고려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이외에 운문을 사용한 경우로 尹三山神道碑(도면9-3), 朴仲善神道碑(도면9-5,

133) 尹孝孫神道碑의 양식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이 참고가 된다.

秦弘燮, 1975 〈特殊形式의 石碑 一例〉 《東洋學》第五輯 東洋學研究所

사진7-1)와 沈德符神道碑(도면10-3)의 이수를 들 수 있고, 荷葉을 쓴 경우는 卞宗仁神道碑(도면9-7)의 이수를 꼽을 수 있다. 가장 이색적인 것은 朴世榮神道碑(도면10-4, 사진8-1)로 이수에 朱雀을 새겨 넣었는데, 암수 한쌍이 몸을 서로 빗긴 다음, 고개를 돌려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으로 꼬리의 형태가 틀린 것으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 주작을 용대신 새긴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도비의 이수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의 하나이다.

개석은 묘표와 묘갈과 비교해서 매우 다양한 양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誠寧大君神道碑(도면11-1, 사진6-1)의 팔작지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개석이 이를 따르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申叔舟神道碑(도면11-2, 사진6-3)에서 사모지붕이 昌嬪安氏神道碑(도면11-7)와 閔維重神道碑(도면12-3)에서 다각지붕이 사용되었으며 永順君李溥神道碑(도면11-3, 사진7-3)처럼 개석을 그냥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다듬어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팔작지붕은 각 마루와 처마 곡선 등에 변화를 주었는데 韓應寅神道碑(도면11-4)와 姜弘重神道碑(도면11-5, 사진9-1), 柳琳神道碑(도면12-1, 사진9-3)의 개석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며, 마루의 표현이 아주 잘 된 것으로는 金相玉神道碑(도면12-8)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붕의 각 부분만을 변화시켜 오다가 張維神道碑(도면11-6, 사진9-2)에 이르면 지붕의 용마루에 용을 올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申景禎神道碑(도면11-8)의 개석은 용신을 세운 다음, 서로 교차시켜 梵鍾의 龍鈕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朗善君李俔神道碑(도면12-2, 사진9-4)에서는 지붕의 기왓골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고 鄭易神道碑(도면12-4)의 용마루 양 끝에는 鬼面을 새겨 辟邪의 의미를 담았다.

이외에 숙종대의 延齡君李田神道碑(도면12-5, 사진9-4) 개석부터는 매우 사실적이고도 섬세한 장식이 나타난다. 이같은 양식은 이후의 金構神道碑(도면12-6, 사진10-2)와 花山君李浣神道碑(도면12-7)로 이어져 화려하게 지붕을 장식하였다. 하지만, 정조대 이후에는 이전의 간소한 표현으로 다시 돌아왔다.

후한대의 柳敏碑, 六物碑, 沒字碑, 沈府君神道碑의 碑座에 玄武를 새겨 龜趺의 선구를 보인 이래 龜趺는 독립된 하나의 구조로 발전하여 가장 화려한 장식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각종 비에 귀부가 설치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신도비의 귀부가 가장 볼 만하였다. 신도

비의 귀부는 다음의 3가지 형식으로 양식화 되어 갔다.

첫째, 귀두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경우다. 대표적인 것으로 健元陵神道碑(도면 13-1), 誠寧大君神道碑(도면13-2, 사진6-1) 등을 들 수가 있다. 둘째, 귀두가 龍頭化된 경우로 沈綱神道碑(도면14-1)와 花山君李浣神道碑(도면14-5)등이 있다. 셋째, 귀두에서 龍頭化로의 중간과정에 있는 것으로 尹孝孫神道碑(도면13-4), 張維神道碑(도면14-3, 사진9-2), 朗善君李俔神道碑(도면14-4, 사진9-4) 등이 있다. 그리고 귀두들의 시선이 대부분 위로 향하거나 정면인 것에 반해, 특이하게 좌·측으로 돌린 것들이 있다. 우선 좌측으로 돌린것으로는 尹殷輔神道碑(도면 13-6), 沈連源神道碑(도면13-7), 沈通源神道碑(도면13-8)가 있으며 우측으로 돌린 것은 韓百謙神道碑(도면14-2)가 있다.

臺石은 흔히 碑座나 龜趺를 쓰기 마련인데, 慶基殿下馬碑(도면14-7, 사진 10-3)의 경우는 雙獅子를 사용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雙龜趺를 쓴 예는¹³⁴⁾ 보이나 쌍사자를 사용한 예는 없으며 다만 石燈의 下臺石으로 쌍사자를 이용한 예가 있다.¹³⁵⁾ 경기전하마비는 이같은 양식의 繼承과 더불어 慶基殿이라는 특수한 殿閣의¹³⁶⁾ 하마비라서 이같은 구조를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신도비의 비좌 양식은 묘표, 묘갈의 비좌와 별반 다른 점이 없으며 그 양식의 변화도 거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초기에는 四面에 朴仲善神道碑(도면15-1, 사진7-1)와 鄭蘭宗神道碑(도면15-2), 李元翼神道碑(도면15-4, 사진8-3)처럼 眼象이 나타나고, 趙光祖神道碑(도면15-3, 사진7-4)와 李茂神道碑(도면15-8)의 비좌에는 花紋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鄭惟吉神道碑(도면15-5, 사진8-4)에는 雙獅子가 정밀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이 역시 묘표와 묘갈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明의 영향을 받은 듯 하다. 또 李大源神道碑(도면15-6)의 비좌처럼 지극히 단순화시킨 추상적인 형태의 문양이 나오기도 하였다.

134) 鑒藏寺阿彌陀佛造像事蹟碑, 哀莊王 2年頃(801)

135) ○ 法住寺雙獅子石燈 (國寶 5號) 統一新羅時代

○ 中興山城雙獅子石燈 (國寶 103號) 統一新羅時代

○ 靈岩寺址雙獅子石燈 (寶物 353號) 統一新羅時代

○ 高達寺址雙獅子石燈 (寶物 282號) 高麗時代(10C) 등.

136) 慶基殿은 조선을 개국한 太祖 李成桂의 御眞을 봉안하기 위하여 太宗 10年(1410)에 지은 건물이다. 처음에는 御容殿이라 부르다가 태종 12년(1412)에는 眞殿이라고 改稱하였는데, 世宗 24年(1442)에 다시 경기전이라 改名하였다.

비좌의 上面에 覆蓮을 두른 것은 묘표, 묘갈과 같으나 묘표와 묘갈에서는 문양이 가미되지 않은 無紋碑座의 등장이 정조대부터인 것에 비해 신도비는 영조대에 건립된 金構神道碑(도면15-7, 사진10-2)부터 나오는 점이 다르다.

IV. 陵墓碑의 分析和 考察

이상과 같이 능묘비를 각 종류별로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능묘비의 입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가 숙종부터 정조대까지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시기는 문화사적인 구분에 의하면 진경시대라 불리던 조선후기 문화의 황금기였다. 진경시대 문화가 조선의 고유색을 드러내면서 문학과 예술의 각 분야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듯이, 능묘비 역시 이 시대에 이르러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은 수량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肅宗代(1675-1720)부터 正祖代(1777-1800)를 일반적으로 진경시대라 크게 분류하고, 숙종과 景宗代를 초창기로 그리고 영조대를 절정기로 보면서 정조대를 쇠퇴기로 구분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의 문화가 난만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그 문화의 근원이 되는 조선성리학이라는 고유이념이 이때에 이르러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¹³⁷⁾

조선시대 초기에는 중국에서 받아들인 朱子性理學을 國是로 천명하여, 예술 양식도 외래 이념의 영향으로 중국풍이 강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李珥(1536-1584)에 의해 理氣二元論의 주자성리학이 理氣一元論의 조선성리학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조선의 고유 이념으로 뿌리를 내리자 이를 바탕으로 조선 고유 색이 짙은 예술 양식이 나오기 시작하였다.¹³⁸⁾

국문학에서는 金萬重(1637-1692)의 《九雲夢》《謝氏南征記》등 한글 소설이 등장하였으며 時調와 한글가사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그리고 한문학에서는 金昌翁(1653-1722)과 李秉淵(1671-1751)이 나와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소재로 한 眞景詩文學을 이루어 냈다.¹³⁹⁾

서예에서는 韓濩의 石峯體를 기본으로 하여 兩宋體와 東國眞體가 이 시대에

137) 崔完秀, 1996 〈眞景時代의 文化〉 《澗松文華》 50 p55.

138) 崔完秀, 앞의 논문 p56.

139) 崔完秀, 앞의 논문 p59.

나왔다. 특히 동국진체는 조선화된 송설체와 석봉체에다 北宋의 米芾 서법을 가미하여 새로운 서체를 창안한 것인데 李 서(1662-1723)와 그의 뒤를 이은 尹淳(1680-1741)에 의해 완성되었다. 동국진체는 진경시대를 대표하는 서체로 이 시대의 서예가들이 모두 이를 사용하여 대표적인 서체로 자리잡게 되었다.¹⁴⁰⁾

회화에서는 鄭敼(1676-1759)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출현하여 중국 북방화법의 특징인 線描와 남방화법의 특징인 墨法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다음, 우리의 산천을 그리는데 이상적인 화법인 서릿발 준법(霜鏑皴)과 도끼발 준법(斧劈皴) 창안하여 眞景山水畵를 그려 내었다. 이러한 진경산수화 속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은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전에 중국 산수화풍의 틀속에서 머물때, 그림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중국 의복을 입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였다. 또 이같은 진경산수화와 더불어 조선 고유의 衣冠 차림을 한 조선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물 풍속화를 창시해 내기도 하였으니 이것 역시 정선부터 시작되어 趙榮祐(1686-1761)이 그 기틀을 확립하고 金喜謙, 卞相璧(1730-?) 등이 발전시켰다.¹⁴¹⁾

한편, 진경시대 중반을 대표하는 沈師正(1707-1769)과 姜世晃(1713-1791) 등은 그 추종자들과 더불어 조선 고유색 현양보다는 明 文化의 본격적 계승에 주력하여 산수 인물 표현에서 다시 중국풍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金弘道(1745-1806), 金得臣(1754-1822), 申潤福 등에 의해 진경시대 마지막 단계의 인물화풍은 다시 조선 고유색을 되찾아 풍속화는 물론 肖像畵와¹⁴²⁾ 道釋畵의 人物像까지도 조선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회화에서 이렇게 조선 고유색을 현양해 내고 있을 때 도자기도 分院이 정착되면서 달항아리, 祭器, 硯滴 등의 文房具에서 조선 특유의 기형과 깊이 있는 순백색을 드러내며 고유의 백자 문화를 고양해 냈다.¹⁴³⁾

진경시대에 이렇듯 화려하게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17세기 중엽 이래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촌 경제의 변동에 따른 農工의 분리, 그리고 농촌수공업의 발전과 官營수공업 및 鑛工業의 民營化 움직임, 商品貨幣經濟의 발전에

140) 崔完秀, 앞의 논문 p61.

141) 崔完秀, 앞의 논문 p60.

142) 姜寬植, 1996 〈眞景時代 肖像畵 樣式의 基盤〉 《澗松文華》 50 참조.

143) 方炳善, 1996 〈眞景時代 朝鮮白磁〉 《澗松文華》 50 참조.

힘입은 바 컸다. 여기에 兩亂後의 복구에 따른 각종 政策과 大同法, 均役法 등의 賦稅制度 개선, 通共政策 등의 상업정책에 의하여 경제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의 어느때 보다도 경제가 성장하여 나라 형편이 상당히 넉넉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¹⁴⁴⁾

진경시대의 문화를 주도하였던 계층은 京華巨族과 委巷人까지를 포함한 이른바 京華士族層¹⁴⁵⁾으로 이들은 한양의 도시적 번영을 누리며 서로의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白岳詞壇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眞景詩文風과 東國眞景 東國眞體 등의 개성적 문화를 창출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文化自尊意識과 건실한 士意識 위에 우리의 산천, 의관풍물과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정조대까지 진경시대 문화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 주역을 담당하였다.¹⁴⁶⁾

사상적인면에서 진경시대에는 조선성리학이 사회저변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종래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에 지배되어 오던 일반 백성들이 성리학적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바뀌 나가게 되자 불교가 더욱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에 불교는 부득이 성리학적인 사회 통념에 맞추어 의례를 개혁하고 교육제도를 바뀌 나가게 되니 두드러진 것이 조상의 묘소를 쓰 듯 恩師나 世尊의 부도를 石鐘形으로 해 세우고 아울러 비를¹⁴⁷⁾ 세운 것이다. 그리고 석가여래 진신사리탑을 조성한 다음 그 앞에 王陵처럼 丁字閣 형태의 전각을 해 세우기도 하고 또, 表忠祠

144) 李世永, 1996 〈진경시대의 경제〉 《澗松文華》 50 p92.

145) 肅宗代에 한양의 도시 발달로 인해 한양에만 20여만의 인구가 집중되었으며 서울의 생활권은 京郊 100리 안팎의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지역에 살면서 한양과 관련을 맺으며 생활하는 사족층이 경화사족층을 형성하였다.

146) 유봉학, 1996 〈眞景時代 京華士族의 사상과 문화〉 《澗松文華》 50 p90.

147) ○ 普照國師碑, 肅宗4(1678) 立, 昇州 松廣寺 所在

○ 海水觀音空中舍利碑, 肅宗20(1694)立, 襄陽 洛山寺 所在

○ 釋迦齒相立塔碑, 英祖2(1726)立, 高城 乾鳳寺 所在

○ 雲坡堂大師碑, 英祖6(1730)立, 高城 乾鳳寺 所在

○ 牧羊堂大師碑, 英祖7(1731), 高城 乾鳳寺 所在

○ 有明朝鮮國佛靈山雙溪寺定慧大師碑, 英祖41(1765) 立, 金陵 靑巖寺 所在

○ 龍岩大禪師碑, 英祖41(1765) 立, 襄陽 新興寺 所在

○ 日菴大師碑, 英祖46(1770) 立, 高城 乾鳳寺 所在

○ 世尊舍利碑, 正祖5(1781) 立, 淸原 安心寺 所在

○ 大圓大禪師碑, 正祖代 立, 襄陽 新興寺 所在 外 多數.

와 같은 書院寺刹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불교가 성리학적 사회통념에 맞춰 변질되어 가면서 활로를 모색할 때, 마침 진경시대의 군왕들이 불교에 호의적이라 국가적인 후원으로 사찰을 복원하는 불사가 지속되었다. 이에 진경시대의 문화역량이 불교문화 유산에 그대로 투영되어 수준 높은 진경시대 불교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¹⁴⁸⁾¹⁴⁹⁾

이와같이 진경시대의 문화는 각 분야에서 조선의 고유색을 드러내면서 찬란하게 발전하였다. 능묘비 역시 이 시기에 대량으로 입비가 되어 조선시대의 어느때보다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우선 숙종부터 정조대까지 각 군왕별로 입비 수량을 통계로 내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능묘비의 종류별 입비 수량

項目	肅宗	景宗	英祖	正祖	小計	總計	比率(%)
墓表	50	3	43	20	116	280	41.4
陵表	·	1	19	3	23	41	58.5
墓碣	35	2	29	9	75	141	53.1
神道碑	71	1	62	8	142	408	34.8
陵神道碑	·	·	·	·	·	·	·
小計	156	7	153	40	356	870	40.9

※ 종류별 총계는 〈표7〉 - 〈표10〉에 제시한 숫자임.

위의 표를 살펴보면 진경시대가 시작되는 숙종과 그 절정기인 영조대에 각각 156개와 153개가 입비되어 가장 많은 수량을 기록하였고, 쇠퇴기인 정조대에 40개가 세워 졌음을 알 수 있다. 묘표는 진경시대에 116개가 입비되어 280개인 조선시대 묘표 수량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능표는 58.5%, 묘갈은 53.1%, 신도비는 34.8%를 기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표7〉 - 〈표10〉를 통해 제시한 조선시대 능묘비의 총수량이 870개이고 진경시대에 입비된 수량이 356개이니 이 시대에 세워진 비의 수가 조선시대 전체 입비 수량의 40.9%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진경시대의 기간을 숙종대(1675-1720)부터 정조대(1777-1800)까지의 약 125년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조선왕조가 519년(1392-1910) 동안 존속하였

148) 崔完秀, 앞의 논문 p62.

149) 鄭炳三, 1996 〈眞景時代 佛教의 振興〉 《濶松文華》 50 참조.

던 것을 감안하면 진경시대에 얼마나 많은 입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표2〉 묘표의 양식별 입비 수량

項目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總計
碑座螭首	8	·	1	·	9
碑座蓋石	17	2	21	16	56
碑座圓首	25	1	20	4	50
未詳	·	·	1	·	1
小計	50	3	43	20	116

〈표3〉 능표의 양식별 입비 수량

項目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總計
碑座蓋石	·	1	19	3	24

진경시대의 묘표 양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오는데 비좌이수, 비좌개석, 비좌원수이다. 이중에서 비좌개석과 비좌원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비좌이수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두 양식 모두 화려한 장식을 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단순질박한 진경시대인들의 미적감각을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능표는 다른 양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비좌개석만을 사용하였는데 왕실에서 이 양식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건립되는 능표도 대부분 이 양식을 따르고 있다.

〈표4〉 묘갈의 양식별 입비 수량

項目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總計
碑座螭首	1	·	2	·	3
碑座蓋石	25	2	20	8	55
碑座圓首	8	·	4	1	13
碑座奎首	1	·	·	·	1
碑座荷葉	·	·	1	·	1
未詳	·	·	2	·	2
小計	35	2	29	9	75

묘갈은 묘표와 달리 여러 양식이 선보이고 있으며 비좌개석 양식이 비좌원수

보다 월등히 많은 수로 입비되고 있다. 묘갈 역시 비좌개석 양식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5〉 신도비의 양식별 입비 수량

項目	肅宗	景宗	英祖	正祖	總計
碑座螭首	4	·	3	·	7
碑座蓋石	46	1	42	7	96
碑座荷葉	1	·	·	·	1
龜趺螭首	7	·	1	·	8
龜趺蓋石	6	·	6	·	12
自然石蓋石	1	·	·	·	1
未詳	6	·	10	1	17
小計	71	1	62	8	142

신도비도 여러 양식이 나오고 있지만 비좌개석 양식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42개중에서 96개가 입비되어 6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색적인 것은 묘표나 묘갈에서 보이지 않던 귀부이수와 귀부개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綾原大君神道碑(肅宗33, 1707)와 延齡君李田神道碑(肅宗46, 1720)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조각이 사실적이고 섬세하다. 또 하나 自然石을 臺石으로 삼아 비신이 들어갈 홈을 파고 그위에 비신을 세운 예가 洪可臣神道碑(肅宗43, 1717)에서 보이는데 이 역시 독특하다.

이상과 같이 진경시대의 능묘비를 입비 수량과 양식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보았다. 진경시대는 조선 고유색을 살려 각 분야에서 문화의 절정기를 이루어 낸 문화의 황금기였다. 그래서 능묘비도 이시기에 이르러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은 능묘비가 건립되었다.

양식으로는 비좌개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문학에서 국문학과 가사문학이 발달하고 회화에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그리고 서예에서 동국진체가 이 시대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조선을 대표하였듯이 능묘비 양식에 있어서도 비좌개석이 이 시대를 대표하면서 조선시대 능묘비 양식을 대표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능묘비 양식의 전형은 비좌개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진경시대에 건립된 많은 비들은 이른바 京郊라 불리던, 지금의 경기도 지역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비들의 입석 주체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던 京華士族層중에서도 京華巨族에 속하던 名門閥閥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집안으로는 金命元神道碑(肅宗21, 1695)를 건립한 慶州金氏와 閔維重神道碑(肅宗33, 1707)를 건립한 驪興閔氏 그리고 金錫胄神道碑(肅宗38, 1712)를 세운 淸風金氏 등을 들 수가 있다.

맺음말

조선시대는 朱子性理學을 國是로 천명하여 국가 운영의 근본 이념으로 삼은 양반관료제 사회였다. 지배층 계급인 士大夫들은 治葬禮를 儒敎倫理의 근간이 되는 孝廉의 바탕으로 인식하여, 돌아가신 조상의 분묘를 예에 어긋나지 않게 일정한 형식에 맞춰 治粧하였다. 그 치장의 주요한 수단은 바로 분묘 앞에 石物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석물중에서도 묘비의 입비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묘비의 입석을 통해, 조상의 功勳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 자긍심을 키워주며, 입비 과정에서 여러 집안이 모여 의논함으로써 문중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他門中에 대하여 威勢를 드러내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묘비와는 달리 陵碑는 조선 초기에 신도비를 세웠지만 文宗代부터 폐지되고, 이후 陵表만을 입석하였다. 왕실의 權威와 事蹟은 입비를 하지 않더라도 至嚴하고 國史에 남기 때문이다.

묘비의 입비는 조선 초기의 경우 일부 계층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그 수량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러나 成宗代에 이르러 士林이 중앙정계에 등장하여 주자성리학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明宗代의 李滉이 주자성리학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 이를 토대로 宣祖代의 李珣가 조선주자학을 완성하기에 이르자 지배층 전반에 걸쳐 묘비의 입비가 행해졌다. 이러한 과정은 <표6>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조선성리학은 喪·祭禮가 더욱 발전하여 孝宗과 顯宗代에는 國喪의 服制 문제로 인하여 禮訟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발전한 예론은 조선성리학과 함께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면서, 종래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에 지배되어 오던 中·庶人層과 민중들을 성리학적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그 통념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 이같은 사상의 전환으로 인하여 비로소 묘비의 입석 행위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中·庶人層은 兩亂이후 상승된 사회적 지위를 통해, 職牒을 사들여 그 관직을 묘비에 새기었다. 그러나 顯宗代에 이르러서는 묘비에 관직을 허위로 기재하고, 규모도 너무 크게 만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朝廷

에서는 그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직을 허위로 기재한 자와 묘비의 규모를 분에 넘치게 조성한자는 처벌하고 묘비는 毀撤시키고 있다.

조선시대의 묘비는 크게 묘표, 묘갈, 신도비로 나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그동안 이들 묘비의 종류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혼동되어 왔는데, 〈표6〉에 제시된 각 문집의 묘비문류 항목의 명칭과 실재 건립된 碑題를 비교 검토하여 墓表陰記, 墓碣銘并序, 神道碑銘并序가 각각의 가장 올바른 명칭임을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異稱들도 같은 의미의 호칭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비를 분류하는 있어 그 방식을 外樣에 의거하지 않고 碑題에 의해 구분하였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立石制限의 경우, 묘표와 묘갈은 일반 사대부는 물론 中·庶人層까지 입석할 수 있었으나 신도비는 實職과 관계없이 從二品以上の 贈職이 있어야만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국가의 法典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 禮書에서 제시한 品階別 한계치에 근거한 것이었다. 즉 국가에서 어떠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贈職이 꼭 從二品이 아니더라도 신도비를 건립한 예가 극소수 있었다.

묘비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신도비의 입석은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어느 한 개인이 단독으로 비용을 출자하여 세우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이 門中에서 비용을 거두어 일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왕실의 姻戚이나 功臣들은 韓確神道碑와 申景禎神道碑의 경우처럼 국가에서 내주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건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예는 지극히 드물었다.

수량과 규모에 대해서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살펴보았는데, 신도비의 수량이 가장 많고 묘표, 묘갈순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자료를 보충하면 묘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묘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일반적인 묘비였기 때문이다. 규모는 신도비의 경우 4m를 넘는 것이 13개에 이르는 등, 평균적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묘갈과 묘표순이었다.

양식은 신도비가 가장 다양하였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양식은 17세기

까지는 비좌이수였고 이후로는 비좌개석 이었다. 전자는 장식성을, 후자는 기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수는 雲龍紋이 대표적이거나 운문도 자주 사용하였고 때로는 鳳凰이나 麒麟 등을 새겼으며 荷葉을 애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류는 역시 운룡문이었다.

臺石중에서 가장 장엄한 龜趺는 王陵이나 高官大爵들의 신도비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초기에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가 점차 장식화 되어 나갔다. 碑座는 四面에 眼象이나 花紋 종류를 넣었고, 上面에는 대부분 覆蓮을 돌렸다. 蓋石은 팔작지붕을 기본으로 시대에 따라 각마루의 표현에 변화를 주었으며, 숙종과 영조대에는 明의 영향을 받아 세밀하고도 사실적인 장식을 하였다. 그러나 正祖代에는 이같은 현상이 퇴보되고, 기능성이 강조된 단순명료한 구조의 蓋石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 정조대는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無紋의 사다리꼴 碑座가 유행하였다. 이같은 양식의 변화는 모든 묘비에 해당되었다.

끝으로 입석이 가장 활발하였던 숙종부터 정조대까지를, 묘비의 종류별로 입비의 수량과 양식을 표를 제시하며 분석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시기가 문화사적인 구분에 의한 眞景時代였음과 조선후기 문화의 황금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대는 文學과 藝術의 각 분야에서 조선의 固有色이 드러나면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시대로, 묘비의 입석도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발맞춰 대량으로 입석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각 분야에서 가사문학, 眞景詩, 眞景山水畫, 東國晉體 등 조선의 고유한 것이 나왔듯이 석조미술의 한 분야인 능묘비의 분야에서도 이 시대를 주도하였던 비좌개석이라는 조선화된 비 양식이 나왔다.

〈丑6〉 文集別 墓碑文類 項目 吳 數量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吳 數量	備考
1	稼亭集	李穀	忠烈王24(1298)~ 忠定王3(1351)	墓表1	
2	淡庵逸集	白文寶	忠烈王29(1303)~ 恭愍王23(1374)	神道碑1	
3	三峯集	鄭道傳	?~太祖7(1398)	墓表1	
4	景濂亭集	卓光茂	麗末鮮初	神道碑1	
5	雙梅堂篋藏集	李詹	忠穆王1(1345)~ 太宗5(1405)	墓碑陰記 2, 碣 1	
6	復齋集	鄭摠	麗末鮮初	碑銘 1	
7	春亭集	卞季良	恭愍王18(1369)~ 世宗12(1439)	神道碑3	
8	敬齋遺稿	南秀文	太宗8(1408)~ 世宗25(1443)	墓表1	
9	太虛亭集	崔恒	太宗9(1409)~ 成宗5(1474)	碑後1	
10	拭疣集	金守溫	太宗9(1409)~ 成宗12(1481)	神道碑銘1	
11	保閑齋集	申叔舟	太宗17(1417)~ 成宗6(1475)	墓表1, 神道碑2	
12	成謹甫集	成三問	太宗18(1418)~ 世祖2(1456)	神道碑2	
13	四佳集	徐居正	世宗2(1420)~ 成宗19(1488)	神道碑銘6, 墓碑銘1, 碑銘1	
14	三灘集	李承召	世宗4(1422)~ 成宗15(1484)	墓碑銘3, 墓碣2, 碑陰記1, 墓表陰記2	
15	私淑齋集	姜希孟	世宗6(1424)~ 成宗14(1483)	墓碑銘1, 墓碣銘1, 碑陰記1	
16	佔畢齋集	金宗直	世宗13(1431)~ 成宗23(1492)	神道碑銘1, 墓碣銘1	
17	蓀蕢遺稿	洪裕孫	世宗13(1431)~ 中宗24(1529)	墓碣1	
18	青坡集	李陸	世宗20(1438)~ 燕山君4(1498)	墓碣銘1	
19	虛白亭集	洪貴達	世宗20(1438)~ 燕山君10(1504)	墓碣銘8, 墓表銘2, 墓銘1, 碑銘1, 神道碑銘6, 墓碑銘7, 墓道碑銘1	
20	大峯集	楊熙止	世宗21(1439)~ 燕山君10(1504)	墓碣銘1	
21	瀨齋集	蔡壽	世宗31(1449)~ 中宗10(1515)	神道碑銘1	
22	梅溪集	曹偉	端宗2(1454)~ 燕山君9(1503)	墓表2	
23	鄭文翼公遺稿	鄭光弼	世祖8(1462)~ 中宗33(1538)	墓碣銘2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数量	備考
24	二樂亭集	申用漑	世祖9(1463)~ 中宗14(1519)	神道碑銘11, 墓碣銘13	
25	濯纓集	金駟孫	世祖10(1464)~ 燕山君4(1498)	墓碣銘3	
26	木溪逸稿	姜渾	世祖10(1464)~ 中宗14(1519)	神道碑銘1, 墓道碑1, 墓表1, 墓碑2, 墓碑銘1, 墓碣銘1	
27	聾巖集	李賢輔	世祖13(1467)~ 明宗10(1555)	墓碣1	
28	夏亭集	金克成	成宗5(1474)~ 中宗35(1540)	墓碣2	
29	默齋集	洪彥弼	成宗7(1476)~ 明宗4(1549)	墓碑銘5, 墓碣銘1, 碑陰記1, 墓表3	
30	容齋集	李荇	成宗9(1478)~ 中宗29(1534)	神道碑銘6, 墓碣銘6, 墓碣1, 碣銘1, 碑銘3	
31	慕齋集	金安國	成宗9(1478)~ 中宗38(1543)	神道碑銘4, 墓碑1, 墓碑銘1, 墓碣銘23, 墓碣1, 墓表9, 石表1, 小表1	
32	希樂堂集	金安老	成宗12(1481)~ 中宗32(1537)	墓碣銘10, 墓道銘1, 墓碑銘1, 墓碣後題1	
33	靜庵集	趙光祖	成宗13(1482)~ 中宗14(1519)	墓碣1	
34	月淵集	李迨	成宗14(1483)~ 中宗31(1536)	墓碣銘1	
35	企齋集	申光漢	成宗15(1484)~ 明宗10(1555)	墓碣銘3, 墓碣1, 神道碑銘3	
36	思齋集	金正國	成宗16(1485)~ 中宗36(1541)	墓碑銘1, 墓碣銘3	
37	陽谷集	蘇世讓	成宗17(1486)~ 明宗17(1562)	神道碑銘6, 墓碣銘17, 墓碑銘1, 墓表7	
38	圭菴集	宋麟壽	成宗18(1487)~ 明宗2(1547)	墓碣銘2, 墓表2	
39	自庵集	金球	成宗19(1488)~ 中宗29(1534)	墓碣陰記1	
40	晦齋集	李彦迪	成宗22(1491)~ 明宗8(1553)	墓碑銘4, 墓碣銘1, 墓碣文1	
41	湖陰遺稿	鄭士龍	成宗22(1491)~ 宣祖3(1570)	神道碑銘9, 墓表陰記1 墓碣銘16, 墓碑銘3, 墓碣文1	
42	俛仰集	宋純	成宗24(1493)~ 宣祖16(1583)	墓碣銘3	
43	武陵雜稿	周世鵬	燕山君1(1495)~ 明宗9(1554)	墓碣銘6, 墓銘1, 墓碣1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又 數量	備考
44	大谷集	成運	燕山君3(1497)~ 宣祖12(1579)	墓碣4	
45	松齋遺稿	羅世續	燕山君4(1498)~ 明宗6(1551)	墓表2	
46	東阜遺稿	李浚慶	燕山君5(1499)~ 宣祖5(1572)	神道碑銘1, 墓碣銘2, 墓表1	
47	葛川集	林薰	燕山君6(1500)~ 宣祖17(1584)	墓碣銘3	
48	退溪集	李滉	燕山君7(1501)~ 宣祖3(1570)	墓碣銘28, 碣陰紀事1, 墓碣識4, 碣陰銘1, 墓銘1	
49	南冥集	曹植	燕山君7(1501)~ 宣祖5(1572)	墓銘2, 墓碣銘1, 墓碣1, 墓表7, 墓碑1, 碑文1	
50	艮齋集	崔演	燕山君9(1503)~ 明宗4(1549)	墓碣銘1	
51	忍齋集	洪暹	燕山君10(1504)~ 宣祖18(1585)	神道碑銘13, 墓碣銘18, 墓表文1	
52	秋坡集	宋麒壽	燕山君12(1506)~ 宣祖14(1581)	墓碣銘3, 墓表2	
53	河西全集	金麟厚	中宗5(1510)~ 明宗15(1560)	墓銘1	
54	游軒集	丁煥	中宗7(1512)~ 明宗15(1560)	墓碣銘1	
55	龜巖集	李楨	中宗7(1512)~ 宣祖4(1571)	墓碣銘2, 碣陰紀事1, 碣陰3	
56	眉巖集	柳希春	中宗8(1513)~ 宣祖10(1577)	碣陰2	
57	守庵遺稿	朴枝華	中宗8(1513)~ 宣祖25(1592)	墓碣銘1, 墓表1	
58	朴谷集	李元祿	中宗9(1514)~ 宣祖7(1574)	墓表1	
59	林塘遺稿	鄭惟吉	中宗10(1515)~ 宣祖21(1588)	墓碣銘2	
60	蘇齋集	盧守愼	中宗10(1515)~ 宣祖23(1590)	墓表2, 墓碣銘10, 墓碑銘2 神道碑銘5, 碣銘1	
61	頤庵遺稿	宋寅	中宗11(1516)~ 宣祖17(1584)	神道碑銘5, 墓碣銘10, 墓表5, 墓碑陰記2, 墓碣1, 碣陰記1	
62	草堂集	許晔	中宗12(1517)~ 宣祖13(1580)	墓碣銘1, 墓銘1	
63	嘯阜集	朴承任	中宗12(1517)~ 宣祖19(1586)	墓碑1, 墓表1, 墓碣3, 墓碣銘5, 碑銘1	
64	玉溪集	盧禎	中宗13(1518)~ 宣祖11(1578)	墓碑記1, 墓碣銘3, 墓碣記1, 墓碣陰2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吳 數量	備考
65	東園集	金貴榮	中宗14(1519)~ 宣祖26(1593)	神道碑銘4, 墓碑銘1, 墓碣銘1, 墓表陰記1	
66	舟川遺稿	康惟善	中宗15(1520)~ 明宗4(1549)	墓碑銘1	
67	思菴集	朴淳	中宗18(1523)~ 宣祖22(1589)	神道碑銘2	
68	月川集	趙穆	中宗19(1524)~ 宣祖39(1606)	墓碣2	
69	玉洞集	文益成	中宗21(1526)~ 宣祖17(1584)	墓碣銘2, 墓碣文1	
70	栢潭集	具鳳齡	中宗21(1526)~ 宣祖19(1586)	墓碣銘2, 墓碣1, 墓表1	
71	高峯集	奇大升	中宗22(1527)~ 宣祖5(1572)	神道碑銘1, 墓碣銘4, 墓碣記1, 墓記2, 墓碣銘後1	
72	松巖集	權好文	中宗27(1532)~ 宣祖20(1587)	墓碣1, 墓碣銘5	
73	省菴遺稿	金孝元	中宗27(1532)~ 宣祖23(1590)	墓碣2, 墓碣銘1	
74	芝川集	黃廷彧	中宗27(1532)~ 宣祖40(1607)	墓碣4	
75	梧陰遺稿	尹斗壽	中宗28(1533)~ 宣祖34(1601)	墓碑銘1, 墓碣1	
76	草澗集	權文海	中宗29(1534)~ 宣祖24(1591)	墓碣銘1	
77	牛溪集	成渾	中宗30(1535)~ 宣祖31(1598)	墓表後記1	
78	萊庵集	鄭仁弘	中宗30(1535)~ 仁祖1(1623)	墓表銘1, 神道碑銘1, 墓銘2, 墓碣銘2, 墓碑銘3, 墓表1	
79	清江集	李濟臣	中宗31(1536)~ 宣祖17(1584)	墓碣1, 碣銘1, 墓碣銘7, 墓表3, 墓碣陰記1, 神道碑銘3	
80	栗谷全書	李珥	中宗31(1536)~ 宣祖17(1584)	墓碣銘5, 墓碣陰記1	
81	松江集	鄭澈	中宗31(1536)~ 宣祖26(1593)	墓碣銘1	
82	拙翁集	洪聖民	中宗31(1536)~ 宣祖27(1594)	墓碑1, 表石陰記1, 墓碑銘1, 碑銘1, 神道碣銘1, 墓碣銘1	
83	藥園遺稿	李海壽	中宗31(1536)~ 宣祖31(1598)	墓碣銘1	
84	月汀集	尹根壽	中宗32(1537)~ 光海君8(1616)	神道碑銘1, 墓碣7	
85	覺齋集	河沆	中宗33(1538)~ 宣祖23(1590)	墓碣銘1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数量	備考
86	鶴峯集	金誠一	中宗33(1538)~ 宣祖26(1593)	墓碣銘4	
87	栢谷集	鄭崑壽	中宗33(1538)~ 宣祖35(1602)	墓碑文1, 墓碣4, 墓碣記1, 墓表1	
88	鵝溪遺稿	李山海	中宗33(1538)~ 光海君1(1609)	墓碣銘7, 碣銘2, 墓碑銘1, 墓表1	
89	坡谷遺稿	李誠中	中宗34(1539)~ 宣祖26(1593)	神道碑銘1	
90	簡易集	崔岝	中宗34(1539)~ 光海君4(1612)	神道碑銘7, 墓碣銘11, 墓表1, 墓碣陰記2	
91	東岡集	金字顯	中宗35(1540)~ 宣祖36(1603)	墓碑1, 墓表1	
92	晚全集	洪可臣	中宗36(1541)~ 光海君7(1615)	神道碑銘1, 墓碣銘1	
93	西厓集	柳成龍	中宗37(1542)~ 宣祖40(1607)	碣銘4, 墓表3, 神道碑銘1, 碑銘1	
94	孤潭逸稿	李純仁	中宗38(1543)~ 宣祖25(1592)	墓碣銘1	
95	寒岡集	鄭述	中宗38(1543)~ 光海君12(1620)	墓表4, 墓表後序1, 墓碣1	
96	松巖集	李魯	中宗39(1544)~ 宣祖31(1598)	神道碑1, 墓碣銘5	
97	岳麓集	許箴	明宗3(1548)~ 光海君4(1612)	墓碣銘1, 神道碑銘1	
98	一松集	沈喜壽	明宗3(1548)~ 光海君14(1622)	墓碣銘2, 神道碑銘1, 墓碑銘1	
99	沙溪遺稿	金長生	明宗3(1548)~ 仁祖9(1631)	墓碣銘4, 墓碣後叙1	
100	知退堂集	李廷馨	明宗4(1549)~ 宣祖40(1607)	墓碣1	
101	西垞集	柳根	明宗4(1549)~ 仁祖5(1627)	神道碑銘2, 墓碣銘1, 碑銘1	
102	荷谷集	許筠	明宗6(1551)~ 宣祖21(1588)	墓碑銘1	
103	苔泉集	閔仁伯	明宗7(1552)~ 仁祖4(1626)	墓碣銘1	
104	松亭集	河受一	明宗8(1553)~ 光海君4(1612)	墓碣銘1, 墓銘1, 碣銘1	
105	五峯集	李好閔	明宗8(1553)~ 仁祖 12(1634)	墓碣銘4, 神道碑銘1	
106	旅軒集	張顯光	明宗9(1554)~ 仁祖15(1637)	神道碑銘2, 墓碣銘18, 碑銘1, 神道碑陰識1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又 數量	備考
129	潛治集	朴知誠	宣祖6(1573)~ 仁祖13(1635)	墓碣1	
130	隱峯全書	安邦俊	宣祖6(1573)~ 孝宗5(1654)	神道碑銘1	
131	愼獨齋遺稿	金集	宣祖7(1574)~ 孝宗7(1656)	墓碣銘15, 墓碣1, 墓表4	
132	竹陰集	趙希逸	宣祖8(1575)~ 仁祖15(1638)	墓碣銘5, 墓表銘1	
133	疎菴集	任叔英	宣祖9(1576)~ 仁祖1(1623)	墓碑1, 墓碣銘2, 墓表1	
134	朽淺集	黃宗海	宣祖11(1579)~ 仁祖20(1642)	墓表1	
135	浦渚集	趙翼	宣祖12(1579)~ 孝宗6(1655)	神道碑銘4, 墓碣銘9, 墓表3, 墓碑陰記1, 墓碣陰記1	
136	潛谷遺稿	金堉	宣祖13(1580)~ 孝宗9(1658)	墓表2, 墓碣銘4, 神道碑銘4, 墓碣陰記1	
137	澤堂集	李植	宣祖17(1584)~ 仁祖25(1647)	神道碑銘1, 墓碑銘2, 墓碣銘5, 墓表3	
138	白江集	李敬輿	宣祖18(1585)~ 孝宗8(1657)	墓碣銘1, 神道碑銘1	
139	澗松集	趙任道	宣祖18(1585)~ 顯宗5(1664)	墓碣銘4, 墓碣文1, 墓銘1	
140	遲川集	崔鳴吉	宣祖19(1586)~ 仁祖25(1647)	碑銘1, 墓碣銘1	
141	龍洲遺稿	趙綱	宣祖19(1586)~ 顯宗10(1669)	神道碑銘15, 墓碑銘1, 墓碣銘18, 墓碣7, 墓碣陰記1, 墓表2, 碣銘1	
142	谿谷集	張維	宣祖20(1587)~ 仁祖16(1638)	神道碑銘9, 墓碑銘5, 墓碣銘15, 墓表1	
143	畸庵集	鄭弘溟	宣祖25(1592)~ 孝宗1(1650)	墓碣銘3, 墓碑陰記2	
144	白軒集	李景奭	宣祖28(1595)~ 顯宗12(1671)	神道碑15, 墓碣18, 墓表6, 神道碑陰記2, 神道碑題後2, 墓碣1, 墓表陰記1, 墓表識後1	
145	記言	許穆	宣祖28(1595)~ 肅宗8(1682)	神道碑銘11, 神道碑2, 墓碑5, 墓碑陰記1, 碑銘4, 碑陰記2, 墓碑後語1, 表1, 墓碑銘5, 墓碑文1, 碑4, 墓銘31, 墓碣銘41, 墓記1, 墓碣10, 墓碣陰記12, 碣銘9, 墓碣文2, 碣 7, 墓表27, 墓標1, 墓表銘1, 墓表陰記4, 陵碑陰記1, 墓陰記5, 陰記1, 葬表1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数量	備考
146	童土集	尹舜舉	宣祖29(1596)~ 顯宗9(1668)	墓碣銘1	
147	百源集	申碩蕃	宣祖29(1596)~ 肅宗1(1675)	墓碣銘2	
148	冶溪集	河潛	宣祖30(1597)~ 孝宗8(1658)	墓碣銘5, 墓表1	
149	湖洲集	蔡裕後	宣祖32(1599)~ 顯宗1(1660)	墓碑銘3, 墓碣銘2, 墓表2, 碑陰記1	
150	龍西集	尹元舉	宣祖34(1601)~ 顯宗13(1672)	墓表2, 墓碣銘1	
151	鶴洲全集	金弘郁	宣祖35(1602)~ 孝宗5(1654)	墓碣銘1, 墓表2	
152	雪峯遺稿	姜栢年	宣祖36(1603)~ 肅宗7(1681)	墓碣銘18, 碣後追記1, 墓表2, 神道碑銘2	
153	漫浪集	黃立	宣祖37(1604)~ 孝宗7(1656)	墓碣銘7, 墓碑銘1, 墓表1	
154	炭翁集	權認	宣祖37(1604)~ 顯宗13(1672)	墓碣陰記1, 墓碣銘8, 神道碑銘1	
155	栢谷集	金得臣	宣祖37(1604)~ 肅宗10(1684)	碑陰記1, 碣銘1, 墓碣銘5	
156	南坡集	洪宇遠	宣祖38(1605)~ 肅宗13(1687)	神道碑銘2	
157	石湖遺稿	尹文舉	宣祖39(1606)~ 顯宗13(1672)	墓表1	
158	同春堂集	宋浚吉	宣祖39(1606)~ 顯宗13(1672)	墓碣銘2, 墓表18	
159	市南集	俞榮	宣祖40(1607)~ 顯宗5(1664)	神道碑銘1, 墓碣銘8, 墓表陰記1	
160	草廬集	李惟泰	宣祖40(1607)~ 肅宗10(1684)	墓表3, 墓表石陰記1	
161	宋子大全	宋時烈	宣祖40(1607)~ 肅宗15(1689)	神道碑銘96, 墓碑1, 墓銘2, 墓碣銘101, 墓碣陰記1, 墓碣3, 墓碣後記3, 墓表234, 墓表後記2, 墓表陰記8	
162	松谷集	趙復陽	光海君1(1609)~ 顯宗12(1671)	神道碑銘1, 墓表陰記5, 碑陰記1, 墓碑銘1, 墓碣銘1	
163	魯西遺稿	尹宜舉	光海君2(1610)~ 顯宗10(1669)	墓表1	
164	久堂集	朴長遠	光海君4(1612)~ 顯宗12(1671)	墓碣銘1	
165	六谷遺稿	徐必遠	光海君5(1613)~ 顯宗12(1671)	墓碣銘1	
166	歸溪遺稿	金佐明	光海君8(1616)~ 顯宗12(1671)	墓表陰記1, 墓表5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吳 數量	備考
167	東里集	李殷相	光海君9(1617)~ 肅宗4(1678)	墓碣銘1	
168	白湖集	尹鏞	光海君9(1617)~ 肅宗6(1680)	墓碣銘4, 墓碣文1, 墓表1	
169	木齋集	洪汝河	光海君12(1620)~ 顯宗15(1674)	碣銘1, 墓碣銘1, 墓石陰記1 墓陰記1, 墓表1	
170	畏齋集	李端夏	仁祖3(1625)~ 肅宗15(1689)	神道碑銘1, 墓碣銘1, 墓表6	
171	孤山集	李惟樟	仁祖3(1625)~ 肅宗27(1701)	墓碣銘4, 碣陰銘1, 碣銘4 碣文1, 墓表2	
172	愚潭集	丁時翰	仁祖3(1625)~ 肅宗33(1707)	墓碑1	
173	退憂堂集	金壽興	仁祖4(1626)~ 肅宗16(1690)	墓表1	
174	葛庵集	李玄逸	仁祖5(1627)~ 肅宗30(1704)	碑陰記1, 墓表12, 墓碣銘28 神道碑銘3, 墓碑銘2, 碣陰記1	
175	汾厓遺稿	申景	仁祖6(1628)~ 肅宗13(1687)	神道碑銘1, 墓表3	
176	文谷集	金壽恒	仁祖7(1629)~ 肅宗15(1689)	神道碑銘1, 墓碣銘9, 墓表12	
177	西溪集	朴世堂	仁祖7(1629)~ 肅宗29(1703)	神道碑銘8, 墓碑銘1, 墓碣銘19, 墓碣2, 墓表15	
178	藥泉集	南九萬	仁祖7(1629)~ 肅宗37(1711)	神道碑16, 墓碣36, 墓表12, 墓碣陰記1	
179	明齋遺稿	尹拯	仁祖7(1629)~ 肅宗40(1714)	神道碑銘11, 墓碣銘42, 墓表29, 墓碣1, 碑銘後記1	
180	霽月堂集	宋奎濂	仁祖8(1630)~ 肅宗35(1709)	墓碣銘3	
181	南溪集	朴世采	仁祖9(1631)~ 肅宗21(1695)	神道碑銘6, 墓碣銘24, 墓表14, 墓碣後記1, 墓碑銘1, 碑陰記2	
182	農隱遺稿	尹推	仁祖10(1632)~ 肅宗33(1707)	墓表陰記1	
183	瑞石集	金萬基	仁祖11(1633)~ 肅宗13(1687)	墓碣銘1, 墓表4	
184	西河集	李敏叙	仁祖11(1633)~ 肅宗14(1688)	神道碑銘1, 墓表3, 墓表陰記2, 墓表後記1	
185	息庵遺稿	金錫胄	仁祖12(1634)~ 肅宗10(1684)	墓碣銘2, 墓碣陰記1, 墓表6	
186	醒齋遺稿	申翼相	仁祖12(1634)~ 肅宗23(1697)	墓表1	
187	寓軒集	柳世鳴	仁祖14(1636)~ 肅宗16(1690)	墓表3	

順位	文集名	著者	生沒年	墓碑文類 項目 ㄹ 數量	備考
188	恬軒集	任相元	仁祖16(1638)~ 肅宗23(1697)	神道碑銘2, 墓碑銘11, 墓表4	
189	迂齋集	趙持謙	仁祖17(1639)~ 肅宗11(1685)	墓碣銘2	
190	直齋集	李箕洪	仁祖19(1641)~ 肅宗34(1708)	墓碣1, 墓表1	
191	寒水齋集	權尙夏	仁祖19(1641)~ 景宗1(1721)	神道碑銘11, 神道碑續記1, 墓碣1, 墓碣追記2, 墓碣銘35, 墓碣續記1, 墓表61, 神道碑追記1, 墓表追記3	
192	荷塘集	崔愼	仁祖20(1642)~ 肅宗34(1708)	墓碣銘6, 墓碣1, 墓表2, 墓碑銘1	
193	西坡集	吳道一	仁祖23(1645)~ 肅宗29(1703)	墓表陰記1, 墓碣銘3, 神道碑銘1,	
194	睡谷集	李畚	仁祖23(1645)~ 肅宗44(1718)	墓碣銘2, 墓碣追錄1, 墓表10, 墓表追記2,	
195	明谷集	崔錫鼎	仁祖24(1646)~ 肅宗41(1715)	神道碑銘11, 墓碣銘38, 墓表12, 墓表記2, 表陰3, 墓表陰記2, 碑銘後1, 表陰記2, 碑陰1, 墓碑後1	
196	厚齋集	金幹	仁祖24(1646)~ 英祖8(1732)	神道碑銘1, 墓碣銘9	
197	游齋集	李玄錫	仁祖25(1647)~ 肅宗29(1703)	神道碑銘1, 墓碣銘14	
198	丈巖集	鄭滌	仁祖26(1648)~ 英祖12(1736)	神道碑銘2, 神道碑追記1, 墓碣銘23, 墓碣2, 墓表11, 墓表記1, 墓表陰記9	
199	滄溪集	林泳	仁祖27(1649)~ 肅宗22(1696)	墓碣銘1, 墓表陰記2	
200	霞谷集	鄭齊斗	仁祖27(1649)~ 英祖12(1736)	墓表10, 墓碣1	

〈丑7〉 墓表 目錄

順位	表題	年代	樣式	高	所在地	備考
1	朴可興墓表	15世紀初	碑座荷葉	・	南楊州郡	
2	李伯撰墓表	太宗15年頃(1415)	碑座荷葉	總高 144	龍仁市	
3	孟思誠墓表	世宗20年頃(1438)	碑座荷葉	・	廣州郡	
4	許稠墓表	世宗25年以前(1443)	碑座奎首	總高 204	坡州郡	
5	鄭淵墓表	世宗26年頃(1444)	碑座荷葉	・	坡州郡	
6	趙致中墓表	世宗27年(1445)	碑座荷葉	・	果川市	
7	權僖墓表	世宗31年(1449)	碑座奎首	身高 83	高陽市	
8	河陰奉氏墓表	15世紀中葉	碑座奎首	身高 91	龍仁市	李伯撰配
9	沈溫墓表	文宗1年頃(1451)	碑座奎首	總高 147	水原市	
10	洪浞墓表	世祖2年(1456)	碑座荷葉	總高 126	城南市	
11	尹璠墓表	世祖2年(1456)	碑座奎首	總高 177	坡州郡	
12	韓確墓表	世祖2年頃(1456)	碑座荷葉	・	南楊州郡	
13	李澄石墓表	世祖7年(1461)	碑座荷葉	・	梁山郡	
14	趙鐵山墓表	世祖13年(1467)	碑座荷葉	總高 102	城南市	
15	洪達孫墓表	成宗4年(1473)	碑座圓首	總高 129	議政府市	
16	李士寬墓表	成宗4年(1473)	碑座荷葉	總高 153	坡州郡	
17	崔恒墓表	成宗5年頃(1474)	碑座荷葉	・	廣州郡	
18	奉奎墓表	成宗10年(1479)	碑座荷葉	總高 94	高陽市	
19	昌寧成氏墓表	成宗11年(1480)	碑座荷葉	總高 146	城南市	柳季閔配
20	李仁孫墓表	成宗11年(1480)	碑座荷葉	總高 171	麗州郡	
21	李升忠墓表	成宗12年頃(1481)	碑座奎首	身高 116	龍仁市	
22	李安昭墓表	成宗13年(1482)	碑座荷葉	總高 192	高陽市	
23	李墳墓表	成宗13年(1482)	碑座荷葉	總高 139	高陽郡	
24	宋福山墓表	成宗14年以前(1483)	碑座荷葉	總高 174	始興郡	
25	朴昕墓表	成宗15年(1484)	碑座奎首	總高 194	高陽郡	
26	成任墓表	成宗16年頃(1485)	碑座奎首	總高 124	坡州郡	
27	烏川鄭氏墓表	成宗17年(1486)	碑座奎首	總高 153	城南市	李擇配
28	李擇墓表	成宗17年(1486)	碑座奎首	總高 153	城南市	
29	魚世恭墓表	成宗17年頃(1486)	碑座荷葉	・	高陽市	
30	鄭蘭宗墓表	成宗20年(1489)	碑座荷葉	・	華城郡	
31	李氏墓表	燕山君1年(1495)	碑座荷葉	身高 69.5	公州郡	德泉君配
32	韓玘墓表	燕山君2年(1496)	碑座荷葉	總高 217	楊州郡	
33	禹恭老墓表	燕山君5年(1499)	碑座荷葉	身高 116	公州郡	
34	尹士昕墓表	15世紀末	碑座奎首	・	坡州郡	
35	鄭文炯墓表	燕山君7年(1501)	碑座荷葉	・	果川市	
36	金悌臣墓表	燕山君9年(1503)	碑座荷葉	總高 147.5	高陽市	
37	李孝伯墓表	燕山君10年(1504)	碑座荷葉	總高 149	城南市	新宗君
38	月山大君墓表	燕山君11年(1505)	碑座螭首	總高 180	高陽市	
39	黃愼墓表	中宗2年(1507)	碑座荷葉	總高 128	坡州郡	
40	李鐵根墓表	中宗3年(1508)	碑座荷葉	身高 124	論山郡	
41	朴元宗墓表	中宗5年頃(1510)	碑座圓首	總高 167	南楊州郡	
42	金友臣墓表	中宗6年頃(1511)	碑座螭首	・	高陽市	
43	鄭夢周墓表	中宗12年(1517)	碑座螭首	身高 153	龍仁郡	
44	奉原良墓表	中宗13年(1518)	碑座奎首	總高 91	高陽市	
45	皇甫仁墓表	中宗14年(1519)	碑座圓首	・	坡州郡	
46	朴義榮墓表	中宗15年(1520)	碑座荷葉	總高 156	高陽市	
47	宋軼墓表	中宗15年(1520)	碑座荷葉	總高 133	楊州郡	
48	鄭光輔墓表	中宗19年(1524)	碑座螭首	總高 187	華城郡	
49	南孝溫墓表	中宗20年(1525)	碑座荷葉	總高 154	高陽市	
50	李惟清墓表	中宗26年頃(1531)	碑座奎首	總高 223	高陽市	

順位	表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51	李愼墓表	中宗31年(1536)	碑座螭首	.	高陽市	德豊君
52	朴雲墓表	中宗34年(1539)	碑座螭首	總高 186	南楊州郡	
53	鄭承周墓表	中宗34年(1539)	碑座荷葉	身高 87	公州郡	
54	曹繼商墓表	中宗38年(1543)	碑座螭首	.	華城郡	
55	李麟墓表	明宗9年(1554)	碑座壺首	.	高陽市	桂原君
56	柳辰全墓表	明宗17年(1562)	碑座圓首	.	高陽市	
57	宋之翰墓表	明宗19年(1564)	碑座荷葉	總高 237	楊州郡	
58	南舜民墓表	宣祖3年(1570)	碑座壺首	.	城南市	
59	邊安烈墓表	宣祖4年(1571)	碑座螭首	總高 325	南楊州郡	
60	李浣墓表	宣祖10年(1577)	碑座螭首	身高 123	安東郡	
61	鄭麟趾墓表	宣祖16年(1583)	.	身高 181	槐山郡	
62	金宗胤墓表	宣祖16年(1583)	碑座荷葉	身高 105	論山郡	
63	趙光祖墓表	宣祖18年(1585)	碑座圓首	總高 216.5	龍仁郡	
64	成渾墓表	宣祖22年(1589)	碑座蓋石	總高 230	坡州郡	
65	洪可臣墓表	宣祖23年(1590)	碑座圓首	身高 126.5	牙山郡	
66	俞泓墓表	宣祖29年(1596)	碑座蓋石	.	廣州郡	
67	宋惟毅墓表	宣祖38年(1605)	碑座荷葉	總高 245	楊州郡	
68	鄭惕墓表	宣祖41年以前(1608)	碑座圓首	總高 155	楊州郡	
69	市津宋氏墓表	光海君1年(1609)	碑座荷葉	身高 84	公州郡	鄭承周配
70	金盡善墓表	光海君3年頃(1611)	碑座蓋石	總高 217	南楊州郡	
71	趙忠秀墓表	光海君9年(1617)	碑座螭首	身高 123	禮山郡	
72	東萊鄭氏墓表	光海君14年(1622)	碑座圓首	總高 207	始興郡	柳自新配
73	韓致謙墓表	仁祖4年(1626)	碑座圓首	總高 161	城南市	
74	李順長墓表	仁祖6年(1628)	碑座圓首	總高 162	龍仁郡	
75	韓述墓表	仁祖7年(1629)	碑座圓首	總高 125	城南市	
76	楊士彦墓表	仁祖8年(1630)	碑座螭首	總高 187.5	抱川郡	
77	李碯墓表	仁祖9年(1631)	碑座圓首	總高 177	城南市	
78	金命元墓表	仁祖12年(1634)	碑座圓首	.	高陽市	
79	韓榮墓表	仁祖13年(1635)	碑座蓋石	總高 198	軍浦市	
80	李曙墓表	仁祖15年頃(1637)	碑座圓首	.	議政府市	
81	金綱墓表	仁祖16年(1638)	碑座蓋石	總高 206	華城郡	
82	趙希逸墓表	仁祖16年頃(1638)	碑座圓首	.	坡州郡	
83	李貴墓表	仁祖19年(1641)	碑座螭首	身高 110	公州郡	
84	光海君墓表	仁祖19年頃(1641)	碑座螭首	總高 199	南楊州郡	
85	韓應實墓表	仁祖20年(1642)	碑座圓首	.	華城郡	
86	陸進恭墓表	仁祖22年(1644)	碑座圓首	總高 142	서울市	
87	韓兩位墓表	仁祖22年(1644)	碑座圓首	總高 173	楊州郡	
88	李景稷墓表	仁祖24年(1646)	碑座圓首	總高 161	서울市	
89	鄭惟吉墓表	仁祖24年頃(1646)	碑座螭首	.	서울市	
90	姜鶴年墓表	仁祖25年頃(1647)	碑座螭首	身高 133	牙山郡	
91	李清臣墓表	仁祖27年(1649)	碑座圓首	總高 138	城南市	
92	李忱墓表	孝宗1年頃(1650)	碑座螭首	總高 131	議政府市	景明君
93	鄭昌衍墓表	孝宗6年頃(1655)	碑座螭首		서울市	
94	宋倫墓表	孝宗7年以前(1656)	碑座蓋石	身高 163	大田市	
95	安坦大墓表	孝宗7年(1656)	碑座圓首	總高 159	安山市	
96	李德洞墓表	孝宗8年(1657)	碑座圓首	總高 132	高陽市	
97	鄭震遠墓表	孝宗8年頃(1657)	碑座圓首	總高 135	華城郡	
98	南以雄墓表	孝宗9年(1658)	碑座圓首	身高 142	公州郡	
99	洪旦墓表	孝宗10年以前(1659)	碑座螭首	身高 127.5	燕岐郡	
100	李洎墓表	顯宗2年(1661)	碑座蓋石	總高 176	高陽市	

順位	表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101	金集墓表	顯宗3年(1662)	碑座奎首	身高 101.5	論山郡	
102	宋斯敏墓表	顯宗5年(1664)	碑座圓首	總高 116	楊州郡	
103	崔達源墓表	顯宗7年(1666)	碑座蓋石	身高 124	燕岐郡	
104	柳時行墓表	顯宗7年(1666)	碑座螭首	總高 142	安山市	
105	金長生墓表	顯宗7年(1666)	碑座蓋石	身高 131	論山郡	
106	韓德及墓表	顯宗8年(1667)	碑座圓首	總高 154	華城郡	
107	李基高墓表	顯宗9年(1668)	碑座蓋石	總高 150	坡州郡	
108	宋胤昌墓表	顯宗9年(1668)	碑座蓋石	身高 115	大田市	
109	金尙憲墓表	顯宗10年(1669)	碑座螭首	・	南楊州郡	
110	李元秀墓表	顯宗11年(1670)	碑座圓首	總高 148	坡州郡	
111	鄭保墓表	顯宗12年(1671)	碑座圓首	身高 153	龍仁郡	
112	李震白墓表	顯宗12年(1671)	碑座圓首	身高 131	瑞山郡	
113	鄭太和墓表	肅宗1年(1675)	碑座螭首	・	서울市	
114	申景禎墓表	肅宗1年(1675)	碑座蓋石	總高 194	서울市	
115	沈俊鶴墓表	肅宗6年(1680)	碑座圓首	・	麟蹄郡	
116	鄭福謙墓表	肅宗7年(1681)	碑座螭首	總高 175	華城郡	
117	李珙墓表	肅宗7年(1681)	碑座圓首	總高 169	議政府市	仁城君
118	許穆墓表	肅宗8年頃(1682)	碑座圓首	總高 156	漣川郡	
119	韓孝純墓表	肅宗9年(1683)	碑座圓首	總高 159	城南市	
120	韓明弼墓表	肅宗9年(1683)	碑座圓首	總高 125	城南市	
121	李時昉墓表	肅宗9年(1683)	碑座螭首	身高 118	保寧郡	
122	曹漢相墓表	肅宗12年(1686)	碑座圓首	・	華城郡	
123	南閻墓表	肅宗13年(1687)	碑座蓋石	身高 150	龍仁郡	
124	黃愼墓表	肅宗13年(1687)	碑座圓首	身高 120.5	扶餘郡	
125	李安訥墓表	肅宗13年(1687)	碑座圓首	身高 139	唐津郡	
126	金南重墓表	肅宗13年(1687)	碑座圓首	身高 162	燕岐郡	
127	金萬基墓表	肅宗13年頃(1687)	碑座圓首	・	華城郡	
128	鄭知和墓表	肅宗14年(1688)	碑座螭首	・	서울市	
129	金公輝墓表	肅宗15年(1689)	碑座蓋石	身高 104	論山郡	
130	吳翻墓表	肅宗16年(1690)	碑座螭首	總高 247	安城郡	
131	李尙眞墓表	肅宗16年頃(1690)	碑座蓋石	身高 120	扶餘郡	
132	安瀟慶墓表	肅宗18年(1692)	碑座圓首	總高 160	華城郡	
133	李俱墓表	肅宗19年頃(1693)	碑座蓋石	・	抱川郡	朗善君
134	洪柱天墓表	肅宗19年(1693)	碑座蓋石	・	高陽市	
135	金千齡墓表	肅宗21年(1695)	碑座圓首	總高 163	高陽郡	
136	李雋俊墓表	肅宗23年(1697)	碑座螭首	總高 234	利川郡	
137	金萬基墓表	肅宗25年(1699)	碑座圓首	・	華城郡	
138	李敏章墓表	肅宗25年(1699)	碑座圓首	總高 172	抱川郡	
139	李炯信墓表	肅宗27年(1701)	碑座圓首	總高 156	城南市	蓬山君
140	李塾墓表	肅宗27年(1701)	碑座圓首	總高 146	城南市	
141	尹集墓表	肅宗27年(1701)	碑座圓首	身高 146	扶餘郡	
142	李哲英墓表	肅宗28年(1702)	碑座圓首	總高 202	城南市	
143	娛嬪朴氏墓表	肅宗29年(1703)	碑座蓋石	身高 145	禮山郡	
144	權克和墓表	肅宗32年(1706)	碑座蓋石	身高 127	錦山郡	
145	金益勳墓表	肅宗33年(1707)	碑座蓋石	總高 260	廣州郡	
146	洪受寬墓表	肅宗34年(1708)	碑座蓋石	・	楊平郡	
147	李敬興墓表	肅宗34年(1708)	碑座圓首	總高 165	抱川郡	
148	金壽增墓表	肅宗36年(1710)	碑座蓋石	總高 192	南楊州郡	
149	宋浚吉墓表	肅宗37年(1711)	碑座蓋石	身高 140	大田市	
150	尹煌墓表	肅宗37年(1711)	碑座蓋石	身高 109	論山郡	

順位	表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151	李泳墓表	肅宗39年(1713)	碑座螭首	身高 107	公州郡	
152	趙聖期墓表	肅宗40年(1714)	碑座圓首	總高 158	華城郡	
153	李時萬墓表	肅宗41年(1715)	碑座蓋石	總高 279	鐵原郡	
154	金演墓表	肅宗41年(1715)	碑座蓋石	總高 214	坡州郡	
155	金萬塚墓表	肅宗42年(1716)	碑座蓋石	總高 228	廣州郡	
156	李珥墓表	肅宗42年(1716)	碑座圓首	總高 232	坡州郡	
157	李堯墓表	肅宗43年(1717)	碑座圓首	總高 149	龍仁郡	
158	李時白墓表	肅宗44年(1718)	碑座螭首	身高 113.5	天原郡	
159	李楫墓表	肅宗45年(1719)	碑座蓋石	身高 153	禮山郡	延齡君
160	金信忠墓表	肅宗45年(1719)	碑座圓首	總高 155	高陽市	
161	宋翼弼墓表	肅宗46年(1720)	碑座圓首	身高 129	唐津郡	
162	李夢尹墓表	肅宗46年(1720)	碑座圓首	總高 146	抱川郡	
163	尹理墓表	景宗1年(1721)	碑座圓首	總高 164	議政府市	
164	洪命一墓表	景宗1年(1721)	碑座蓋石	總高 221	楊州郡	
165	韓聖佑墓表	景宗2年(1722)	碑座蓋石	總高 267	始興郡	
166	鄭相墓表	英祖2年(1726)	碑座圓首	總高 155	龍仁郡	
167	柳禔墓表	英祖2年(1726)	碑座蓋石	總高 283	楊州郡	
168	洪萬朝墓表	英祖3年(1727)	碑座螭首	.	牙山郡	
169	金若時墓表	英祖3年(1727)	碑座圓首	總高 152	廣州郡	
170	李夏輔墓表	英祖3年(1727)	碑座蓋石	總高 168	饒旺市	
171	李頤命墓表	英祖3年(1727)	碑座圓首	身高 134.5	扶餘郡	
172	金昌國墓表	英祖4年(1728)	碑座蓋石	總高 203	南楊州郡	
173	俞命岳墓表	英祖7年(1731)	碑座蓋石	總高 200	鐵原郡	
174	宋遙年墓表	英祖8年(1732)	碑座蓋石	身高 145	大田市	
175	金柱臣墓表	英祖10年(1734)	碑座蓋石	身高 165	高陽市	
176	李伯麟墓表	英祖10年(1734)	碑座蓋石	總高 284	鐵原郡	
177	曹文秀墓表	英祖10年(1734)	碑座圓首	.	華城郡	
178	朴子墓表	英祖11年(1735)	碑座蓋石	總高 223	東豆川市	
179	宋時烈墓表	英祖12年(1736)	碑座蓋石	.	槐山郡	
180	吳履周墓表	英祖14年(1738)	碑座圓首	總高 217	安城郡	
181	李연墓表	英祖14年(1738)	碑座圓首	總高 225.5	議政府市	花昌君
182	魚有龜墓表	英祖16年(1740)	.	.	開城郡	
183	尙宮金氏墓表	英祖16年(1740)	碑座圓首	總高 179	高陽市	
184	趙正萬墓表	英祖17年頃(1741)	碑座圓首	.	仁川市	
185	徐閑墓表	英祖17年(1741)	碑座圓首	身高 119.6	禮山郡	
186	趙翼墓表	英祖21年以前(1745)	碑座蓋石	身高 186	禮山郡	
187	權尙游墓表	英祖21年(1745)	碑座蓋石	身高 129	錦山郡	
188	金佑明墓表	英祖23年(1747)	碑座圓首	.	春川郡	
189	臨昌君李焜墓表	英祖24年(1748)	碑座蓋石	總高 214	高陽郡	
190	杞溪俞氏墓表	英祖27年(1751)	碑座圓首	總高 134	城南市	李哲英配
191	金鎮圭墓表	英祖29年(1753)	碑座圓首	總高 183	大田市	
192	金若魯墓表	英祖31年(1755)	碑座蓋石	總高 226	果川市	
193	吳琬墓表	英祖35年(1759)	碑座圓首	總高 173	安城郡	
194	李周鎮墓表	英祖36年(1760)	碑座蓋石	總高 227	서울市	
195	方震燮墓表	英祖36年(1760)	碑座圓首	總高 157	高陽市	
196	宋炳夏墓表	英祖38年(1762)	碑座蓋石	身高 125	大田市	
197	李景輿墓表	英祖39年(1763)	碑座圓首	總高 187	城南市	
198	崇善君墓表	英祖42年(1766)	碑座圓首	身高 157	公州郡	
199	尹璫墓表	英祖42年(1766)	碑座蓋石	身高 139	坡州郡	
200	李鼎輔墓表	英祖42年(1766)	碑座蓋石	總高 232	利川郡	

順位	表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201	柳馨遠墓表	英祖44年(1768)	碑座圓首	總高 130	龍仁郡	
202	鄭亨復墓表	英祖45年(1769)	碑座蓋石	總高 175	高陽市	
203	韓德亮墓表	英祖45年(1769)	碑座圓首	總高 161	始興市	
204	俞拓基墓表	英祖45年(1769)	碑座蓋石	總高 200	鐵原郡	
205	洪智墓表	英祖46年(1770)	碑座圓首	總高 148	楊州郡	
206	尹斗墓表	英祖48年(1772)	碑座圓首	總高 167	高陽市	
207	完山李氏墓表	英祖49年(1773)	碑座蓋石	總高 217	儀旺市	金洙配
208	尹東度墓表	英祖51年(1775)	碑座蓋石	身高 160.5	論山郡	
209	鄭礪墓表	正祖3年(1779)	碑座蓋石	總高 238	楊州郡	
210	宋時烈墓表	正祖3年(1779)	碑座蓋石	身高 238	槐山郡	御製
211	金陽澤墓表	正祖4年(1780)	碑座圓首	總高 187	華城郡	
212	尹文舉墓表	正祖5年(1781)	碑座蓋石	身高 122	論山郡	
213	李惟澤墓表	正祖6年(1782)	碑座蓋石	身高 146.5	錦山郡	
214	李昌誼墓表	正祖10年(1786)	碑座蓋石	總高 273	鐵原郡	
215	趙重晦墓表	正祖10年(1786)	碑座圓首	總高 215	龍仁郡	
216	俞直基墓表	正祖11年(1787)	碑座蓋石	總高 245	安城郡	
217	鄭昌俞墓表	正祖14年(1790)	碑座蓋石	總高 232	楊州郡	
218	青松沈氏墓表	正祖14年(1790)	碑座圓首	總高 196	高陽市	鄭一祥配
219	金煜墓表	正祖16年(1792)	碑座蓋石	總高 252.5	高陽市	
220	鄭一祥墓表	正祖16年(1792)	碑座蓋石	總高 217	高陽市	
221	李時中墓表	正祖20年(1796)	碑座蓋石	.	서울市	
222	尹元舉墓表	正祖20年(1796)	碑座蓋石	.	公州郡	
223	韓翼墓表	正祖21年(1797)	碑座蓋石	總高 276	儀旺市	
224	李鳳祥墓表	正祖22年(1798)	碑座蓋石	身高 133.5	扶餘郡	
225	朴閔墓表	正祖22年(1798)	碑座圓首	總高 215	龍仁郡	
226	俞彦鍊墓表	正祖22年(1798)	碑座蓋石	總高 267	安城郡	
227	俞彦鎬墓表	正祖22年(1798)	碑座蓋石	總高 246	安城郡	
228	李福源墓表	正祖24年(1800)	碑座蓋石	總高 282	華城郡	
229	李亮臣墓表	純祖2年(1802)	碑座蓋石	總高 187	始興市	
230	金相翊墓表	純祖4年(1804)	碑座蓋石	總高 248	廣州郡	
231	李鶴齡墓表	純祖5年(1805)	碑座圓首	總高 157.5	서울市	
232	李有謙墓表	純祖5年(1805)	碑座圓首	總高 205	龍仁郡	
233	金聖澤墓表	純祖7年(1807)	碑座蓋石	總高 283	廣州郡	
234	金宗瑞墓表	純祖8年(1808)	碑座圓首	碑身 95.5	公州郡	
235	金鎮崙墓表	純祖17年(1817)	碑座蓋石	總高 241	平澤郡	
236	金萬謹墓表	純祖17年(1817)	碑座蓋石	總高 251	平澤郡	
237	金茂澤墓表	純祖18年(1818)	碑座蓋石	總高 263	平澤郡	
238	金漢蓋墓表	純祖21年(1821)	碑座蓋石	身高 140	禮山郡	
239	李時秀墓表	純祖22年(1822)	碑座蓋石	總高 255	華城郡	
240	金吉通墓表	純祖22年(1822)	碑座蓋石	總高 356	利川郡	
241	李天基墓表	純祖23年(1823)	碑座蓋石	總高 200	龍仁郡	
242	李勉兢墓表	純祖24年(1824)	碑座蓋石	總高 200	鐵原郡	
243	柳成龍墓表	純祖24年(1824)	碑座圓首	身高 124	安東市	
244	李遠墓表	純祖26年(1826)	碑座蓋石	.	春川郡	
245	鄭民始墓表	純祖26年(1826)	碑座蓋石	總高 253	楊州郡	
246	洪翼漢墓表	純祖31年(1831)	碑座蓋石	總高 187	平澤郡	
247	朴仁老墓表	純祖31年(1831)	.	身高 113	永川郡	
248	洪良浩墓表	純祖32年(1832)	.	.	天安郡	
249	鄭燦欽墓表	憲宗9年(1843)	碑座圓首	總高 190	安山市	
250	李薰墓表	憲宗11年(1845)	碑座圓首	總高 208	城南市	正義君

順位	表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251	金立輝墓表	憲宗13年(1847)	碑座蓋石	身高 121	論山郡	
252	趙萬永墓表	憲宗14年(1848)	碑座蓋石	.	春川郡	
253	順興安氏墓表	憲宗15年(1849)	碑座蓋石	總高 225	軍浦市	徐信修配
254	金致仁墓表	哲宗1年(1850)	碑座蓋石	總高 265	始興郡	
255	鄭鴻慶墓表	哲宗3年(1852)	方趺直首	總高 183	安山市	
256	李釋之墓表	哲宗5年(1854)	碑座蓋石	.	龍仁郡	
257	李榮墓表	哲宗6年(1855)	碑座螭首	總高 172	城南市	
258	方禹疇墓表	哲宗6年(1855)	碑座圓首	總高 159	高陽市	
259	洪大容墓表	哲宗8年(1857)	碑座蓋石	身高 127	天原郡	
260	尹行直墓表	哲宗8年(1857)	碑座蓋石	總高 203	始興市	
261	金命淵墓表	哲宗9年(1858)	碑座蓋石	總高 170	軍浦市	
262	吳斗奎墓表	哲宗9年(1858)	碑座螭首	總高 244	安城郡	
263	金世淵墓表	哲宗13年(1862)	碑座蓋石	總高 198	饒旺市	
264	南秉哲墓表	高宗1年(1864)	碑座蓋石	總高 248	南楊州郡	
265	李球墓表	高宗2年(1865)	碑座蓋石	身高 150	禮山郡	南延君
266	金應根墓表	高宗3年(1866)	碑座蓋石	總高 250	楊州郡	
267	金左根墓表	高宗6年(1869)	碑座蓋石	總高 250	利川郡	
268	李昌應墓表	高宗9年(1872)	碑座蓋石	身高 128	禮山郡	
269	金東獻墓表	高宗9年(1872)	碑座蓋石	總高 183	軍浦市	
270	沈宜晉墓表	高宗11年(1874)	碑座蓋石	總高 308	城南市	
271	金炳翼墓表	高宗15年(1878)	碑座蓋石	總高 228	利川郡	
272	杞溪俞氏墓表	高宗15年(1878)	碑座圭首	身高 81	論山郡	金集配
273	安瑯墓表	高宗19年(1882)	碑座蓋石	總高 196	廣州郡	
274	成念祖墓表	高宗25年(1888)	碑座圓首	總高 171	坡州郡	
275	趙斗淳墓表	高宗25年(1888)	碑座蓋石	身高 145.7	青陽郡	
276	鄭聘壽墓表	光武3年(1899)	碑座蓋石	總高 246	平澤郡	
277	宋文欽墓表	光武8年(1904)	碑座蓋石	身高 140	論山郡	
278	沈龜齡墓表	光武9年(1905)	碑座蓋石	總高 193	廣州郡	
279	李滉墓表	光武9年(1905)	碑座螭首	身高 123	安東市	
280	金龍墓表	隆熙2年(1908)	碑座圓首	總高 119	高陽市	

〈丑8〉 陵表 目錄

順位	表 題	年 代	樣 式	高	所在地	備考
1	淑陵表	太祖2年(1393)	・	・	文川郡	翼祖妃 貞淑王后
2	寧陵表	顯宗15年(1674)	碑座蓋石	身高 197.5	驪州郡	孝宗・仁宣王后
3	懿陵表	景宗4年(1724)	碑座蓋石	身高 183	서울市	景宗・繼妃 宣懿王后
4	長陵表	英祖7年(1731)	碑座蓋石	身高 201	坡州郡	仁祖・仁烈王后
5	莊陵表	英祖9年(1733)	碑座蓋石	・	寧越郡	端宗
6	英陵表	英祖21年(1745)	碑座蓋石	身高 195.5	驪州郡	世宗・昭憲王后
7	徽陵表	英祖23年(1747)	碑座蓋石	身高 158	九里市	仁祖繼妃 莊烈王后
8	惠陵表	英祖23年(1747)	碑座蓋石	身高 160	九里市	景宗妃 端懿王后
9	穆陵表	英祖23年(1747)	碑座蓋石	身高 178.5	九里市	宣祖・懿仁王后 繼妃 仁穆王后
10	章陵表	英祖29年(1753)	碑座蓋石	身高 151	金浦郡	元宗・仁獻王后
11	泰陵表	英祖29年(1753)	碑座蓋石	身高 144	서울市	中宗繼妃 文定王后
12	康陵表	英祖29年(1753)	碑座蓋石	身高 135	서울市	明宗・仁順王后
13	禧陵表	英祖29年(1753)	碑座蓋石	身高 142	高陽郡	中宗繼妃・章敬王后
14	孝陵表	英祖29年(1753)	碑座蓋石	身高 139	高陽郡	仁宗・仁聖王后
15	靖陵表	英祖31年(1755)	碑座蓋石	身高 153	서울市	中宗
16	厚陵表	英祖31年(1755)	・	・	長湍郡	定宗・定安王后
17	宣陵表	英祖31年(1755)	碑座蓋石	身高 150	서울市	成宗・繼妃 貞顯王后
18	顯陵表	英祖31年(1755)	碑座蓋石	身高 132	九里市	文宗・顯德王后
19	光陵表	英祖31年(1755)	碑座蓋石	身高 148	南楊州郡	世祖・貞熹王后
20	敬陵表	英祖31年(1755)	碑座蓋石	身高 157	高陽郡	德宗・昭惠王后
21	昌陵表	英祖31年(1755)	碑座蓋石	身高 132	高陽郡	睿宗・繼妃 安順王后
22	思陵表	英祖47年(1771)	碑座蓋石	身高 152	南楊州郡	端宗妃 定順王后
23	永陵表	正祖4年頃(1782)	碑座蓋石	總高 271.5	坡州郡	眞宗・孝純昭皇后
24	永陵表	正祖9年(1785)	碑座蓋石	總高 279	坡州郡	眞宗・孝純昭皇后
25	弘陵表	正祖9年(1785)	碑座蓋石	・	高陽市	英祖妃 貞聖王后
26	溫陵表	純祖7年(1807)	碑座蓋石	身高 152	楊州郡	中宗妃 端敬王后
27	恭陵表	純祖17年(1817)	碑座蓋石	身高 159	坡州郡	睿宗妃 章順王后
28	順陵表	純祖17年(1817)	碑座蓋石	身高 164	坡州郡	成宗妃 恭惠王后
29	仁陵表	哲宗8年(1857)	碑座蓋石	總高 382	서울市	純祖・純元肅皇后
30	元陵表	高宗27年(1890)	碑座蓋石	身高 173	九里市	英祖・繼妃 貞純王后
31	綏陵表	高宗27年(1890)	碑座蓋石	身高 232	九里市	文祖・神貞翼皇后
32	健元陵表	高宗37年(1900)	碑座蓋石	身高 230	九里市	太祖
33	貞陵表	光武4年(1900)	碑座蓋石	總高 282	서울市	太祖妃 神德高皇后
34	隆陵表	光武4年(1900)	碑座蓋石	・	華城郡	莊祖・獻敬懿皇后
35	齊陵表	光武4年(1900)	碑座蓋石	・	開城郡	太祖妃 神懿高皇后
36	健陵表	光武4年(1900)	碑座蓋石	・	華城郡	正祖・孝懿宣皇后
37	淑陵表	光武5年(1901)	碑座蓋石	・	文川郡	翼祖妃 貞淑王后
38	永陵表	隆熙2年(1908)	碑座蓋石	總高 311	坡州郡	眞宗・孝純昭皇后
39	崇陵表	肅宗代 推定	碑座蓋石	身高 159.5	九里市	顯宗・明聖王后
40	明陵表	英祖代 推定	碑座蓋石	身高 160	高陽郡	肅宗・繼妃 仁顯王后 繼妃 仁元王后
41	翼陵表	英祖代 推定	碑座蓋石	身高 160	高陽郡	肅宗妃 仁敬王后

〈丑9〉 墓碣 目錄

順位	碣題	年代	樣式	高	所在地	備考
1	順興安氏墓碣	成宗23年(1492)	碑座螭首	・	서울市	韓致禮配
2	李孝植墓碣	燕山君4年(1498)	碑座螭首	總高 210	漣川郡	竺山君
3	韓致義夫人墓碣	中宗3年(1508)	碑座螭首	總高 208	軍浦市	
4	韓致義墓碣	中宗3年(1508)	碑座螭首	總高 235	軍浦市	
5	宋叔琪墓碣	中宗10年以前(1515)	碑座荷葉	總高 268	軍浦市	
6	李長生墓碣	中宗20年(1525)	碑座荷葉	身高 130	論山郡	
7	鄭光輔墓碣	中宗20年(1525)	龜趺螭首	總高 274	華城郡	
8	沈順門墓碣	中宗24年(1529)	碑座螭首	總高 194	金浦郡	
9	李允濯墓碣	中宗31年(1536)	碑座奎首	身高 143.5	서울市	
10	海州崔氏墓碣	中宗34年(1539)	碑座圓首	總高 167	龍仁市	李孝篤配
11	韓亨元墓碣	中宗39年(1544)	碑座螭首	・	高陽市	
12	李彦洪墓碣	明宗3年(1548)	碑座螭首	總高 213	高陽市	
13	趙翊墓碣	明宗4年(1549)	碑座圓首	總高 169	坡州郡	
14	韓琦墓碣	明宗5年(1550)	碑座荷葉	・	高陽市	
15	韓亨墓碣	明宗15年(1560)	碑座螭首	總高 223	楊州郡	
16	金生海墓碣	明宗17年(1562)	碑座螭首	總高 217.5	南楊州郡	
17	宋之翰墓碣	明宗19年(1564)	碑座圓首	總高 237	楊州郡	
18	金弘胤墓碣	宣祖7年(1574)	碑座圓首	・	楊州郡	
19	李之英墓碣	宣祖12年(1579)	碑座螭首	身高 110	舒川郡	
20	沈守慶墓碣	宣祖12年(1579)	碑座圓首	・	서울市	
21	沈思順墓碣	宣祖12年(1579)	・	・	서울市	
22	尹儼墓碣	宣祖15年(1582)	碑座圓首	總高 172	始興市	
23	鄭裕墓碣	宣祖18年(1585)	碑座圓首	總高 176	水原市	
24	朴世蕤墓碣	宣祖18年以前(1585)	碑座蓋石	・	高陽市	
25	李億載墓碣	宣祖19年(1586)	碑座螭首	總高 257	光明市	咸川君
26	鄭姬隣墓碣	宣祖20年(1587)	碑座圓首	總高 166	水原市	
27	沈貞墓碣	宣祖34年(1601)	・	總高 156	서울市	
28	崔灝墓碣	光海君3年(1611)	碑座蓋石	・	楊州郡	
29	閔純墓碣	光海君3年(1611)	碑座圓首	總高 115	京畿1	
30	任重臣墓碣	光海君9年(1617)	碑座圓首	總高 180	楊州郡	
31	鄭澤雷墓碣	仁祖2年(1624)	碑座圓首	身高 143.5	扶餘郡	
32	沈友俊墓碣	仁祖3年(1625)	碑座螭首	總高 193	果川市	
33	陽川許氏墓碣	仁祖13年(1635)	碑座蓋石	身高 134.5	論山郡	金問配
34	金行墓碣	仁祖14年(1636)	龜趺螭首	身高 121	坡州郡	
35	金殷輝墓碣	仁祖14年(1636)	碑座螭首	身高 132	論山郡	
36	李炯信墓碣	仁祖16年(1638)	碑座蓋石	總高 244	城南市	
37	南斗長墓碣	仁祖19年(1641)	碑座蓋石	總高 194	金浦郡	
38	張廉墓碣	仁祖23年(1645)	碑座圓首	身高 160	鐵原郡	
39	金鎮墓碣	仁祖25年(1647)	碑座圓首	總高 145	坡州郡	
40	吳允謙墓碣	仁祖25年(1647)	碑座圓首	總高 250	龍仁郡	
41	成守琛墓碣	孝宗2年(1651)	碑座蓋石	總高 244	坡州郡	
42	李時稷墓碣	孝宗4年(1653)	碑座蓋石	總高 230	龍仁郡	
43	高興柳氏墓碣	孝宗8年(1657)	碑座蓋石	身高 126	大田市	宋克己配
44	李自堅墓碣	顯宗1年(1660)	碑座圓首	總高 169.5	龍仁郡	
45	洪命元墓碣	顯宗2年(1661)	碑座圓首	總高 169	安山市	
46	成運墓碣	顯宗4年(1663)	・	身高 181	報恩郡	
47	趙塔墓碣	顯宗6年(1665)	碑座圓首	總高 201	坡州郡	
48	李元俊墓碣	顯宗11年(1670)	碑座蓋石	・	龍仁市	
49	元天錫墓碣	顯宗11年(1670)	碑座圓首	・	原州郡	
50	李晬墓碣	顯宗13年以前(1672)	碑座圓首	總高 171	城南市	龜川君

順位	碣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51	南挺華墓碣	肅宗5年(1679)	碑座圓首	總高 134	金浦郡	
52	靜嬪閔氏墓碣	肅宗5年(1679)	碑座圓首	總高 171	議政府市	
53	李瑛墓碣	肅宗8年(1682)	碑座螭首	・	抱川郡	仁興君
54	崔有海墓碣	肅宗9年(1683)	碑座蓋石	・	楊州郡	
55	朴尙衷墓碣	肅宗11年(1685)	碑座蓋石	總高 210	金浦郡	
56	權偉中墓碣	肅宗11年以前(1685)	碑座蓋石	總高 230	서울市	
57	昌寧成氏墓碣	肅宗12年(1686)	碑座奎首	總高 177	抱川郡	朗善君配
58	韓壽遠墓碣	肅宗12年(1686)	碑座蓋石	總高 292	華城郡	
59	宋國銓墓碣	肅宗13年(1687)	碑座蓋石	身高 152	大田市	
60	申砬墓碣	肅宗14年(1688)	碑座蓋石	總高 275	廣州郡	
61	金一振墓碣	肅宗17年(1691)	碑座蓋石	總高 284	高陽郡	
62	李敬仁墓碣	肅宗18年(1692)	碑座圓首	總高 148	城南市	
63	權擘墓碣	肅宗21年(1695)	碑座圓首	總高 207	高陽郡	
64	李迥墓碣	肅宗22年(1696)	碑座蓋石	總高 233	서울市	
65	鄭得說墓碣	肅宗26年(1700)	碑座蓋石	身高 151	扶餘郡	
66	洪處亮墓碣	肅宗26年(1700)	碑座蓋石	總高 229	楊州郡	
67	李元哲墓碣	肅宗27年(1701)	碑座圓首	總高 198	城南市	
68	權謂墓碣	肅宗27年(1701)	碑座圓首	身高 163	舒川郡	
69	任允錫墓碣	肅宗27年(1701)	碑座蓋石	總高 277	楊州郡	
70	李義吉墓碣	肅宗28年(1702)	碑座蓋石	身高 229.4	青陽郡	
71	李祐墓碣	肅宗29年(1703)	碑座蓋石	總高 207	廣州郡	
72	吳斗興墓碣	肅宗30年(1704)	碑座蓋石	總高 303	安城郡	
73	尙州黃氏墓碣	肅宗31年(1705)	碑座蓋石	總高 278	華城郡	吳斗寅三配
74	沈誦墓碣	肅宗31年(1705)	碑座圓首	總高 183	安城郡	
75	洪處大墓碣	肅宗32年(1706)	碑座蓋石	・	楊平郡	
76	曠興閔氏墓碣	肅宗32年(1706)	碑座蓋石	總高 212	安城郡	吳斗寅元配
77	李永輝墓碣	肅宗32年(1706)	碑座蓋石	・	서울市	
78	宋栢壽墓碣	肅宗33年(1707)	碑座蓋石	身高 146	大田市	
79	羅星斗墓碣	肅宗34年(1708)	碑座蓋石	總高 266	九里市	
80	李杭墓碣	肅宗37年(1711)	碑座蓋石	總高 236	金浦郡	
81	柳尙運墓碣	肅宗38年(1712)	碑座蓋石	總高 350	楊平郡	
82	崔岌墓碣	肅宗41年(1715)	碑座圓首	總高 141	高陽市	
83	金洪福墓碣	肅宗42年(1716)	碑座蓋石	總高 248	南楊州郡	
84	閔燾墓碣	肅宗43年(1717)	碑座蓋石	總高 256	金浦郡	
85	吳泰周墓碣	肅宗46年(1720)	碑座蓋石	總高 214	華城郡	
86	魚震陟墓碣	景宗1年(1721)	碑座蓋石	・	高陽市	
87	趙鎰墓碣	景宗1年(1721)	碑座蓋石	總高 300	坡州郡	
88	鄭道亨墓碣	英祖2年(1726)	碑座螭首	總高 221	金浦郡	
89	洪翼漢墓碣	英祖2年(1726)	・	身高 229	平澤郡	
90	李慶洸墓碣	英祖4年(1728)	碑座蓋石	總高 275	城南市	
91	李慶億墓碣	英祖5年(1729)	碑座蓋石	身高 113	燕岐郡	
92	柳自湄墓碣	英祖5年(1729)	碑座蓋石	總高 240	楊州郡	
93	金敬直墓碣	英祖7年(1731)	碑座蓋石	・	春川郡	
94	徐益墓碣	英祖8年(1732)	碑座荷葉	身高 116	論山郡	
95	俞命岳墓碣	英祖11年(1735)	碑座蓋石	身高 176	鐵原郡	
96	宋基學墓碣	英祖12年(1736)	碑座蓋石	身高 137	大田市	
97	趙景望墓碣	英祖13年(1737)	碑座蓋石	總高 285	坡州郡	
98	趙瑗墓碣	英祖13年(1737)	碑座蓋石	總高 310	坡州郡	
99	趙世發墓碣	英祖16年(1740)	碑座蓋石	總高 249	金浦郡	
100	俞大備墓碣	英祖16年(1740)	碑座圓首	身高 127	扶餘郡	

順位	碣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101	李曙墓碣	英祖18年(1742)	碑座蓋石	.	錦山郡	
102	豐山洪氏墓碣	英祖21年(1745)	碑座蓋石	.	서울市	李習元配
103	趙昱墓碣	英祖21年(1745)	碑座蓋石	總高 230	楊平郡	
104	李至男墓碣	英祖22年(1746)	碑座圓首	總高 186	坡州郡	
105	徐晉履墓碣	英祖24年(1748)	碑座蓋石	身高 190	楊平郡	
106	李珙墓碣	英祖27年(1751)	碑座蓋石	總高 361	議政府市	仁城君
107	吳鼎周墓碣	英祖28年(1752)	碑座圓首	總高 216	安城郡	
108	趙楷墓碣	英祖28年(1752)	碑座蓋石	總高 304	安城郡	
109	仁華李氏墓表	英祖30年(1754)	碑座圓首	總高 135	河南省	廣州李氏始祖妣
110	俞命健墓碣	英祖34年(1758)	碑座蓋石	總高 275	安城郡	
111	洪禹寧墓碣	英祖35年以前(1759)	.	.	楊平郡	
112	李禮堅墓碣	英祖39年(1763)	碑座蓋石	總高 213	龍仁郡	
113	閔埤墓碣	英祖39年(1763)	碑座圓首	總高 168	金浦郡	
114	李顯應墓碣	英祖43年(1767)	碑座蓋石	總高 176	서울市	
115	李柙墓碣	英祖43年(1767)	碑座蓋石	.	서울市	
116	權今墓碣	英祖50年(1774)	碑座蓋石	總高 194	金浦郡	
117	金尙星墓碣	正祖2年(1778)	碑座蓋石	總高 285	漣川郡	
118	方泰興墓碣	正祖8年(1784)	碑座圓首	總高 156	高陽市	
119	鄭亨復墓碣	正祖13年(1789)	碑座蓋石	總高 238	高陽市	
120	徐命九墓碣	正祖15年(1791)	碑座蓋石	總高 297	抱川郡	
121	李吉輔墓碣	正祖15年(1791)	碑座蓋石	總高 264	金浦郡	
122	金壽恒墓碣	正祖16年(1792)	碑座蓋石	總高 238	南楊州郡	
123	洪萬恢墓碣	正祖17年(1793)	碑座蓋石	.	서울市	
124	金忠伯墓碣	正祖17年(1793)	碑座蓋石	總高 226	始興郡	
125	李昌運墓碣	正祖22年(1798)	碑座蓋石	總高 298	華城郡	
126	吳瑗墓碣	純祖5年(1805)	碑座蓋石	總高 275	華城郡	
127	宋明欽墓碣	純祖6年(1806)	碑座蓋石	身高 167	燕岐郡	
128	趙仁賓墓碣	純祖8年(1808)	碑座蓋石	總高 228	楊平郡	
129	原州元氏墓碣	純祖10年(1810)	碑座蓋石	總高 212	驪州郡	朴準源配
130	徐起墓碣	純祖15年(1815)	碑座圓首	身高 125	公州郡	
131	李命熙墓碣	純祖19年(1819)	碑座蓋石	身高 165	天原郡	
132	趙始久墓碣	純祖21年(1821)	碑座蓋石	身高 139	扶餘郡	
133	李晚秀墓碣	純祖22年(1822)	碑座蓋石	總高 301	華城郡	
134	李書九墓碣	純祖26年(1826)	碑座蓋石	.	春川郡	
135	趙亨生墓碣	純祖32年(1832)	碑座蓋石	總高 204	楊平郡	
136	尹敬敦墓碣	憲宗11年(1845)	碑座蓋石	身高 160	論山郡	
137	金鐵山墓碣	憲宗14年(1848)	碑座蓋石	身高 141	論山郡	
138	李弘遼墓碣	高宗16年(1879)	碑座蓋石	身高 134	扶餘郡	
139	林鵬祥墓碣	高宗27年(1890)	碑座蓋石	身高 168	扶餘郡	
140	金益秋墓碣	高宗28年(1891)	碑座蓋石	身高 156	論山郡	
141	宋應漑墓碣	光武1年(1897)	自然石蓋石	身高 129	大田市	

〈丑10〉 神道碑 目錄

順位	碑題	年代	樣式	高	所在地	備考
1	定陵神道碑	太祖2年(1393)	・	・	咸興郡	桓祖
2	齊陵神道碑	太宗1年(1401)	・	・	開城郡	神懿王后
3	李挺神道碑	太宗3年(1403)	・	・	鎮川郡	
4	健元陵神道碑	太宗8年(1408)	龜趺螭首	・	九里市	太祖
5	河允濟神道碑	太宗13年(1413)	碑座荷葉	總高 305	晉陽郡	
6	誠寧大君神道碑	太宗18年(1418)	龜趺蓋石	總高 300	高陽郡	
7	獻陵神道碑	世宗6年(1424)	龜趺螭首	身高 280	서울市	
8	權近神道碑	世宗29年(1447)	碑座螭首	身高 217	陰城郡	
9	英陵神道碑	文宗2年(1452)	龜趺螭首	總高 507	서울市	
10	尹瓘神道碑	端宗2年(1454)	碑座螭首	・	楊州郡	
11	安崇善神道碑	世祖2年以前(1456)	碑座荷葉	・	坡州郡	
12	安孟聘神道碑	世祖12年(1466)	龜趺螭首	總高 382	서울市	
13	權擘神道碑	世祖13年(1467)	・	・	中原郡	
14	黃守身神道碑	睿宗1年(1469)	碑座奎首	總高 216	坡州郡	
15	具致寬神道碑	成宗1年(1470)	碑座奎首	・	廣州郡	
16	朴元亨神道碑	成宗2年(1471)	碑座圓首	身高 80	龍仁郡	
17	韓繼美神道碑	成宗3年(1472)	碑座螭首	總高 281	高陽郡	
18	申叔舟神道碑	成宗7年頃(1476)	碑座荷葉	總高 247	議政府市	
19	朴仲孫神道碑	成宗15年以前(1484)	碑座荷葉	身高 189	坡州郡	
20	尹三山神道碑	成宗17年(1486)	碑座螭首	總高 217	安城郡	
21	韓繼禧神道碑	成宗19年頃(1488)	碑座荷葉	總高 220	城南市	
22	黃致身神道碑	成宗19年(1488)	碑座螭首	總高 283	高陽郡	
23	韓明澮神道碑	成宗19年(1488)	碑座螭首	身高 195	天原郡	
24	姜希孟神道碑	成宗19年(1488)	碑座螭首	總高 238	始興郡	
25	尹子雲神道碑	成宗20年以前(1489)	碑座螭首	總高 307	楊州郡	
26	魚有沼神道碑	成宗20年경(1489)	碑座荷葉	身高 158	東豆川市	
27	月山大君神道碑	成宗20年(1489)	碑座螭首	總高 365	高陽郡	
28	朴仲善神道碑	成宗21年(1490)	碑座螭首	總高 326	南楊州郡	
29	洪應神道碑	成宗23年(1492)	碑座荷葉	總高 310	九里市	
30	韓確神道碑	燕山君1年(1495)	碑座螭首	身高 257.5	南楊州郡	
31	李克培神道碑	燕山君2年(1496)	碑座螭首	・	서울市	
32	南陽府夫人洪氏神道碑	燕山君3年(1497)	・	身高 200	楊州郡	
33	永膺大君神道碑	燕山君4年(1498)	龜趺螭首	總高 272	始興郡	
34	盧思愼神道碑	燕山君6年(1500)	・	總高 326	坡州郡	
35	黃喜神道碑	燕山君6年(1500)	碑座奎首	總高 222	坡州郡	
36	成任神道碑	燕山君6年(1500)	碑座蓋石	總高 256	坡州郡	
37	金謹神道碑	燕山君代	・	身高 193	坡州郡	
38	孫舜孝神道碑	燕山君代	・	總高 360	中原郡	
39	韓致禮神道碑	中宗2年以前(1507)	碑座螭首	・	서울市	
40	金謙光神道碑	中宗2年(1507)	碑座螭首	身高 166	論山郡	
41	韓斯文神道碑	中宗3年(1508)	碑座螭首	總高 205	城南市	
42	朴元宗神道碑	中宗6年(1511)	碑座螭首	總高 327	南楊州郡	
43	金友臣神道碑	中宗6年(1511)	碑座螭首	總高 297	高陽市	
44	洪常神道碑	中宗9年(1514)	碑座螭首	總高 243	九里市	
45	卞宗仁神道碑	中宗10年以前(1515)	碑座荷葉	總高 290	富川市	
46	朴元宗神道碑	中宗14年(1519)	碑座螭首	總高 325	南楊州郡	
47	申沆神道碑	中宗14年(1519)	龜趺螭首	總高 284	議政府市	
48	尹孝孫神道碑	中宗14年(1519)	龜趺螭首	總高 527	求禮郡	
49	沈應神道碑	中宗19年(1524)	碑座螭首	總高 224	金浦郡	
50	鄭蘭宗神道碑	中宗20年(1525)	碑座螭首	總高 318	華城郡	

順位	碑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51	梁誠之神道碑	中宗22年以前(1527)	碑座螭首	總高 268	金浦郡	
52	申用漑神道碑	中宗22年以前(1527)	碑座螭首	身高 256	東豆川市	
53	權鈞神道碑	中宗24年(1529)	龜趺螭首	總高 277	利川郡	
54	任由謙神道碑	中宗29年以前(1534)	碑座蓋石	總高 274	楊州郡	
55	洪貴達神道碑	中宗30年(1535)	.	身高 231	開慶郡	
56	韓世桓神道碑	中宗31年(1536)	自然石螭首	總高 183	楊州郡	
57	姜澈神道碑	中宗31年(1536)	.	身高 136	始興市	
58	李悛神道碑	中宗31年頃(1536)	碑座螭首	總高 188	高陽市	德豐君
59	尹萱神道碑	中宗38年(1543)	龜趺螭首	.	烏山市	
60	申用漑神道碑	中宗代	.	身高 186	東豆川市	
61	宋軼神道碑	明宗1年(1545)	碑座蓋石	身高 192	楊州郡	
62	李陌神道碑	明宗3年頃(1548)	碑座螭首	總高 258	城南市	
63	任樞神道碑	明宗5年(1550)	碑座蓋石	總高 210	楊州郡	
64	尹殷輔神道碑	明宗6年(1551)	龜趺螭首	總高 347	議政府市	
65	李愼神道碑	明宗11年(1556)	碑座螭首	總高 170	高陽市	利城君
66	沈連源神道碑	明宗15年(1560)	龜趺螭首	總高 427	金浦郡	
67	任權神道碑	明宗15年(1560)	碑座蓋石	總高 296	楊州郡	
68	李原神道碑	明宗15年(1560)	碑座蓋石	總高 279	城南市	
69	蘇世讓神道碑	明宗17年(1562)	.	身高 218	益山郡	
70	鄭光弼神道碑	明宗17年(1562)	碑座螭首	總高 342	華城郡	
71	沈德符神道碑	明宗18年(1563)	碑座螭首	總高 261	漣川郡	
72	沈連源神道碑	明宗18年(1563)	碑座螭首	總高 273	金浦郡	
73	李璣神道碑	明宗18年以前(1563)	碑座螭首	總高 243	高陽市	坡林君
74	柳辰全神道碑	明宗18年(1563)	碑座蓋石	總高 227	高陽郡	
75	尙震神道碑	明宗21年(1566)	碑座蓋石	總高 362	서울市	
76	李賢輔神道碑	明宗21年(1566)	.	身高 201	安東郡	
77	申瑛神道碑	宣祖6年(1573)	碑座圓首	總高 292	金浦郡	
78	成世昌神道碑	宣祖6年(1573)	碑座荷葉	總高 318.5	坡州郡	
79	德興大院君神道碑	宣祖6年(1573)	龜趺蓋石	總高 376	南楊州郡	
80	李箕神道碑	宣祖7年(1574)	碑座圓首	總高 225	서울市	
81	李潯神道碑	宣祖7年(1574)	碑座蓋石	總高 247	서울市	永順君
82	廣平大君神道碑	宣祖7年(1574)	碑座蓋石	總高 255	서울市	
83	任虎臣神道碑	宣祖7年(1574)	碑座蓋石	總高 277	楊州郡	
84	沈通源神道碑	宣祖8年(1575)	龜趺螭首	總高 343	抱川郡	
85	李彦迪神道碑	宣祖10年(1577)	.	身高 188	月城郡	
86	趙光祖神道碑	宣祖13年(1580)	碑座圓首	身高 245	龍仁郡	
87	沈思遜神道碑	宣祖13年(1580)	碑座螭首	總高 311	서울市	
88	魚季瑄神道碑	宣祖14年(1581)	碑座圓首	總高 210	高陽郡	
89	許曄神道碑	宣祖15年(1582)	碑座蓋石	身高 173	龍仁郡	
90	朴世榮神道碑	宣祖15年(1582)	碑座螭首	總高 232	高陽郡	
91	李麟神道碑	宣祖15年(1582)	碑座圓首	總高 230	高陽市	桂原君
92	金鎬神道碑	宣祖16年(1583)	碑座螭首	身高 126	論山郡	
93	丁玉亨神道碑	宣祖17年(1584)	.	.	龍仁郡	
94	趙光祖神道碑	宣祖18年(1585)	碑座圓首	身高 245	龍仁郡	
95	徐敬德神道碑	宣祖18年(1585)	.	.	開城郡	
96	洪暹神道碑	宣祖19年(1586)	碑座蓋石	總高 288	華城郡	
97	俞汝霖神道碑	宣祖19年(1586)	碑座螭首	總高 272	高陽郡	益陽君
98	許琮神道碑	宣祖19年(1586)	.	.	長湍郡	
99	李懷神道碑	宣祖20年(1587)	碑座螭首	.	坡州郡	
100	沈綱神道碑	宣祖29年(1596)	龜趺螭首	總高 222	金浦郡	

順位	碑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101	李夢亮神道碑	宣祖37年(1604)	碑座圓首	總高 217	抱川郡	
102	金繼輝神道碑	宣祖37年(1604)	碑座螭首	身高 185.5	論山郡	
103	曹繼商神道碑	宣祖38年以前(1605)	碑座螭首	總高 254	華城郡	
104	權常神道碑	宣祖39年(1606)	・	總高 264	金浦郡	
105	金詮神道碑	光海君3年(1611)	碑座螭首	總高 285	高陽郡	
106	朴栗神道碑	光海君4年(1612)	碑座蓋石	總高 273	楊州郡	
107	定陵神道碑	光海君4年(1612)	・	・	咸興郡	再立
108	李希儉神道碑	光海君5年(1613)	碑座圓首	・	楊州郡	
109	曹夢禎神道碑	光海君7年(1615)	碑座圓首	總高 232	城南市	
110	沈逢源神道碑	光海君7年(1615)	碑座螭首	總高 216	高陽市	
111	洪履祥神道碑	光海君9年(1617)	龜趺螭首	總高 323	高陽郡	
112	柳自新神道碑	光海君9年(1617)	龜趺螭首	總高 410	始興市	
113	朴忠元神道碑	光海君9年(1617)	碑座圓首	總高 256	高陽市	
114	李鎰神道碑	光海君10年以前(1618)	碑座蓋石	總高 359	南楊州郡	河原君
115	徐訥神道碑	光海君10年以前(1618)	碑座螭首	身高 135	龍仁市	
116	丁胤福神道碑	光海君11年(1619)	碑座螭首	總高 331	龍仁郡	
117	黃衡神道碑	光海君13年(1621)	碑座圓首	總高 232	江華郡	
118	李樹神道碑	光海君14年(1622)	龜趺螭首	總高 279	坡州郡	
119	鄭昌孫神道碑	仁祖1年(1623)	碑座圓首	總高 222	楊平郡	
120	權撥神道碑	仁祖1年(1623)	・	身高 237	奉化郡	
121	金悌男神道碑	仁祖2年(1624)	龜趺螭首	・	原州市	
122	李石亨神道碑	仁祖2年(1624)	碑座圓首	身高 210	龍仁郡	
123	韓孝胤神道碑	仁祖4年(1626)	龜趺螭首	總高 308	驪州郡	
124	金宏弼神道碑	仁祖4年(1626)	・	身高 187	達城郡	
125	申錦神道碑	仁祖6年(1628)	龜趺螭首	總高 295	서울市	
126	李濟臣神道碑	仁祖6年(1628)	碑座螭首	總高 311	楊平郡	
127	韓浚謙神道碑	仁祖7年(1629)	龜趺螭首	總高 345	始興市	
128	李珥神道碑	仁祖9年(1631)	碑座圓首	身高 225	坡州郡	
129	李晬光神道碑	仁祖10年(1632)	碑座圓首	・	楊州郡	
130	張希壽神道碑	仁祖12年(1634)	碑座蓋石	身高 220	鐵原郡	
131	郭越神道碑	仁祖12年(1634)	龜趺螭首	・	達城郡	
132	金誠一神道碑	仁祖12年(1634)	・	身高 209	安東郡	
133	金長生神道碑	仁祖12年(1634)	碑座蓋石	身高 214	論山郡	
134	李貴神道碑	仁祖12年(1634)	龜趺螭首	身高 206	公州郡	
135	李元翼神道碑	仁祖12年(1634)	碑座螭首	總高 338	光明市	
136	金添慶神道碑	仁祖13年(1635)	碑座蓋石	總高 346	漣川郡	
137	李好閔神道碑	仁祖13年(1635)	龜趺螭首	總高 275	楊平郡	
138	閔箕神道碑	仁祖13年(1635)	碑座螭首	總高 308	金浦郡	
139	金宗直神道碑	仁祖13年(1635)	・	身高 180	密陽郡	
140	仁嬪金氏神道碑	仁祖14年(1636)	龜趺螭首	總高 410	南楊州郡	
141	李春元神道碑	仁祖14年(1636)	碑座螭首	身高 140	南楊州郡	
142	李光庭神道碑	仁祖14年(1636)	碑座螭首	總高 288	坡州郡	
143	鄭嘩神道碑	仁祖15年(1637)	碑座蓋石	・	楊州郡	
144	鄭大年神道碑	仁祖18年(1640)	碑座螭首	總高 309	驪州郡	
145	朴舜叙神道碑	仁祖19年(1641)	碑座圓首	總高 224	楊州郡	
146	韓應寅神道碑	仁祖20年(1642)	碑座蓋石	總高 261	華城郡	
147	曹好益神道碑	仁祖20年(1642)	・	身高 270	永川郡	
148	黃廷彥神道碑	仁祖22年(1644)	碑座蓋石	總高 360	坡州郡	
149	韓百謙神道碑	仁祖22年(1644)	龜趺螭首	總高 460	驪州郡	
150	宋寅神道碑	仁祖22年(1644)	碑座圓首	總高 225	楊州郡	

順位	碑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151	鄭惟吉神道碑	仁祖24年(1646)	碑座螭首	總高 247	서울市	
152	徐省神道碑	仁祖24年(1646)	碑座蓋石	總高 335	抱川郡	
153	金尙容神道碑	仁祖25年(1647)	碑座螭首	總高 353.5	南楊州郡	
154	姜澈神道碑	仁祖25年(1647)	自然石螭首	碑身 132	安山市	
155	金克孝神道碑	仁祖25年(1647)	碑座螭首	總高 316.5	南楊州郡	
156	綾原大君神道碑	仁祖25年(1647)	龜趺螭首	身高 193	南楊州郡	
157	李鐸神道碑	仁祖26年(1648)	龜趺螭首	.	楊州郡	
158	成渾神道碑	仁祖26年(1648)	碑座蓋石	身高 222	坡州郡	
159	趙憲神道碑	仁祖27年(1649)	.	身高 176	沃川郡	
160	韓孝仲神道碑	孝宗1年(1650)	龜趺蓋石	身高 189	驪州郡	
161	李恒福神道碑	孝宗3年(1652)	碑座蓋石	總高 285	抱川郡	
162	韓浚謙神道碑	孝宗3年(1652)	龜趺螭首	總高 442	始興郡	
163	洪亘神道碑	孝宗5年(1654)	碑座蓋石	身高 240	燕岐郡	
164	姜籀神道碑	孝宗5年(1654)	碑座螭首	身高 162	牙山郡	
165	俞省曾神道碑	孝宗5年(1654)	碑座蓋石	總高 296	南楊州郡	
166	鄭昌衍神道碑	孝宗6年(1655)	碑座螭首	總高 303	서울市	
167	申仲淹神道碑	孝宗6年(1655)	碑座螭首	身高 148	清原郡	
168	李廷龜神道碑	孝宗7年(1656)	碑座蓋石	總高 440	加平郡	
169	崔起南神道碑	孝宗7年以前(1656)	碑座螭首	.	城南市	
170	李亨齡神道碑	孝宗7年以前(1656)	碑座螭首	身高 167	論山郡	益城君
171	鄭廣成神道碑	孝宗8年(1657)	碑座螭首	總高 235	서울市	
172	朴鼎賢神道碑	孝宗8年以前(1657)	碑座螭首	總高 255	高陽市	
173	李明漢神道碑	孝宗9年(1658)	碑座蓋石	總高 366	加平郡	
174	羅萬甲神道碑	孝宗9年(1658)	碑座蓋石	總高 355	九里市	
175	麟坪大君神道碑	孝宗9年(1658)	龜趺螭首	身高 221	抱川郡	
176	金尙窩神道碑	孝宗9年以前(1658)	碑座螭首	總高 235	南楊州郡	
177	宋象賢神道碑	孝宗10年(1659)	碑座螭首	身高 164	清原郡	
178	閔箕神道碑	孝宗10年(1659)	碑座螭首	總高 308	金浦郡	
179	李舜臣神道碑	顯宗1年(1660)	龜趺螭首	身高 231	牙山郡	
180	李聖求神道碑	顯宗1年(1660)	碑座蓋石	.	楊州郡	
181	李尙吉神道碑	顯宗2年(1661)	碑座蓋石	總高 316	서울市	
182	權太師神道碑	顯宗2年(1661)	.	總高 375	安東郡	
183	金汝物神道碑	顯宗3年(1662)	碑座螭首	總高 319	安山市	
184	韓德及神道碑	顯宗5年(1664)	碑座蓋石	總高 260	華城郡	
185	金堉神道碑	顯宗5年(1664)	碑座螭首	總高 375	南楊州郡	
186	朴遵神道碑	顯宗6年(1665)	碑座蓋石	總高 314	安養市	
187	李愼誠神道碑	顯宗7年以前(1666)	龜趺螭首	總高 318	安城郡	
188	李穡神道碑	顯宗7年(1666)	碑座蓋石	身高 219	舒川郡	
189	李守一神道碑	顯宗8年(1667)	龜趺螭首	總高 417	中原郡	
190	姜善餘神道碑	顯宗9年(1668)	碑座螭首	總高 168	華城郡	
191	李景稷神道碑	顯宗9年(1668)	碑座蓋石	總高 161	서울市	
192	閔齊仁神道碑	顯宗9年(1668)	.	身高 223	南楊州郡	
193	李德馨神道碑	顯宗10年以前(1669)	碑座螭首	總高 360	楊平郡	
194	李有謙神道碑	顯宗10年(1669)	碑座蓋石	總高 317	龍仁郡	
195	姜弘重神道碑	顯宗11年(1670)	碑座蓋石	總高 291	高陽郡	
196	李瑛神道碑	顯宗12年以前(1671)	碑座螭首	.	抱川郡	仁興君
197	睦叙欽神道碑	顯宗12年(1671)	碑座蓋石	總高 305	서울市	
198	閔光勳神道碑	顯宗12年(1671)	碑座蓋石	總高 349	南楊州郡	
199	白仁傑神道碑	顯宗13年以前(1672)	碑座螭首	身高 220	楊州郡	
200	李綏綠神道碑	顯宗13年以前(1672)	碑座螭首	總高 317	楊平郡	

順位	碑題	年代	樣式	高	所在地	備考
201	權快神道碑	顯宗14年(1673)	碑座蓋石	總高 270	서울市	
202	李栢神道碑	顯宗14年(1673)	·	·	清原郡	
203	張維神道碑	肅宗2年(1676)	龜趺蓋石	總高 508	始興郡	
204	周世鵬神道碑	肅宗5年(1679)	·	身高 158	咸安郡	
205	李英神道碑	肅宗8年(1682)	龜趺蓋石	總高 354	抱川郡	仁興君
206	林蘭秀神道碑	肅宗8年(1682)	碑座蓋石	身高 151	燕岐郡	
207	蔡世英神道碑	肅宗8年(1682)	龜趺螭首	總高 331	始興市	
208	昌嬪安氏神道碑	肅宗9年(1683)	碑座蓋石	總高 312	서울市	
209	申景禎神道碑	肅宗10年(1684)	龜趺蓋石	總高 368	서울市	
210	金俊龍神道碑	肅宗11年(1685)	碑座蓋石	總高 238	始興市	
211	沈之源神道碑	肅宗12年(1686)	碑座蓋石	總高 295	坡州郡	
212	柳忠傑神道碑	肅宗13年(1687)	碑座蓋石	身高 184	公州郡	
213	金佑明神道碑	肅宗13年(1687)	碑座螭首	·	春川郡	
214	具仁堅神道碑	肅宗13年(1687)	碑座蓋石	總高 298	漢金市	
215	申翊全神道碑	肅宗13年(1687)	龜趺螭首	身高 213	中原郡	
216	申澆神道碑	肅宗13年(1687)	·	身高 187	東豆川市	
217	李浣神道碑	肅宗14年(1688)	龜趺螭首	身高 217	驪州郡	
218	趙希逸神道碑	肅宗14年(1688)	碑座蓋石	總高 333	坡州郡	
219	宋麒壽神道碑	肅宗15年(1689)	碑座蓋石	身高 157.5	大田市	
220	張雲翼神道碑	肅宗15年(1689)	碑座螭首	總高 386	始興郡	
221	柳碩神道碑	肅宗16年(1690)	碑座蓋石	總高 312	安山市	
222	趙公瑾神道碑	肅宗16年(1690)	碑座螭首	總高 246	楊平郡	
223	朴大立神道碑	肅宗18年(1692)	碑座蓋石	總高 235	高陽郡	
224	趙啓遠神道碑	肅宗19年以前(1693)	碑座蓋石	身高 209	燕岐郡	
225	朴玗神道碑	肅宗19年(1693)	碑座蓋石	總高 271	楊州郡	
226	吳始壽神道碑	肅宗20年(1694)	碑座蓋石	身高 247	公州郡	
227	柳琳神道碑	肅宗21年(1695)	碑座蓋石	總高 365	高陽郡	
228	李增神道碑	肅宗21年(1695)	碑座蓋石	總高 323	城南市	
229	獻陵神道碑(再)	肅宗21年(1695)	龜趺螭首	身高 295	서울市	
230	金命元神道碑	肅宗21年(1695)	碑座蓋石	總高 323	高陽郡	
231	撫安大君神道碑	肅宗21年(1695)	碑座蓋石	總高 190	서울市	
232	李萬雄神道碑	肅宗24年(1698)	碑座蓋石	總高 280	楊平郡	
233	李行健神道碑	肅宗24年(1698)	碑座蓋石	總高 246	楊平郡	
234	閔應亨神道碑	肅宗25年(1699)	碑座螭首	總高 371	金浦郡	
235	鄭夢周神道碑	肅宗25年(1699)	碑座蓋石	身高 236	龍仁郡	
236	尹天寶神道碑	肅宗25年(1699)	碑座蓋石	總高 339	南楊州郡	
237	李大源神道碑	肅宗25年(1699)	碑座蓋石	總高 297.5	平澤郡	
238	金樹神道碑	肅宗25年(1699)	·	身高 227	善山郡	
239	申欽神道碑	肅宗25年(1699)	龜趺螭首	總高 380	廣州郡	
240	洪聖民神道碑	肅宗26年(1700)	碑座蓋石	總高 486	驪州郡	
241	全湜神道碑	肅宗26年(1700)	·	身高 164	尙州郡	
242	鄭起龍神道碑	肅宗26年(1700)	龜趺螭首	總高 370	尙州郡	
243	李端相神道碑	肅宗27年(1701)	碑座蓋石	身高 192	龍仁郡	
244	李汝發神道碑	肅宗27年(1701)	碑座蓋石	總高 364	仁川市	
245	李俣神道碑	肅宗27年(1701)	龜趺蓋石	總高 283	抱川郡	朗善君
246	吳斗寅神道碑	肅宗27年(1701)	碑座蓋石	總高 390	安城郡	
247	金萬基神道碑	肅宗29年(1703)	碑座蓋石	總高 344	華城郡	
248	李一相神道碑	肅宗29年(1703)	碑座蓋石	總高 363	加平郡	
249	李義培神道碑	肅宗29年(1703)	·	身高 238	禮山郡	
250	姜栢年神道碑	肅宗31年(1705)	碑座荷葉	身高 201.5	公州郡	

順位	碑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251	李基祚神道碑	肅宗31年(1705)	碑座蓋石	總高 333	軍浦市	
252	李榮神道碑	肅宗32年(1706)	碑座蓋石	總高 322	安城郡	
253	綾原大君神道碑	肅宗33年(1707)	龜趺螭首	總高 285	南楊州郡	
254	閔維重神道碑	肅宗33年(1707)	龜趺蓋石	總高 418	驪州郡	
255	朴東善神道碑	肅宗33年(1707)	碑座蓋石	.	金浦郡	
256	鄭易神道碑	肅宗34年(1708)	碑座蓋石	總高 385	서울市	
257	李世華神道碑	肅宗34年(1708)	碑座蓋石	.	坡州郡	
258	尹絳神道碑	肅宗35年(1709)	碑座蓋石	碑身 270	安山市	
259	申翼相神道碑	肅宗36年(1710)	碑座蓋石	總高 376	東豆川市	
260	李安訥神道碑	肅宗38年(1712)	碑座蓋石	身高 238.5	唐津郡	
261	朴炆神道碑	肅宗38年(1712)	碑座蓋石	總高 316	金浦郡	
262	金錫胄神道碑	肅宗38年(1712)	碑座蓋石	總高 428	廣州郡	
263	韓聖翼神道碑	肅宗38年(1712)	碑座蓋石	身高 191	青陽郡	
264	權大任神道碑	肅宗40年(1714)	碑座蓋石	總高 277	서울市	
265	南以興神道碑	肅宗40年(1714)	碑座蓋石	身高 250	唐津郡	
266	李之信神道碑	肅宗41年(1715)	碑座蓋石	總高 317	高陽市	
267	李殷相神道碑	肅宗41年(1715)	碑座蓋石	總高 316	加平郡	
268	鄭澈神道碑	肅宗43年(1717)	碑座蓋石	身高 255	鎭川郡	
269	洪可臣神道碑	肅宗43年(1717)	自然石蓋石	身高 241	牙山郡	
270	李正英神道碑	肅宗43年(1717)	碑座蓋石	.	서울市	
271	金澄神道碑	肅宗44年(1718)	碑座蓋石	總高 340	始興郡	
272	李田神道碑	肅宗46年(1720)	龜趺蓋石	總高 383	서울市	延齡君
273	李敬興神道碑	肅宗代	.	身高 270	抱川郡	
274	李曙神道碑	景宗2年(1722)	碑座蓋石	總高 293	議政府市	
275	朴彌神道碑	英祖1年(1725)	碑座螭首	總高 368	始興市	
276	朴東亮神道碑	英祖1年(1725)	碑座螭首	總高 318	始興市	
277	淑嬪崔氏神道碑	英祖1年(1725)	龜趺蓋石	.	楊州郡	
278	金履元神道碑	英祖1年(1725)	碑座螭首	.	楊平郡	
279	金灝神道碑	英祖2年(1726)	碑座蓋石	總高 323	高陽市	
280	金國光神道碑	英祖2年(1726)	碑座蓋石	身高 231	論山郡	
281	趙旅神道碑	英祖2年(1726)	.	身高 218	咸安郡	
282	李廷龍神道碑	英祖4年(1728)	碑座蓋石	總高 324	城南市	
283	丁應斗神道碑	英祖4年(1728)	碑座蓋石	總高 321	龍仁郡	
284	姜子平神道碑	英祖4年(1728)	碑座蓋石	總高 279	高陽郡	
285	李健神道碑	英祖5年(1729)	碑座蓋石	總高 331	議政府市	海原君
286	沈溫神道碑	英祖7年(1731)	碑座蓋石	總高 304.5	水原市	
287	閔鎮厚神道碑	英祖8年(1732)	龜趺蓋石	總高 415	驪州郡	
288	尹仁鏡神道碑	英祖9年(1733)	龜趺蓋石	總高 307	議政府市	
289	曹文秀神道碑	英祖10年(1734)	碑座蓋石	總高 263	華城郡	
290	金澄神道碑	英祖12年以前(1736)	.	身高 230	始興市	
291	尹新之神道碑	英祖12年(1736)	碑座蓋石	總高 368	高陽市	
292	李基夏神道碑	英祖13年(1737)	碑座蓋石	總高 345	仁川市	
293	沈溫神道碑	英祖13年(1737)	碑座蓋石	總高 305	水原市	
294	趙錫馨神道碑	英祖13年(1737)	碑座蓋石	總高 295	坡州郡	
295	洪瑞鳳神道碑	英祖14年(1738)	碑座蓋石	總高 389	楊州郡	
296	李玄錫神道碑	英祖14年(1738)	碑座蓋石	總高 317	廣州郡	
297	李戊遠神道碑	英祖14年(1738)	.	.	居昌郡	
298	趙瀾神道碑	英祖15年(1739)	碑座蓋石	總高 302	楊州郡	
299	崔震立神道碑	英祖16年(1740)	龜趺螭首	身高 220	月城郡	
300	李效元神道碑	英祖17年(1741)	碑座蓋石	身高 189	青陽郡	

順位	碑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301	權尙游神道碑	英祖17年(1741)	碑座蓋石	身高 167	錦山郡	
302	趙正萬神道碑	英祖17年(1741)	碑座蓋石	總高 410	仁川市	
303	金弘柱神道碑	英祖18年(1742)	龜趺蓋石	總高 378	漣川郡	
304	金麟厚神道碑	英祖18年(1742)	.	身高 216	長城郡	
305	金孝元神道碑	英祖19年(1743)	碑座蓋石	身高 214	南楊州郡	
306	金構神道碑	英祖19年(1743)	碑座蓋石	總高 406	서울市	
307	曹光遠神道碑	英祖20年(1744)	碑座蓋石	總高 274	坡州郡	
308	金樸神道碑	英祖20年(1744)	碑座蓋石	總高 393	始興郡	
309	閔鼎重神道碑	英祖20年(1744)	碑座蓋石	總高 335	驪州郡	
310	齊陵神道碑	英祖20年(1744)	.	.	開城郡	再立
311	金始煥神道碑	英祖21年(1745)	龜趺蓋石	總高 407	漣川郡	
312	李鳳祥神道碑	英祖22年(1746)	碑座蓋石	身高 238	牙山郡	
313	李廷夔神道碑	英祖22年(1746)	碑座蓋石	總高 314	廣州郡	
314	宋相琦神道碑	英祖22年(1746)	碑座蓋石	身高 248	大田市	
315	韓聖佑神道碑	英祖22年(1746)	碑座蓋石	總高 389	始興郡	
316	金德誠神道碑	英祖22年(1746)	碑座蓋石	總高 298	坡州郡	
317	鄭德徵神道碑	英祖23年(1747)	碑座蓋石	身高 170	龍仁郡	
318	李浣神道碑	英祖23年(1747)	龜趺蓋石	總高 495	서울市	花山君
319	李曼神道碑	英祖28年(1752)	碑座蓋石	身高 193	禮山郡	
320	李濡神道碑	英祖29年(1753)	碑座蓋石	總高 387	서울市	
321	李景爽神道碑	英祖30年(1754)	碑座蓋石	總高 475	城南市	
322	李雨臣神道碑	英祖32年(1756)	碑座蓋石	總高 326	加平郡	
323	鄭經世神道碑	英祖34年(1758)	.	身高 222	尙州郡	
324	鄭世雅神道碑	英祖36年(1760)	.	身高 190	永川郡	
325	洪禧神道碑	英祖39年(1762)	碑座蓋石	身高 202	燕岐郡	
326	金友曾神道碑	英祖40年(1764)	.	身高 213	始興市	
327	金相玉神道碑	英祖41年(1765)	碑座蓋石	總高 282	高陽市	
328	韓配周神道碑	英祖41年(1765)	碑座蓋石	身高 213.7	青陽郡	
329	元斗杓神道碑	英祖41年(1765)	碑座蓋石	總高 342	驪州郡	
330	尹措神道碑	英祖42年(1766)	碑座蓋石	身高 208.5	論山郡	
331	權應銖神道碑	英祖43年(1767)	.	身高 232	永川郡	
332	元豪神道碑	英祖44年(1768)	碑座蓋石	身高 202	驪州郡	
333	洪萬朝神道碑	英祖45年(1769)	碑座蓋石	身高 180	牙山郡	
334	趙榮福神道碑	英祖46年(1770)	碑座蓋石	總高 345	安城郡	
335	李景曾神道碑	英祖50年(1774)	碑座蓋石	總高 288	龍仁郡	
336	李之蘭神道碑	英祖50年(1774)	.	.	北青郡	
337	白時耆神道碑	正祖10年(1786)	碑座蓋石	身高 209	鐵原郡	
338	朴明源神道碑	正祖14年(1790)	碑座蓋石	總高 300	坡州郡	
339	徐命九神道碑	正祖15年(1791)	碑座蓋石	總高 387	抱川郡	
340	李舜臣神道碑	正祖18年(1794)	碑座蓋石	身高 233	牙山郡	
341	柳炳然神道碑	正祖21年(1797)	碑座蓋石	身高 188	公州郡	
342	黃一皓神道碑	正祖21年(1797)	碑座蓋石	身高 238	扶餘郡	
343	金景瑞神道碑	正祖23年(1799)	.	.	龍岡郡	
344	李柱國神道碑	正祖24年(1800)	碑座蓋石	身高 191	龍仁郡	
345	丁好善神道碑	純祖2年(1802)	碑座蓋石	總高 326	龍仁郡	
346	申崇謙神道碑	純祖5年(1805)	.	.	春城郡	
347	朴準源神道碑	純祖9年(1809)	碑座蓋石	身高 247	驪州郡	
348	朴英神道碑	純祖11年(1811)	.	身高 218	善山郡	
349	尹舜舉神道碑	純祖11年(1811)	碑座蓋石	身高 212	論山郡	
350	金緣神道碑	純祖12年(1812)	.	身高 181	安東郡	

順位	碑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351	俞泓神道碑	純祖13年(1813)	碑座蓋石	總高 284	廣州郡	
352	李弘述神道碑	純祖14年(1814)	碑座蓋石	總高 351	南楊州郡	
353	金功神道碑	純祖17年以前(1817)	.	身高 130	奉化郡	
354	李增神道碑	純祖18年(1818)	.	身高 210	安東郡	
355	李東標神道碑	純祖20年(1820)	.	.	奉化郡	
356	尹烜神道碑	純祖21年(1821)	碑座蓋石	身高 171	論山郡	
357	金柱臣神道碑	純祖26年(1826)	碑座蓋石	總高 376	高陽郡	
358	柳孝源神道碑	純祖30年(1830)	碑座蓋石	身高 154	公州郡	
359	南在神道碑	純祖32年(1832)	碑座蓋石	總高 375	南楊州郡	
360	文益漸神道碑	純祖34年(1834)	.	身高 189	山清郡	
361	高敬命神道碑	純祖代	龜趺蓋石	身高 238	長城郡	
362	南乙珍神道碑	憲宗7年(1841)	碑座蓋石	身高 152	楊州郡	
363	權轍神道碑	憲宗13年(1847)	碑座螭首	總高 265	楊州郡	
364	白頤正神道碑	憲宗14年(1848)	碑座蓋石	身高 168	保寧郡	
365	全溪大院君神道碑	哲宗2年(1851)	.	身高 239	抱川郡	
366	趙萬永神道碑	哲宗7年(1856)	碑座蓋石	.	春川郡	
367	朴元謙神道碑	哲宗8年(1857)	碑座蓋石	總高 194	楊平郡	
368	金世弼神道碑	哲宗9年(1858)	碑座蓋石	身高 157	龍仁郡	
369	洪瀧神道碑	哲宗9年(1858)	.	身高 184	軍威郡	
370	金祖淳神道碑	哲宗11年(1860)	碑座蓋石	總高 253	利川郡	
371	權慄神道碑	哲宗12年(1861)	碑座蓋石	總高 314	楊州郡	
372	鄭文孚神道碑	哲宗12年(1861)	碑座蓋石	總高 254	議政府市	
373	金宜弓神道碑	哲宗13年(1862)	.	.	善山郡	
374	金定卿神道碑	哲宗14年(1863)	.	身高 148	廣州郡	
375	李夢亮神道碑	高宗1年(1864)	碑座蓋石	總高 204	抱川郡	
376	秋適神道碑	高宗1年(1864)	.	.	達城郡	
377	李球神道碑	高宗2年(1865)	碑座蓋石	身高 185	禮山郡	南延君
378	尹景男神道碑	高宗3年(1866)	龜趺螭首	.	居昌郡	
379	趙寅永神道碑	高宗7年(1870)	碑座蓋石	.	春川郡	
380	金東獻神道碑	高宗12年(1875)	碑座蓋石	總高 178	始興郡	
381	金相岳神道碑	高宗15年(1875)	碑座蓋石	總高 266	廣州郡	
382	李經漢神道碑	高宗13年(1876)	碑座蓋石	身高 194.5	扶餘郡	
383	趙秉龜神道碑	高宗14年(1877)	碑座蓋石	.	春川郡	
384	李茂神道碑	高宗15年(1878)	碑座蓋石	總高 276.5	高陽市	
385	李山海神道碑	高宗16年(1879)	碑座蓋石	身高 183	禮山郡	
386	奇虔神道碑	高宗19年(1882)	碑座蓋石	總高 281	高陽郡	
387	李惟泰神道碑	高宗20年(1883)	碑座蓋石	身高 204.5	燕岐郡	
388	趙秉夔神道碑	高宗21年(1884)	碑座蓋石	.	春川郡	
389	李最應神道碑	高宗21年(1884)	碑座蓋石	身高 178.5	禮山郡	
390	郭預神道碑	高宗21年(1884)	碑座蓋石	總高 230	清州市	
391	柳寬神道碑	高宗28年(1891)	碑座蓋石	總高 233.5	楊平郡	
392	申琬神道碑	高宗31年(1894)	碑座蓋石	身高 180	廣州郡	
393	閔致祿神道碑	高宗31年(1894)	碑座蓋石	身高 267	保寧郡	
394	林植神道碑	建陽1年(1896)	碑座蓋石	身高 164	青陽郡	
395	李晬神道碑	光武1年(1897)	碑座蓋石	總高 282	城南市	
396	韓章錫神道碑	光武1年(1897)	碑座蓋石	總高 287	饒旺市	
397	安純神道碑	光武1年(1897)	碑座蓋石	總高 280	서울市	
398	吳健神道碑	光武1年(1897)	.	身高 151	山清郡	
399	權太師神道碑	光武5年(1901)	.	身高 218	安東郡	
400	孝寧大君神道碑	光武6年(1902)	碑座蓋石	總高 281	서울市	

順位	碑題	年代	様式	高	所在地	備考
401	金慶餘神道碑	光武8年(1904)	碑座蓋石	身高 220	燕岐郡	
402	関泳徹神道碑	光武9年(1905)	碑座蓋石	・	春川郡	
403	関英輝神道碑	光武9年(1905)	・	・	春城郡	
404	梁彭孫神道碑	隆熙1年(1907)	・	・	和順郡	
405	任向神道碑	隆熙1年(1907)	碑座蓋石	身高 172.5	保寧郡	
406	李良祐神道碑	隆熙2年(1908)	碑座蓋石	總高 285	楊平郡	
407	鄭應斗神道碑	隆熙3年(1909)	・	・	居昌郡	
408	趙綱神道碑	隆熙4年(1910)	碑座蓋石	總高 368	抱川郡	

〈丑11〉 墓碑外 目錄

順位	碑題	年代	樣式	高	所在地	備考
1	愼嬪金氏墓碑	世祖11年(1465)	・	身高 155	華城郡	
2	李希男墓碑	光海君3年(1611)	碑座圓首	總高 171	果川市	
3	李軸墓碑	光海君9年(1617)	碑座圓首	總高 162	果川市	
4	李郁墓碑	仁祖11年(1633)	碑座蓋石	總高 266	서울市	
5	尹昌世墓碑	仁祖12年(1634)	碑座螭首	身高 212	論山郡	
6	金球墓碑	仁祖18年(1640)	碑座蓋石	身高 158.5	禮山郡	
7	尹煌墓碑	顯宗1年(1660)	碑座蓋石	身高 228.5	論山郡	
8	趙瑩中墓碑	顯宗13年以前(1672)	碑座蓋石	身高 188	禮山郡	
9	南瑜墓碑	景宗4年(1724)	碑座蓋石	身高 162.6	唐津郡	
10	吳定邦墓碑	英祖34年(1758)	碑座螭首	總高 316	安城郡	
11	新羅始祖王墓碑	英祖35年(1759)	・	身高 282	慶州市	
12	南應龍墓碑	英祖37年(1761)	碑座螭首	身高 130	唐津郡	
13	死六臣墓碑	正祖6年(1782)	碑座蓋石	總高 311	서울市	
14	李茂墓碑	正祖9年(1785)	碑座圓首	總高 142	高陽郡	
15	鎮安大君墓碑	正祖13年(1789)	・	・	開城郡	
16	成三問墓碑	純祖2年(1802)	碑座蓋石	身高 135	論山郡	
17	劉敞墓碑文	憲宗12年(1846)	碑座蓋石	總高 240	서울市	
18	李翔墓碑	高宗32年(1895)	碑座蓋石	身高 174	燕岐郡	
19	閔泳徽壽藏碑	光武9年(1905)	碑座蓋石	・	春川郡	



1. 崔元直墓表 (禔王12, 1386)



2. 朴可興墓表 (15C)



3. 鄭蘭宗墓表 (成宗20, 1489)



4. 月山大君墓表 (燕山君11, 1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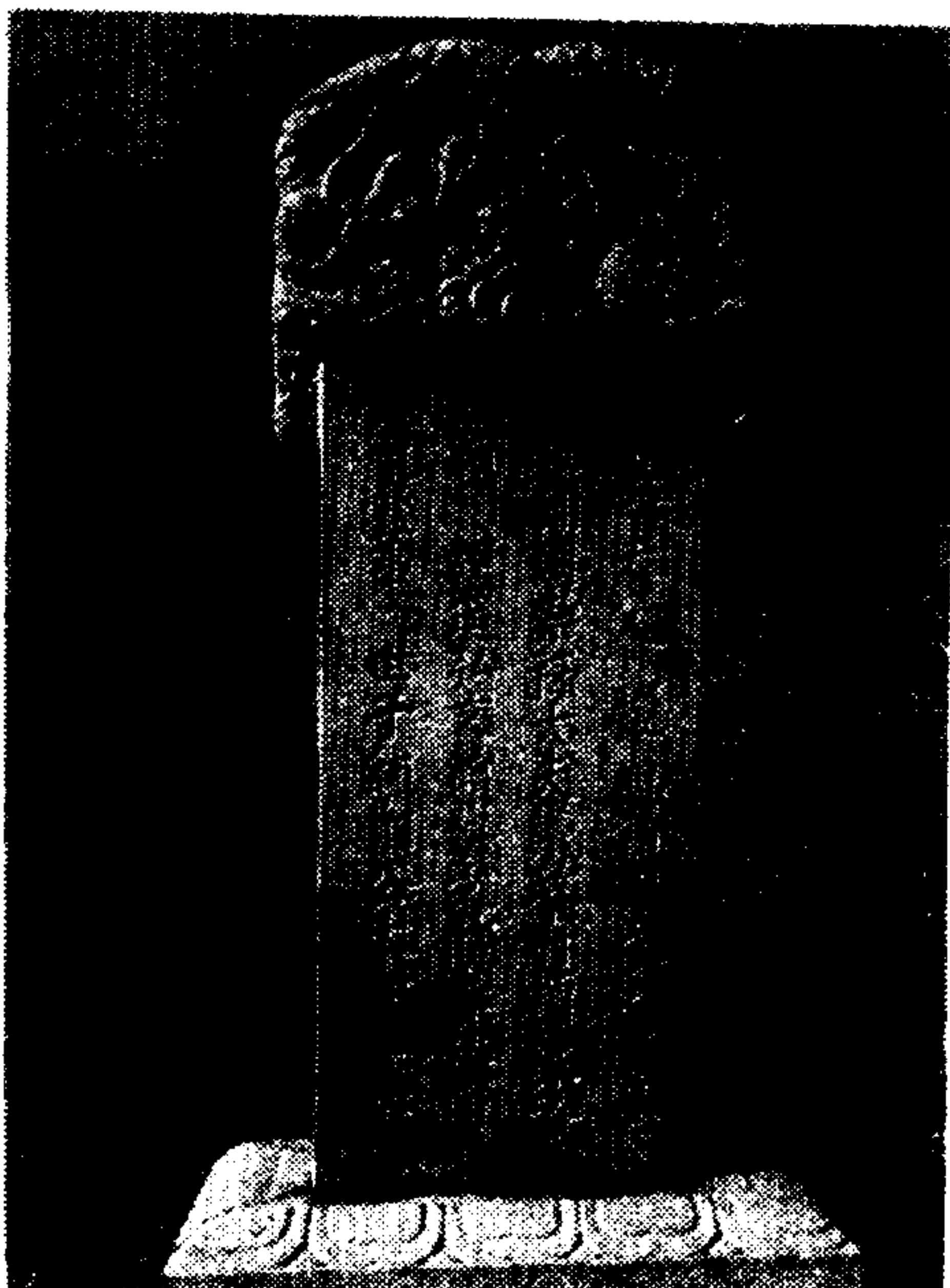
사진 1. 墓表 I



1. 鄭光輔墓表 (中宗19, 1524)



2. 朴雲墓表 (中宗34, 1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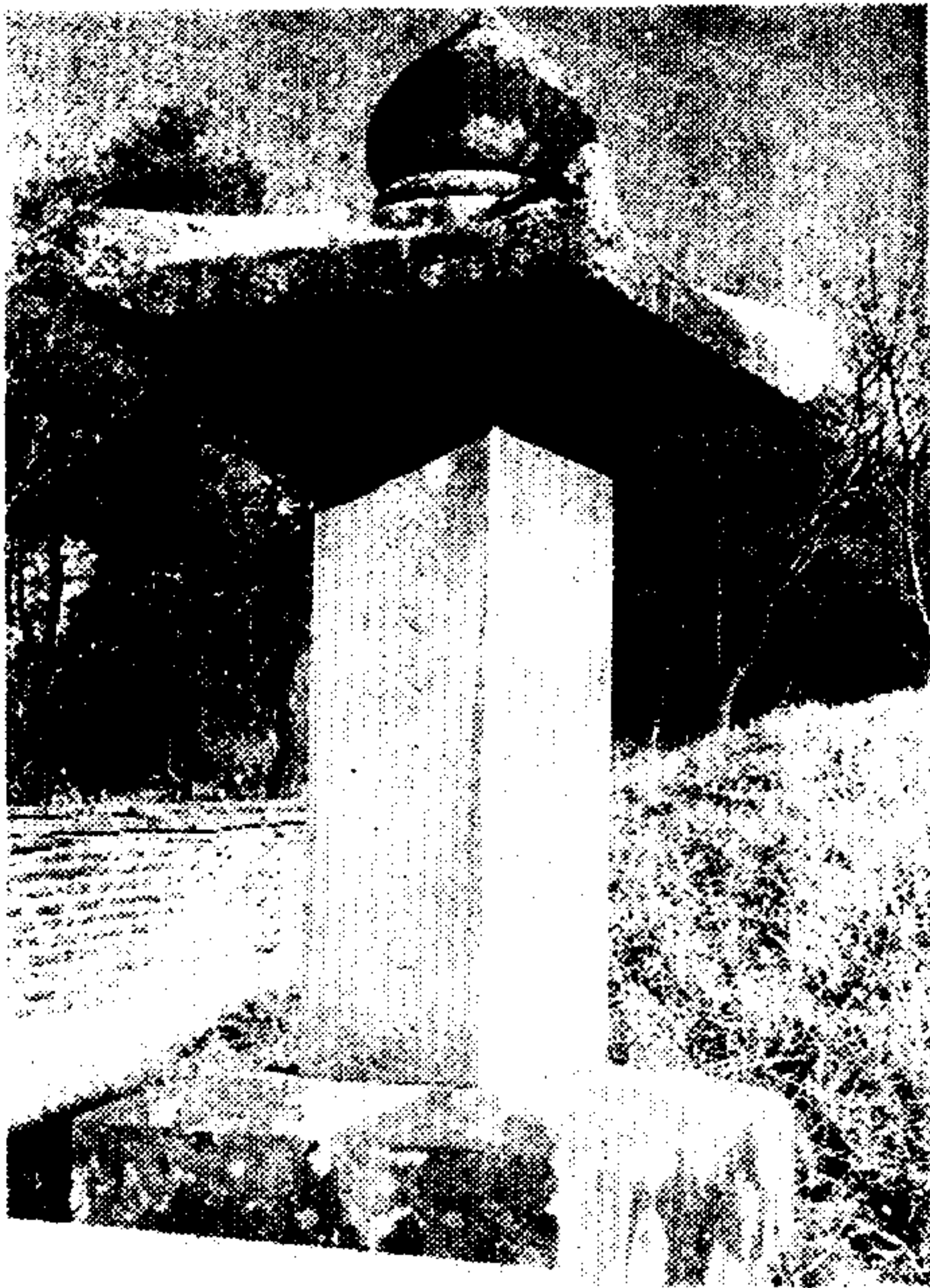


3. 鄭太和墓表 (肅宗1, 1675)



4. 金萬基墓表 (肅宗13年頃, 1687)

사진 2. 墓表 II



1. 朗善君李俟墓表 (肅宗19年頃, 1693)



2. 洪柱天墓表 (肅宗19, 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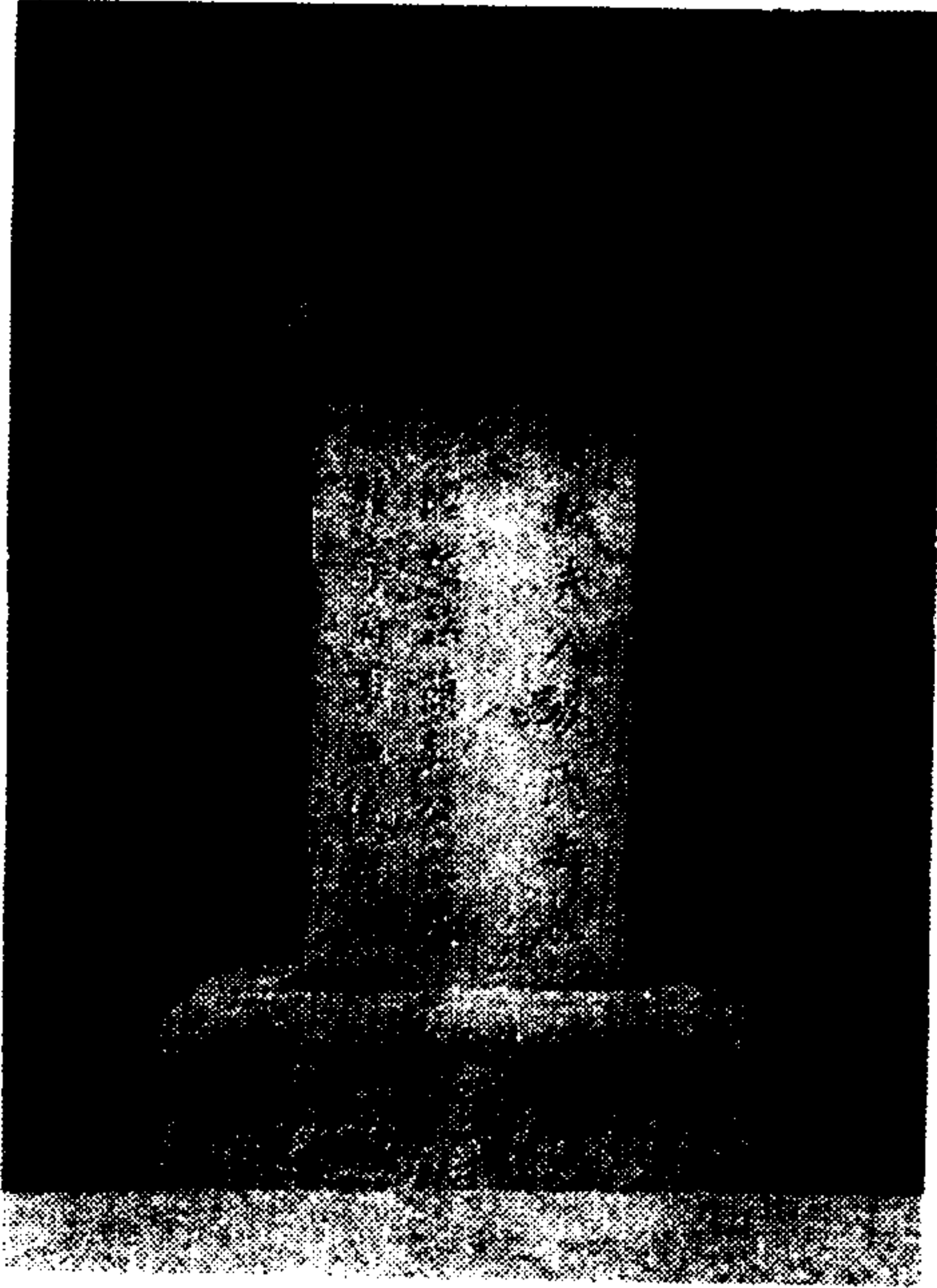


3. 杞溪俞氏墓表 (肅宗28, 1702)



4. 延齡君李田墓表 (肅宗45, 1719)

사진 3. 墓表 Ⅲ



1. 順興安氏墓碣 (成宗23, 1492)



2. 鄭光輔墓碣 (中宗20, 1525)



3. 韓亨元墓碣 (中宗39, 1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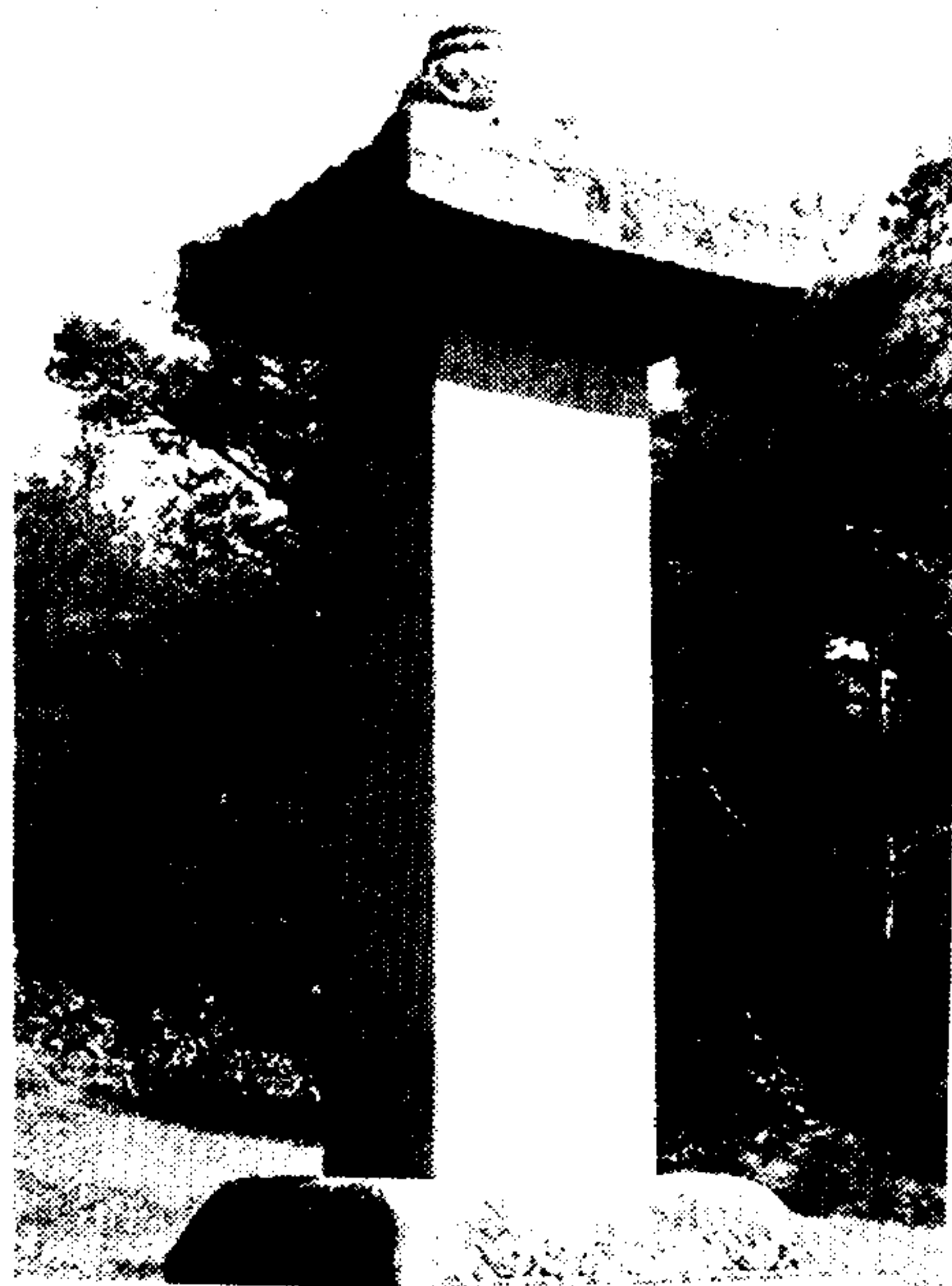


4. 韓琦墓碣 (明宗5, 1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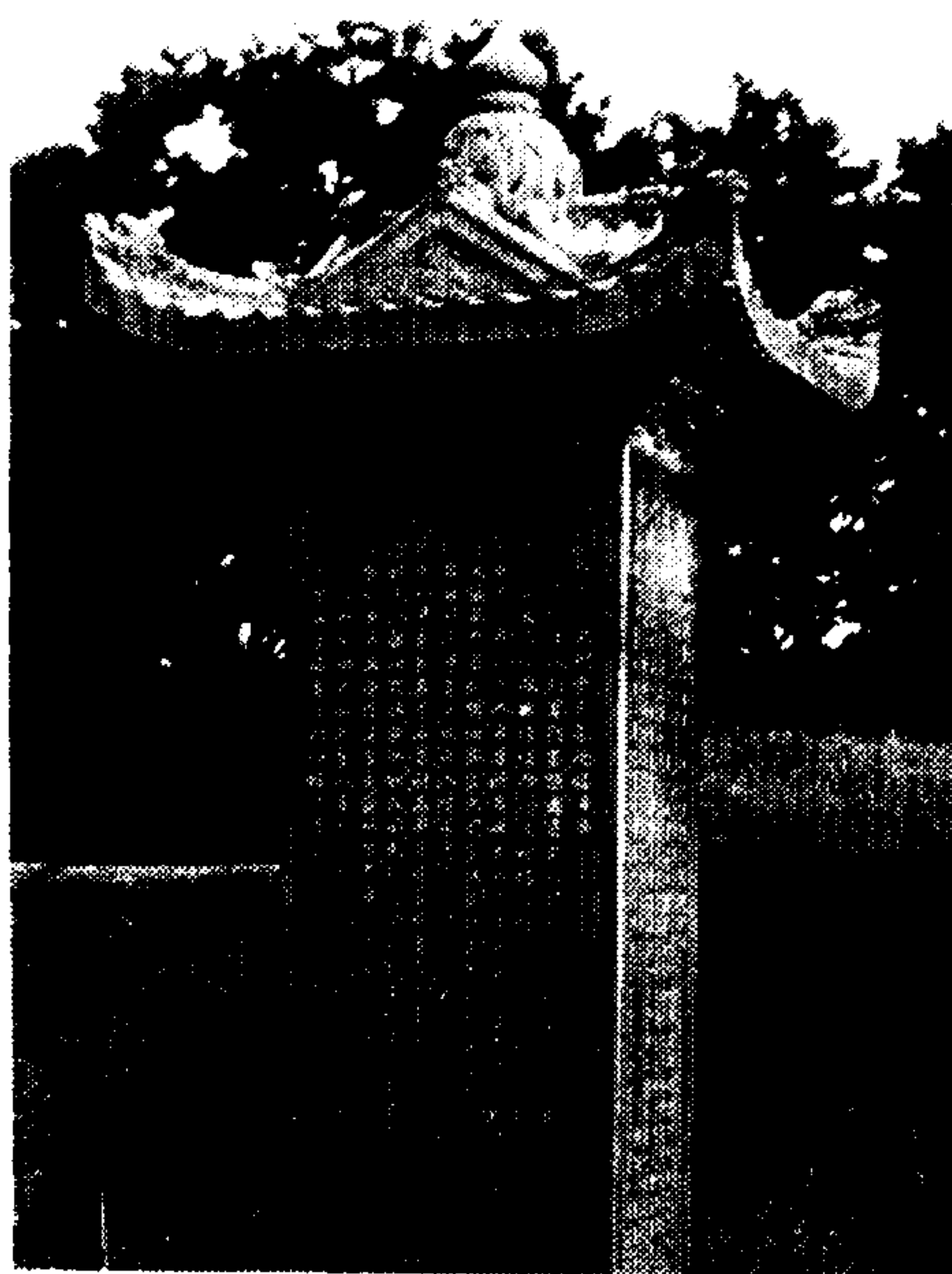
사진 4. 墓碣 I



1. 朴世蓀墓碣 (宣祖18年以前, 1585)



2. 韓壽遠墓碣 (肅宗12, 1686)



3. 尙州黃氏墓碣 (肅宗31, 1705)



4. 吳泰周墓碣 (肅宗46, 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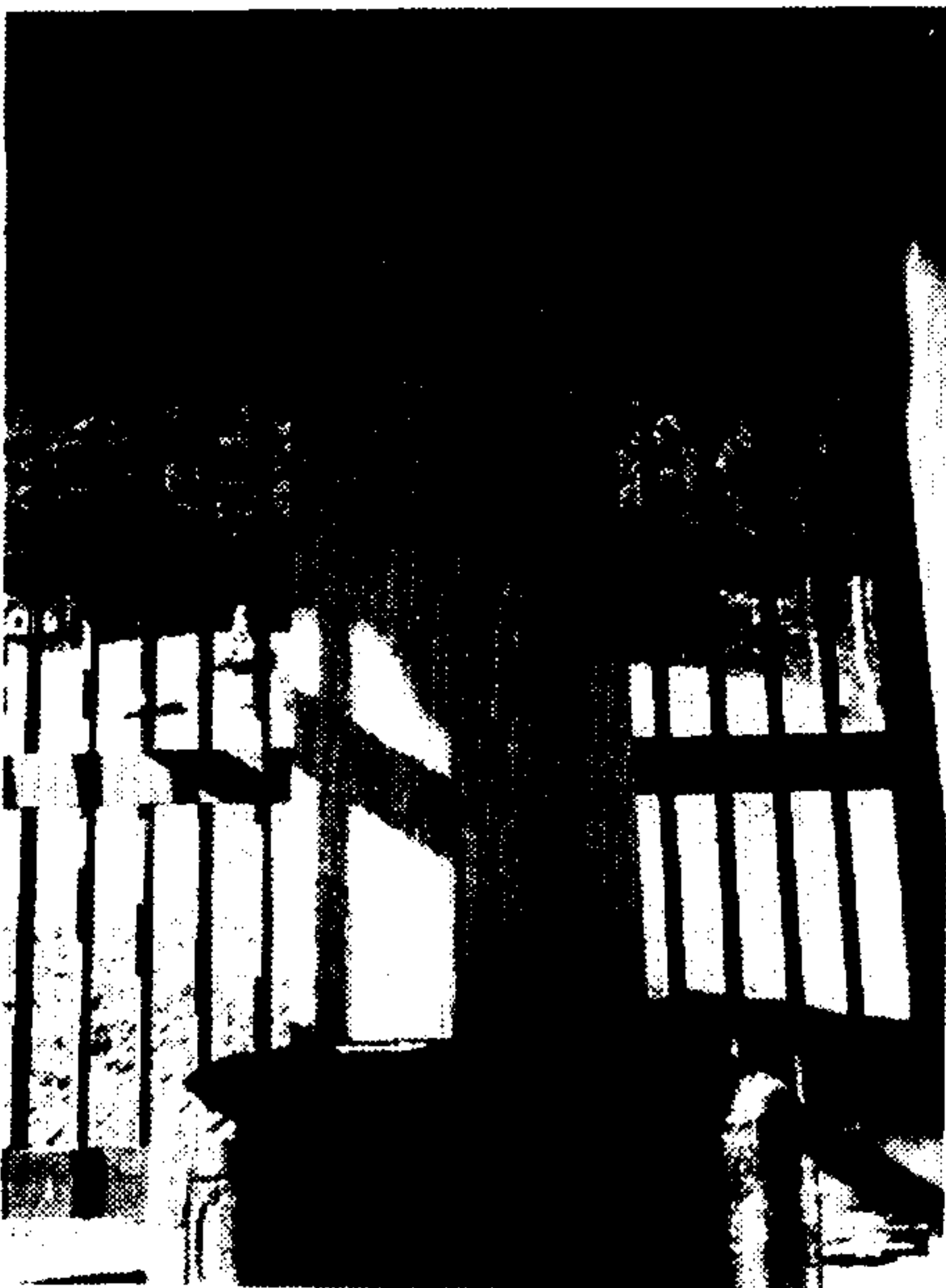
사진 5. 墓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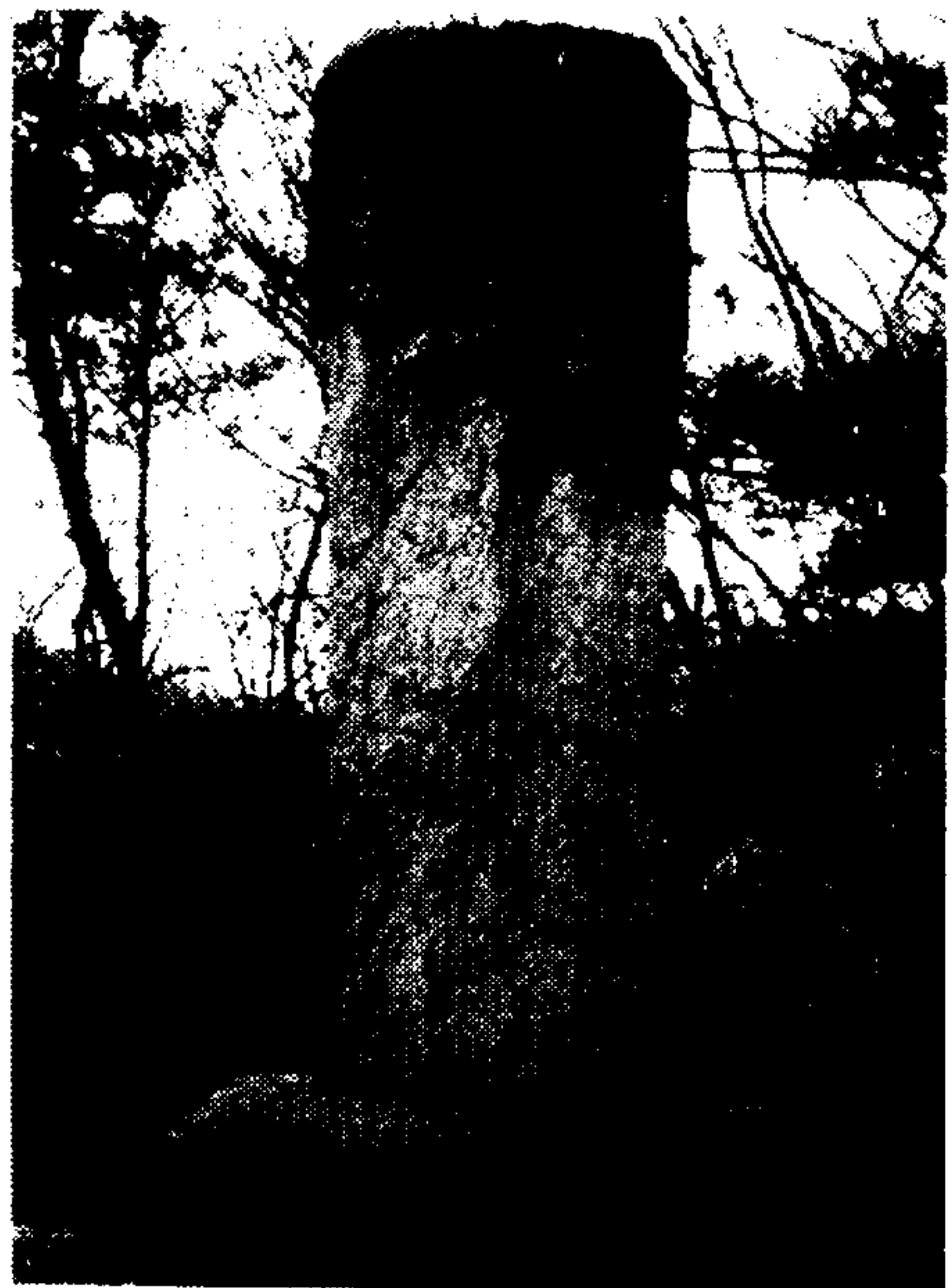
1. 誠寧大君神道碑 (太宗18, 1418)



2. 英陵神道碑 (文宗2, 1452)



3. 申叔舟神道碑 (成宗年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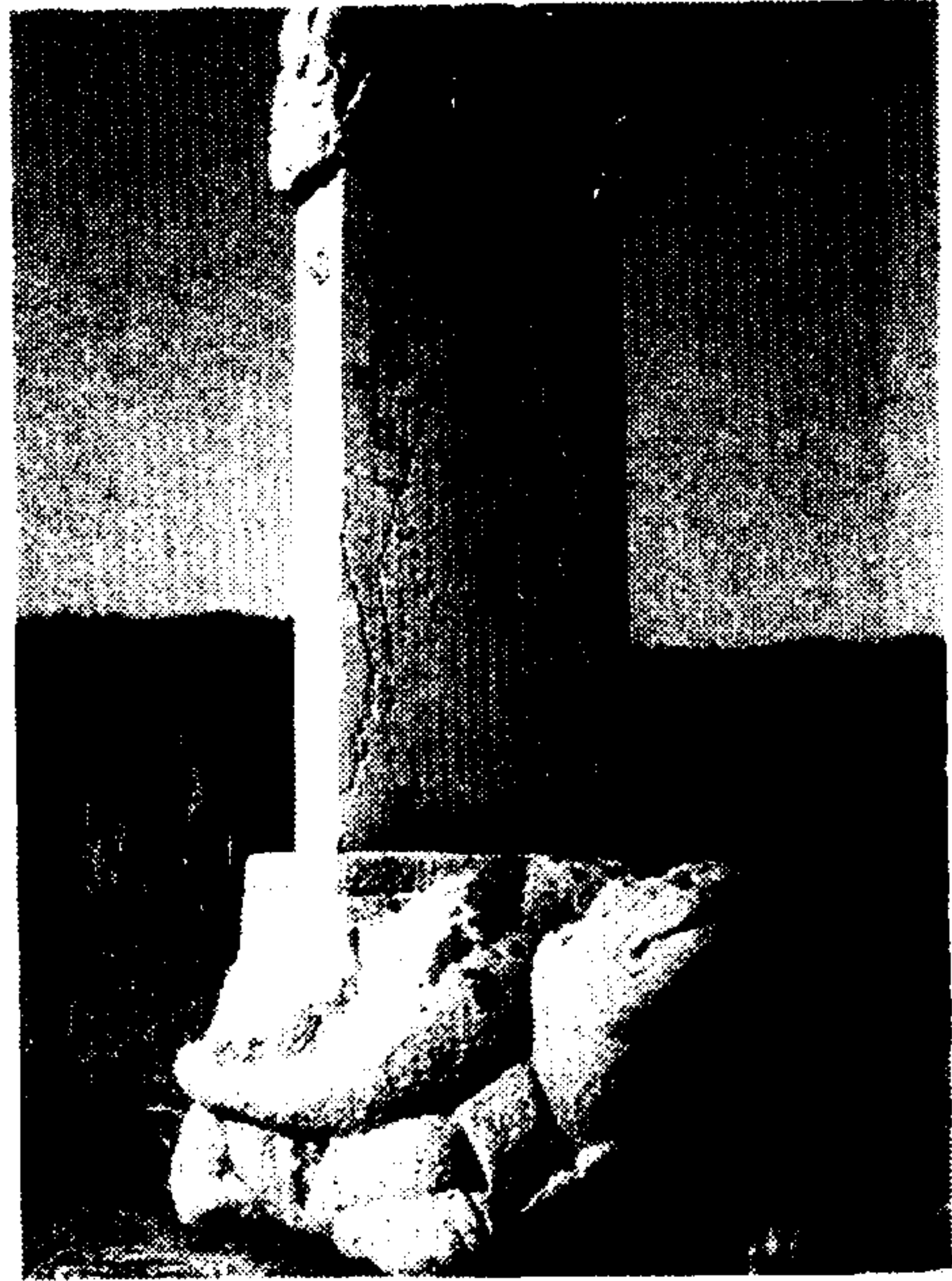


4. 月山大君神道碑 (成宗20, 1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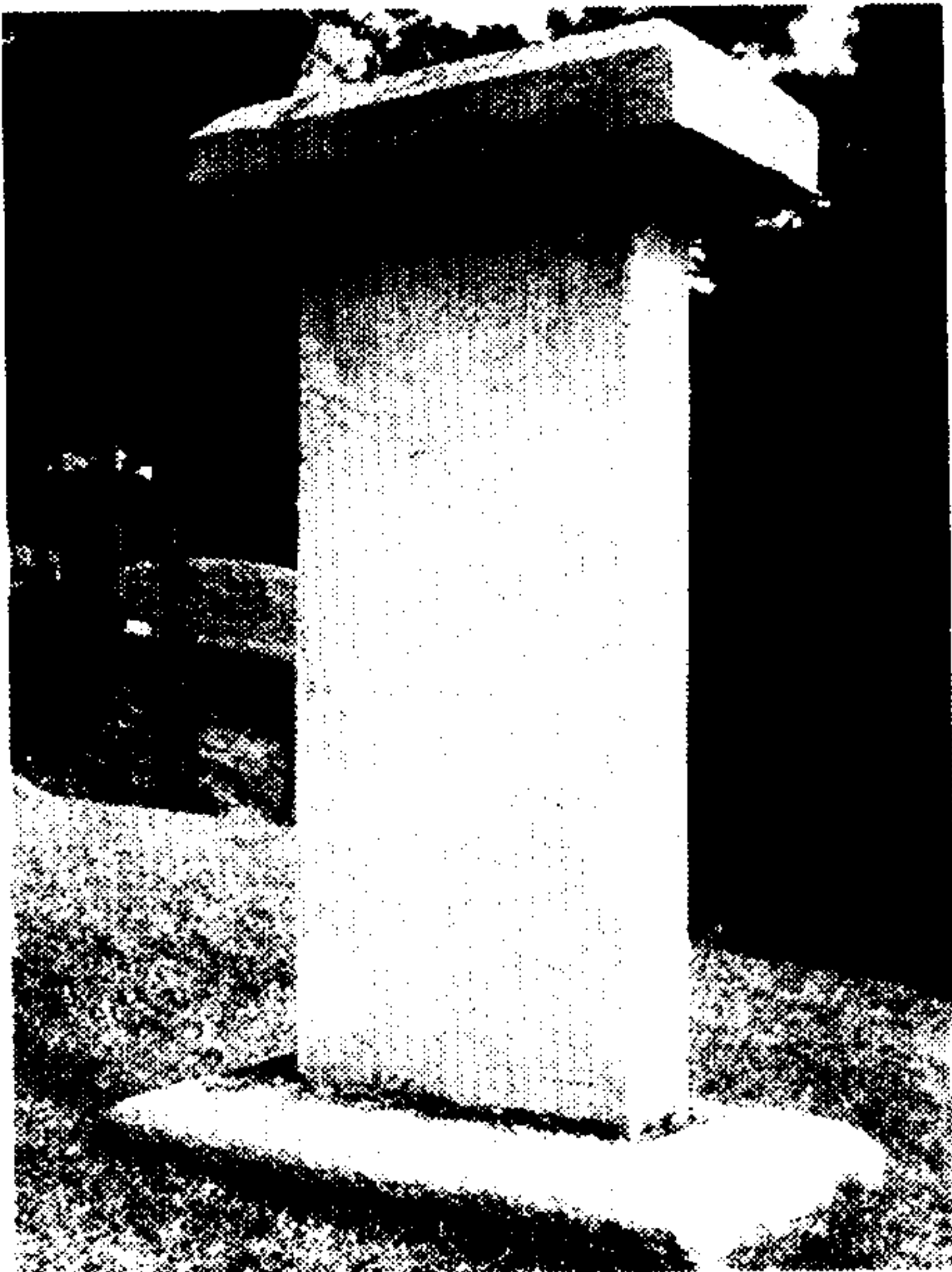
사진 6. 神道碑 I



1. 朴仲善神道碑 (成宗21, 1490)



2. 尹萱神道碑 (中宗38, 1543)



3. 永順君李溥神道碑 (宣祖7, 1574)



4. 趙光祖神道碑 (宣祖13, 1580)

사진 7. 神道碑 II



1. 朴世榮神道碑 (宣祖15, 1582)



2. 金詮神道碑 (光海君3, 1611)



3. 李元翼神道碑 (仁祖12, 1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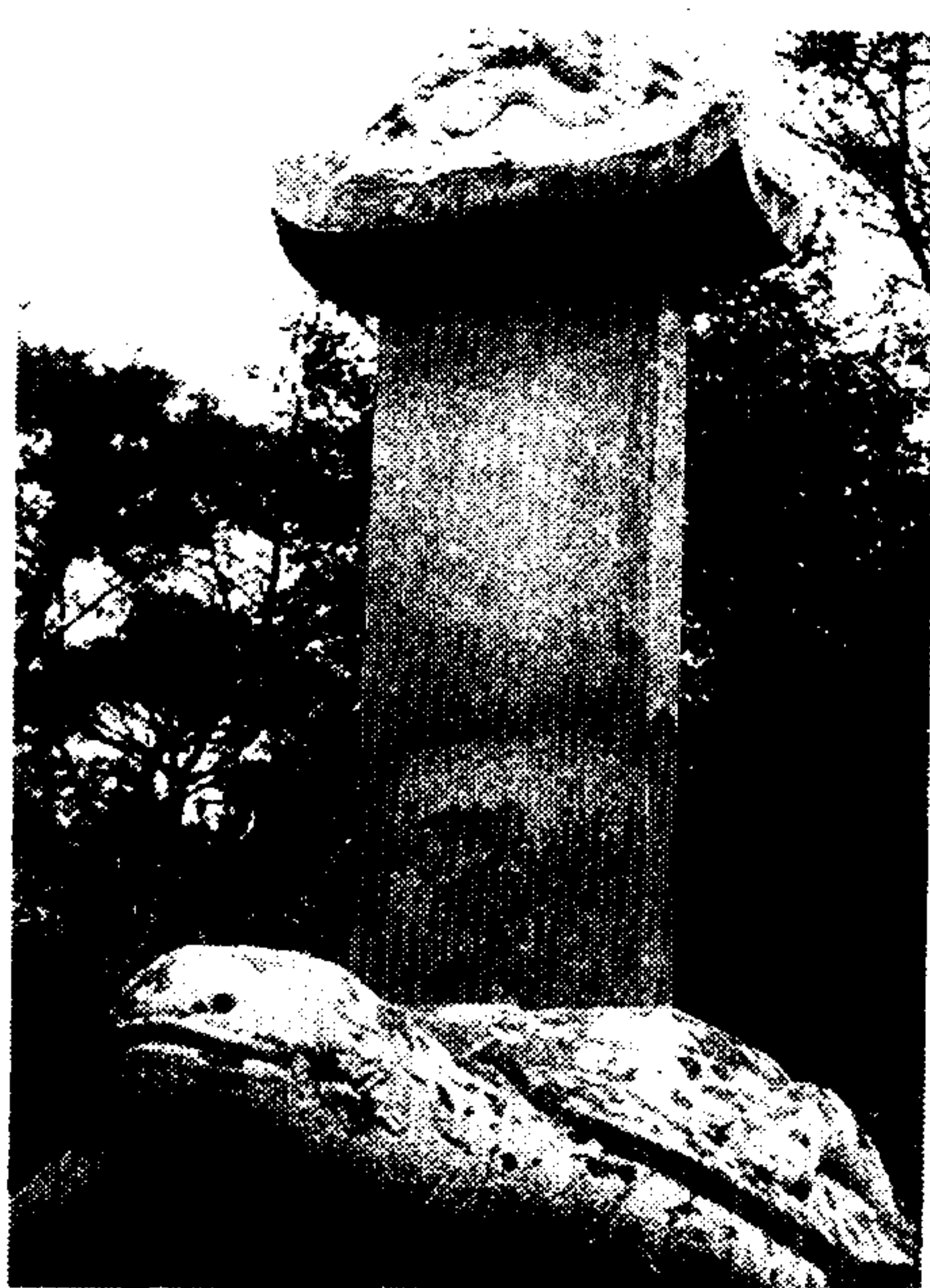


4. 鄭惟吉神道碑 (仁祖24, 1646)

사진 8. 神道碑 Ⅲ



1. 姜弘重神道碑 (顯宗11, 1670)



2. 張維神道碑 (肅宗2, 1676)



3. 柳琳神道碑 (肅宗21, 1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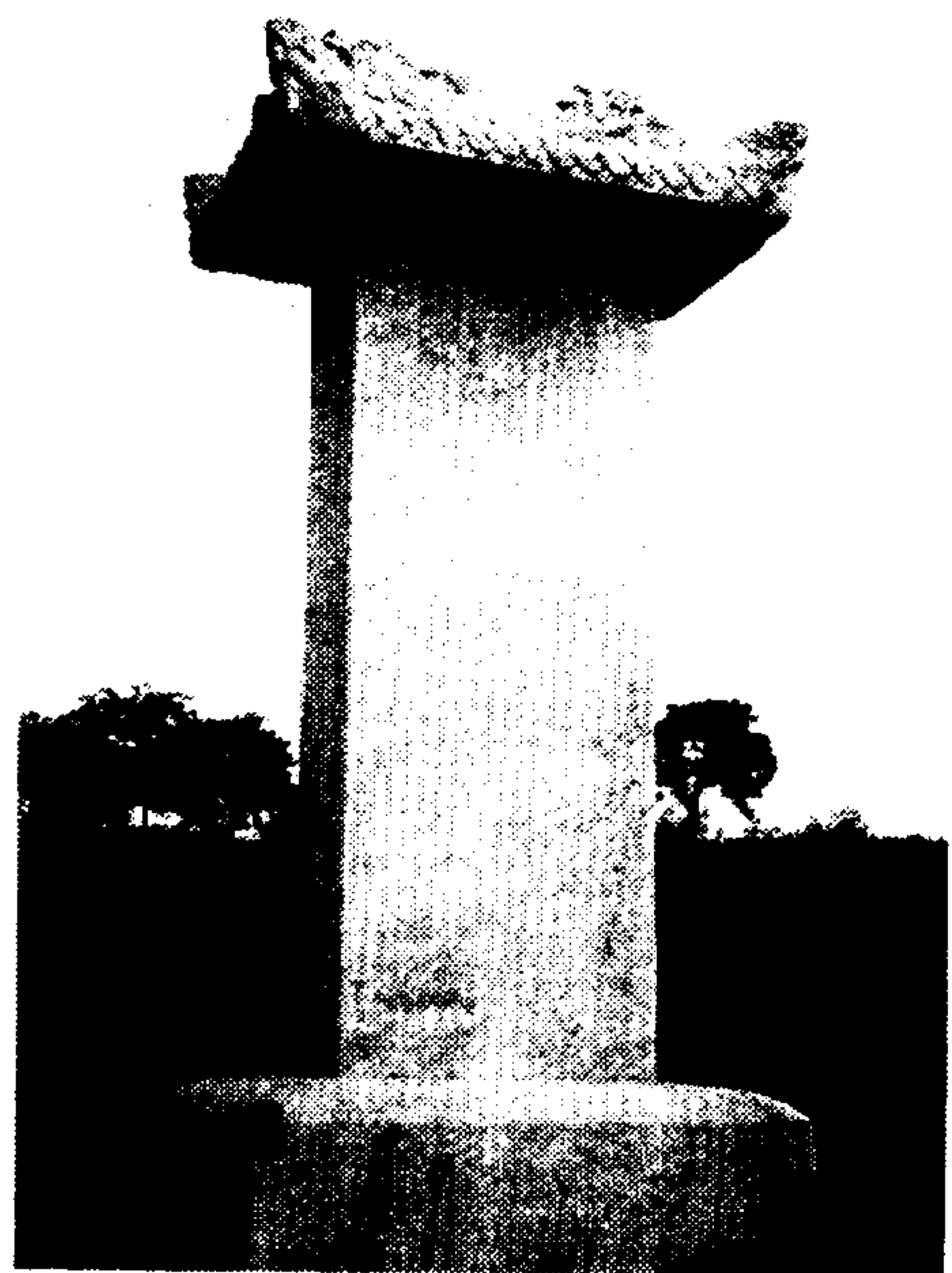


4. 朗善君李侯神道碑 (肅宗27, 1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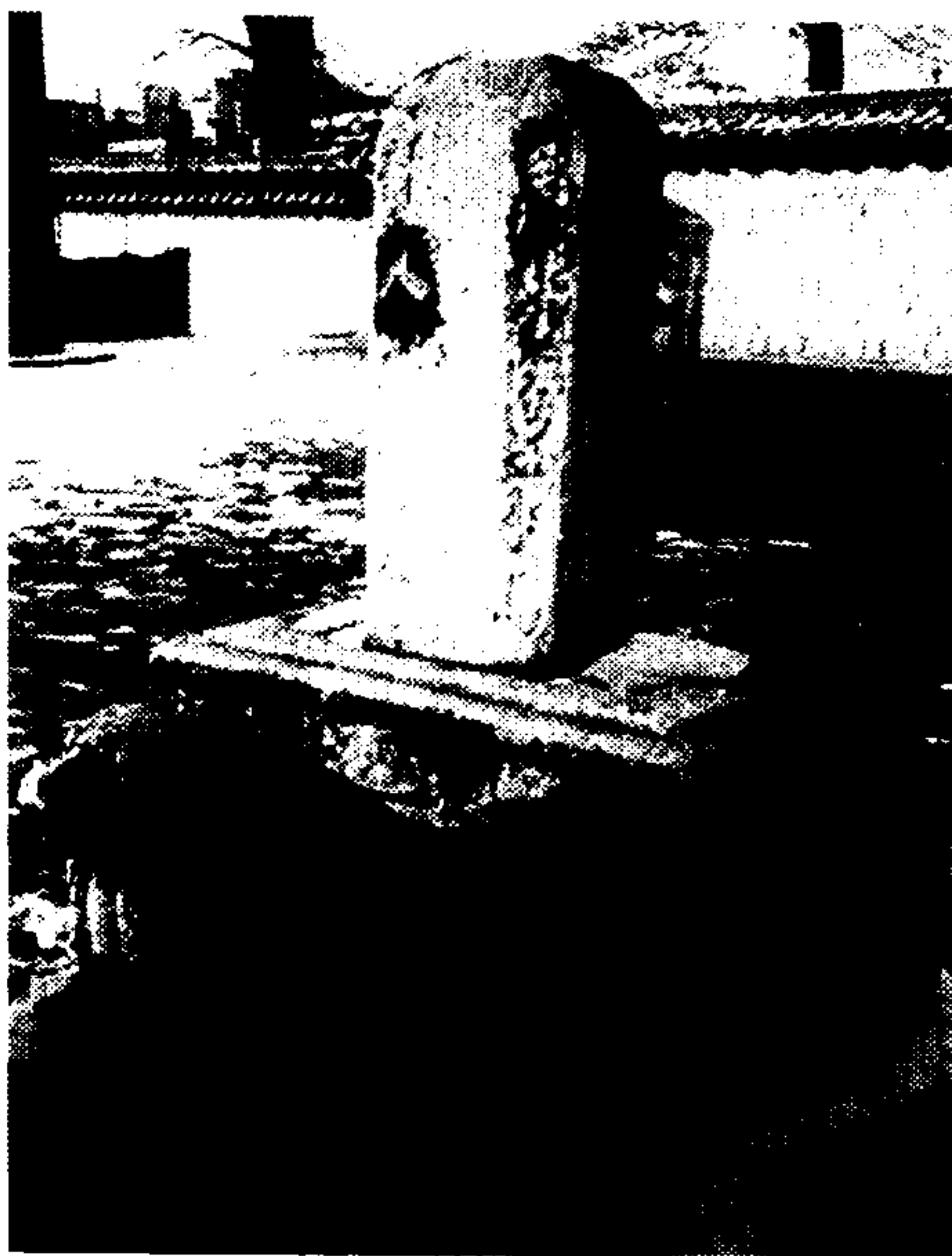
사진 9. 神道碑 IV



1. 延齡君李田神道碑 (肅宗46, 1720)



2. 金構神道碑 (英祖19, 1743)



3. 慶基殿下馬碑 (光海君6, 1614)



4. 睿宗胎室碑 (英祖10, 1734)

사진 10. 神道碑 外

<參考文獻>

1. 資料

- 《家禮源流》
- 《家禮增解》
- 《高麗史》
- 《大東金石書》 亞細亞文化社
- 《東文選》
- 《四禮纂說》
- 《三韓金石錄(外)》 亞細亞文化社
- 《朝鮮金石總攬》 亞細亞文化社
- 《朝鮮王朝實錄》
- 《坡州廉氏世譜》
- 《韓國文集叢刊》 1-160卷 民族文化推進委員會

2. 論著著

1) 圖錄, 金石文集類

- 1996, 《澗松文華》 50 韓國民族美術研究所
- 1982, 《京畿金石大觀》 1-7卷 京畿道
- 1987, 《서울金石文大觀》 1-2卷 서울特別市
- 1988, 《始興金石總覽》 始興郡
- 殷光俊, 1988 《朝鮮王陵石物誌》 民俗苑
- 鄭明鎬, 1981 《石燈・浮屠・碑》 韓國의 美⑮ 中央日報社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韓國古代金石文》 I - III卷

2) 著書

- 金基昇, 1974 《韓國書藝史》 博英社

- 金鎮孝, 1939 《儀禮備要》儀禮備要社
- 朴慶植, 1994 《統一新羅石造美術研究》學研文化社

3) 學位論文

- 권용옥, 1980 〈朝鮮王朝 文人石像의 服裝形態에 관한 研究〉聖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家庭學科 碩士學位論文
- 金成馥, 1992 〈朝鮮時代 文人石에 관한 研究:王陵을 中心으로〉弘益大學校 大學院 彫刻科 碩士學位論文
- 金洪哲, 1975 〈靈碑의 金石學的 研究〉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裴允秀, 1984 〈朝鮮時代 王陵 石獸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劉永教, 1976 〈朝鮮後期 王陵의 石人・石獸〉弘益大學校大學院 彫刻科 碩士學位論文
- 李璟珣, 1995 〈朝鮮前期 陵墓石人像 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찬우, 1985 〈朝鮮時代 文武人石에 관한 研究〉弘益大學校教育大學院 美術教育科 碩士學位論文
- 최인성, 1977 〈朝鮮王朝 王陵 武人石像의 甲冑 形態에 관한 研究〉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家庭學科 碩士學位論文

4) 論文

- 金元龍, 1959 〈李朝王陵의 石人彫刻〉《亞細亞研究》2-2 高麗大學校 亞細亞研究所
- , 1987 〈朝鮮朝王陵의 石人彫刻〉《韓國美術史研究》一志社
- , 1987 〈朝鮮朝石獸彫刻〉《韓國美術史研究》一志社
- 金九鎮, 1975 〈舊英陵 神道碑와 石物에 대하여〉《歷史教育》18 國史教育研究會
- 文明大, 1992 〈高麗・朝鮮時代의 彫刻〉《韓國 美術史의 現況》藝耕

- 李龍範, 1983 〈紺岳山 古碑에 대하여〉 《佛教美術》7 東國大學校博物館
- 李源周, 1988 〈栗谷先生神道碑銘과 그 刪改事實에 대하여〉 《韓國學論叢》15 啓明大韓國學研究所
- 李宗碩, 1977 〈우두커니 선 李朝의 武人〉 《시사》
- 李浩官, 1981 〈石碑의 발생과 樣式變遷〉 韓國의 美⑮ 《石燈·浮屠 碑》中央日報社
- 任昌淳, 1967 〈韓國의 金石과 書藝〉 《白山學報》3
- 鄭明鎬, 1981 〈韓國石燈의 概要〉 《石燈·浮屠·碑》韓國의 美⑮ 中央日報社
- 朱海濬, 1976 〈李朝 石獸彫刻이 李朝彫刻에 미친 影響〉 《建國大學校學術志》20
- 秦弘燮, 1968 〈昭陵石虎〉 《藝林》1 梨花女子大學校
- , 1975 〈特殊形式의 石碑一例〉 《東洋學》第五輯 東洋學研究所
- , 1995 〈其他石造-石人-〉 《韓國의 石造美術》文藝出版社
- , 1995 〈石碑〉 《韓國의 石造美術》文藝出版社
- 최성은, 1990 〈한국조각사연구30년(통일신라-조선)〉 《韓國美術史研究》30年: 回顧와 展望 韓國美術史學會
- 崔完秀, 1983 〈韓國美의 源流〉 35 韓國經濟新聞

5) 郡誌類

- 1987 《高陽郡誌》高陽郡

6) 外國論著類

- 伏見沖敬, 1975 《楷書 顏勤禮碑》東一文化社
- 伏見沖敬, 1976 《書藝의 歷史》上 悅話堂
- 矢島忞介, 1959 〈李朝時代の石人と石羊-博物館の石像〉 《國立博物館》112
- 1988, 《中國美術全集》建築藝術編2 陵墓建築 中國建築功業出版社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Reung-myo-bi(Royal Mausoleum
and civil grave stone : 陵墓碑)in Cho-sun Dynasty
- Mainly Kyoung-Ki province -

LEE MIN SIK
DEPARTMENT OF HISTORY
MAJOR IN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ADVISED BY YOON KYUNG RHO
IN HANSUNG UNIVERSITY

The age of Cho-sun(朝鮮) made clear that Juja Sunglihak(朱子性理學) was a national policy and Cho-sun took it as a ruling ideology and Cho-sun was a society of a noble bureaucracy system that a high official(士大夫), ruling class, ruled the peasants, the artisans and the merchants - the ruled. In funeral ceremony, a high official held a funeral and made an epitaph following filial duty(禮) based on the Book of Filial Duty(孝廉) which forms a keynote of Confucian ethics. The main method of doing filial duty in a funeral ceremony was to make an epitaph which go with the dead's social position. In doing so, Reung-Myo-Bi(陵墓碑) was thought as the best monument extolling his ancestor's virtue.

In the early stage, only high officials understood the Juja Sunglihak that they led an epitaph out. But in the reign of Sung-jong(成宗), it was changed as both Confucian scholars(士林), appearing on the world of politics, made efforts that the ideology of Juja Sunglihak came true, and two scholars, Teoigwey(退溪) and

Yulgok(栗谷) made Juja Sunglihak deeply developed Cho-sun sunglihak(朝鮮性理學)-peculiar ideology in Cho-sun now, Cho-sun sunglihak had a deep influence on Cho-sun society when it, passing the discussion on filiar duty(禮訟論爭) in Hyo·hyun-jong(孝·顯宗). Then an epitaph which only a few the advanced had made became general in every rulling class.

In the early Cho-sun, epitaphs were divided in their names to Myo-pyo(墓表), Myo-gal(墓碣) and Sin-do-bi(神道碑) and were made according to their position and status, but its name was confused because there were no uniformity in its name. So I compared the name of selected epitaph in epitapher's anthology with of real epitaph, and as a result, found that Myo-pyo-um-gi(墓表陰記), Myo-gal-myoungh-byoungh-su(墓碣銘并序) and Shin-do-bi-myoungh-byoungh-su(神道碑銘并序) were the most suitable names.

Not only high officials but also the populace could make an epitaph, but come to the reign of Hyun-jong(顯宗), the epitaph on Myo-pho and Myo-gal was so falsehood and excessive in its size that the government inspected it and punished it. Sin-do-bi(神道碑) was able to be built when one had to take more than Jong-ie-pum(從二品) after his death regardless of his real statas. This was moral duty based on Sa-ma-goang's anthology(司馬光의 品數別 廣記) found on various kinds of books on filial duty. So they were not punished legally even if they violated this. About a royal tomb, after Gun-one-reung(健元陵), they built Sin-do-bi(神道碑), but from the reign of Mun-jong(文宗), sin-do-bi(神道碑) was substituted for Reung-pyo(陵表) by reason that king's achievement was kept on Guk-sa(國史).

In early and middle Jo-sun, many styles were used, but the most favorately used style was Bi-zya-li-su(碑座螭首). From late 18th,

style of Bi-zya-gae-suk(碑座蓋石) was only used and it was representative of style of Cho-sun epitaph. Un-yong-mun(雲龍紋) is representative of Li-su(螭首), but Lisu was often used in Un-mun(雲紋) and Ha-yup(荷葉), and Li-su was occasionally used in Ju-jak(朱雀) or Gi-rin(麒麟). Gui-bu(龜趺) were mainly used in a royal tomb or in Sin-do-bi(神道碑) of a minister. Early times, it was realistic but gradually got decorative. In Bi-zya(碑座), on four side's shapes of eyes and flowers were inscribed and on upperside, mainly Bok-ryun(覆蓮).

Gae-suk(蓋石) appeared a simple shape of roof in early times, but gradually changed decorative. Come to the reign of Jung-Jong(中宗) and Young-jo(英祖), it was influenced by Myoung-Sip-Sam-reung(明十三陵) and it appeared very realistic and gorgeous. But since the reign of Jung-jo(正祖), this trend was backward and a function was emphasized. Then simple and clear Gae-suk(蓋石) became a main current. All of changes appeared on Myo-pyo(墓表), Myo-gal(墓碣) and sin-do-bi(神道碑).

According to the suggested list, Sin-do-bi(神道碑) had the most quantity and Myo-pyo(墓表) Myo-gal(墓碣) in order. But the supplement of data might make Myo-pyo(墓表) the most quantity because the system of Myopyo(墓表) was the most economical.

In the size, Sin-do-bi(神道碑), Myo-gal(墓碣) and Myo-pyo(墓表) were in order.